

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Vol. 43

2024. 2

CONTENTS

The Political System of Daegaya Based on Ancient Tombs
and the Building Group of the Ancient Tombs of Bongwan-ri

Lee, Dong-Hee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3rd~6th Century Settlements in the downstream of Dong-
cheon, Gwangyang

Lee, Gi-Gun

Restoration Production and Review of Knives with Decorated
excavated in Songje-Ri, Tomb No1, Naju

Yi, Gun-Ryoung · Kang, Min-Jung

The Appearance and Development of Metal Container in Silla
Ancient Tombs

Bang, Min-Hee

Reconstructing the Function and Role of Okcheon Yiseong
Fortress Using GIS

Kang, Dong-Seok

A Study on the Earthen Fortress of Gayari, Haman

-Focused on the Construction Techniques and Structures-

Kim, Hyun-Bong

中央考古研究

第 43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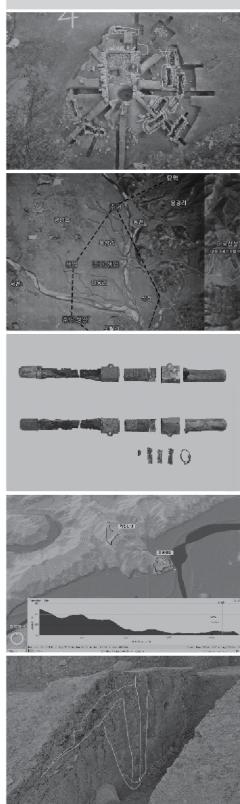
2024. 2

中央考古研究

第 43 號 | 2024. 2

연구논문

- 고분을 통해 본 대가야의 정치체제와 본관리 고분군의 축조집단 | 이동희
- 광양 동천하류역 3~6세기대 취락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 이기건
-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 재현품 제작과 의의 | 이건용 · 강민정
- 신라 고분 부장 금속용기의 등장과 전개 | 방민희
- GIS를 이용한 옥천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 재구성 | 강동석
- 함안 가야리 토성 소고 | 김현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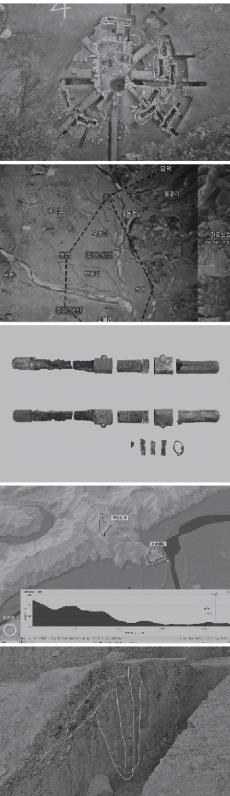


中央考古研究

第 43 號 | 2024. 2

연구논문

- 고분을 통해 본 대가야의 정치체제와 본관리 고분군의 축조집단 | 이동희
광양 동천하류역 3~6세기대 취락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 이기건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 재현품 제작과 의의 | 이건용·강민정
신라 고분 부장 금속용기의 등장과 전개 | 방민희
GIS를 이용한 옥천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 재구성 | 강동석
함안 가야리 토성 소고 | 김현봉





중앙고고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성정용(충북대학교)

위원 권오영(서울대학교)

김범철(충북대학교)

성형미(동양대학교)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

조윤재(고려대학교)

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高田貫太(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간사 오준혁(중앙문화재연구원)

정수진(중앙문화재연구원)

中央考古研究 -第 43 號-

인쇄일 2024년 2월 23일

발행일 2024년 2월 28일

발행 중앙문화재연구원

인쇄처 현대옵셋인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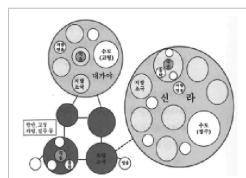
주소 본원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삼평동) 서건타워 904호
tel. 031-708-8001 fax. 031-708-8010

대전사무소 3402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7로 32-9(용산동)
tel. 042-933-2700 fax. 042-933-7300

홈페이지 www.jungang.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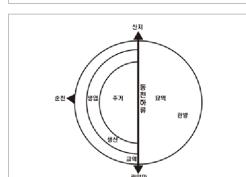
中央考古研究

第 43 號 | 202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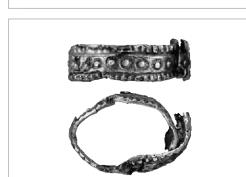
- 고분을 통해 본 대가야의 정치체제와 본관리 고분군의
축조집단 1

이 동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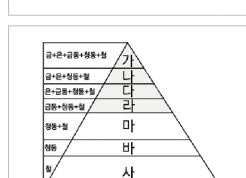
- 광양 동천하류역 3~6세기대 출락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33

이 기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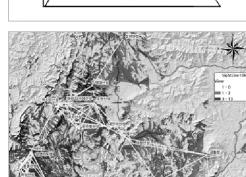
-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 재현품 제작과 의의 71

이 건 용 · 강 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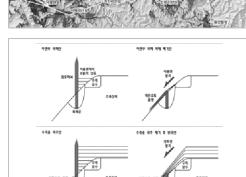
- 신라 고분 부장 금속용기의 등장과 전개 103

방 민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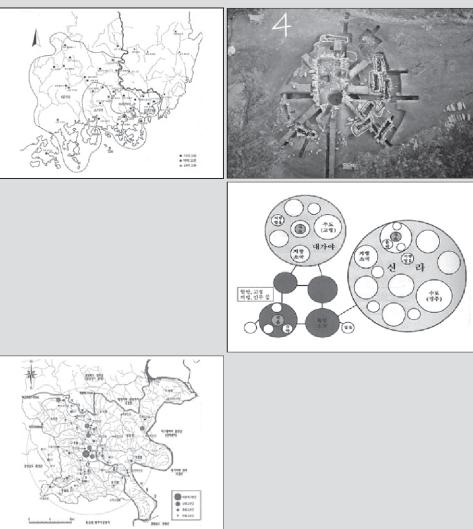
- GIS를 이용한 옥천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 재구성 131

강 동 석



- 함안 가야리 토성 소고 165
- 축조기법과 구조를 중심으로 -

김 현 봉



고분을 통해 본 대가야의 정치체제와 본관리 고분군의 축조집단

The Political System of Daegaya Based
on Ancient Tombs and the Building Group
of the Ancient Tombs of Bongwan-ri

이 동 희

인제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I. 머리말

II. 대가야의 정치체제

III. 대가야 권역 고총체계와 본관리 고분군 축조집단

IV. 대가야 왕도 방어체계와 본관리세력의 위상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고는 대가야 전성기인 5세기 후반~6세기 전반대를 중심으로 대가야의 정치체제와 사회구조, 그리고 고령 본관리 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대가야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지역연맹체론과 고대국가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대가야 통제하의 지방 수장의 고분 규모나 위세품은 고령 세력과 유기적인 관련을 보이는 점에서 대가야 고대국가론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문헌 내용을 고려하면 대가야연맹체론도 무시할 수 없다. 즉, 대가야영역 내에도 고령 중심의 왕도 직할지(上部), 下部로 추정되는 인근의 합천댐수몰지구(합천 봉산면 일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면서 대외 교섭창구인 섬진강하구의 하동지역(帶沙) 등은 직접지배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자치권이 강해 대외적으로 國名이 남아 있는 다수의 간접지배 권역 혹은 연맹체의 일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령 가라국에서의 거리에 따라 동맹의 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고령에서 가장 거리가 먼 호남동부지역의 임나사현이나 기문의 경우 자율성이 더 있었을 것이다. 신라, 백제와 달리 대가야의 소속국에 대한 간접지배 강도는 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대가야 권역내에는 아직 자치권이 강해 국명을 유지한 다수의 소국들이 있었고, 이는 백제, 신라권에서 국명을 유지한 소국들이 희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대가야가 백제, 신라에 비해 사회발전단계가 늦어 고대국가로 가는 길목에 있었고 초기국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을 시사한다.

대가야 왕도에 속한 고령 본관리 고분군의 구조적 특징이나 위세품은 대가야 권역 내 지방 수장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면도 일부 보인다.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야 왕경에서 지산동 고분군 일대를 제외하고는 고총의 규모나 위세품에서 가장 상위의 고분군이다.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야 왕경의 북쪽에 자리하는데, 입지 · 출토유물로 보아 대가야 왕경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유력집단으로 파악된다. 본관리세력은 5세기 후반 이전에는 고령지역 읍락의 핵심취락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가야가 성장하면서 왕도 내 방어를 전담하는 유력세력으로 자리매김하였을 것이다. 본관리세력은 신라 통제하의 성주 방면 및 낙동강 방어선을 통괄하는 왕도방위사령부 역할을 하였을 것이므로, 대가야 왕권이 특별히 중시한 집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주제어 :고분, 대가야, 정치체제, 본관리, 왕경 방어

I . 머리말

본고는 대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대가야의 정치체제와 사회구조, 그리고 본관리 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이 시기는 대가야의 전성기이면서 신라의 급성장에 따라 국방이 중요한 때이다. 특히, 대가야 중심부인 왕도의 사회구조와 방어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대가야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단일연맹체론, 지역연맹체론, 고대국가론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최근에 주로 논의되는 지역연맹체론과 고대국가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야사 연구는 문헌이 빈약하여 고고자료를 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는데, 본고는 대가야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고대국가론과 지역연맹체론의 경계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대가야는 5세기대에 급성장하는데, 경남서북부권 뿐만 아니라 호남동부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한다. 대가야 권역 내에서는 고분의 구조나 위세품, 토기 등에서 동질성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대가야 권역 내에서 직접지배, 간접지배, 상하 연맹관계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가야 왕도에 속한 고령 본관리 고분군의 규모 · 구조적 특징 · 위세품 등을 대가야 왕도 및 지방 수장층 고종과의 비교를 통하여 본관리 고분군 축조세력의 위상과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5세기 후반 이후에 주로 축조된 본관리 고분군 세력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왕도 내 방어체계 내에서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할 것인데, 왕경 방어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대가야에서 5세기 후반 대 이후에 성곽이 본격적으로 축조되면서 방어체계가 성립된 배경을 신라의 서진과 관련지어 검토하고자 한다.

II . 대가야의 정치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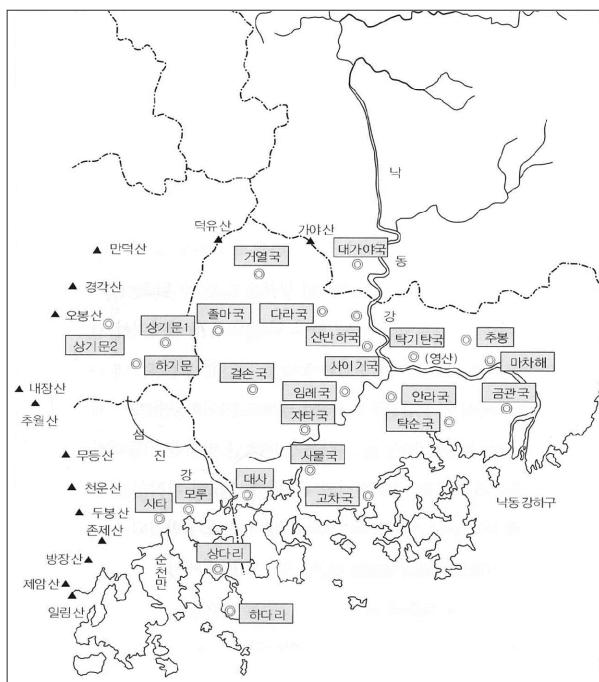
최근 연구 경향을 보면, 대가야의 정치체제는 대가야연맹론(지역연맹체론)과 고대국가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고대국가론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주로 논의되고, 문헌사학자들은 대가야연맹론을 옹호하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성과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대가야연맹론(지역연맹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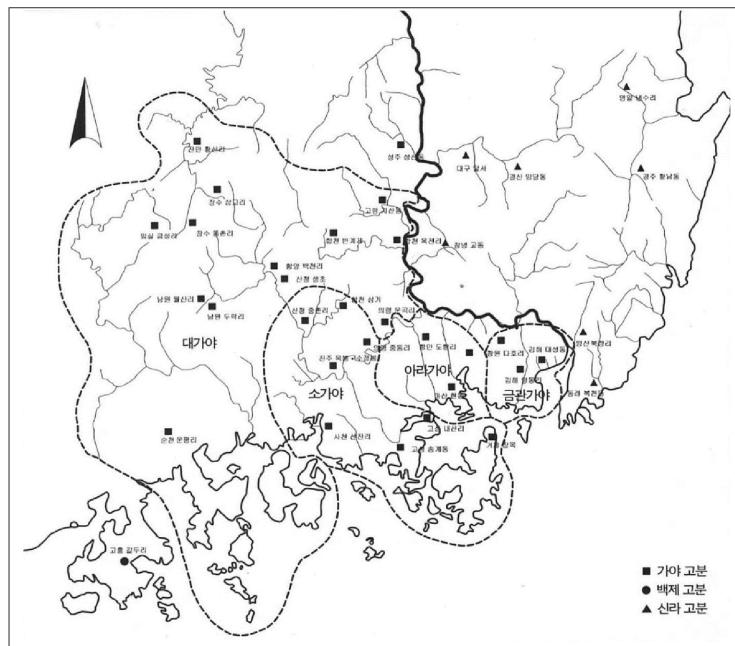
田中俊明(1990)에 의해 처음 거론된 대가야연맹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가라국(대가야) 왕 하지의 대 남제 교섭의 경로상에 있는 소국들은 우륵 12곡에 나오는 國名들의 소재지이고 이 소국들이『梁書』백제전의 傍小國 기사나『日本書紀』의 임나부흥회의 관계 기사에서 거론된 것으로 보아 각국은 독립적이므로(그림 1)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가야의 중심인 고령 세력을 중심으로 우륵 12곡에 거명되는 소국이 대가야 연맹에 가입한 國名이라는 것이다. 田中俊明은 대가야연맹 경계의 하한을 남강으로 보고, 그 이남의 安羅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을 대가야연맹과 다른 정치체로 보았다.

한편, 백승충(1992)은 가야 전체를 단일연맹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복수의 지역연맹으로 구분하였다. 즉, 가락국(금관가야) · 가라국(대가야) · 안라국(아라가야) 등 3~4개의 다수 정치체가 주도가 되어 독자적인 지역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가라국(대가야)을 중심으로 보면, 가라국과 주변 가야제국의 관계를 동일한 정치권역으로 설정하고 위세품의 사여와 지배층 고분의 위계화를 통하여 소속국들을 통제하였다고 보았다.

아울러, 대가야의 제의문화를 소속국들에 파급시켜 일체성을 강조하는 대가야동맹은 고령세력을 맹주국으로 다양한 지역 정치체들이 존재한 권역으로 파악하였다(백승충 2005: 32~37). 대가야양식의 묘제, 유물 등 고고자료의 지역성(그림 2)이 지역연맹체 설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림 1] 문헌사에서 본 5세기 후반~6세기 초 가야의 여러 나라(김태식 2002)



[그림 2] 고고자료로 본 5세기 후반 가야 여러나라의 권역(박천수 2010)

2. 대가야국가론

대가야 고대국가론은 연맹의 단계를 넘어 여러 소국을 통합한 영역국가에 이른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주로 고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희준은 고령양식토기(대가야토기)의 확산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즉, 대가야양식 토기가 고령-합천(서부)-거창-함양-산청(북부)-남원(동부)-장수 등지로 확산되는 것에 주목하여, 고령세력이 주변 여러 지역과 간접지배-직접지배 관계를 맺으면서 상하 연맹(5세기 전반)에서 영역국가(5세기 후반)로 발전했다는 것이다(이희준 1995: 409~442).

한편, 김세기는 대가야가 5세기 중후반에는 고대국가체제를 이루한 것으로 보았다. 즉, 왕권의 세습, 部체제를 통한 지방조직의 성립, 首位制에 보이는 중앙관제, 고령지역 이외에 경남 서북부 및 호남동부지역에 이르는 영역, 신라·백제에 군사 파견, 남제로부터 작위 수여, 금관 사용, 대왕명 토기,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에서 유추되는 불교 수용 등으로 보면 50~60년 정도이지만 모호한 연맹왕국이 아니라 고대국

가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파악하였다(김세기 2003).

그리고, 박천수는 대가야가 5세기 전엽 이후에 합천·장수·남원 등 고령 서남쪽 지역 수장들과 정치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황강·남강·섬진강수계를 넘어 남해안의 항구인 하동으로 가는 반월상의 교역루트를 개척하고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영역 지배를 실시하는 등 고대국가였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30인 이상의 순장이 확인된 지산동 44호분의 피장자는 대가야의 최고 수장으로서 휘하의 여러 정치체의 수장 충들을 계층적으로 편성하여 대가야권역을 통치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479년에 대가야의 하지가 남제에 견사하여 받은 '보국장군 본국왕'이라는 작호, 대가야 양식 장경호에 '大王'이라는 명문의 존재 등도 대가야가 고대국가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박천수 1996: 377~402).

3. 대가야 정치체제의 재검토

대가야국가론을 제창한 이희준은 대가야연맹론(田中俊明 1990)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즉, "고령토기양식의 확산 자체가 연맹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정치적 상하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성립할 수 없다. 만약, 고령 토기 양식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지역들이 그저 고령을 맹주로만 하는 연맹이라면 왜 하필 일방적으로 고령 토기 양식만이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의문을 풀 수가 없다. 고령 이외 지역에서 고령양식토기가 지속적이면서 일색으로 부상되는 지역은 합천, 거창, 함양, 산청 북부(생초), 남원 동부(운봉고원), 장수, 하동, 순천 등지이다. 고령지역과 연맹 같은 관계가 아니라 그 지배하에 들어갔던 지역들로 파악된다. 신라의 지방들과 흡사하게 대가야의 간접지배와 함께 고령토기양식이 유입되고 고총군이 축조되기 시작한 대가야국가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이희준 2016: 59~62).

이희준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하였다. 즉, "초기국가¹⁾에 해당하는 대가야의 경우, 지방 각지의 수장들이 정기적 공납 이외에 대가야 왕의 상장의례 기간 중에 조문을 하면서도 공납물과 막대한 부의 물품을 고령지역으로 보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 물품이 고령지역 지배 집단의 정치·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고 이는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대규모 고총 고분군을 축조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

1) 초기국가는 후내 율령을 가진 고대국가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사회구조에서는 같은 통합단계를 가진 국가로 파악된다(김용성 2015a: 163).

가야 영역 내 소속국의 고총들에서 확인되는 대가야식 금제이식과 토기들²⁾은 貢納制 지배가 실시되었음을 암시하는 간접 증거이다.”라고 주장하였다(이희준 2016: 355).

대가야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문헌자료가 있는 고구려와 옥저 등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3세기대 『三國志』에서는 동옥저와 읍루를 ‘國’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두 종족집단이 大國인 고구려, 부여에 예속되어 貢納을 바치던 ‘小國’이라는 의미이다. 2~3세기 고구려는 동옥저를 臣屬시키고 大人을 통해 해당 지역을 간접지배하였다. 그리고, 고조선 시기에 豺國도 대국인 고조선에 예속되어 있던 소국의 종족사회라고 볼 수 있다(박대재 2023: 37~40).

이처럼, 토착 우두머리를 통한 간접지배(貢納制 支配) 당시에 국명이 나오는 경우는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이다. 다만, 중심국과 소국 사이의 상호 관계는 거리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지배의 강도가 달랐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가야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문헌사에서는 대가야연맹론에, 고고학계에서는 대가야국가론에 치우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가야시대는 역사시대이므로 문헌사를 도외시할 수 없다. 즉, 6세기대에도 국명이 남아 있는 사례를 고려하면 단정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

필자는 고령의 대가야 왕도 및 고령과 가까이 있는 지역(합천 반계제유적 등 합천 댐수몰지역)이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하동(대사)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지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가야에 의한 간접지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다만, 대가야 중심지에서의 거리에 따라 간접지배의 강도는 달랐을 것이다. 예컨대, 고령에서 거리가 가장 먼 남원이나 순천세력을 거론할 수 있다. 즉, 기문으로 추정되는 남원 두락리 고분군에서는 대가야계 유물 뿐만 아니라 백제계 위세품들도 다수 확인되어 자율성이 뚜렷하다. 한편, 순천 운평리 고분군, 특히 2호분은 대가야계 위세품과 토기들이 다수 확인되고 대가야계 순장곽이 확인되지만 주 매장주체부는 송학동유형의 횡혈식석실분이라는 점에서 자율성이 돋보인다(그림 3).

간접지배 혹은 상하연맹관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동맹의 구성국 가운데 변방에 자리한 정치체들은 원심력이 작동하여 주변 여러 세력과 교섭이 이루어 졌을 것이다. 예컨대, 기문으로 추정되는 남원 운봉세력은 대가야계 묘제(‘11’자식 주부곽)와 금제수하부이식 외에 다수의 대가야토기류가 출토되어 대가야권역에 속

2) 금제이식은 대가야 왕도 고령의 지배층이 지방 각지 수장층의 생전에 그 지위를 인정하는 표식으로서, 토기는 수장층의 장례 무렵에 부의품으로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이희준 2016: 381).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원 운봉세력은 백제와의 교섭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높은 자율성, 자유로운 외교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남원 운봉고원의 월산리 5호분 출토 초두와 청자계수호, 두락리 32호분 출토 청동거울과 금동제신발은 백제와의 교섭을 통해서 부장된 것으로 파악된다.³⁾ 기문이 대가야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백제를 통해 백제 및 중국계 위세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가야연맹을 구성하는 정치체 가운데 일부는 가라국과의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될 때에는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심지어 이탈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백진재 2020: 137~153).

그리고, 5세기 말~6세기 초에 대가야에 속해있었다고 파악되는 임나사현(任那四縣)이 백제에 영역화되었을 때 대가야의 큰 반발없이 백제에 편입됨은 대가야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었고 대가야와의 동맹의 결속력이 여타 동맹국들에 비해 약했음을 의미한다. 고고자료로 보아도, 임나사현 가운데 ‘사타’의 지배층 고분군인 순천 운평리 M2호분은 대가야식 위세품과 토기들이 다수 확인되지만, 주 매장주체부는 고령 양식의 세장방형 수혈식석곽묘가 아닌 송학동유형의 횡혈식석실묘(그림 3-左)라는 점에서 자율성이 높다고 하겠다(이동희 2014: 328~368). 순천 운평리 고분군의 경우 대가야 양식 유물의 존속기간이 1~2세대 정도로 짧고, 금제이식도 대가야양식 뿐만 아니라 신라 양식 이식이 공반되었다는 점(그림 3-右)에서 대가야 변경지에서의 자율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게다가, 순천지역 출토 대가야토기는 현지에서 생산된 토기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대가야 중심인 고령과의 거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이한상 2019: 301~305).



[그림 3] 순천 운평리 M2호분 및 출토유물(이동희 2014)

3) 6세기 전엽에 백제 주변 소국으로 叛波, 卓, 多羅, 前羅, 斯羅, 止迷, 麻連, 上已文, 下枕羅 등이 있어서 백제에 부용한다는 기록이 있다(『梁職貢圖』百濟國使傳).

요컨대, 대가야영역 내에도 고령 중심의 왕도(上部), 下部로 추정되는 인근의 합천댐수몰지구(합천 봉산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섬진강하구의 하동지역(대사)⁴⁾ 등은 직접지배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자치권이 강해 대외적으로 國名이 남아 있는 다수의 간접지배 권역 혹은 연맹체의 일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언하면, 대가야 왕도의 지배층 고분군인 지산동 고분군은 그 규모가 여타 지방 수장층보다 탁월한데 비해 인근에 下部로 추정되는 합천댐수몰지구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섬진강 하구의 하동 등 거점지역은 6세기 이후에 고총이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 대가야의 직접지배권역으로 파악된다.⁵⁾ 대가야는 신라·백제에 비해 직접지배권역이 상대적으로 좁고 통제력도 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라·백제와 비교하여 위세품 사여의 질과 양에서 차이가 보인다. 대가야의 위세품 사여에 대해서는 금제이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가야 양식 금제이식은 고령(지산동) 외에 합천(옥전·반계제), 함양(백천리), 산청(평촌리), 진주(중안동), 고성(율대리), 창원(다호리), 순천(운평리), 남원(월산리), 장수(봉서리) 등 여러 지역에서 출토된다. 중심연대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이다. 대가야 양식 금제이식은 대가야 양식 토기와 공반하는 경우가 많고 공반하지 않더라도 공반하는 무덤에 인접해 있다(박천수 2006; 이한상 2019). 이러한 이식 분포권을 대가야의 영역으로 치환하기는 어렵지만 대가야 양식 토기와의 조합관계를 고려할 때 영역은 아니더라도 세력권으로 묶어볼 여지는 충분하다. 이식이나 장식대도 등 대가야 양식 금공품의 제작지를 대가야로 보고 소유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대가야의 성장과 관련지어 해석한다면 그 중심에 위치하였을 대가야 왕은 금공품 사여 주체가 되었을 것이다. 479년 남제에 견사한 가라왕, 481년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백제와 함께 참전하여 신라를 도운 가야의 왕, 법흥왕대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은 가야 국왕은 대가야 왕을 지칭하므로 외교와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통합된 왕권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금속장신구로 보면 백제나 신라에 비해 대가야의 왕권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가야의 금속장신구는 관복의 부품이라기보

4) 하동 홍릉리 고분군의 경우, 대가야계 토기류는 다수 출토되지만 토착 수장의 고총이 확인되지 않아 대가야의 직접지배권역으로 파악된다(박천수 2006).

5) 6세기 1/4분기가 되면 가라가 기존의 간접지배 영역 중 고령과 가까운 지역을 직접지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합천 봉산면 반계제 고분군의 경우, 중대형 고총을 가진 수장층의 묘가 이 무렵부터 축조되지 않으므로 이 지역이 가라의 직접지배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이희준 2016: 261).

다는 신체를 장식하는 장신구로서의 기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공품을 사여하여 각 지역 세력을 지방지배체제에 편입시키고 그들을 매개로 국가의 권력을 관철하는 지배방식이 대가야에도 존재한 것 같으나 백제와 신라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것 같다. 즉 연맹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호관계의 징표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한상 2019: 301~305).

요컨대, 대가야 권역내에는 아직 자치권이 강해 국명을 유지한 다수의 소국들이 있었고, 이는 백제, 신라권에서 국명을 유지한 소국들이 희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대가야가 백제·신라에 비해 사회발전단계가 늦어 성숙한 고대국가로 가는 길목에 있었고, 초기국가⁶⁾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을 시사한다.

III. 대가야권 고총체계와 본관리 고분군 축조집단

1. 대가야권 고총체계

대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 후반~6세기 전엽의 대가야의 왕도인 고령과 대가야 산하 수장층의 주요 고총의 특징을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가야 왕도인 고령지역 고총의 특성은 주곽과 부곽, 순장곽으로 구성되고, 부곽·순장곽의 유무와 순장곽의 수는 피장자의 위계와 관련된다(그림 4). 주곽과 부곽의 배치는 'T'자형에서 '11'자형으로 변화하고, 순장곽은 계층에 따라 1기부터 수십기가 주곽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대가야에서는 유물을부장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부곽이 상위 계층의 고총에서 발견되지만, 상대적으로 더 하위의 고총에서는 부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많다. 하지만, 순장곽은 최고 위계의 고총 및 일부를 제외한 차상위의 대형분에서 다수 확인된다(김용성 2015a: 359~361).⁷⁾

6) 김대환은 기존에 연맹체, 연맹왕국, 부체제 등의 정치체제를 초기국가로 정의하면서 소국-초기국가-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발전과정을 설정하였다(김대환 2012: 60~63). 대가야보다 사회발전단계가 이른 신라도 6세기 전엽이 되어서야 지방에 대한 직접지배가 확대되어 성숙한 고대국가로 발전해 나갔던 것을 감안하여(박대재 2013: 267) 대가야의 정치체제를 유추해야 할 것이다.

7) 대가야권에서 순장곽의 유무는 왕도에 소재한 지산동 35호($6.66 \times 1.01 \times 1.56m$)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개 매장주체부·길이 5m를 경계로 한다.

[표 1] 5세기 후반~6세기 전엽 대가야권 주요 고총의 비교(김용성 2015a: 360 일부 인용)

| 고분명 | 봉토 규모(m) | 주부곽 배치 | 순장곽 배치 | 순장 곽수 | 주곽 규모(m) | 주요 출토유물 | 비고 |
|------------|-----------|-----------|--------|-------|--------------------------|---|----------------|
| 고령 지산동 44호 | 27×25 | '11'+T'자형 | 'ㅁ'자 | 32 | 9.4×1.75×2.1 | 복발형투구, 금제이식, 청동합, 마구 | 왕묘 |
| 고령 지산동 45호 | 28×25 | '11'자형 | 'ㅁ'자 | 11 | 7.15×1.6×1.85 | 금동관, 마구류, 금제이식, 유리경식 | 왕묘 |
| 고령 본관리 34호 | 지름 11.8 | | 평행 | 1 | 6.0×1.0×1.2 | 축소모형철기, 물미, 금제이식, 유리옥 | |
| 고령 본관리 35호 | 지름 15.5 | | 평행 | 1 | 8.2×1.1×1.5 | 철지금동제소찰, 철모, 교구, 축소모형철기 | 왕도 차상위 지배자/ 귀족 |
| 고령 본관리 36호 | 지름 18.5 | | 평행 | 1 | 10.1×1.4×1.8 | 축소모형철기, (소)환두대도편, 미늘(갑옷) /재갈, 은장십자형장식(마구), 금제이식, 유리옥(순장곽) | |
| 합천 반계제 가A호 | 16×13 | | 평행 | 1 | 6.4×1.3×1.7 | 성시구, 환두대도, 금동투구, 마구류 | 지방 수장 |
| 합천 반계제 가B호 | 지름 7 | | 無 | | 4.0×0.8×1.15 | 철모, 철촉, 꺾쇠 | |
| 합천 반계제 디A호 | 15.6×12.5 | | 평행 | 1 | 5.5×1.2×1.7 | 마구류, 대도, 은제이식, 기꽃이 | 지방 수장 |
| 함양 백천리 1호 | 지름 15 | | 평행 | 1 | 7.3×1.2×1.7 | 마구류, 화살통, 환두대도, 금제이식 | 지방 수장 |
| 함양 백천리 2호 | ? | '11'자형 | 無 | | 6.5×1.9~2.5×1 | 철모, 대도, 마구류 | 지방 수장 |
| 남원두락리 32호 | 21×17.4 | '11'자형 | 無 | | 7.3×1.3×1.8 | 축소모형철기 | 지방 수장 |
| 순천 운평리 2호 | 지름 18 | | 'ㅁ'자 | 6 | 5.2×2.5×0.8(잔존) 횡혈식석실 | 금제수하부이식, 마구류, 유자이기 | 지방 수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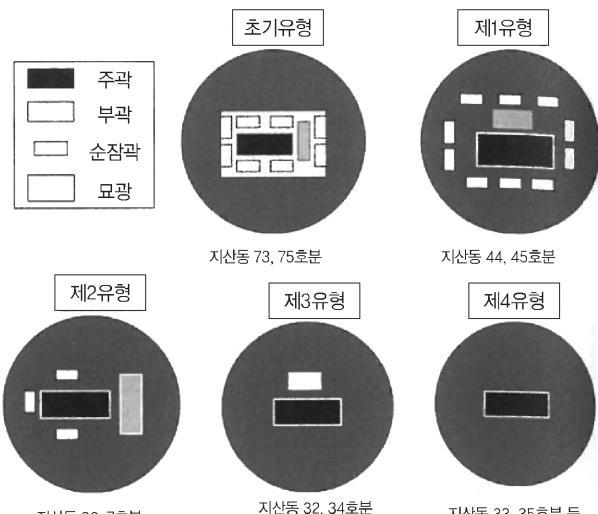
이처럼, 대가야권에서 부곽의 존재는 특별하여 왕도인 고령의 왕묘에서 주로 확인되지만, 드물게, 지방의 수장급 고총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즉, 함양 백천리 2호와 남원 두락리 32호분의 '11'자형 부곽이 그 예이다. 하지만, 백천리와 두락리의 경우는 순장곽이 없이 부곽만 존재하여 대가야 지방권 수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한편, 순천 운평리 2호분의 경우는 대가야권 지방에서는 특이하게 6기의 순장묘가 주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ㅁ'자형으로 돌아가 지산동 44·45호분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곽이 없어 대가야 중앙의 왕묘와는 차별성이 보인다.

부언하면, 운평리 M2호분은 대가야 고총체계에서 약간의 이질성이 보인다. 즉, 대가야 지방의 수장층 고분에서는 순장곽이 1기인 것이 일반적인데, 운평리 2호분의 경우, 순장묘 6기와 배장묘 6기가 확인된 것이다. 배장묘는 소가야권에서 일반적으

로 보이는 매장풍습이다. 그리고, M2호분의 매장주체부가 대가야식의 세장방형 수혈식석곽묘가 아니라 소가야권에서 다수 보이는 송학동유형의 횡혈식석실분이다(그림 3). 이는 대가야권에서 가장 변경이면서 소가야와 해로로 연결된 순천세력은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독자성이 더 강하였다고 보여진다. M2호분에서는 대

가야식 금제이식 이외에도 신라양식의 금제이식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이렇듯, 순천 운평리, 남원 두락리, 함양 백천리 등의 고분군에서의 주매장주체부·부곽·순장곽은 대가야 중앙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가야 변경지역에서의 자치권과 일정한 자율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림 4] 대가야 고총의 묘곽 배치 모식도(김용성 2015a)

2) 지산동 44·45호분과 본관리 34~36호분이 축조되는 단계에 대가야 고총의 위계는 주·부곽 주위로 순장묘가 돌아가는 1, 2유형이 최상층이고, 그 아래로 주곽과 순장곽 1기가 평행한 3유형이 차상위 지배층으로 볼 수 있다(그림 4). 이러한 유형 분류는 고분의 규모와 연계되어 위계 차이로 볼 수 있다. 최상위의 1·2유형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국한되고, 다음 위계로 3유형이나 순장곽이 없이 주부곽이 보이는 사례로 고령 본관리, 남원 두락리, 함양 백천리, 합천 반계제 등의 유적이다. 대가야 왕도 내부에서는 위계가 분화되어 있었고, 대가야권 여러 지방의 지배 집단은 그 내부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김용성 2015a: 380~381).

이와 같이, 대가야 전성기에 대가야권의 수장층 사이에도 ‘대왕’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최고 지배층을 정점으로 왕도 내 차상위 지배층인 본관리 고분 피장자 및 지방 왕묘인 함양 백천리·남원 두락리·합천 반계제·순천 운평리 등의 세력들이 그

다음의 위계를 보이는 대가야권 고총체계를 상정할 수 있겠다. 다만, 대가야권역의 가장 변경인 순천 운평리 유적 등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보여 대가야 주변부에서의 지역성과 자율성이 보인다.

한편, 고령 본관리 고총의 피장자는 왕도 내의 지산동 고분군보다 낮은 위계이지만 대가야 지방 왕묘에 준하는 신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관리 36호분(그림 7)은 지산동 44호분보다 더 긴 주곽 규모, 통형기대, 주곽이 아닌 순장곽에서의 금제수하 부이식 등으로 보면 대가야 지방 수장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장자가 대가야 왕권의 신임을 받는 차상위지배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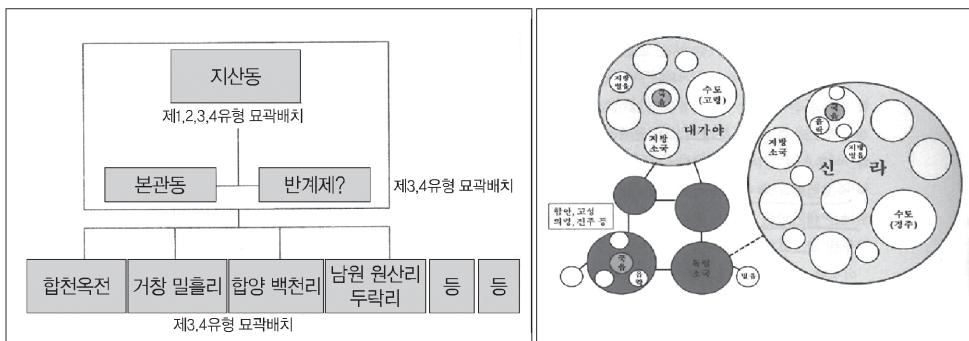
3) 대가야의 고총체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대가야권 고총이 지산동을 상위로 하여 위계화가 되었음을 신라의 고총체계와도 비교된다(그림 5). 대가야권은 통형기대 등으로 유추되는 동질의 의례권이 확인된다. 대가야의 고총체계 성립은 초기국가로의 진입과 관련된다. 즉, 왕묘인 44호분 축조시기에 해당하는데 중국 남제에 대한 견사기록(479년)도 그와 일치한다. 견사기록이 대가야가 완성된 고총체계를 가진 광역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초기국가로 진입(박천수 2012)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대가야의 고총체계는 5세기 후반 혹은 6세기 초에 완성된 것으로 고령을 상위로 하여 그 하위에 지역 고분군(합천 옥전 · 반계제, 함양 백천리, 거창 말흘리, 남원 두락리 고분군 등)의 세력집단이 포진한 체계로 볼 수 있다(그림 5-左). 각 지역들이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고령의 간섭으로 통제되었을 것이다. 간접지배 형태였는지, 아니면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된 연맹의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합천 옥전의 경우, M3호분의 축조기에는 독립 소국으로서 기능하였으나 M4호분 축조기 이후에는 대가야의 간섭이 심해지고 거기에 소속된 지방 소국으로 기능한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초기국가의 출현을 알려주는 고분군이기도 하고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한 정치체 수준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대가야는 신라의 광역정치체보다는 좁으나 이전 소국의 단위였던 지역 수준을 넘은 영역을 가진 정치체로 존재하였다. 대가야가 광역의 초기국가로 발돋움한 5세기 말이나 6세기 초 이후에 낙동강 서안의 가야지역에는 국가체를 형성한 대가야와 그 내부 지방 소국, 그 바깥의 주변 소국이 분포하는 양상이다(그림 5-右)(김용성 2015a: 382~384).”

2. 고분군의 등급으로 본 대가야의 중앙과 지방

김세기는 “5세기 후반의 대가야 고분군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표 2), 1급 묘형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집단은 지방 수장층 중심의 2, 3급 고분군 집단을 직접지배하여 대가야의 영역에 편입시켰다.”고 보았다. 1급 묘형은 대가야의 왕도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만 확인된다.(김세기 2003: 235~258).

대가야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순장곽 및 위세품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대가야 고종의 위계(左) 및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영남지방 사회구성(右: 김용성 201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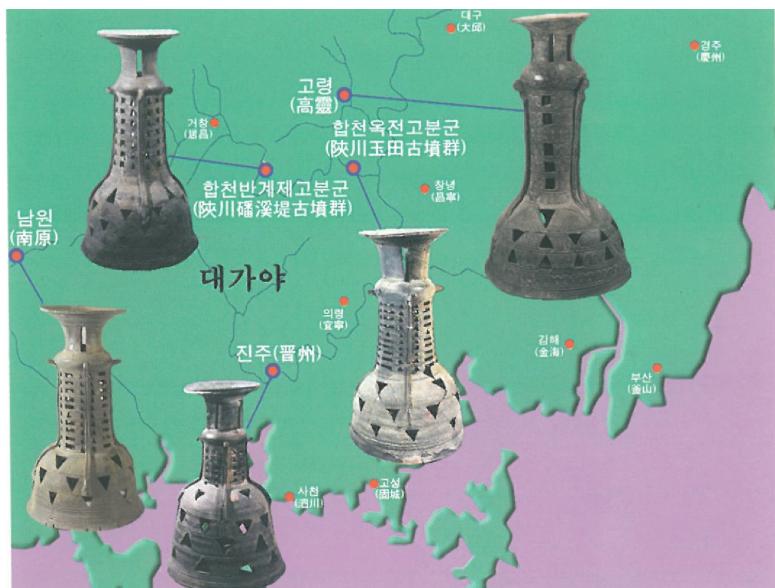
[표 2] 5세기 후반~6세기 전엽 대가야 고분의 등급(김세기 2003 일부 수정)

| | 봉토직경 | 매장주체부 배치 | 순장곽수 | 위세품 | 사례 | 피장자 |
|----|--------|-----------------------------------|---------------|-------------------------------------|--|-------------|
| 1급 | 20m 이상 | 주곽, 부곽, 순장곽 | 순장곽 10기 이상 | 금동관식, 금동제마구 | 고령 지산동 44·45호 | 대왕 |
| 2급 | 10~20m | 주곽, 순장곽 /주곽, 부곽 (백천리 2호, 두락리 32호) | 순장곽 1기 | 갑옷, 투구, 대도, 마구, 금제이식 순장곽 1~6기 | 고령 본관리 34~36호 | 왕도의 차상위 지배자 |
| | 10~25m | | | | 합천 옥전 M4호, 반계제 가 A · A호, 함양 백천리 1~4호, 남원 월산리 M1A호, 남원 두락리 1·32호, 순천 운평리 2호 | 지방 수장 |
| 3급 | 10m 미만 | 주곽 | 순장곽 없음 | 투구, 대도, 화살촉, 금제이식 | 고령 본관리 36-C호 | 왕도의 하위지배자 |
| | | | | | 합천 반계제 가 B호 | 차상위 지배자(지방) |

1) 대가야의 주변 지역으로의 영역 확장은 대가야식 순장곽 이외에 통형기 대를 들 수 있다. 특히, 대가야식 원통형 기대는 지방 수장층 무덤에만 보이는 것으로

로, 대가야의 의례체계(제의권) 속에 편제된 것을 의미한다. 즉, 대가야 복속지역이나 새로이 관계를 맺은 지역에 대한 臣屬관계의 표시로 대가야 중앙에서 하사하는 위세품이다. 이는 신라권에서 경주세력이 복속지역에 출자형 금동관을 사여하는 신속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김세기 2003: 243~244).

지배층 제의권 관련 토기인 원통형기대는 지산동 30·32·44호분 등 대가야 왕도에서 출토되었고, 지산동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통형기대는 합천 옥전 M6호분, 합천 반계제 가B호분, 의령 경산리 1호분, 진주 수정봉 2호분, 남원 두락리 1호분, 순천 운평리 M2호분 등 대가야권 지역 집단의 유력자 무덤에서 출토되어 대가야의 중앙 왕권이 지방지배자에게 사여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6). 이러한 고분들에서는 대가야식 금제수식부 이식이 동반되고 있다(김세기 2023: 80).



[그림 6] 대가야 전성기의 대가야 원통형기대의 확산(국립김해박물관 1999)

2) 고령 본관리 고분군의 34·35·36호분은 모두 순장곽 1기만 있는 단곽 순장곽이어서 지산동 왕묘와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가야 관할 지방 수장묘와 유사한 위상을 보인다. 위세품에서도 갑주류는 보이지만 관모류가 보이지 않는다. 2급 고분에 해당하는 본관리 고분군 축조세력은 대가야 왕경인 연조리와 지산리 고분군 근교지역에 위치하며, 지산동 44·45호 왕묘의 직접지배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김세기 2003: 254~277).

3) 대가야 영역으로 파악되는 지역은 대부분 대가야식 묘제의 2급 묘형이나 3급 묘형의 봉토분이 존재하고, 대가야 토기 일색의 토기문화와 대가야식 축소모형 농공구 부장 등의 양상이 보인다(김세기 2003: 256).

4) 우륵12곡의 상가라도와 하가라도는 바로 대가야의 상부와 하부를 의미한다. 6세기 전반 대가야 최성기의 영역을 보면, 직접지배영역은 상부인 고령지역⁸⁾과 하부인 합천 봉산면(반계제, 저포리 고분군) 등지이다(김세기 2003: 256~277). 하가라도(하부)에 대해 고령 가라국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합천 옥전 고분군으로 비정한 견해가 있다(백승충 1995). 하지만, 옥전 고분군이 위치한 합천군 쌍책 일대는 늦은 시기까지 고유국명을 유지하고 있어 우륵십이곡에 등장한다면 '다라'라고 나타났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같은 합천지역인 반계제 고분군, 저포리유적 등이 위치한 합천군 봉산지역이 하가라도였을 가능성이 높다(이형기2017: 85). 이와 관련하여, 반계제 고분군이 대가야 멸망 훨씬 이전에 중단된다는 사실은 그 주체들이 유명무실화되고 고령세력이 이 지역을 직접지배하기 시작한 결과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이희준 2016: 214~215). 즉, 6세기 전엽에 봉산면 일대 고분군에서 중대형 고분군이 축조되지 않아 대가야의 직접지배하에 들어갔을 것이다(이희준 1995: 423~426). 부체제 단계에 들어가면서 가라국은 자체적으로 '대가야'를 칭했을 가능성이 있다(이형기 2017: 86~87).

대가야가 부체제로 접어들었을 무렵에 고령 중심지가 王都 즉 上部로, 합천댐 상류지역인 봉산면 일대는 王畿=下部로 편제되고 이들은 대가야의 직할령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합천, 거창, 함양, 남원 동부 일대의 지역은 지방으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에 대한 직접지배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존 소국의 수장들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자치권)가 가능하였다. 이는 임나부흥회의에 이 소국들이 등장하는 것으로도 확인된다(이형기 2017: 101).

8) 상가라도는 성부의 치소이며 國都인 고령의 연소리와 지산리 고분군 일대를 말하는 것이다(김세기 2003: 276~277).

3. 본관리 고분군 축조집단

1) 본관리 고분군 개요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야읍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3.5km 이격된 본관리 관동마을 뒷산에 자리한다. 봉토분 62기 정도가 능선을 따라 500m 범위에 몇 개의 그룹을 이루며 군집되어 있다(그림 7). 고분군의 분포범위나 무덤의 밀집도를 고려하면 적어도 500여기 이상의 무덤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고분군으로 추정된다(대가야박물관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2022: 15).

대가야 중심권역에서 지산동 고분군을 대고분군이라 할 때 본관리 고분군은 북쪽의 소가천 건너 월산리 고분군, 동쪽으로 10km 이격된 낙동강 서안의 박곡리 고분군과 함께 중고분군에 해당한다(그림 8)(김세기 2023: 60).

[표 3] 발굴조사된 고령 본관리 고총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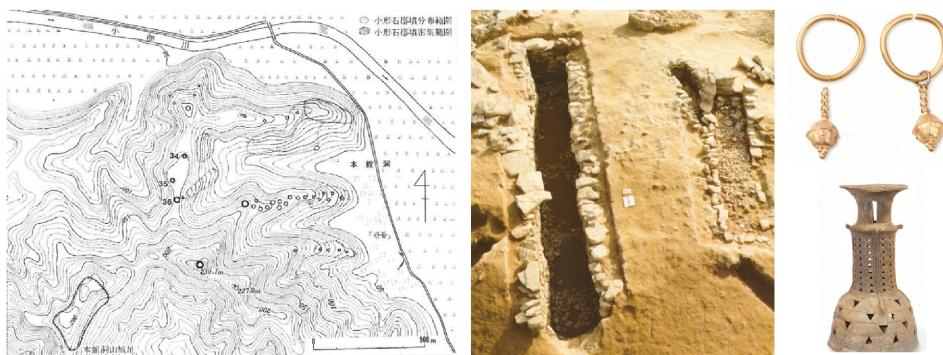
| 고분명 | 봉토 규모(m) | 주곽 규모(m) | 순장곽 규모(m) | 주요 유물 | 기대 |
|---------|----------|--------------|-------------|--|-------------|
| 본관리 34호 | 지름 11.8 | 6.0×1.0×1.2 | 1.7×0.5×0.3 | 축소모형철기, 도자, 철촉, 물미, 꺽쇠, 은제이식, 유리옥 | 발형 |
| 본관리 35호 | 지름 15.5 | 8.2×1.1×1.5 | 2.4×0.8×0.5 | 철지금동제소찰, 철모, 교구, 축소모형철기, 꺽쇠 | 발형 |
| 본관리 36호 | 지름 18.5 | 10.1×1.4×1.8 | 5.1×1.0×0.9 | 축소모형철기, 꺽쇠, (소)환두대도편, 미늘(갑옷) / 말재갈, 은장십자형장식(마구), 소철활, 관못, 금제이식, 유리옥(순장곽) | 발형6, 통형2 |

발굴조사된 본관리 고분군의 3기 봉토분은 주곽과 순장곽 1기를 가진 단곽순장고분으로 지산동 고분군의 32·34호분과 합천 반계제 고분군, 함양 백천리 고분군, 산청 생초리 고분군 등과 같은 묘제로서 대가야 영역의 최고 지배층보다는 1단계 낮은 지배층이지만, 지방 수장층의 무덤 형식과 유사하다(김세기 2023: 79).

특히, 본관리 고분군 중에서 최대 규모인 36호분은 주곽의 길이가 10m에 달하여 대가야권에서 최대 규모이며,⁹⁾ 순장곽의 길이도 5.1m에 달하여 대형이다(그림 7).¹⁰⁾ 순장곽에서 수하부금제이식이 출토된 예는 대가야권 지방 수장층의 무덤 사례에서 보이지 않고 고령 지산동 44·45호에서만 확인될 정도로 고분의 격이 높다. 순장

9) 주곽의 길이로 보면, 본관리 36호가 10m에 달하여 지산동 44호의 9.4m에 비해 더 길다. 다만, 면적에서 13.5m²로 지산동 44호(16.5m²)과 차이나며 순장곽 수나 유물에서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10) 34·35호 주곽에서는 발형기대가 출토되는데 비해, 36호에서는 통형기대 2점, 발형기대 6점이 확인되어 고총의 규모와도 연동된다.



[그림 7] 고령 본관리 고분군 분포도(左: 김세기 2023), 본관리 36호분 및 출토유물(右: 대가야박물관 외 2022)

곽에서는 마구류도 다수 출토되어 페장자가 노비라기보다는 가신으로 판단된다.

지산동 44·45호 등 대가야 왕묘급 순장곽에서만 금제수하부이식이 출토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관리 36호분의 위상은 대가야 지방 수장충의 고총 고분보다 오히려 우월하다. 즉, 대가야 왕도 내 직할지인 본관리 집단의 위상이 대가야 지방의 자치권을 가진 소국의 왕묘에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매장주체부의 규모나 수장충 무덤에만 부장되는 통형기대(그림 7-右)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이처럼, 최고지배층의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대가야지역에서 지배권의 상징인 원통형기대가 본관리 36호분에서 출토되었다. 대가야 도읍지인 지산동고분 출토 원통형기대와 흡사한 기대가 36호분에서 출토됨은 본관리 고분군의 위상이 높았음을 의미한다(김세기 2023: 80). 대가야통치체제하에서 통형기대와 금제이식의 사례는 백제나 신라 중앙에서의 간접지배하의 지방 수장들에게 금동관을 사여한 것과 유사하다.

2) 본관리 고분군 축조세력의 위상

전술한 바와 같이, 본관리 고분군 축조세력은 고총의 규모나 출토유물로 보면 대가야 왕도의 지산동 고분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가야권역의 여타 소국의 수장묘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매장주체부의 규모나 유물이 탁월한데 36호분이 주목된다. 즉 36호분의 매장주체부 규모는 $10.1 \times 1.4 \times 1.8\text{m}$ 로서 지산동 고분군의 왕묘에 필적한다. 그리고 도굴이 심한 36호분의 주곽에서는 위세품이 미약하지만, 순장곽에서는 다수의 위세품이 확인되어 36호분의 위상을 뒷받침해 준다. 즉, 순장곽에서는 말재갈 1점, 마구장식인 은장십자형장식 2점, 소철환 3점, 금제이식 1쌍, 유리구슬 일괄 등이 출토되었

다. 금제이식(그림 7)은 지산동 45호분 부실의 순장인이 착장하던 것과 유사하다. 유리구슬은 지산동의 여러 고분에서 순장자가 착장한 목걸이에 많은 것으로 금제귀걸이와 함께 순장자의 신분이 주인공을 보필했던 사람으로 추정된다(김세기 2023: 75~77).

대가야 권역 지방 수장급 묘역의 순장곽에서 금제이식이 출토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본관리세력이 특별한 존재로서 지산동 왕권과 직결된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다. 지산동의 왕묘급 고분인 44·45호분의 순장묘에서는 금제수식부이식이 출토된 바 있다. 즉, 44호분 6·11·32호 순장곽 및 45호분 7호 순장곽 등에서 금제수식부이식이 출토되었다.

대가야고분의 착장유물에 의한 위계를 금제수식부이식, 금제이식이나 금동 또는 은제의 수식부이식, 금동 또는 은제의 소환이식, 이식이 출토되지 않는 고분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금제수식부이식은 상당한 신분을 가진 인물이다. 금제수식부이식이 대개 대가야의 지방 고총에서 출토되는 점을 감안하면 착용 인물은 지방의 최고지배자급 인물이다. 지산동 44·45호분에 순장된 인물은 지방 고총주에 벼금가는 지위를 가졌거나 그보다 약간 하위의 인물이다(김용성 2015b: 428). 따라서, 본관리 36호분의 순장묘에서 금제수식부이식이 출토됨은 44·45호분의 순장묘와 유사한 지위를 추정해 볼 수 있겠다.

IV. 대가야 왕도 방어 체계와 본관리 세력의 위상

1. 대가야 왕도의 구조

대가야 왕도는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대가야 왕경지(대가야읍 연조리 궁성지와 지산동 고분군, 주산성 일대), 북부 지역권(덕곡면·운수면 일대), 동부 지역권(성산면·다산면 일대), 남부 지역권(개진면·우곡면 중심) 등이다. 이러한 4개권역은 중심, 북부, 동부, 남부 지구로 각각 칭할 수 있는데, ‘原대가야’의 모습일 것이다(그림 8 참조). 한편, 왕도를 기능적으로 세분해 보면, 연조리 궁성지·주산성·지산동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왕경지, 본관리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근교지, 내곡리 토기요지, 야로 일대를 중심으로 한 철산지로 구성된다(이희준2016: 356~366). 토기

및 철 생산 관련 유적의 위치는 대가야 중심권역 중 상대적으로 방어 부담이 적은 안림천 상류인 서남쪽에 치우쳐 있다는 특징이 있다(배성혁 2019: 175).

대가야읍내에는 지산동 · 본관리 · 쾌빈리 고분군 등이 위치하여(그림 6), 중대형 분만 해도 거의 200기이에 달하여, 여타 면 단위와는 큰 격차를 보인다(이희준 2016: 360). 대가야의 최대 고분군인 지산동 고분군을 제외하면, 왕도 전체에서 중형급 이상 봉토분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본관리 고분군이다(표 4).

[표 4] 대가야 왕도 내 중형급 이상 봉토분¹¹⁾ 목록(이희준 2016: 359)

| 읍면 이름 | 고분군 명칭 | 고총 수 | 읍면 이름 | 고분군 명칭 | 고총 수 |
|-------|--------|--------------|-------|--------|----------|
| 대가야읍 | 지산동 | 중대형분 123기 이상 | 운수면 | 월산리① | 중형분 10여기 |
| | 본관리 | 중대형분 40여기 | | 월산리③ | 중형분 15기 |
| | 쾌빈리 | 중형분 30여기 | 성산면 | 박곡리 | 중형분 20여기 |
| 덕곡면 | 후암리 | 중형분 2기 | 우곡면 | 도진리① | 중형분 10여기 |
| 운수면 | 대평리 | 중대형분 10여기 | 쌍림면 | 신곡리② | 중형분 10여기 |
| | 화암리 | 중형분 5~6기 | | 용리 | 중형분 10여기 |

대가야 왕도 내에서 대가야읍을 제외하고, 각 면 단위의 고분군 가운데 중형분의 수가 10여기인데 비해, 월산리, 박곡리 고분군이 각 20여기 이상이어서 군집도가 높다. 월산리와 박곡리는 대가야 궁성 기준으로 보면, 북쪽과 동쪽에 자리하고 바로 인근에서 산성이 자리하여 방어적 성격이 강한 위치이다. 대가야 궁성의 동쪽과 북쪽은 신라의 공격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다.

기존 연구성과를 보면, 경주지역의 평지 고총들은 마립간기에 사로국을 구성했던 여러 읍락의 지배층들이 재편되어 새로이 部를 이루면서 시내 중심부로 모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총의 분포지가 종래 읍락 수 개의 중심지들이 아니고 핵심 읍락의 중심지와 그에 근접한 지점(금척리 고분군)만으로 한정됨은 왕도 내부가 강력히 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종래 읍락에 해당하던 지구들은 왕도의 직할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전 시기의 각 지구로 추정되는 구역들에 뚜렷한 중대형분이 없는 경주지역과 달리 고령지역에는 중대형 고총 군이 일부 확인되어 역내 통합이 경주지역보다는 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이희준 2016: 364).

11) 이희준은 직경 15m 이상을 대형, 직경 10~15m를 중형으로 설정하였다(이희준 2016: 369~370).

대가야읍을 제외하고 면 단위에서 20여기 이상의 중형분이 확인되는 곳은 운수면 월산리 고분군과 성산면 박곡리이다. 월산리와 박곡리는 왕성에서 5~10km 정도 이격되어 고총 조영 이전에는 별개 읍락의 중심지로 추정된다. 대가야의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고 신라의 팽창이 가속화되는 5세기 후반 이후에는 대가야 왕도를 방어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월산리 고분군과 박곡리 고분군과 인접하여 각기 운라산성과 무계리산성 등이 위치함에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대가야읍 본관리 · 쾌빈리 고분군을 왕도의 중심부로 파악하면 왕경 지배층을 구성한 집단이 복수의 집단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 있다. 지산동 고분군에서 북쪽으로 4~5km 이격된 본관리 고분군의 경우, 신라 경주분지의 월성북고총고분군과 일정 거리에 있는 금척리 고분군과 비교가 된다. 금척리 고분군은 잡탁부(모량부)와 관련짓는 견해가 강하다(이희준 2016: 374~376). 상기한 신라 왕도의 고총 고분군의 분포상을 대가야에 적용하면, 본관리 고분군도 경주 금척리 고분군과 같이 원래는 별개 읍락의 중심지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대가야 왕경지(연조리 궁성지와 지산동 고분군, 주산성 일대)는 대가야 왕도의 중심지로서, 가야 최대 규모의 지산동 고분군이 조영될 수 있었던 것도 왕도의 물적 · 인적 자원이 집중된 결과로 볼 수 있다(이희준 2016: 364~380). 지산동 고분군에서 6세기 초 이후에 가장 탁월한 입지에 축조된 척릉의 고총들은 ‘大王’명 토기가 암시하듯이 대가야에서 대왕이 등장한 시점을 전후하여 축조된 왕릉급 고분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에 합천댐 수몰지구내 중대형 고총인 반계제 고분군이 갑자기 약화되므로 대가야가 해당 지역을 종래 간접지배에서 직접지배로 전환하였다고 보는 관점(이희준 2003 · 2016: 380)과도 궤를 같이 할 것이다.

2. 대가야 왕도 방어체계에서 본관리 세력의 위상

1) 고령지역의 대가야 성곽 현황 및 왕도 방어체계

주산성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전후 범위에 축조된 무계리산성, 봉화산성, 도진리 산성, 소학산성, 만대산성, 노고산성 등은 대가야 왕도를 방어하는 1차 방어선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주산성을 중심으로 반경 5km 내외의 범위에 축조된 망산산성, 운라산성, 옥산리산성, 미승산성등은 대가야 왕도를 방어하는 2차 방어선으로 추정된다(박천수 2020: 139). 고령지역 내 여러 대가야 성곽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8).

[표 5] 고령지역의 대가야 성곽 현황(정동락 2013 일부 수정)

| 번호 | 성곽명 | 위치 | 둘레(m) | 역할 (방어망) | 관련 고분군 |
|----|--------|----------|-------|---------------|------------------|
| 1 | 대가야궁성지 | 대가야읍 연조리 | 550 | 궁성 | 지산동, 연조리, 고아리 |
| 2 | 주산성 | 대가야읍 연조리 | 1,420 | 궁성 배후성 | |
| 3 | 망산성 | 대가야읍 장기리 | 600 | 낙동강방면 | 장기리 |
| 4 | 풍곡산성 | 성산면 사부리 | 550 | " | |
| 5 | 의봉산성 | 운수면 신간리 | 1,000 | " | |
| 6 | 무계리산성 | 성산면 무계리 | 500 | " | 박곡리 |
| 7 | 봉화산성 | 성산면 강정리 | 100 | " | |
| 8 | 월성리 토성 | 다산면 월성리 | 150 | " | |
| 9 | 옥산성 | 대가야읍 본관리 | 300 | 대가천방면(성주) | 본관리 |
| 10 | 운라산성 | 운수면 월산리 | 1,000 | " | 월산리①②③④ |
| 11 | 예리산성 | 덕곡면 예리 | 800 | " | 예리 |
| 12 | 노고산성 | 덕곡면 노리 | 800 | " | 백리①② |
| 13 | 내곡리산성 | 대가야읍 내곡리 | 500 | 화천방면(현풍·창녕) | |
| 14 | 도진리산성 | 우곡면 도진리 | 800 | " | 도진리①② |
| 15 | 소학산성 | 우곡면 대곡리 | 1,200 | " | |
| 16 | 미승산성 | 쌍림면 용리 | 1,367 | 안림천방면(야로, 거창) | 용리 |
| 17 | 만대산성 | 쌍림면 산주리 | 2,000 | " | 산주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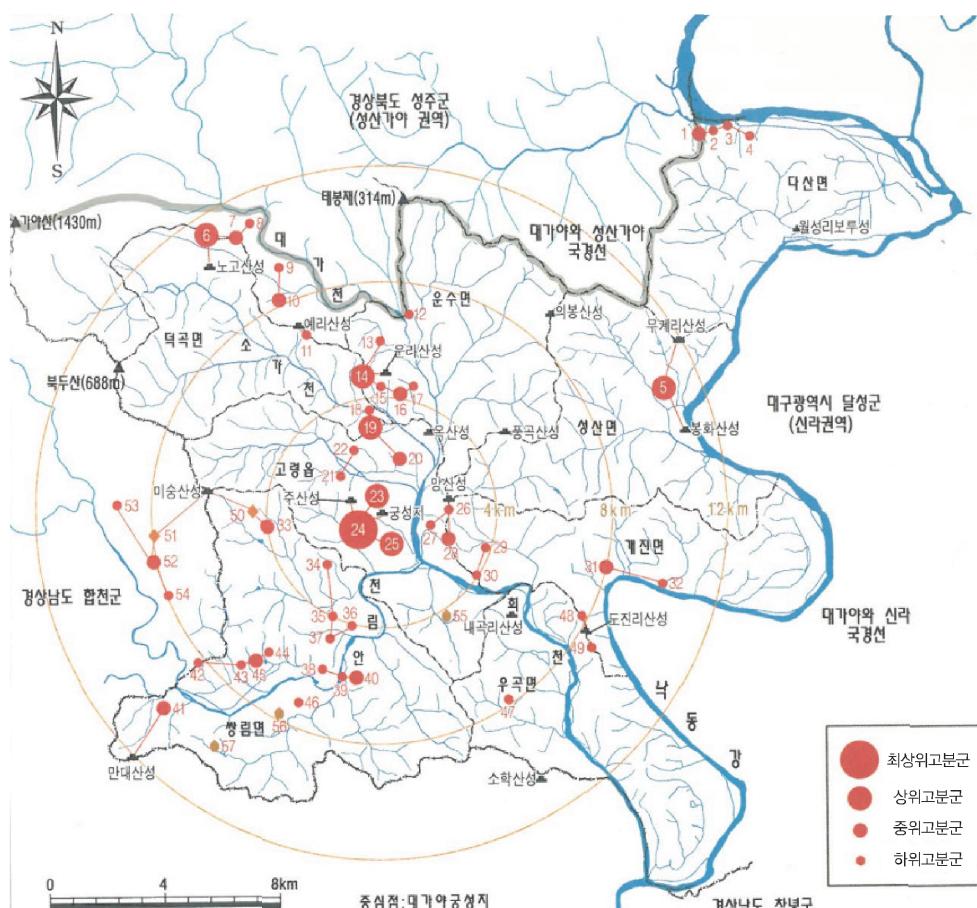
고령지역 산성의 특징은 인근의 고분군과 서로 조합관계를 이룬다. 주산성은 지산동 고분군, 망산성은 장기리 고분군, 무계리산성은 박곡리 고분군, 본관리 옥산성은 본관리 고분군, 운라산성은 월산리 고분군, 예리산성은 예리 고분군, 노고산성은 백리 고분군, 도진리산성은 도진리 고분군 등과 연결된다. 산성과 조합관계를 이루는 고분군 조영세력에 의해 해당 산성이 축조되었고 이들이 각 산성방어망을 담당했음을 의미한다(정동락 2013: 103).

상기한 바와 같이, 고령군 일대에는 여러 곳에 대가야 산성이 존재하지만 궁성지 일대의 대가야 왕성을 방어하기 위해 중요한 성곽은 무계리산성, 운라산성, 옥산성, 망산성 등이다. 이러한 성들은 모두 신라 방어를 위해 대가야 궁성지의 동쪽과 북쪽에 분포하면서 인근에 고분군이 위치하여 상시 방어체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들을 자세히 살펴하면 다음과 같다.

왕성의 동쪽에 위치한 무계리산성은 대가야 왕도 동쪽 방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성으로 파악 된다. 즉, 지근거리에 있는 봉화산성과 월성리보루성에 비해 둘레·성벽 높이 등 규모가 큰 무계리산성은 해발고도가 높다. 인근에 중형분인 박곡리 고분군이

위치하여 다수의 군사가 주둔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된 거점 산성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가야 산성의 대부분은 테뫼식이지만 주산성과 운라산성은 내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운라산성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겠다. 주산성과 운라산성 등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정연한 모습을 갖추었다(정동락 2013: 103). 대가야 도성 북방의 1차 방어선이 대가천변이자 현재 고령과 성주의 경계지역인 노고산성-예리산성-의 봉산성 등이라고 한다면, 운라산성이 도성 북방의 2차 방어선에 해당한다. 현대 기준



- 1.노곡리고분군①, 2.노곡리고분군②, 3.노곡리고분군③, 4.노곡리고분군④, 5.박곡리고분군, 6.백리고분군①, 7.백리고분군②, 8.성주 오천리고분군, 9.성주 계경리고분군Ⅰ, 10.성주 계경리고분군Ⅱ, 11.에리고분군, 12.대평리고분군, 13.화암리고분군, 14.월산리고분군①, 15.월산리고분군②, 16.월산리고분군③, 17.월산리고분군④, 18.후암리고분군, 19.본관리고분군, 20.폐번리고분군, 21.종화리고분군①, 22.종화리고분군②, 23.연조리고분군, 24.지산동고분군, 25.고아리고분군, 26.장기리고분군①, 27.장기리고분군②, 28.양전리고분군, 29.반운리와질토기유적, 30.반운리고분군, 31.개포리고분군, 32.구곡리석곽묘군, 33.용리고분군, 34.고곡리고분군, 35.안립리고분군①, 36.안립리고분군②, 37.안립리고분군③, 38.귀월리고분군, 39.신곡리고분군①, 40.신곡리고분군②, 41.산주리고분군, 42.학거리고분군, 43.산당리고분군, 44.송림리고분군①, 45.송림리고분군②, 46.합가리고분군, 47.사전리고분군, 48.도진리고분군①, 49.도진리고분군②, 50.용리제철유적, 51.합천 야로리야철지, 52.합천 하번리고분군, 53.합천 금령리고분군, 54.합천 월광리고분군, 55.외리토기마터, 56.합가1리토기기마터, 57.합가2리토기기마터

[그림 8] 대가야 중심권역 고분군의 위계와 성곽유적 분포도(배성혁 2019)

으로 본다면, 1차 방어선의 각 산성이 연대 단위 본부라면, 2차 방어선에 있는 운라산성은 사단 본부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운라산성 주변에 4개의 고분군(월산리 ①~④)이 밀집하고 있어 주목되는데, 다수의 군인들이 상주하였을 것이다. 그 후방의 본관리 세력은 이를 통괄하는 역할을 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방위사령부’ 같은 존재라고 파악된다.¹²⁾ 후방인 2, 3차 방어선에 더 상위의 지휘관이 위치하므로 최전방에 비해 고분군 및 고총의 규모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다. 본관리 세력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5세기 후반 이후 신라방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왕경 북쪽과 동쪽 방어선 사이의 중심부에 자리한다는 점이다. 왕도 방어를 책임지는 사령부가 왕경 북쪽에 있고, 북방에 다수의 고분군과 산성이 다중으로 배치됨은 큰 강물로 자연 경계가 뚜렷한 동쪽의 낙동강보다는 육로를 통한 북쪽 방어에 더 치중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관리 고분군 세력의 지정학적 위치이다.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천을 지키는 성곽들의 남쪽이자 낙동강 방면의 방어선의 서쪽에 위치하는데, 궁성 주변의 최고 지배층의 고분군(지산동·연조리·고아리 고분군)을 제외하고는 규모나 출토유물상 가장 상위층의 고분군이라는 점이다. 이는 ‘왕도방위사령부’의 핵심 집단과 관련지을 수 있다.

왕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본관리집단이 동쪽의 낙동강변보다 북쪽의 대가천 방면에 위치하는 것은 신라가 큰 강인 낙동강을 도하하는 것보다는 대가천 상류역을 통해서 고령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에 대응하여 대가야도 대가천유역에 방비를 더 튼튼히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은 주목된다. 즉, 성주의 서쪽 외곽에 해당하여 고총고분이 축조될 기반이 없는 변경지역인 성주 명천리 고분군과 할미산성은 대가천상류역에 위치한다. 이곳에 고총고분군이 축조되고 인근에 산성이 축조되는 것은 대가야 세력에 대한 신라세력의 강한 압박을 의미한다(조효식 2013: 140).

2) 대가야 산성의 축조 시기와 축조 배경

대가야의 성곽 축조 배경으로는 신라의 낙동강 이동지역 장악과 관련된다. 고령군 다산면과 인접한 낙동강 동안의 달성군 다사면 문산리·죽곡리 고분에서는 신라 전형의 ‘出’자형 금동관을 비롯해 5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의 토기류와 여러 부

12) 백제의 경우, 수도 5부에는 각기 수도방위 및 경찰 임무를 위해 각 500명씩 배치되고, 달출 관등이 지휘하였다.

장품들이 출토되었다. 성장 기반이 없던 신라 변경지역에 대형 고총고분군이 두 곳이나 축조되고 신라와 관련된 다양한 부장품이 부장되는 것은 지방관의 파견 및 외적 지원에 의한 결과로 파악된다. 더구나 고총고분군의 인근에 5세기 중후반대의 산성이 분포한다는 것이다. 이는 낙동강 이서지역에 위치한 대가야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대가야의 북쪽에 접한 대가천 상류지역의 성주 명천리 고분군과 할미산성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대가야 동쪽과 북쪽에서의 신라의 축성과 압박은 대가야로 하여금 변경지역에서의 축성사업을 서두르게 하였을 것이다. 즉, 신라 성곽인 성주 할미산성과 마주한 대가야의 성곽들이 대가천 남쪽 산지에 선상으로 분포하여, 대가천을 사이에 두고 양국의 접경이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 5세기 중엽 이후 고령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대가야 고분군이 집중 축조된다¹³⁾(조효식 2013: 140~142).

요컨대, 5세기 후반대는 신라의 가야로의 서진정책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므로 대가야 왕권에서는 방어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5세기 중엽 이후 대가야 멀망기까지 고령 왕성 외곽에 보이는 다수의 대가야 고분군은 대가야 산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가야 세력의 방어체계와 연결지어 보아야 한다.

3) 대가야 왕도 방어체계에서 본관리 세력의 위상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로는 대가야 왕궁의 북쪽에 자리한 본관리 세력에 대해 왕도 방어집단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김세기 2023). 필자도 이에 동의하며, 상술해 보기로 한다.

본관리 고분군 출토 철기로 보면 무구류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즉, 축소모형철기인 착형철기 · 겹형철기 · 도자형 철기 등 소형철기를 제외한 여타 철기류는 무구류의 비중이 높아 본관리 고분군 피장자들의 무장적 성격을 보여준다. 본관리의 대형분인 36호분에서 투구와 갑옷의 소찰들이 발견되고 환두대도와 말재갈 · 은장말장식 등이 출토되었다. 34호분에서는 철도편과 철제화살촉이 다발로 출토되었고, 35호분에서는 이 고분의 주인공이 무장임을 암시하는 몽고발형투구의 부속구인 금동소찰과 철모 등의 무장구와 교구 등 마구가 출토되었다. 석곽묘 중 C호묘는 석곽 중 규모가 크

13) 왕성 바로 북쪽에 위치한 본관리 34 · 36호분의 개배나 호로병토기, 발형기대는 지산동 44호분과 대비될 수 있어 5세기 후엽경으로 볼 수 있다(김세기 2023). 그리고, 5세기 4/4분기에 비정되는 도진리 고분군이 발굴조사 된 바 있다.

고 능선 경사면의 중앙에 위치하며 여기서도 봉고발형투구 및 부속 소찰들과 화살통인 호록 끈을 장식하는 쇠붙이와 교구가 출토되어 타지역에 비해 무장구가 중심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관리 고분군 집단은 대가야의 왕경을 방어하는 기능을 가진 무장세력임을 암시한다.



[그림 9] 본관리 고분군 출토 무기와 방어구(대가야박물관 · 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2022)

전술한 바와 같이 지정학적 위치를 함께 고려하면, 본관리 고분군 축조 세력은 대가야 왕실의 직속 집단으로 王畿에 주둔하면서 왕도와 왕궁을 방어하는 ‘왕도방위사령부’와 같은 역할로 볼 수 있다. 즉, 이 세력은 왕도의 직속집단이면서 일대지역을 지배하는 군사집단이다. 낙동강을 경계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신라를 방어하기 위해 연조리의 왕궁에서 10km 내외의 낙동강 동안에 봉화산성(강정리보루성), 무계리 산성, 도진리산성을 축조하여 국경방위선으로 삼고, 5km 내외에 위치한 망산산성, 운라산성, 옥산성 라인으로 수도방위선으로 하여 동북방위를 책임졌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8 참조). 본관리세력은 수도방위의 중요 업무를 맡은 핵심세력이며 지산동 왕릉지역에서 출토되는 지배권의 상징인 제의토기인 원통형기대를 사여받았고 왕기를 지키는 주요 임무를 수행한 집단일 것이다. 이는 주요거점 방어성인 운라산성의 월산리 고분군 세력, 무계리산성과 강정보루의 박곡리 고분군, 도진리산성의 도진리 고분 세력보다 규모나 출토유물에서 월등히 높아 본관리세력의 위계가 아주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세기 2023: 82~84). 즉, 본관리세력은 왕도 2차 방어선인 운라산성-옥산성-망산성-내곡리산성 라인의 안쪽에 위치하면서 궁성지 주변의 지산동 고분군 일대를 제외하면 최대의 고분군이다.

대가야의 수도인 대가야읍은 5~6세기 당시에 동쪽과 북쪽으로 강력한 신라세력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즉, 대가야 왕궁터에서 동쪽과 북쪽으로 불과 10km 정도 이격되어 신라세력 혹은 신라 영향하의 세력(성주·대구·창녕)이 위치한다. 큰 강이 자연경계를 이루는 동쪽 국경선과 달리, 북쪽 국경선은 신

라 통제를 받는 성주세력이 육로로 연결되고 있어 동쪽보다 북쪽에 더 방어력을 집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동쪽방면보다 북쪽방면에 더 많은 고분군과 성곽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야 궁성터 주변의 지산동·고아리·연조리 고분군을 제외하면 그 규모나 위세품이 탁월하여 대가야가 특히 주목한 세력으로 왕도 방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위치였음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대가야의 직할지인 본관리세력은 대가야 왕경의 북쪽에 위치하여 신라 통제하의 성주 방면 및 낙동강 방어선을 통괄하는 왕도방위사령부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본관리 집단은 대신라 방어의 왕도 사령부로서 대가야의 중앙세력인 지산동세력이 특별히 중시한 집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본관리 고분군의 규모나 부장유물로서도 뒷받침된다.

V. 맺음말

필자는 대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 후반~6세기 전반대를 중심으로 대가야의 정치체제와 사회구조, 그리고 본관리 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대가야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지역연맹체론과 고대국가론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대가야 통제하의 지방 수장의 고분 규모나 위세품은 고령 세력과 유기적인 관련을 보이는 점에서 대가야 고대국가론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문헌 내용을 고려하면 대가야연맹체론도 무시할 수 없다. 즉, 대가야영역 내에도 고령 중심의 왕도 직할지(上部), 下부로 추정되는 인근의 합천댐수몰지구(합천 봉산면 일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면서 대외 교섭창구인 섬진강하구의 하동지역(帶沙) 등은 직접지배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자치권이 강해 대외적으로 國名이 남아 있는 다수의 간접지배 권역 혹은 연맹체의 일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령 가라국에서의 거리에 따라 동맹의 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고령에서 가장 거리가 먼 호남동부지역의 임나사현이나 기문의 경우 자율성이 더 있었을 것이다. 신라, 백제와 달리 대가야의 소속국에 대한 간접지배 강도는 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대가야 권역내에는 아직 자치권이 강해 국명을 유지한 다수의 소국들이 있었고, 이는 백제, 신라권에서 국명을 유지한 소국들이 희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대가야가 백제, 신라에 비해 사회발전단계가 늦어 고대국가로 가는 길

목에 있었고 초기국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을 시사한다.

대가야 왕도에 속한 고령 본관리 고분군의 구조적 특징이나 위세품은 대가야 권역 내 지방 수장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면도 일부 보인다.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야 왕경에서 지산동 고분군 일대를 제외하고는 고총의 규모나 위세품에서 가장 상위의 고분군이다.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야 왕경의 북쪽에 자리하는데, 입지 · 출토 유물로 보아 대가야 왕경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유력집단으로 파악된다. 본관리 세력은 5세기 후반 이전에는 고령지역 읍락의 핵심취락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가야가 성장하면서 왕도 내 방어를 전담하는 유력세력으로 자리매김하였을 것이다. 본관리세력은 신라 통제하의 성주 방면 및 낙동강 방어선을 통괄하는 왕도방위사령부 역할을 하였을 것이므로, 대가야 왕권이 특별히 중시한 집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본고는 2023년 11월 17일 '고령 본관리 고분군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투고일 2023. 12. 31 | 심사완료일 2024. 1. 16 | 게재확정일 2024. 1. 26

참고문헌

- 국립김해박물관. 1999.『가야의 그릇받침』.
- 김대환. 2012.「한반도 국가형성론에서 '초기국가'의 제안」,『한일지역 고대왕권과 국가의 형성』. 영남고고학회.
- 김세기. 2003.『고분·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 _____. 2020.『대가야 고대국기론』, 학연문화사.
- _____. 2023.『제1장 대가야의 재발견』,『대가야와 그 이웃들』, 학연문화사.
- 김용성. 2015a.『대가야의 고총과 고총체계』,『신라 고분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 _____. 2015b.『대가야의 순장』,『신라 고분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 김태식. 2002.『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권), 푸른역사.
-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2022.『고령 본관동고분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공동기획특별전.
- 박대재. 2013.『국가형성기의 복합사회와 초기국가』,『선사와 고대』38. 한국고대학회.
- _____. 2023.『한국의 '고대'와 초기국가』,『한국고대사연구』110. 한국고대사학회.
- 박천수. 1996.『대가야의 고대국가 형성』,『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 _____. 2006.『임나사현과 기문·대사를 둘러싼 백제와 대가야』,『가야·낙동강에서 영산강으로』, 제12회 가야 사국제학술회의. 김해시.
- _____. 2010.『가야』,『한국고고학강의』, (한국고고학회 편), 사회평론.
- _____. 2012.『고령지역 유적 유물을 통해 본 대가야의 발전과 역사적 의의』,『경북지역 가야유적의 세계유산 가치 검토』, 경상북도·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_____. 2020.『5~6세기 대가야의 발전과 도성의 성립』,『대가야의 도성』, 제14회 대가야사 학술대회, 고령군·대가야박물관·영남대학교박물관.
- 배성혁. 2019.『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의 건국신화』,『가야고분군Ⅴ』,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6권), 가야 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 백승충. 1992.『'가야'의 용례 및 시기별 분포상황-'가야연맹체'개념의 적용과 관련하여-』,『부산사학』22.
- _____. 1995.『가라국과 우륵십이곡』,『부대사학』19.
- _____. 2005.『가야의 지역연맹론』,『지역과 역사』17.
- 백진재. 2020.『5세기 말~6세기 중엽 가라국과 가야제국의 관계』,『가야와 주변, 그리고 바깥』, (한국고대사학회 염음), 주류성.
- 이동희. 2014.『제4장 전남동부지역 가야문화』,『가야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 이한상. 2019.『관과 이식으로 본 대가야 권역』,『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이형기. 2017.『대가야의 부체제에 대한 고찰』,『대가야의 국가발전 단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대동문화재연구원.
- 이희준. 1995.『토기로 본 대가야의 권역과 그 변천』,『가야사연구』, 경상북도.
- _____. 2003.『합천댐 수몰지구 고분 자료에 의한 대가야국가론』,『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 _____. 2016.『대가야고고학연』, 사회평론.
- 정동락. 2013.『고령지역 산성의 분포현황』,『대가야의 고분과 산성』, 제9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고령군 대가야박물관·대동문화재연구원.

- 조효식, 2008, 「낙동강 중류역 삼국시대 성곽의 변천과 방어체계」, 『한국고고학보』44.
- _____, 2013, 「대가야의 방어체계」, 『대가야의 고분과 산성』, 제9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 대동문화재연구원.
- 최재현, 2023, 「대가야 왕도의 공간적 범위」, 『가야고분군 VIII』,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9권),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 田中俊明, 1990, 『于勒十二曲と大加耶連盟』, 『東洋史研究』48-4, 京都大學文學部.

The Political System of Daegaya Based on Ancient Tombs and the Building Group of the Ancient Tombs of Bongwan-ri

Lee, Dong-Hee(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Media, Inj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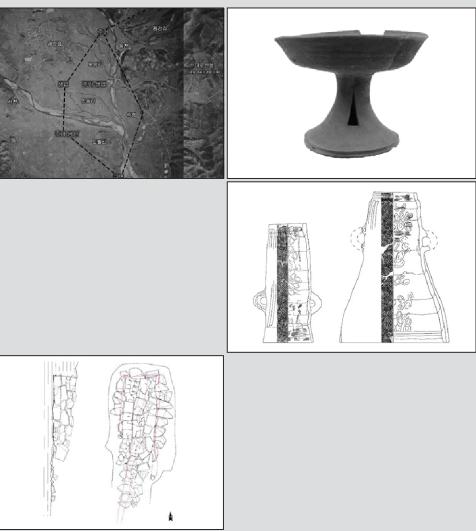
This study examined Daegaya's political system and social 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group of the ancient tombs of Bongwan-ri, focusing on the golden age of Daegaya, from the late 5th century to the early 6th century.

The political system of Daegaya was examined with emphasis on the regional confederation theory and the ancient state theory. From an archaeological point of view, the ancient state theory can fit Daegaya as the size of the tombs and prestigious items of local heads under Daegaya's control show an organic relevance with the Goryeong group. However, with regard to the content of literatures, the Daegaya confederation theory cannot be ignored. In other words, it seems necessary to divide it into a number of indirectly controlled areas that had strong autonomy and retained the country's name externally, and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would have varied depending on the distance from Goryeong Gara. Unlike Silla and Baekje, Daegaya's indirect control over its affiliated countries would not have been strong. Daegaya was on the path to becoming an ancient state at a later stage of social development than Baekje and Silla, and it would be appropriate to see it as an early stat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prestigious goods of the ancient tombs of Bongwan-ri, Goryeong, belonging to the Daegaya's royal capital are similar to or even superior to those of local heads in the Daegaya region. The ancient tombs

of Bongwan-ri is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Daegaya's capital, and judging from the location and excavated artifacts, it is identified as an influential group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fense of Daegaya's capital.

Key words : ancient tombs, Daegaya, political system, Bongwan-ri, defense of capital.



광양 동천하류역 3~6세기대 쥐락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3rd~6th Century Settlements in
the downstream of Dong-cheon, Gwangyang

이 기 건

세종문화재연구원 연구원

I. 머리말

II. 동천하류역 쥐락의 공간성과 대상유적 검토

III. 동천하류역 출토 외래계 유물

IV. 동천하류역 쥐락의 형성과 전개과정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 글은 전남동부지역으로 지역권이 설정되는 광양지역 가운데 동천하류역의 3~6세기대 취락 형성과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이 지역은 최근까지 지속적인 발굴조사 성과로 고고자료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광양 동천하류역 일대에서 조사된 3~6세기대 유적은 모두 7개소 10지점 정도이다. 유적별 성격을 분류하면 주거, 고분, 관방, 생산유구로 대별된다. 또한 이 지역은 다수의 외래계 유물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이 지역이 가지는 자연·지리적 환경과 점이지대의 성격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상기 내용들을 검토하였고, I ~ III기로 단계를 설정하여 광양 동천하류역 취락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I 기인 3세기대가 되면 토착집단은 평지로 주거구역을 확대하면서 활동하였고, 4세기 중엽이 되면 타 지역의 주거문화와 유물이 본격적으로 이입되어 점이지대의 성격을 띤다. 지리적으로 마한과 가야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이 늦었던 이 지역 집단은 이를 극복하고자 대외교역의 기착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I 기인 5세기 전엽 이후 소가야계 유물은 타 정치체보다 압도적인 수량을 자랑하고 주거형태도 방형계로 바뀐다. 그리고 이 시기 마한계와 왜계 유물의 반입을 통해 백제→마한→가야→왜로 이어지는 해양 교통로에서 가교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동천하류역 집단은 종전의 경제적 관계에서 벗어나 소가야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자체적인 물품 생산과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재지 수장묘 인 분구묘를 조성함으로써 토착집단의 정치적 신장을 짐작할 수 있다. 전남동부지역은 임나사현으로 비정되고, 광양 동천하류역이 모루의 중심취락으로 지목할 수 있다.

III 기인 6세기 전엽 이후 백제 고분군과 마로산성이 조성됨으로써 동천하류역의 토착집단은 백제의 직접지배 체제에 편입되지만 여전히 이 지역이 치소로 기능함에 따라 광양지역의 중심취락으로 자리하였다.

주제어 :취락, 점이지대, 해양 네트워크, 가야, 마한, 백제

I .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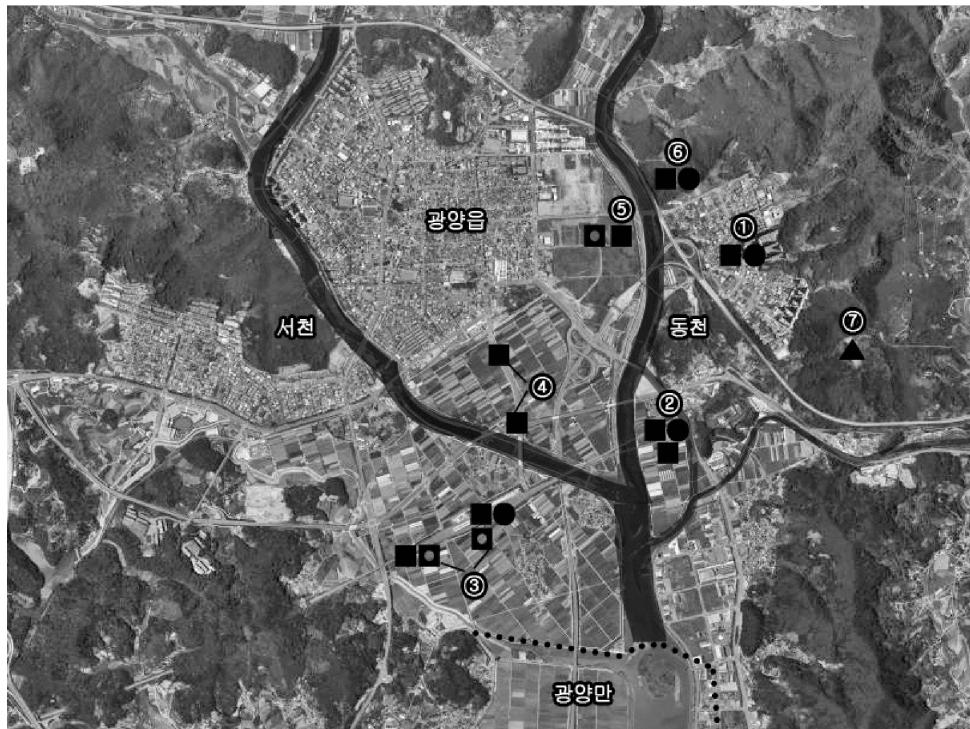
광양은 섬진강하류역의 이서지역이며 동쪽은 호남정맥의 자연지형으로 막혀있어 호남서부지역과 구분되는데, 전남동부지역 또는 호남동부지역으로 지역권이 설정된다. 이 가운데 광양 東川은 광양읍을 중심으로 동천과 서천이 흐르고 인동리의 남쪽에서 합류하여 광양만으로 연결된다. 지금까지 광양 동천하류역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취락유적의 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연구성과도 여러 차례 제출되었으며 주로 주거유적의 검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었다(이동희 2014; 김재훈 2019; 이기건 2020; 하승철 2022). 다만 근래까지 지속적인 발굴조사 성과로 고고자료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미진한 편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 더불어 최근까지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검토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광양 동천하류역 일대는 주거유적 뿐만 아니라 고분·관방·생산 등의諸요소가 포함된 복합적인 유적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취락은 좁은 의미에서 주거와 관련된 생활 요소를 말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확장하면 여타 인간 활동과 관련된 모든 요소(유구)를 지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이 지역 취락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천하류역에서는 다수의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었다. 계통적인 출처를 살펴보면, 가야계·마한계·왜계·백제 등 다양하다. 후술할 테지만 필자는 이를 이 지역 토착집단에 의한 해양 네트워크 형성과 정치체 변동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물질자료로 인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동천하류역 일대에서 조사된 유적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지역의 경관적인 특징을 개괄해볼 것이다. 경관은 산과 강, 대지 등으로 구성된 자연환경과 주거, 경작, 무덤, 생산 등의 인공적인 건축물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되는 경관의 형성은 그 자체로 의미화된 과정이다(김종일 2006: 123).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이 지역 집단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경관조직을 누대에 걸쳐 구성했는지 다루고자 한다. 이후 각 유적의 성격을 주거·고분·관방·생산으로 구분하여 취락의 공간성을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출토유물의 검토를 통해 외래계 유물을 정리하고 연대 및 단계설정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기에 따른 광양 동천하류역 취락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Ⅱ. 동천하류역 취락의 공간성과 대상유적 검토

1. 유적현황과 경관적 특징



[도면 1] 광양 동천하류역 유적현황 (■ : 주거지 ● : 고분 ▲ : 산성 □ : 생산유구)

1. 광양 용강리유적 2. 광양 석정유적 3. 광양 도월리유적 4. 광양 인동리유적 5. 광양 목성리유적
6. 광양 용강리 산1~번지 일원 공동주택조성부지 내 유적 7. 광양 마로산성

지금까지 광양 동천하류역 일대에서 조사된 유적은 모두 7개소 10지점 정도이다. 유적별 성격을 분류하면 주거, 고분, 관방, 생산유구로 대별된다. 주거유적 같은 경우 주거지가 전체 약 664동 이상 조사되었다. 특히 광양 석정유적 · 도월리유적 · 인동리유적은 제한된 면적에서 주거지가 폭발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향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주거지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목성리유적과 용강리유적에서는 대규모 주거유적이 확인된다. 고분유적은 용강리유적 · 석정유적 · 도월리유적이 해당한다. 묘제로는 도월리에서 소가야식 분구묘, 석정유적에서는 잔존상태가 좋지 못하나 석곽묘 1기가 발굴되었다. 이보다 후행하는 용강리유적에서는 백제계 석곽묘와 석개토광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방유적은 백제산성으로 동천하류역

의 동쪽에 위치하는 마로산성이 있다. 이 밖에도 생산유구는 도월리유적과 목성리유적에서 관련 유구들이 보인다.

[표 1] 광양 동천하류역 검토대상 유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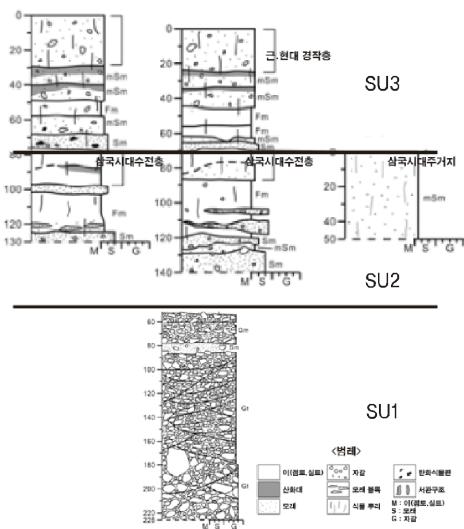
| 연번 | 유적명 | 유적성격 | 보고서 출처 |
|----|-----------------------------|-------------|---------------------------------|
| 1 | 광양 용강리유적 | 주거지, 고분 | 순천대박물관 2002 |
| 2 | 광양 석정유적 | 주거지, 고분 | 마한문화연구원 2009 대한문화재연구원 2012 |
| 3 | 광양 도월리유적 | 주거지, 고분, 생산 |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
| 4 | 광양 인동리유적 | 주거지 |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8 전남문화재연구원 2018 |
| 5 | 광양 목성리유적 | 주거지 | 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두류문화연구원 2021 |
| 6 | 광양 용강리 산1-1 공동주택조성부지내 유적 | 주거지, 고분 | 영해문화재연구원 2022 *약보고서 |
| 7 | 광양 마로산성 | 관방 | 순천대박물관 2005~2012 |

우선 대상유적 검토에 앞서, 종래 유구나 유적의 공간적 분포양상과 입지의 분석이 주된 연구의 대상이었다면 본고에서는 이를 경관적인 의미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동천하류역의 지형적인 요건은 북쪽으로 고산성의 산지로 폐쇄되어 있고 산지에서 발원한 하천이 흘러 하류에서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면서 남해 광양만으로 진출한다. 주거지와 분구묘, 생산유구가 조사된 도월리와 바로 접하는 남쪽의 세풍리 일대는 유자섬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바닷물이 이곳 까지 들어왔던 (고)광양만 지역이다. 전체적으로 주거유적이 위치한 일대는 분포지 형상 하성평탄지에 속하고 현재 광양읍 중심지로는 선상지와 곡간지가 발달해 있는데, 1948년대 항공사진을 보면 동천하류역 주변으로 여러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주거구역의 공간적 분포양상을 유추할 수 있는 목성리유적을 예로 들면, 동천과 평행하게 주거군을 형성하면서 여러 군데로 군집을 이룬 양상이다. 이는 지형상 남-북으로 발달된 미고지와 자연제방을 접하는 위치에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환경적으로는 이 일대 충적지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을 통해, 늦어도 이 시기에는 동천의 유로를 갖추면서 곳곳에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미고지와 미저지를 형성하였다. 이는 삼국시대까지 큰 지형적 기복 없이 이어져 대규모 취락을 조성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성리 일대 삼국시대 수전총의 식물구소체 분석을 살펴보면, 벼의 기동세포 기원의 부채형 구소체와 쌍봉형 구소체

가 검출되고 산출량은 약 1,300~90,000 개체/g의 범위¹⁾로 주거구역 주변으로 水田을 경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고환경적인 조건을 토대로 동천하류역 일대의 넓은 충적지에서는 주거구역, 주변과 서쪽의 평야에서는 밭, 논농사 등 의 생업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천하류역 서쪽의 충적지에서는 대규모 주거군을 이루고, 그 반대편 동쪽 으로 용강리 일대는 현재 개발로 형질 이 변경되었으나 분포지형상 저산성의 마로산에서 뻗은 가지 능선에 약 7~30° 경사도의 구릉에서 청동기시대~삼국시 대에 이르는 주거지, 분묘유적들이 조사 되었다. 1948년대 항공사진과 분포지형 을 비교해보면 6세기 전엽~7세기 중·후엽의 고분군이 위치하는 용강리유적의 구릉 은 대체로 원지형이 살아있지만 북쪽과 남쪽 일대의 구릉은 밭 경작과 민가가 들어 서 있어 구릉의 윤곽만 대략 관찰된다. 따라서 이 구릉 주변으로 집단의 묘역을 조성 하였다고 추정되지만 1948년 이전부터 이미 상당 부분 망실되었을 것이다. 다만 용 강리 일대를 감싸는 마로산의 여러 구릉 가운데 원지형이 남아 있는 부분은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두 고분군에서 석관의 부재와 석관묘 1기가 발견되었다. 또한 최근 이 일대 구릉의 발굴조사에서 6세기 중·후엽~7세기대의 고분이 조사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향후 주거유적과 시기적으로 동일한 고분군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용강리 일대의 구릉이 동천하류역 취락 조성집단의 묘역이었을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2] 동천하류역 목성리 일대 고지형 퇴적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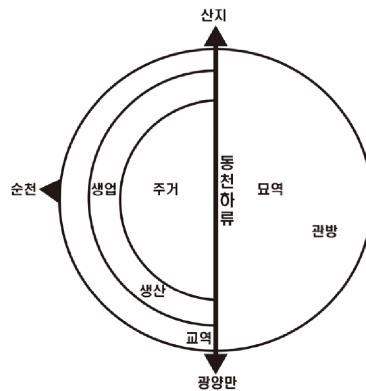
(두류문화연구원 2021 수정후 재인용)

| 퇴적단위 | 퇴적환경 | 고고학적시기 |
|------|-----------|----------|
| SU3 | 배후습지(시행천) | 삼국시대 이후 |
| SU2 | 범람원(사행천) | 청동기~삼국시대 |
| SU1 | 지갈질 망상하천 | 청동기시대 이전 |

1) 이 결과는 두류문화연구원과 한국지질환경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한 광양 목성유적 일대의 고환경, 수전층 식물 규소체 분석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벼의 기동세포 규소체가 3,000~5,000개체/g 이상의 밀도를 가지면 수전을 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 시료 1개체를 제외하고 모든 시료에서 약 4,700개체/g을 초과하는 검출량이 나왔다.

동천하류역 남쪽으로 도월리와 석정리 일대는 자연환경적으로 목성리, 인동리 일대와 같은 충적지형으로 과거 이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점에서 광양만으로 출입하는 관문이었을 것이며, 고려시대 馬老浦가 이곳 주변에 위치한다. 따라서 삼국시대에도 도월리 일대가 동천하류역 집단이 교역하는데 있어 창구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으며, 주변으로 포구와 관련된 유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동천하류역 일대는 인간이 정주하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누대에 걸쳐 집단의 경관을 형성하였으며, 사회체계를 갖추고 공간을 분할하여 활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러 세대를 걸친 조성집단 혹은 이를 대체한 집단은 긴 시간적인 흐름 속에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동천하류역의 경관조직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경관조직은 동천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생업활동을 하는 生者들의 공간, 집단의 묘역을 가시권에 두고 바라보면서 추모했을 死者들의 공간, 포구와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고 물류를 집산했을 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면 3] 동천하류역 유적 경관 모식도

2. 대상유적 검토

1) 주거유적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크게 원형계와 방형계로 대별되며, 광양지역은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원형계 주거지의 빈도가 높고 방형계 주거지의 유입이 느린데 경남서부지역의 주거문화와 공통성이 보인다(이동희 2014: 14). 동천하류역의 주거지 또한 이와 동일한 주거문화를 반영한다. 원형계 주거지는 5세기 전엽까지 이어지고, 이후 방형계 주거지로 주거형태가 교체되는데, 원형계 430동, 방형계 234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²⁾ 이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주거유적은 구릉지대에 위치한 용강리유적 일

2) 검토대상인 용강리유적은 4개 지구로 나누어 발굴조사 하였는데, 삼국시대 주거지는 관동‘가’지구에서 3동, 관동‘나’지구에서 청동기~삼국시대 128동, 기두‘가’지구에서 1동, 기두‘나’지구에서 48동이 조사되었지만 관동‘가’지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외하고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동

대로 1세기부터이다. 평지의 도월리 · 인동리 · 목성리유적은 3세기부터 주거유적이 확인된다.³⁾

노시설은 부뚜막식과 쪽구들식이 있고, 대부분 점토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부뚜막식은 벽면에 직교하게 설치된 것이 특징이고, 쪽구들식은 벽면의 일부를 둘러 친 것이다. 부뚜막식은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방형계 주거지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부뚜막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쪽구들식은 경남서부지역 원형계 주거지에서 특징적으로 확인되며, 진주 평거동유적에서 분석 가능한 147동 중에 131동, 하동 횡천리유적에서 53동 중에 31동 등 남강하류역과 섬진강하류역에서 부뚜막식보다 높은 비율이다. 동천하류역에서 쪽구들식은 석정유적 · 도월리유적 · 인동리유적 · 목성리유적에서 확인된다. 분석 가능한 전체 72동 가운데 35동이 쪽구들식으로 부뚜막식과 비슷한 비율이다.⁴⁾

기둥배치는 대부분 기둥이 없는 무주식이지만 가야지역 내에서 지역성이 확인되는 원형계+벽주식이 용강리 산1-1 유적에서 조사되었다. 마한계 주거지의 특징인 4주식 주거지도 소수이지만 용강리유적 · 도월리유적 · 목성리유적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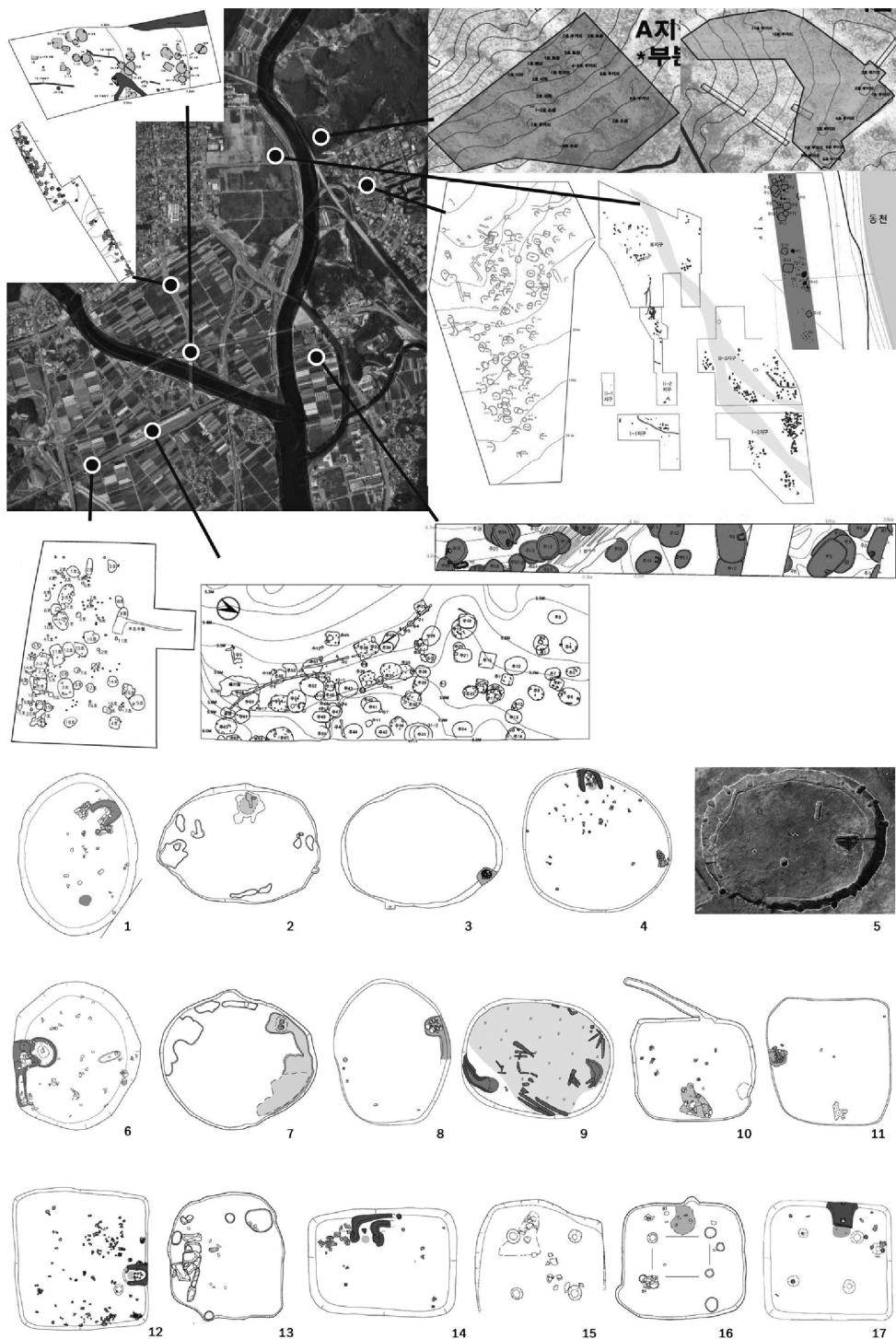
이 외에 출입시설의 돌출유무에 따라 돌출형을 마한계, 비돌출형을 가야계로 구분하기도 하고(박미라 2019; 하승철 2022), 내부에 장타원형수혈 같은 구조는 마한계의 주거 내부시설로 볼 수 있다.

동천하류역 주거유적의 원형계 주거지는 1세기대부터 보이지만 중심연대는 3세기~5세기 전엽이다. 방형계 주거지는 4주식인 도월리 Ⅱ-11호 주거지 출토 완형무투창고배를 통해 적어도 4세기 중엽~후엽에는 출현하지만 산발적이다. 특히 4주식 주거지는 동천하류역 전역에서 소수로 확인되는 양식이지만 마한계 주거지가 4세기 중엽 이후 가야계 유물을 공반하면서 등장하는 점이 주목된다. 5세기 전엽 이후 방형계 주거지가 원형계 주거지를 대체하면서 주류 주거문화로 위치한다. 원형계 주거지는 거의 조성되지 않으며 적어도 6세기 전엽 이후까지 동천하류역에서는 방형계 주거지로 이어진다.

희(2014: 15)는 166동 가운데 1~5세기 주거지로 원형계 93동, 방형계 21동으로 분류하여 이를 차용하였다.

3) 인동리(동)유적 보고자는 10호 주거지 출토 장동옹의 저부의 형태를 말각평저로 보고 1세기 말~2세기 말로 편년하였으나, 필자는 동하위에서 저부로 내려오면서 경계가 애매한 것을 말각평저로 분류하고 저부의 기벽이 두껍고 경계가 뚜렷한 형태를 굽상평저로 본다. 인동리 10 · 15호 주거지 출토 장동옹은 모두 저부의 기벽이 두꺼운 굽상평저로 정효은(2015)의 편년에 따르면 3세기 말 이후이다.

4) 노시설 분석은 필자가 분류한 것을 기준으로 했음을 밝혀둔다(이기진 2020: 106~115). 형태는 남아 있지 않지만 노지나 지각의 위치로 보았을 때 쪽구들을 사용했던 주거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도면 4] 동천하류역 주거유적 유구배치도 및 주거구조 형태에 따른 조합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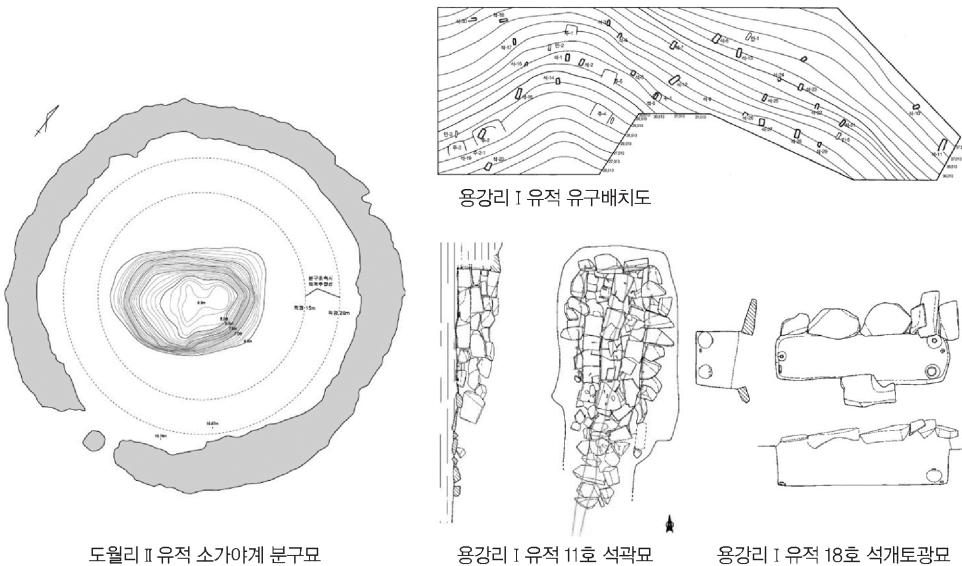
1.석정(대) 16호주, 2.도월리 Ⅱ 6호주, 3.인동리(동) 10호주, 4.목성리(두) I-2-61호주, 5.용강리산-1 B-3호주, 6.석정(대) 31호주, 7.도월리 Ⅱ 23호주, 8.인동리(동) 6-2호주, 9.목성리(두) I-2-76호주, 10.도월리 Ⅱ 18호주, 11.인동리(동) 3호주, 12.목성리(두) II-3-54호주, 13.도월리 I 4호주, 14.목성리(두) I-2-16호주, 15.용강리 I 1호주, 16.도월리 Ⅱ 11호주, 17.목성리(두) II-3-87호주(축척부동)

2) 고분유적

동천하류역에서 3세기~5세기대 고분은 명확하지 않고, 다만 석정(대)유적에서 장방형의 두형토기가 부장된 석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 이는 전남동부지역 전역으로 보아도 4세기~5세기대의 고분은 토광묘만 소수로 확인되며, 영산강유역이나 가야지역보다 더딘 사회발전상을 반영한다.

도월리유적에서 확인된 분구묘는 소가야계로 북동쪽으로 주거지가 밀집 분포하고 (고)광양만과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조성되었다. 현재는 단독이나 보고자는 마을 주민의 전언으로 “경지정리 전에는 이러한 고분이 몇 기 더 존재했다가 훼손되어 없어지고 고분 위에 민묘를 조성하였는데 대형의 칼 등이 나왔다”라고 하였다. 후대에 훼손과 삽평이 반복되면서 분구는 축소되었으나 추정되는 직경은 20m로 분구 주변을 감싸는 원형의 주구가 돌아간다. 매장주체부는 분정의 훼손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묘실의 바닥석으로 보이는 석재와 소가야계 개 등이 퇴적층에서 출토되었고, 지상식의 매장주체부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구는 남쪽으로 개방된 형태인데 분구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보이며, 이곳에 수혈 내부에서 수평구연호편이 출토되어 제의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주구 내부에서는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소가야양식 유공광구소호 1점이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동천하류역 동편에 마로산에서 뗀은 가지능선 상에 조성되었다. 용강리 I 유적에서는 30기, 용강리 산1-1유적에서는 3기가 확인되며, 백제계 또는 신라계이다.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는데, 가야지역이나 인근의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 소가야계 석곽이 등고선과 평행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백제지역의 조성 방식이다. 광양지역 주변 가야계 석곽묘는 장폭비 3:1~4:1로 세장방형이 많고, 백제계 석곽묘는 장폭비 3:1 미만 장방형(하승철 2022: 53)으로 용강리유적 석곽묘도 폭이 다소 넓은 장방형이다. 구조는 수혈식과 횡구식으로 추가장이 이루어진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백제유물은 단경호·병·관고리·관못 등이고, 신라유물은 인화문 유개합, 대금구 등으로 6세기 전엽~7세기 중·후엽으로 편년된다. 11호 석곽묘는 바닥에 구를 파서 배수구를 내고 암키와를 바닥 전면에 깔았는데 내면에 승석문이 있는 마로산성의 기와와 동일하고 순천 죽내리 성암고분에도 이와 같은 형식이 있다. 주목되는 것은 6세기 전엽~중엽의 18·30호 석개토광묘로 유물은 백제 토기이며, 6세기 전엽 이후 백제에 편입된 후에도 재지계의 토광묘 전통이 남아있는 과도기적인 양상이 확인된다. 20호 석곽묘 출토 대금구는 7세기 중·후엽으로 편년되며 신라와의 연



[도면 5] 동천하류역 고분유적(축척부동)

관성을 일부 찾을 수 있다.

3) 관방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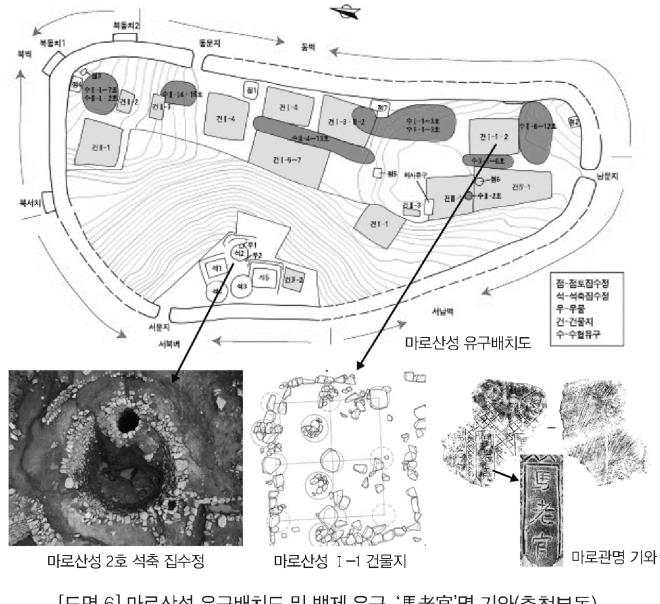
삼국시대 산성은 생활근거지에서 가깝고 유사시 즉시 입성하여 농성할 수 있는 비교적 높지 않은 산에 위치하며, 방어적인 기능과 행정적인 통치기능을 겸한다(박태홍 2007). 동천하류역의 관방유적으로는 馬老山城이 있다. 마로산성은 용강리유적의 남동쪽으로 해발 170~209m 선상에 위치하고 둘레 550m 정도의 내·외면을 돌로 쌓은 협축식 城으로, 이는 전남동부지역 내 백제산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성내에는 남쪽과 북쪽의 모서리 부분이 높아 주변을 살피기에 유리하고, 남문지에서 평坦하게 뾰족한 지형에 건물지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동문지 부근을 중심으로 평탄한 지형에 건물지·수혈·점토 집수정이, 서쪽은 급경사면으로 떨어지다가 서문지 부근의 비교적 평탄한 곳에 건물지·석축 집수정·우물 등이 배치되어 있다. 성 아래로 용강리·석정·도월리·인동리·목성리가 한눈에 들어오며, 남문지에서 바라봤을 때 남서쪽으로 약 8.5km 떨어진 곳에 백제산성인 순천 견단산성과 가시권을 공유하고 세풍리 일대의 (고)광양만이 조망 가능하다. 5차례의 발굴조사로 백제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건물지·집수정·수혈·저장공 등이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유구

들과 중복관계이거나 폐기 이후 축조된 유구들이 혼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모두 17동으로 이 중 백제 건물지는 I-1호, III-3호, IV-2호의 3동이며 나머지는 통일신라시대인 9~10세기대이다. 초축시기는 산성 내 백제 건물지와 집수정을 통해 6세기대로, 용강리유적에서 조성된 6세기 전엽

의 백제계 석곽묘를 통해 이 시기에 산성을 축성하여 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되는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명문기와로 ‘馬老官’, ‘末官’, ‘官年末’, ‘甲全官’, ‘軍易官’명 등이며, 특히 ‘마로관’명 기와를 통해 『삼국사기』에 기록된 馬老縣과 일치하는 지명⁵⁾이 고고자료로 실증되었다.

4) 생산유구

동천하류역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다. 도월리 I 과 II 유적에서는 방형계에 길게 뻗은 구가 있는 주조공방과 주조관련 수혈이 조사되었다. 주조공방은 선축된 9호 대수혈을 파괴하고 조성되었는데, 대수혈 내 점열문 뚜껑편을 통해 적어도 5세기대에 기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유구 내 송풍관편 · 노 벽체편 · 입상재 · 슬래그가 출토되었다. 주조관련 수혈에서는 주조철부 토제용법과 도가니 뚜껑 등이 수습되었다. 또한 인근의 방형계 주거지에서는 석재모루나 숫돌 등이 출토되고 있어 도월리 일대가 철 생산과 관련된 집단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도월리 일대의 범위는 좁은 면적에서 조사되었지만 76동의 주거지가 밀집하고 쟁지 수장층의 분구묘 등이 있으며, (고)광양만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서 대외교역과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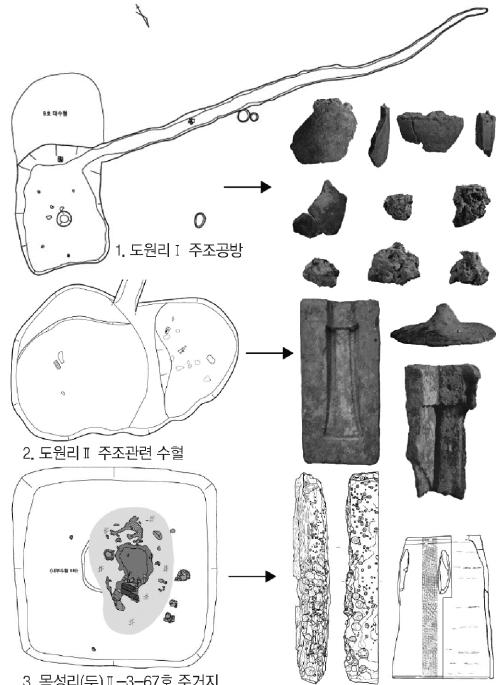


[도면 6] 마로산성 유구배치도 및 백제 유구, '馬老官'명 기와(축척부동)

5) 『三國史記』卷36 雜志 第5, “睇陽縣, 卒百濟馬老縣……”.

련된 철기류를 생산하고 반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목성리 일대에서도 생산과 관련된 공간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목성리 주거구역은 동천과 평행하며 소하천 내 미고지의 여러 군데로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목성리(두) II-3 지구의 67호 방형계 주거지에서 발화구 대석·연통형토기를 비롯하여 생산 관련 수혈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67호 주변 주거지에서는 숫돌과 철검·철부·철촉·철도자·철협 등의 철기류 등이 다량 출토되어 이곳이 동천하류역 집단 내 철과 관련된 장인들의 거주 공간 중에 하나로 생각된다.



[도면 7] 동천하류역 생산유구 및 출토유물(축척부동)

III. 동천하류역 출토 외래계 유물

1. 외래계 유물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동천하류역에서는 다수의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가야계·마한계·왜계·백제 등 다양하다. 대부분의 유물은 주거유적에서 수습되었고, 백제 유물은 고분유적과 마로산성에서 출토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외래계 유물을 검토해보고 II 장과 종합하여 연대 및 단계를 설정해보고자 한다.

1) 가야계 유물

동천하류역 유적에서 출토된 가야계 유물은 외부에서 반입되었거나 현지에서 모방한 것으로 계통적으로는 아라가야계·소가야계·대가야계·창녕계 등이다. 이 가운데 아라가야와 소가야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5세기 전엽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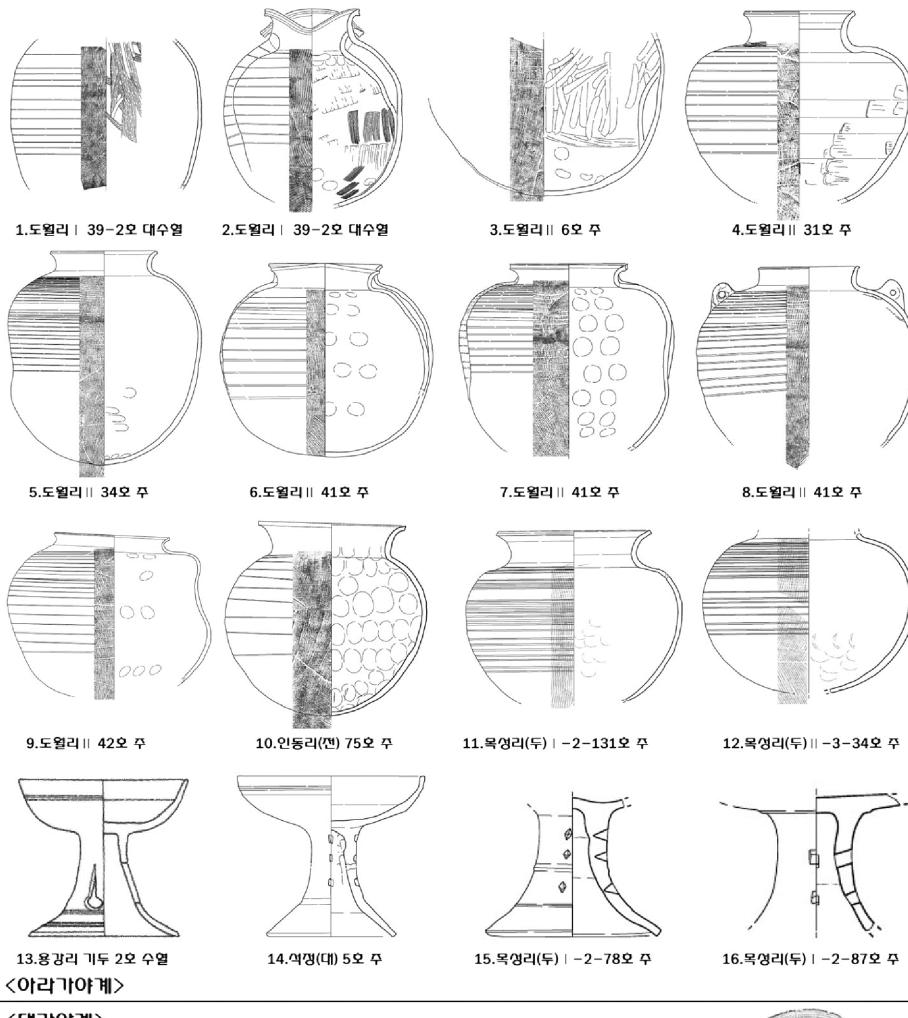
후가 되면 소가야계 유물의 출토 수량이 많다.

먼저 아라가야계는 고식도질토기 단계의 승문계타날호와 통형고배로 대표되는 기종이 확인된다. 분포권은 경남서부지역은 물론 광양, 여수, 고흥과 영산강유역의 영암 만수리유적, 장흥 상방촌유적에서도 철정이 출토되어 아라가야가 남해안을 따라 교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라가야계 유물은 주거지와 분묘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되고, 함안지역과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정치적 확대보다는 경제적 관계로 볼 수 있다(조근우 2019: 59). 동천하류역에서는 용강리 기두유적·석정유적·도월리유적·인동리유적·목성리유적에서 승문계타날호, 통형고배, 화염형투창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승문계타날호는 구연부가 외반하고 견부가 강조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동최대경이 동중위에 형성, 저부는 원저이다. 타날은 초기에 승석문에서 승석문과 승문이 공존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승문과 평행문이 시문되는데, 동천하류역 출토품은 모두 승문이다. 이러한 형식은 정주희(2008: 21~27)의 편년안에 따르면 C식으로 4세기 3/4분기에 해당한다. 주거지는 말각방형인 도월리Ⅱ 41호 주거지 외에 모두 원형계 주거지이고 공반되는 유물을 통해 보면 4세기 중엽~후엽으로 편년이 일치한다. 통형고배는 모두 3점으로 대각만 잔존하는 목성리(두) I -2-78 · 87호 주거지를 제외하고 거의 완형에 가까운 석정(대) 5호 주거지 출토품을 살펴보면, 구연은 직립, 배신은 약간 각이 지지만 둥글게 처리, 대각은 통형으로 내려오다가 팔자형으로 벌어지고 장방형의 투공을 뚫었다. 이는 함안 황사리 44호분 통형고배와 유사하며, 4세기 중엽~후엽으로 편년된다. 다만 말각방형에 가까운 주거지의 형태와 공반되는 유물로 보았을 때 4세기 후엽~5세기 전엽까지 볼 수 있으며, 목성리 출토 통형고배 또한 대각의 형태와 투공장식으로 보았을 때 비슷한 시기이다. 화염형투창고배는 용강리 기두 2호 수혈에서 출토되었는데 원형에 가까운 화염부에 꼬리가 짧고 2조 돌대가 있다. 이는 함안 도항리(문) 10호분 화염형투창고배와 비교되며, 4세기 후엽~5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이상 동천하류역에서 출토되는 아라가야계 토기는 4세기 중엽~5세기 전엽에 집중되고, 5세기 전엽을 넘지 않는다.

소가야계는 고식도질토기 단계의 4세기대를 대표하는 완형무투창고배와 5세기 대가 되면 지역양식토기의 정립으로 삼각투창고배·일단장방형투창고배·수평구연호·파수대부완·발형기대·개 등 동천하류역 주거지 내에서 여타 가야계 유물보다 압도적인 수량을 자랑한다. 완형무투창고배는 거창·함양·진주·사천·하동 등 경남서부지역 주거유적에서 특징적으로 확인되며, 동천하류역에서는 도월리유적·인

동리유적·목성리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배신의 형태는 다양하나 대체로 깊고, 구연은 외반, 대각은 사선방향의 팔자형으로 벌어진다. 도월리Ⅱ 11호 4주식 주거지를 제외하고 모두 원형계 주거지로 인동리 75호 주거지에서는 아라가야 승문계타날호와 공반되고, 대부분 경질무문의 생활용토기와 함께 출토된다. 삼각투창고배는 무개식과 유개식이 있고 완형 기준으로 무개식이 많다. 삼각투창의 형태는 다양하고 시기성을 반영하는 것은 돌대 유무, 구연단부 형태, 기고 등이 있다. 하승철(2015: 15~17)의 분류에 따르면 돌대는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변화하는데 5세기 2/4분기가 되면 돌대가 없는 삼각투창고배가 유행한다. 동천하류역 출토 삼각투창고배는 5세기 전엽~후엽까지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평구연호는 도월리Ⅰ 유적에서 지표수습되었고, 기고 18.9cm, 구경 17.4cm, 경부에 2조 돌대를 돌리고 파상문을 시문했다. 이는 순천 운평리 2호 토광묘 출토 수평구연호와 비교되며,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5세기 중엽~후엽으로 편년된다. 파수대부완은 목성리(두)Ⅰ-2-150호 출토품으로 배신이 각지게 꺾이다가 구연으로 올라가면서 외반하고 파수, 대각의 형태로 보아 진주 가좌(산39-6) 8지구 4호, 무촌 2구 85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는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되고 가야지역에서 직접 반입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발형기대는 편으로 출토된 것이 많지만 배부가 깊고, 3~4조의 돌대를 돌려 파상문을 시문하였고, 구연이 수평화되었다. 소가야양식 개의 특징은 점열문이 시문되고 상하로 엇갈리게 배치하는 ‘〈’자상이다. 꼭지는 단추형에 중앙이 살짝 올라오거나 오목한 것이며, 드림턱은 돌출된다. 하승철(2015: 25~26)의 분류에 따르면 기고는 점차 낮아져 4cm 이하, 문양은 3단·2단→2단·1단→1단, 구경은 15cm 내외에서 13cm 이하로 줄어든다. 동천하류역 소가야계 개는 5세기 중엽~6세기 전엽까지이다. 도월리 분구묘 주구 내부에서는 유공광구소호 1점이 출토되었다. 구연단부 내측에 1조의 요철을 돌리고, 구경부는 장경화 되어 동최대경보다 크며, 동최대경은 동중위에 형성된 편구형에 저부는 원저이다. 이러한 형태는 전형적인 소가야양식 유공광구소호의 특징이며,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해당한다(이유진 2008: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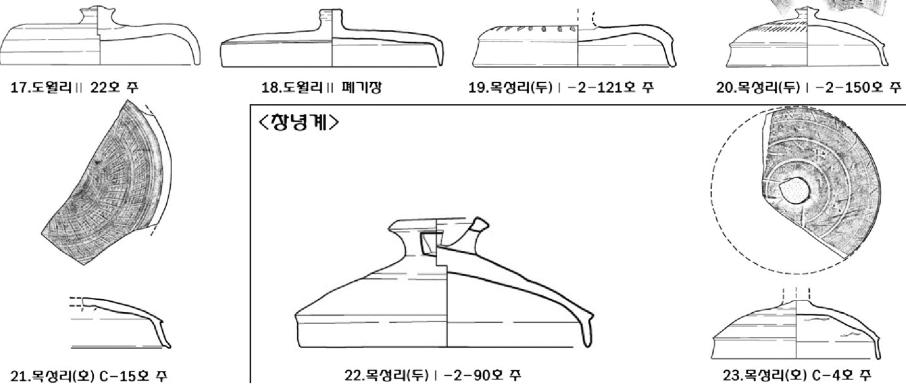
대가야계는 도월리유적과 목성리유적에서 출토된 개 5점이다. 대가야계의 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꼭지의 중앙 부분이 솟아오르고 유두형, 중산모형이 부착되며, 개신은 점열문 또는 유충문이 시문되고 완만하게 펴져 편평한 형태로 변한다(이희준 2008: 120). 동천하류역 출토 개의 특징을 살펴보면, 목성리(두)Ⅰ-2-150호 주거지 개는 꼭지가 단추형에 중앙이 솟아있고 점열문이 2단으로 시문되어 있다. 전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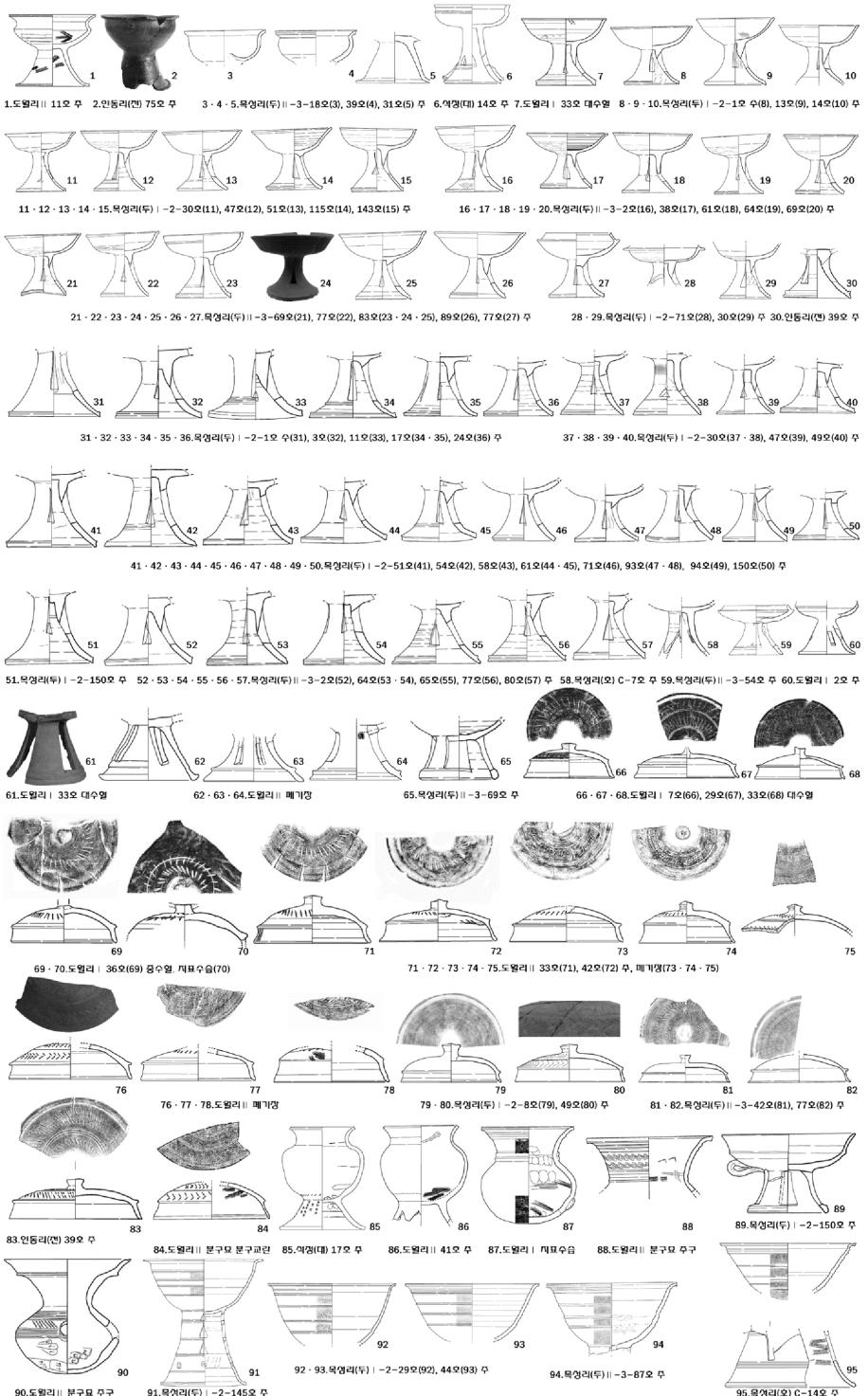
<아라가야계>

<대가야계>

<창녕계>



[도면 8] 동천하류역 출토 아라가야계 · 대가야계 · 창녕계 유물(축척부동)



[도면 9] 동천하류역 출토 소가야계 유물(축척부동)

기형의 형태는 하동 우복리 5호분과 유사하며, 공반되는 소가야계 파수대부완이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되는데 5세기 후엽~6세기 전엽까지 볼 수 있다. 도월리 Ⅱ 22호 주거지 · 폐기장, 목성리(두) I -2-121호 주거지 출토품은 개신이 편평한 편이고 꼭지는 단추형에 중앙이 솟아오른 형태와 유두형이 있다. 목성리 개는 유충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는 여수 고락산성 구상유구, 순천 운평리 M5호분 출토 개와 유사하며 6세기 전엽으로, 다만 조잡하게 제작되어 모방제품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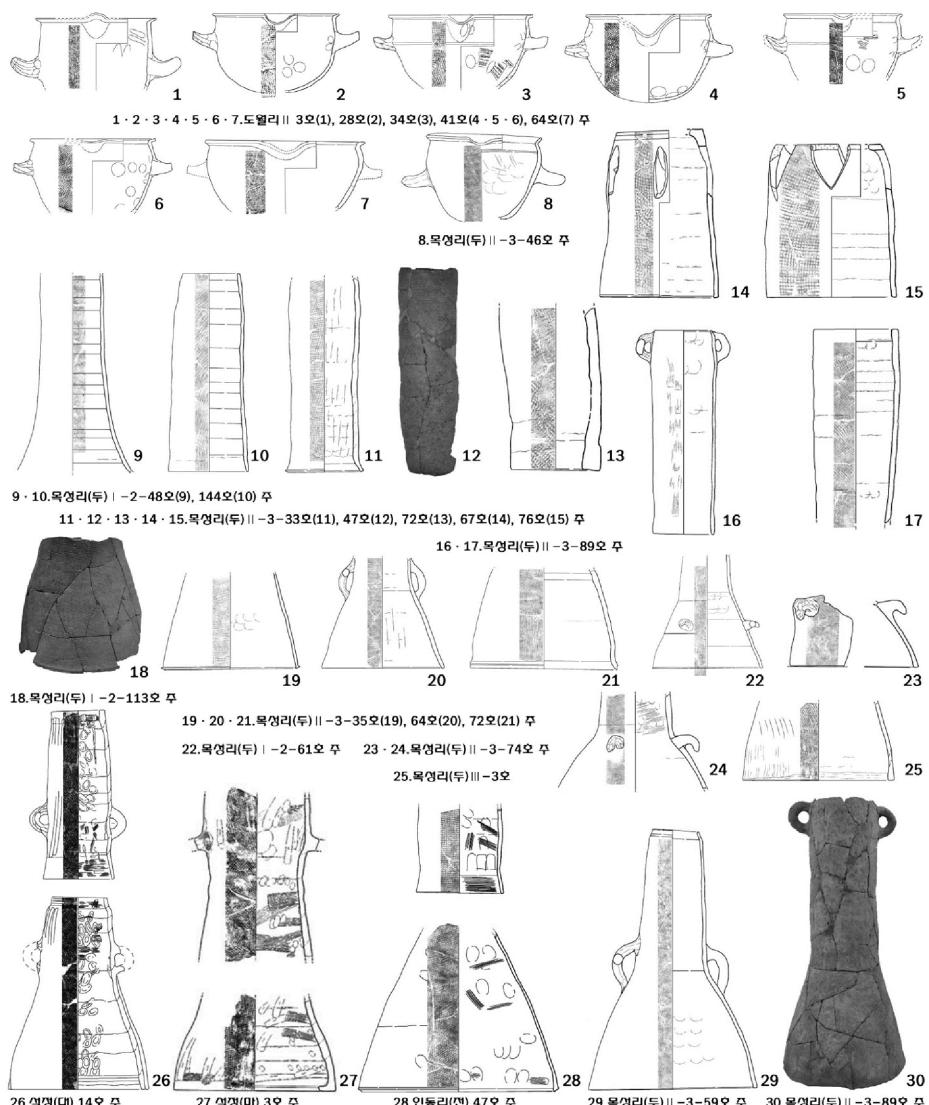
창녕계는 목성리유적에서 출토된 개 2점이다. 목성리(호)C-4호 개는 꼭지가 파손되었지만 유충문이 시문되었고,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목성리(두) I -2-90호 주거지 개는 대각도치형으로 창녕과 신라지역의 특징적인 형태이다. 꼭지의 구연은 곡선형을 띠면서 직립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 방형의 투창, 개신은 낮은 편이다. 이는 5세기 2/4분기로 편년되는 창녕 동리 1호 석곽묘 개나 5세기 4/4분기 또는 그보다 후행하는 창녕 교동 62호분 출토 개(110)와 형태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목성리 출토품은 전체적으로 조잡하고 창녕계 개에서 나타나는 유충문 같은 문양이 없는 점으로 보아 모방제품일 수 있다. 신라산일 가능성은 여수 화장동 나-3호, 둔전 12호 주거지와 같이 5세기 중엽~후엽 전남동부지역에서 출토된 대각도치형 개가 모두 창녕계인 점에서 목성리 출토품도 창녕지역과의 교역에서 수입했거나 모방한 제품으로 보인다.

2) 마한계 유물

동천하류역에서 출토된 생활용토기는 호남지역과 경남서부지역 내에서 기종의 구성이나 형태 등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 계통적인 출처를 찾기 어렵다. 다만 마한지역의 특징적인 기종으로 알려진 유물이 동천하류역에서도 확인되는데, 주구토기와 연통형토기가 있다.

주구토기는 구연에 액체를 따르는 주구가 부가된 토기로, 마한지역은 보통 바닥이 둥글고 동중위 또는 중상위에 파수를 부착하고, 구연부의 직경을 넓게 한 것이 일반적이다(김은정 2017: 136). 생활용토기는 시기적인 범위가 넓고 주구토기 또한 마찬가지다. 형태적인 속성 가운데 유의미한 것은 파수형태, 구연 형태, 저부 형태, 타날 등이 있다. 김은정(2017: 209~215)의 편년을 참고해보면, 마한지역 주구토기는 구연은 외반 또는 직립하고, 저부는 원저, 파수는 봉형 · 우각형 · 절두형이 부착되고 타날은 격자문계가 대부분으로 2세기대부터 4세기 중엽까지이다. 동천하류역에서

는 도월리유적과 목성리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원형계 주거지로 구연은 외반하고 저부는 원저이며, 파수는 봉형·우각형·절두형이 모두 있으며 타날은 무문 1점을 제외하고 격자문계이다. 공반관계로 살펴보면, 도월리 II 3호 주거지 주구토기는 무문에 함께 출토되는 유물도 경질무문토기이므로 가장 이른 시기이고, 34호와 41호 주거지는 아라가야 승문계타날호와 공반된다. 호남동부지역은 복합사회로의 진전이 늦은 지역(이동희 2014: 18~19)으로 토기에 있어서도 변화상이 느리며, 동천하류역의 주구토기 또한 기준 연구의 4세기 중엽보다 후행하는 4세기 후엽까지 볼



[도면 10] 동천하류역 출토 마한계 유물(축척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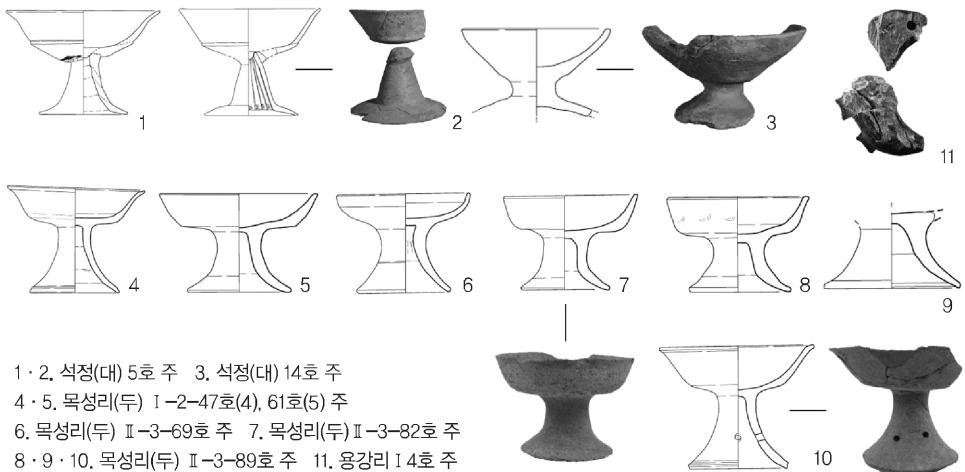
수 있다.

연통형토기는 부뚜막에서 연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토제품으로 배수관이나 부뚜막의 지주로도 사용하였다(최영주 2009: 40). 제작기법에 따른 형식설정이 가능하며, 정일(2012: 254~255)의 분류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원통형인 것은 상부가 내만, 직립, 상부를 막고 측면에 구멍을 뚫은 것이 있다. 다음은 상부와 하부를 결합하는 구조로 하부는 플라스크 또는 팔자형으로 벌어지고, 다시 파수의 형태나 부착유무로 분류한다. 또 상부는 내만하면서 돌대가 부착되고 하부는 플라스크형인 형태도 있는데, 인근의 마로산성에서 출토되었다. 동천하류역에서는 원통형과 하부 플라스크형이 확인되고 파수가 부착된 것은 우각형과 고리형으로 타날은 격자문계가 다수이나 평행문도 타날되었다. 대부분 방형계 주거지에서 출토되었고, 원형계 주거지인 석정(대) 14호 주거지 같은 경우 공반되는 이른 시기의 소가야계 삼각투창고배와 왜계 하자키로 보았을 때 5세기 전엽 무렵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원형계 주거지에서는 원통형 연통이 출토된다. 출토품의 속성을 반영한 형태는 정일의 분류에서 II A식의 상·하부 결합구조에 플라스크형이 더 많고 시기는 5세기대로 정확한 편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목성리(두) II -3-64 · 76 · 89호 방형계 주거지에서 5세기 중엽~후엽의 삼각투창고배가 공반된다. 그리고 67호 주거지에서는 동체부 상위에 5개의 타원형 투공을 뚫은 형식인데, 여수 둔전 25호 주거지 출토품과 같은 형식이고 25호에서 공반되는 소가야계 개로 보았을 때 5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된다.

3) 왜계 유물

동천하류역 유적에서 출토되는 왜계 유물은 하자키계 고배와 용강리유적에서 나온 모자곡옥 등이 있다.⁶⁾ 하자키계는 반입품이거나 재현, 모방품으로 구분된다. 계보는 布留式계와 山陰계로 분류할 수 있고, 山陰계는 대부분이 호형토기(井上主税 2007: 154)로 동천하류역 출토 고배는 布留式계에 속한다. 영남지역에서는 4세기대

6) 하자키는 기본적으로 연질소성이며, 판별기준으로 조정기법 가운데 깎기, 목리, 마연, 조으기, 목판긁기 등이 있고 대각 상부를 배신 내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접합한다. 또한 형태적으로 배신에 능이 지고 구연부가 길게 외반하는 형태와 배신이 반구형을 이루는 것이 있으며, 대각은 하위에서 꺾여지면서 벌어진다(안재호 2005: 조성원 2016). 1차적으로 연질소성 고배를 분류하였고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출토품을 살펴보았다. 다만 필자의 부족함과 유물을 실견하지 못하였기에 보고서의 유물원고와 사진을 기준으로 판별하였음을 이해 부탁드린다. 아울러 목성리(두) I-2-41호 주거지에서도 곡옥이 출토되었는데, 외부에서 반입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 역시 필자가 제통적인 출처를 밝힐 수 없어 각주로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도면 11] 동천하류역 출토 왜계 유물(축척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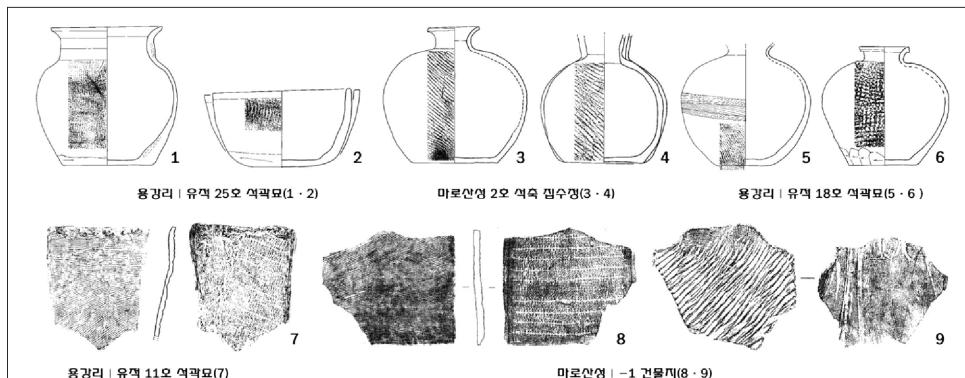
가 되면 고식도질토기 단계로 연질소성은 소량이며, 취락유적 출토 하지키계는 반입 품 또는 재현품이 많다. 4세기 후엽~5세기 전엽에는 고배류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와 마산, 진해, 거제, 광양 등의 남해안 일대를 따라 분포범위가 확대된다(조성원 2016: 159~160). 기존에 알려져 있듯이 광양에서는 동천하류역의 석정(대)유적에서 하지키계 고배가 보고되었으며, 원형계 또는 말각방형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공반되는 유물은 5호 주거지에서 아라가야계 통형고배, 14호 주거지에서 소가야계 삼각투창고배가 있으며, 4세기 중엽~5세기 전엽 가운데 5세기 전엽으로 판단된다. 이후 조사된 목성리유적에서도 하지키계 고배가 출토되었는데, 61호(두) 주거지를 제외하고 모두 방형계 주거지로 61호 출토 삼각투창고배의 형식으로 살펴봤을 때 5세기 전엽으로 보인다. 출토된 하지키계 고배들은 구연은 외반하며, 배신은 반구형에 하위 깎기흔, 내면은 조으기흔 등이 공통적인 요소이다. 특징적인 점은 분석이 곤란하여 제외한 연질고배류가 대부분 소가야계 삼각투창고배와 공반되며 하지키계로 분류한 유구에서도 삼각투창고배가 함께 출토되었다. 하지키계의 하한은 대체로 5세기 전엽이지만 목성리(두) II-3-82호 주거지에서 평행문계 장동옹과 공반되는 것으로 보아 5세기 중엽까지도 볼 여지가 있다. 모자곡옥은 용강리유적 4호에서 1점 출토되었고, 방형계 주거지로 보고자는 5세기대로 보았다. 왜계 유물은 동천하류역 집단이 교역, 교통상의 기착지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려주는 물질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후술할 내용을 통해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4) 백제 유물

동천하류역에서 출토된 백제 유물은 6세기 이후 백제가 전남동부권에 진출하면서 동천하류역 일대가 백제의 직접지배체제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하여 진출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유물로는 용강리유적 석곽묘 출토 토기류와 마로산성 평기와, 단경병 등이 있다.

먼저 토기류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는 용강리유적 25호 석곽묘, 마로산성 2호 석축 집수정 출토품이 있다. 용강리 25호 석곽묘에서는 광구호+대접의 조합으로 부장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양식은 사비기에 보이지 않고 웅진기에 해당한다 (이동희 2011: 153). 그리고 마로산성 2호 석축 집수정 출토 단경병은 2점으로 구연부가 외반하고 구순에는 1조 흠이 있으며, 동최대경이 동중위에 형성되었고, 저부는 평저로 다소 넓은 편이다. 이는 土田純子(2005: 8~14)의 분류에 따르면, 구연부는 웅진기가 되면 외반하는 것이 많아지고, 동체부는 동최대경이 동중위에 형성되는 것이 한성기~웅진기로, 저부가 넓은 형태는 웅진기까지 이어지면서 사비기로 갈수록 좁아진다.

[표 2, 도면 12] 용강리 I 유적 편년(표는 이동희 2011: 153 수정후 재인용) 및 백제 유물(축척부동)



| 평면형태 | 구조 | 출토유물 | 호수 | 연대 |
|--------|------------|-------------------------------|------------------|--------|
| (세)장방형 | 횡구식 | 광구호, 대접, 관고리, 관못 | 11,21,22,25호 | 6C 전반 |
| 세장방형 | 수혈식 | 개, 배, 단경호, 병, 심발, 철검, 철부, 철도자 | 18,30호 *석개토광묘 | 6C 2/4 |
| 장방형 | 횡구식 | 단경호, 병, 관고리, 관못 | 16,19호 | 6C 중후엽 |
| 장방형 | 횡구식 | 병, (인화문)유개합 | 7,8,9호 | 7C 전반 |
| 장방형 | 횡구식 수혈식 | (인화문)유개합, 철도자, 교구, 관못 | 1,6,15,17,20호 | 7C 중후엽 |

다음으로 기와류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는 용강리 11호 석곽묘, 마로산성 I-1 건물지 출토품이 있다. 용강리 11호 석곽묘는 바닥에 암키와를 깔았는데, 외면은 선문 타날에 내면은 승석문이다. 마로산성 I-1 건물지에서도 다량의 암키와, 수키와가 출토되었고 마찬가지로 외면은 선문 타날에 내면은 승석문이 대부분이다. 송미진(2007: 11~15)에 따르면 마로산성 백제 기와 같은 경우 와통은 통쪽형 → 원통형, 통보흔은 포흔 → 승석흔으로 사용 빈도가 변해가고 선문 타날에서 이른 시기의 속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분할면은 여러 번 조정한 것이 많지만 외면 → 내면도 있는데 내면 → 외면 분할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조합 양식은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여수 고락산성, 순천 검단산성보다 약간 이른 시기로 6세기 전엽~중엽 무렵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상기한 토기류와 기와류를 통한 동천하류역의 가장 이른 시기 백제 유물은 웅진기인 475년~538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6세기 전엽~중엽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연대 및 단계설정

전술한 검토 내용들을 통해 동천하류역 취락의 연대 및 단계설정을 해본다. 기준이 되는 것은 각 유적과 유구의 연대와 이 지역 집단의 시기에 따른 전개에 분기점이 되는 유물의 변화양상을 근거로 삼았다.

먼저 I기는 주거유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동천하류역 동쪽의 용강리 구릉 일대에서 1세기대 주거지가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3세기대가 되면 점차 평지로 주거구역이 확대된다. 목성리 · 도월리 · 인동리유적이 이에 해당하며, 평면형태 원형계 주거지로 소규모 군집을 이루며 조성되었다. 주거구역의 변화에 있어 상대적으로 협소한 구릉에서 넓은 평지로 확장하는 것은 집단의 규모가 점차 커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출토되는 유물은 생활용토기인 장동옹 · 시루 · 발형토기가 경질무문토기계통으로 각 형태적 속성 역시 3세기대를 반영한다. 4세기 중엽부터 외래의 주거문화와 유물이 이입된다. 즉 마한계 4주식이나 가야계 원형계+벽주식 주거지가 등장하고 마한계 주구토기, 고식도질토기단계의 아라가야계 승문계타날호 · 통형고배, 소가야계 완형무투창고배 등이다. 이러한 유물상은 5세기 전엽까지 확인되며, 주거형태 또한 5세기 전엽을 기점으로 원형계에서 방형계 주거지로 변한다. 따라서 I기는 3세

기~5세기 전엽으로 설정하였다.

Ⅱ기는 동천하류역 일대 충적지의 곳곳에 조성된 취락의 규모가 확대되고 방형계 주거지가 주류 주거문화로 위치한다. 특히 대규모 주거유적이 확인된 목성리 일대는 방형계가 우세하다. 동천하류역 취락은 생업·거주와 생산·교역 등으로의 경관이 보이고, (고)광양만과 인접한 도월리에서는 생산 유구가 확인된다. 또한 고분유적으로 도월리 분구묘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축조된다. 유물은 5세기 전엽이 되면 아래가야계은 반입되지 않고 소가야계 유물과 왜계 하지키, 마한계 연통형토기가 출토된다. 특히 소가야계 유물이 압도적으로 5세기 전엽~6세기 전엽까지 삼각투창고배·일단장방형투창고배·수평구연호·파수대부완·발형기대·개·유공광구소호 등 다종다양한 유물이 쏟아진다. 그에 반해 대가야계나 창녕계 유물이 5세기 중엽 이후에도 보이지만 소수 수량에 불과한 점이 주목된다. Ⅱ기는 주거형태의 변화와 취락의 경관 확장, 소가야계 유물이 확산되는 시기로 5세기 전엽~6세기 전엽으로 설정하였다.

Ⅲ기는 백제의 전남동부권 진출로 동천하류역에서 소가야계 유물이 급감하고, 백제지역의 묘제인 석곽묘와 마로산성이 축조되는 시기이다. 즉 백제의 직접지배체제 전환기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용강리 11호·25호 석곽묘, 마로산성 I-1건물지·2호 석축 집수정의 출토품을 통해 6세기 전엽 이후로 설정하였다.

IV. 동천하류역 취락의 형성과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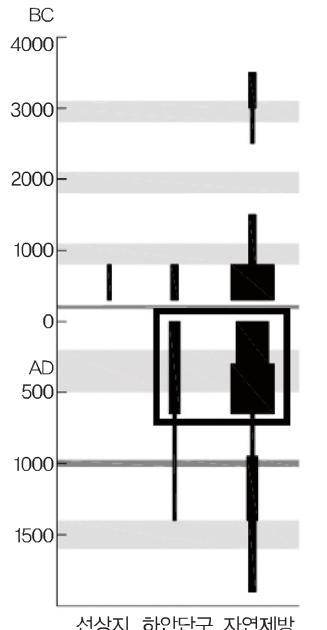
1. I 기

I기에 해당하는 3세기~5세기 전엽은 취락 입지의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주변으로 경관이 확장되기 시작한다. 즉 동천하류역 동쪽 용강리유적 일대를 중심으로 1세기대 취락이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3세기가 되면 서쪽의 넓은 충적지로 주거구역이 확대된다. 광양지역은 대부분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평야지대가 많은 편이 아니다. 동천하류역은 북쪽 산지에서 발원한 하천이 광양읍의 남쪽 인동리와 도월리 일대에서 서천과 합류하여 현재의 세풍리 일대부터 (고)광양만에 속한다.

이 지역 집단은 3세기가 되면 용강리 일원에서 점차 벗어나 목성리·도월리·인동리 유적에서 알 수 있듯이 충적지 곳곳에 형성된 미고지와 자연제방을 중심으로

소규모 군집을 이루며 마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목성리유적 삼국시대 수전충에서는 水田을 행했다고 볼 수 있는 벼의 규소체가 검출되기 때문에 충적지로 마을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으로 농경을 위한 생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충적지로의 입지 변화는 농경사회에 협소한 구릉에서 벗어나 대규모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이는 집단의 규모가 이전 시기보다 신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와 관련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기후 환경의 변화가 있다. 충적지는 대단위 농경지의 확보를 통해 농업생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하천변에 인접하기 때문에 범람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기후환경에 있어 온난기에는 충적지의 범람이 빈번해지고 한랭기가 되면 해수면이 하강하고, 하방침식과 측방침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하천 주변 지형은 범람으로부터 안전해진다(이홍종 · 손준호 2012: 55~56). 기존 연구에서 3세기가 되면 한랭기가 돌아오는데, 동천하류역 또한 구릉에서 평야지대로 주거유적 점유가 늘어나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주거문화에 있어서 이전 시기의 원형계 주거지와 경질무문 계통의 토기가 이어진다. 서쪽으로 인접한 고흥반도나 보성강유역은 일찍부터 방형계 주거지와 타날문 토기로 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까지 종전의 주거문화가 이어지는 것이다. 내부구조는 쪽구들식과 부뚜막식이 혼재하고, 기둥은 대부분 무주식이다. 이러한 주거양식이나 출토되는 생활용토기인 장동옹 · 시루 · 발형토기 등으로 보았을 때 구릉에서 평지로 거점을 이동한 집단이 외부 집단으로 볼 수는 없고 前시기부터 이어진 재지 토착집단으로 판단된다. 원형계 주거지는 연구자에 따라 광양지역의 타원형 주거지를 변한의 범위로 파악(김진철 2008: 63)하기도 하고 원형계 주거지를 이전 시기 재지적 주거문화의 전통에서 이어진다면서도 마한의 변방으로 인식(박미라 2010: 82)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거문화에 있어 이를 변한이나 마한의 분포범위로 볼 수는 없고, 주거구조나 유물이 이전 시기부터 이어져 온 연속성을 가지는 점과 마한계와 가야계가 교집합을 이루는 점이 기지대의 성격이기 때문에 토착집단에 의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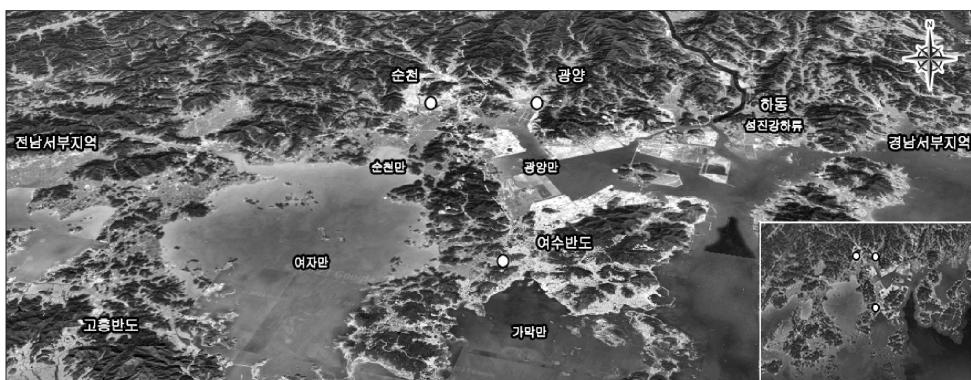


선상지 하안단구 자연제방
[도면 13] 호남지역 충적지 취락의
점유시기 변화
(이홍종 · 손준호 2012: 58 수정후
재인용, 가로 폭이 넓을수록 해당 입지의
취락이 다수임)

거문화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이기건 2020: 86). 다만 마한이나 변한이라는 정치체 요소를 배제하고 주거문화와 유물의 변화상을 본다면 동쪽으로 인접한 경남서부지역과 공통성이 강함을 시사한다.

한편 稲作을 통한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이를 통한 잉여생산물의 축적에 대한 기대값은 영산강유역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천하류역을 포함한 전남동부지역은 4~5세기대 영산강유역이나 가야지역과 같은 독자적인 고분 및 토기문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 이 지역이 정치·사회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회였음을 의미한다(이동희 2011: 126~127). 3세기가 되면 동천하류역 충적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확장되지만 대규모 취락으로 발전하였다기 보다는 소규모 단위의 군락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4세기 중엽이 되면 동천하류역에서 외래문화가 유입되고, 관계망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도월리 Ⅱ-11호 주거지는 마한의 주거문화인 4주식 주거지이고, 3호·34호·41호 주거지에서는 마한계 주구토기가 4세기 후엽까지 확인된다. 또한 가야계 유물로는 도월리·목성리·인동리·석정 유적에서 고식도질토기의 아라가야계 승문계타날호나 통형고배, 소가야계 완형무투창고배가 출토된다. 특히 도월리유적에서 외래문화와 유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도월리 일대가 (고) 광양만과 바로 인접하고, 고려시대까지 馬老浦가 이 주변에 위치하였던 점에서 동천하류역 집단이 외부세력과 교역하는 창구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외래적 요소는 동천하류역 전체로 보자면 소수이기 때문에 토착집단의 주도 아래 외부집단과의 교역을 통해 경제적 관계망을 구축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14] 광양 동천하류역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이 시기 동천하류역에서 외래문화의 등장 배경에는 주변 환경과 지리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양 동천하류역의 서쪽으로는 순천이고 남쪽의 광양만으로 나아가면 여수반도와 접한다. 이들 지역은 고대 여러 문화가 접면하는 점이지 대 성격을 띠며 순천의 중심취락으로는 덕암동 일대, 여수는 죽림리 일대에서 대규모 주거유적이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의 지리적 위치에 있어 근래 대두되는 서남해안 연안항로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임동민 2022). 요지는 백제-마한-가야-왜의 주요 교역로로서 남해안을 일주하는 연안항로를 이용하였는데, 연안항로 즉 육지를 가시권에 두고 항해하는 해양 교통로를 운용하였다는 것이다. 동천하류역은 바로 이 교통로 상의 기착지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쪽으로 帶沙로 비정되는 섬진강 하류역은 지형적으로 강폭이 좁아 안정적인 포구로 이용되기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근의 여수, 순천, 광양 등지가 포구로 이용되었을 것이란 견해(조영제 2018)에 동의한다. 광양은 광양만, 순천은 순천만, 여수는 가막만을 끼고 있는 안정적인 澹을 갖추고 있어 포구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지형·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외래 주거문화나 외래계 유물은 동천하류역의 토착집단이 남해안 일대에 갖춰진 교역체계에 편입되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I기는 동천하류역 취락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3세기대부터 서쪽에 형성된 충적지로 거점을 이동하면서 농경활동을 영위해 나갔다. 다만 영산강유역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농업생산력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3세기대 충적지 유적의 주거지로 보았을 때 소규모 군집을 이루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규모 취락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동천하류역 집단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광양만의 안정적인 포구를 이용한 교역을 통해 외부세력과 관계망을 형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3세기~5세기 전엽대 연안항로를 통한 교역에 있어 이 집단은 서쪽으로 마한, 동쪽으로 가야(변한)의 중간지점에 있는 해양 교통로상의 기착지로, 이들 정치체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담당하면서 대외교역을 모색하고 성장을 도모했던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2. II기

II기에 해당하는 5세기 전엽~6세기 전엽은 동천하류역의 서쪽 평야지대가 이 지역의 중심 거점으로 완전히 정착되고 경관이 확장되어가는 시기이며 다수의 외래계

유물이 쏟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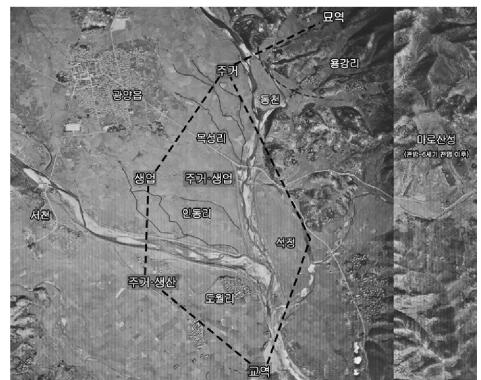
먼저 주거유적의 주거지 평면형태에 있어 5세기 전엽이 되면 원형계 주거지에서 방형계 주거지로 주거형태가 변하고 6세기 전엽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방형계 주거지로의 교체가 백제의 확장으로 이를 피해 내려온 마한계 피난민으로 보는 견해(두류문화연구원 2021)도 있으나 필자는 오히려 이전 논고에서 전남동부지역 주거형태 변화의 주체세력으로 소가야를 제시한 바 있다. 가야지역은 기원후 400년 고구려 남정으로 인한 정치적 변동과 토기, 주거문화의 분화가 일어나는 격변을 겪는다. 이때 전기가야의 大國으로 아라가야와 함께 연안항로를 통한 대외교역을 주도하던 가락국이 쇠퇴하고 고성과 경남서부지역 일대의 소가야세력이 성장하면서 아라가야의 수계망을 대신한다. 동천하류역에서는 아라가야계 유물이 5세기 전엽을 넘지 않고 소가야계 토기가 급증하면서 주거형태가 방형계로 변화하는 공통성이 있다(이기건 2020: 89). 그에 반해 마한계 4주식 주거지와 연통형토기 등이 확인되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원형계 주거지를 조성한 집단을 마한계 피난민이 대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5세기 전엽 이후 소가야계 유물은 삼각투창고배 · 일단장방형투창고배 · 수평구연호 · 파수대부완 · 발형기대 · 개 · 유공광구소호 등이 반입된다. 기존 연구에서 소가야계 토기는 전남동부지역 가운데 광양과 여수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하승철 2022). 최근 대규모 주거유적이 확인된 목성리 일대에서도 5세기 대가 되면 소가야계 유물이 여타 다른 외래계 유물보다 출토 수량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가 더욱 증가하였다. 소가야계 유물과 공반되는 유물을 살펴보면, 삼각투창고배는 5세기 전엽 왜계 하지키와 함께 출토된다. 석정(대)유적 14호 주거지와 목성리(두) I -2-61호 주거지에서는 삼각투창고배와 함께 공반되지만 석정(대) 5호 주거지는 아라가야계 통형고배가 공반되는 등 5세기 전엽 대외 관계망의 변화 속에 과도기적 양상이 보이기도 하지만 5세기 전엽을 넘어가면 소가야계 유물 일색이다. 이러한 외래계 유물의 출토양상은 동천하류역 집단이 아라가야 관계망을 대신한 소가야를 매개로 백제-마한-가야-왜로 이어지는 해양 네트워크에 포함되면서 발전을 모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종전 4세기 중엽부터 여러 외래문화가 이입되면서 경제적 관계망을 형성했던 동천하류역 집단이 5세기 전엽 이후 타 정치체보다 소가야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소가야에 정치적으로 예속된 관계나 소가야인들이 대거 이주

한 결과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5세기대에도 마한계 4주식 주거지가 산발적이지만 조성되고 있고, 연통형토기는 석정(대) 14호 주거지와 목성리(두) II-3-64 · 76 · 89호 주거지 등에서 삼각투창고배와 공반되는데 5세기 중엽~후엽까지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천하류역 집단은 여러 정치체의 문화가 접면하는 점이지대로서, 여러 계통의 주거형태와 유물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 지역을 주도한 것은 이를 받아들인 토착집단이었다고 판단된다.⁷⁾

5세기 중엽~후엽이 되면 소가야계 유물의 기종 구성이 다양해진다. 도월리유적에 서 수습된 수평구연호, 목성리(두) I-2-150호 출토 파수대부완, 이들 유적에서 출토 된 개, 발형기대 등이다. 또한 목성리유적 출토 창녕계 개는 5세기 중엽으로 모방제 품으로 보이지만 경남동부지역의 토기문화도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동천하류역 일대 경관의 외연이 확장된다. 도월리유적에서는 주조공방, 주조관련시설에서 송풍관편 · 노 벽체편 · 입상재 · 슬래그 · 주조철부 토제용범 · 도 가니 뚜껑 등이 출토되었다. 목성리 일대는 소하천 주변으로 여러 군락을 이루는데 II-3지구 같은 경우 67호 주거지에서 발화구 대석 · 연통형토기가 출토되었고, 이곳 주변으로 숫돌 · 철검 · 철부 · 철촉 · 철도자 · 철협 등이 다량으로 확인된다. 이는 동 천하류역 집단이 철 생산능력을 갖춤으로써 자체적으로 필요한 철기류를 제작하고 대외교역을 위한 생産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취락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락의 정치적 신장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도월리 일대에 조성된 분구 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추정되는 직경이 20m급으로 분구를 감싸는 주 구가 돌아가는데, 소가야양식 유공광구 소호가 출토되었다. 도월리 분구묘는 입 지 · 대형의 분구 · 지상식의 매장주체 부 · 출토유물로 보았을 때, 피장자는 소 가야지역과 관계성을 가지는 재지 수장 묘로 상정할 수 있다(이동희 2011: 141). 한편 동천하류역에서는 아직까지 5세기



[도면 15] 5세기 중엽 이후 동천하류역 일대 경관조직

7) 물론 동천하류역이 교역을 위한 기착지이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도 상주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정 주의 목적이 아닌 교역을 위한 '오고 가는' 임시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창녕 계성리유적은 한시적 으로 4세기 중엽~5세기 전엽 마한인들이 이주하여 교역을 행했던 생활유적이다.

대 이 지역의 묘제인 토팔묘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인근의 순천 운평리고분군, 여수 죽림리유적의 5세기대 토팔묘에서 소가야계 유물이 부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천하류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추정해볼 수 있고, 6세기대 묘제가 확인된 용강리 일대의 마로산 구릉이 중·하위 계층의 묘역, 도월리 일대가 상위 계층의 묘역이었을 가능성 있다.

5세기 중·후엽이 되면 가야지역의 경남서부지역에서는 산청 생초원, 함양지역이 기준의 소가야 토피에서 대가야 토피로 변하는데 기준 소가야가 차지한 관계망을 대가야가 대신한 것으로 이해된다. 함양과 남원으로 이어지고 섬진강 중·상류에서 남하하여 하류의 광양과 가까운 하동지역도 대가야 토피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그러나 이 시기 동천하류역에서 확인되는 대가야계 토피는 도월리와 목성리유적의 개 5점 정도로 여전히 소가야계 토피가 더 많다. 다만 5세기 후엽 순천지역에는 대가야의 후원을 받은 운평리고분군 집단이 이 지역을 주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동쪽의 광양 동천하류역도 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전남동부지역은 任那四縣으로 비정된다(전영래 1985; 이근우 1994; 김영심 1997; 김태식 2000; 문안식 2002; 이동희 2004; 박천수 2009; 하승철 2022). 그런데 대가야계 유물은 주거유적보다 고분유적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동천하류역에서 아직까지 이 시기의 토팔묘나 석곽묘 같은 묘제가 명확하지 않고, 도월리 일대의 재지 수장묘인 소가야계 분구묘만 확인되기 때문에 소가야계 유물 부장에서 대가야계로 변화하는 고분이 발견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Ⅱ기는 동천하류역 집단이 안정적인 광양만을 끼고 소가야를 매개로 해양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외교역의 기착지로써 발전해나갔다. 자체적인 생산 역량을 키웠고, 재지 수장총의 분구묘 조성은 이 지역 토착집단이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6세기 전엽까지 소가야계 유물이 이어지고, 대가야계 유물은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전남동부지역이 임나사현으로 비정되는 설을 따르자면 인근의 순천 운평리고분군이나 하동지역을 통해 동천하류역 역시 대가야가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3. Ⅲ기

Ⅲ기에 해당하는 6세기 전엽 이후는 기존 백제-마한-가야-왜로 이어지는 해양

네트워크가 와해되고 교통로 상의 기착지로 성장을 이루어낸 재지 토착집단이 백제의 직접지배체제로 편입되는 시기이다.

소가야계 유물은 6세기 전엽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현저히 급감하고, 이와 함께 이 시기 주거유적도 확인된 예가 적다. 이에 대해 백제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취락의 거점이 이동했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이유는 동천하류역과 인접하여 용강리 일대에 백제 고분이 조성되고 마로산성이 축성되기 때문에 치소가 다른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동천하류역 내에서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동했을 수는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가지 정도를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전술한 기후 환경의 변화이다. 3세기대 범람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기에 동천하류역 집단 역시 취락의 거점을 평야지대로 옮기면서 점차 성장해나갔다. 한랭기는 대체로 3~6세기까지로, 7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호서·호남지역에서 충적지 내 주거유적의 점유는 줄어드는데(이홍종·손준호 2012: 59) 지역별 환경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와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는 좀더 검토되어야겠지만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둘째, 6세기 전엽 이후는 백제 웅진기~사비기로 이때 백제의 주거양식은 점차 지상화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 동천하류역에서는 용강리 일대를 중심으로 백제계 석(실)곽묘가 조영되기 시작하고 백제 토기가 부장된다는 점에서 묘제와 함께 벽주건물의 주거양식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로산성 I-1건물지는 6세기 전엽~중엽으로 초석식의 건물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에 지상화가 이루어진 건물이 이미 확인되었다.

따라서 6세기 전엽 이후의 양상을 주거유적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용강리유적의 고분군과 마로산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그에 앞서 백제가 광양지역을 영역화한 시기와 관련된 임나사현에 대해 먼저 언급해보고자 한다.

『日本書紀』卷17, 繼體紀 6년 12월 기사⁸⁾의 임나사현 할양기사로 512년에 해당한다. 『日本書紀』는 다분히 윤색되었기 때문에 실제 임나사현을 장악한 것은 백제 東進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백제와 경쟁한 이 지역 정치체에 대한 해석으로, 우선 임나는 가야를 총칭한다. 동천하류역에서 고고학적 증거는 소가야와 더 밀접한

8) 『日本書紀』卷17, 繼體天皇 6年 12月, “(중략) 任那國의 上哆唎, 下哆唎, 嫡陀, 車婁 4현을 청하였다.(중략) 상표에 따라 임나 4현을 주었다.”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婆陀로 비정되는 순천 운평리고분군 집단과 帶沙로 비정되는 하동지역은 대가야와 관련이 깊다. 광양 동천하류역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언급처럼 대가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동천하류역 집단이 가야지역과 연결성이 강하다는 것은 이 지역 집단이 4세기 중엽부터 가야지역과 오랜 기간 관계망을 형성해왔기 때문으로, 동천하류역 일대가 임나사현 가운데 ‘牟婁’의 중심지로 지목된다.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마로관’명 기와는 ‘모루’와 지명이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문헌기록에서 전하는 512년대에 백제가 가야와 관련이 있는 이 지역을 장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고학적으로도 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용강리유적 25호 석곽묘에 부장된 광구호와 대접을 통해, 이 시기부터 백제계 석곽묘가 조성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 후행하는 18호 · 30호 석개토광묘에서는 백제 토기가 부장되지만 묘제에서 토착집단의 전통이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고분군의 조성과 비슷한 시기에 마로산성이 축성된다. 이는 마로산성 2호 석축집 수정 출토 단경병과 I -1건물지 출토 기와를 통해 알 수 있다. 마로산성 백제 기와는 이른 시기 용강리 11호 석곽묘 바닥에 깔린 암키와와 거의 유사하고, 6세기 중엽의 여수 고락산성, 순천 검단산성보다 약간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6세기 전엽~중엽 사이에 마로산성이 축성된 것으로 보이며, 6세기 중엽에는 광양을 포함한 전남동부지역이 백제의 직접지배 체제하에 완전히 편입되어 각 산성은 치소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여수 · 순천 · 광양 지역의 산성 축성은 기착지가 있는 磻과 인접한 곳에 쌓았다. 백제는 이를 통해 가야세력과 대외 교역을 하던 토착집단을 통제하고, 섬진강을 넘어 가야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방어의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광양 동천하류역은 3세기대 이후 이 지역의 대외교역을 담당하던 핵심적인 중심 취락으로, 5세기대부터 가야지역과 본격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모루’라는 정치 체로 성장했던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다. 6세기 전엽 이후 동천하류역 일대는 백제의 영역화 후에도 치소였던 점에서 여전히 광양지역의 거점으로 자리하였다. 또한 목성리(두) II -3-51 · 52호 주거지 출토 인화문 개, 편구병, 대부완과 마로산성의 건물지 를 통해 7세기 중 · 후엽인 통일신라시대에도 동천하류역이 광양지역의 중심취락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맷음말

광양 동천하류역은 최근까지 지속적인 발굴조사 성과로 고고자료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지역에서는 주거·고분·관방·생산 등의 복합유적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광의적 의미에서의 취락으로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곳은 다수의 외래계 유물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이 지역이 가지는 자연·지리적 환경과 점이지대의 성격을 띠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들을 검토하여, 자연·지리적 환경의 변화와 각 유적과 유구의 연대, 이 지역 집단의 시기에 따른 전개에 분기점이 되는 유물의 변화양상을 근거로 I~III단계를 설정하여 광양 동천하류역 취락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I 기인 3세기대가 되면 토착집단은 평지로 취락의 거점을 이동하면서 활동하였고, 4세기 중엽부터 타 지역의 주거문화와 유물이 반입되어 점이지대의 성격을 떤다. 지리적으로 마한과 가야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이 늦었던 이 지역 집단은 이를 극복하고자 교역에 집중하면서 성장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I 기인 5세기 전엽부터 소가야계 유물은 타 정치체보다 압도적인 수량을 자랑하고 주거형태도 방형계로 바뀐다. 그리고 이 시기 마한계와 왜계 유물의 반입을 통해 백제-마한-가야-왜로 이어지는 해양 교통로에서 가교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동천하류역 집단은 종전의 경제적 관계에서 벗어나 소가야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자체적인 철 물품 생산과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재지 수장묘인 분구묘를 조성함으로써 토착집단의 정치적 신장을 짐작할 수 있다. 전남동부지역은 임나사현으로 비정되고, 광양 동천하류역이 모루의 중심취락으로 지목할 수 있다.

III 기인 6세기 전엽 이후 백제 고분군과 마로산성이 조성됨으로써 동천하류역의 토착집단은 백제의 직접지배 체제에 편입되지만 여전히 이 지역이 치소로 기능함에 따라 광양지역의 중심취락으로 자리하였다.

투고일 2023. 12. 31 | 심사완료일 2024. 1. 15 | 게재확정일 2024. 2. 8

참고문헌

- 『三國史記』.
- 『日本書紀』.
- 김영심,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2017, 「호남지역의 마한 토기: 주거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훈, 2019, 「광양만권 1~6세기 주거지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일, 2006, 「경관고고학의 이론적 특징과 적용 가능성」, 『한국고고학보』58, 한국고고학회.
- 김진철, 2008, 「삼국시대 타원형 수혈주거지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식, 2000, 「역사학에서 본 고령 가라국사」, 『가야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문안식, 2002, 『백제의 영역확장과 지방통치』, 신서원.
- 박미라, 2010, 「전남동부지역 가야계토기 출토 주거지의 성격」, 『문화사학』33, 한국문화사학회.
- _____. 2019, 「전남지역 주거-「조 비교분석을 통한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호남고고학회 제27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호남고고학회.
- 박천수, 2009,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대가야와 백제-임나사현과 기문, 대사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65, 한국상고사학회.
- 박태홍, 2007, 「全南 東部地域 百濟山城의 分布와 그 意味」, 『한국상고사학보』56, 한국상고사학회.
- 송미진, 2007, 「마로산성 출토 평기와: 백제기와를 중심으로」, 『한국기와학회 학술논집』3, 한국기와학회.
- 식문화탐구회, 2008, 『취사의 고고학(한지선)』, 서경문화사.
- 안제호, 2005, 「韓半島에서 출토된 倭 관련 文物-3~6세기를 중심으로-」, 『왜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이근우, 1994, 「『日本書記』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건, 2020, 「삼국시대 남해안지역 수혈주거지 연-「경남서부지역 및 전남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희, 2004, 「全南東部地域의 加倻系土器와 歷史的 性格」, 『한국상고사학보』46,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11, 「삼국시대 전남동부지역의 문화상과 교류」, 『삼국시대 남해안의 문화상과 교류』, 제3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 _____. 2014, 「1~5세기 호남동부지역의 주거와 취락」, 『야외고고학』19, 한국매장문화재협회.
- 이유진, 2008, 「5~6세기 유공광구호의 변천과 분포」, 『영남고고학』46, 영남고고학회.
- 이홍종·손준호, 2012, 「충적지 취락의 지형환경」, 『영남고고학』63, 영남고고학회.
- 이희준, 2008,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1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임동민, 2022, 「가야-백제 관계와 동아시아-백제 한성기 서남해안 연안항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의 가야』, 2022년 한국고대사학회 가야사 기획 학술회의, 한국고대사학회.
- 전영래, 1985, 「백제남방경역의 변천」, 『천관우선 생활력기념 한국사학논총』.
- 井上主税, 2007, 「영남지방 출토 왜제유물로 본 한일교섭」,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일, 2012, 「全南地城 煙筒形土器에 대한 檢討」, 『광양 용강리 석정유적』, 대한문화재연구원.
- 정주희, 2008, 「咸安樣式 古式陶質土器의 分布定型에 관한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효은, 2015, 「경남서부지역 삼국시대 생활용 토기의 변천과 의미」,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근우, 2019, 「섬진강유역 가야문화의 형성과 변천-호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2019년 가야사 기획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조성원, 2016, 「영남지역 출토 4~5세기대 土師器系土器의 재검토」, 『한국고고학보』99, 한국고고학회.
- 조영제, 2018, 「하동의 가야·선사문화」, 『섬진강의 고고학』, 경상대박물관.

- 최영주, 2009. 「삼국시대 토제연통 연구: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31, 호남고고학회.
- 土田純子, 2005, 「백제 단정명 연구」, 『百濟研究』4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하승천, 2015,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2, 「섬진강 하류지역 가야문화의 확산과 정치체의 변동」, 『역사학연구』88, 호남사학회.

※ 보고서는 [표 1]을 참고바라며, 지면관계상 생략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3rd~6rd Century Settlements in the downstream of Dong-cheon, Gwangyang

Lee, Gi-Gun(Researcher, Sej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process of settlements formation and development during the 3rd ~ 6th centuries in the down Dong-cheon area among the Gwangyang area, which is a regional area in the eastern part of Jeonnam. This region has been continuously yielding archaeological findings through recent ongoing excavations, necessitating further research utilizing both existing and newly acquired data.

The historic sites over the down stream of Dong-cheon, Gwangyang region have been studied are 7 points and 10 locations. This place can be classified broadly into their features such as dwelling, mound, fortress, and production. This area is also where many foreign artifacts are concentrated.

This is understood as the nature of the natural and geographic environment and the transitional zone of this area. Therefore, the above contents were reviewed, an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Dong-cheon Stream downstream region in Gwangyang was examined by dividing them into I ~ III.

In the 1nd period, natives broaden their residence to flatland in the 3rd centries and their housing culture and relics started to flow in and features as the transitional zone in the Mid-4th centries. It seemed that having grown while serving as a stopover for foreign relations, that to overcome the geographical limitation causing slow development, which located in boarder area of Mahan(馬

韓) and Gaya(加耶).

In the 2nd period, after early 5th centuries, the amount of Sogaya(小加耶) type relics have been appeared to overwhelmed to other political systems. Also their form of habitations had changed into a square shape. Through the importing Mahan or Wae type relics, it can be seen as means of bridge in marine route connecting Baekje(百濟)-Mahan(馬韓)-Gaya(加耶)-Wae(倭) during this term. The downstream group of Dong-cheon, formed relationship between Sogaya(小加耶) more closely. It can be estimated by producing their own products and constructing mounded tomb of regional head's tomb from the late 5th centuries to early 6th centuries, that indigenous forces had been increased. The eastern part of Jeonnam was designated as Imnasahyun(任那四縣), and it is certain that downstream of Dong-cheon were central settlement in Moru(牟婁).

In the 3rd period, passing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with the construction of Baekje(百濟) tombs and Maro Mountain Fortress, the downstream of Dong-cheon was included in the direct ruling system of Baekje's local administration, and it still remained as the central settlement of the Gwangyang region.

Key words : Settlement, transitional zone, Maritime Network, Gaya, Mahan, Baekje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 재현품 제작과 의의

Restoration Production and Review of
Knives with Decorated excavated in
Songje-Ri, Tomb No1, Naju.

이 건 용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강 민 정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I. 머리말

II. 유물 출토정황과 성격

III. 비교자료

IV. 복원과 재현품 제작

V. 고찰

VI. 맺음말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출토 장식도자 재현품 제작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연구 과정은 첫째, 장식도자의 출토성황과 과학적 분석을 활용한 관찰 내용을 정리. 둘째, 다른 삼국시대 장식도자를 비교하여 제작에 참고했던 선별자료를 제시. 셋째, 복원도와 설계도면의 작성과정과 제작과정 소개. 넷째, 완성된 재현품에 대한 검토와 고고학적인 고찰 순으로 진행하였다.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장식도자는 공주 무령왕릉과 고성 송학동 IC호분, 일본 간논야마 고분 출토품과 비슷한 구조이다. 특히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의 형태를 참고하여, 제작유물의 결실부위를 복원할 수 있었다. 재현품의 본격적인 제작은 부품을 먼저 만들고, 조립하여 완성하였다. 사용한 주요 제작 기법으로는 디이포밍, 각접기, 선뽑기(인발), 문양찍기(스탬핑)가 있다. 완성된 재현품은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와 재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도 칼자루 금구뿐만 아니라 칼집 고정금구에 고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일본 간논야마 장식도자의 고리 1쌍은 이들 장식도자를 서로 동일한 양식으로 판단할 근거로 생각된다.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과 공주 무령왕릉(왕) 출토품과 같은 장식도자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유행했던 장식도자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두 유구에서 출토된 장식도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 연달아 제작하여, 당시 장인에 대한 정치·경제적 후원을 고려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하였다.

주제어 : 삼국시대, 장식소도, 제작기술,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공주 무령왕릉

I . 머리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의 복원과 재현을 목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2022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한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의 장식도자 제작기술 복원 학술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이다.

재현품 제작은 원래 유물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유물의 재질·구조, 장인의 기법 등을 포괄한 제작기술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이다(이현상 외 2018; 塚本敏夫 2021). 이 연구는 보존과학 또는 실험 고고학의 일종으로 대상 유물의 재질과 구조에 관한 관찰과 과학적 분석결과를 기초로 복원한다. 그 다음 복원 안을 바탕으로 숙련된 제작자의 경험과 기법에 의거하여 작업과정을 설계하고 재현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친다. 비록 재현품 제작 연구는 과거의 행위와 반드시 일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 유물의 해석에 있어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조대연 2020: 50).

제작 대상인 나주 송제리 1호분 도자는 은과 금으로 만든 여러 장식이 부가된 장식도자이다. 장식도자는 금·은 등 귀금속 장식을 베푼 소도[도자](藤村翔 2013: 321)로 장식대도(金洛中 2006: 55; 禹炳喆 2015: 105)의 개념과 대응한다. 상위 계층의 무덤에서 확인되는 장식도자는 귀금속 재질의 복합적인 장식이 확인되므로, 이 유형의 장식도자를 왕이나 귀족들이 패용했던 제품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노태호 2014: 118~119).

그러나 장식도자에 관한 연구는 장식소도가 출토된 고분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 상황은 저조한 편(藤村翔 2013: 321)으로 출토 수량이 적고, 크기가 작아 훼손이 심하면 그 형태를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한 까닭에 장식도자의 병두금구 형태가 같은 장식대도를 함께 연구하여 연구 영역을 확장하기도 하였다(김우대 2012).

이번 연구는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의 재현품 제작과정을 다룬 논문으로 제작과정과 그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출토정황 검토, 과학적 분석을 활용한 관찰 내용 정리, 비교가능 유물에 대한 선별과 조사, 대상유물의 복원과 재현품 제작 과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나아가 마한·백제, 신라, 가야 장식도자의 발전과정 속에서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의 특징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Ⅱ . 유물 출토정황과 성격

1. 출토정황

나주 송제리 고분군은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산 13번지에 위치한 고분이다. 1987년도에 도굴된 상태로 알려진 후, 2000년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실측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18~2020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이전에 조사된 고분 1호분 외에 총 5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장식도자가 출토된 1호분은 지름 20m, 높이 3m 이상을 쌓아 축조한 고분이다. 고분의 매장시설은 궁륭식 천장 구조의 횡혈식 석실분으로 석실은 분구 축조와 함께 동시에 축조되었다. 석실의 현실은 소형 할석을 바닥석으로 깔아놓았고, 바닥석 상면에서 장식도자와 함께 관식, 허리띠 장식[대장식구], 청동잔, 철도, 철검,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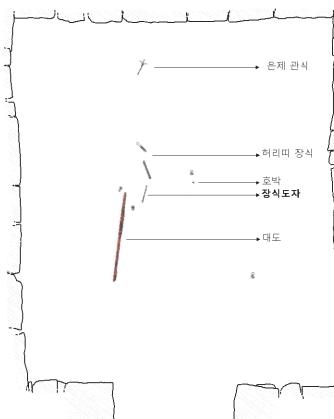
장식도자는 현실 중앙에서 은제 대장식구, 철검, 철도 사이에서 확인되었다(도면 1-①). 자세한 위치는 철도 자루[슴베]의 동측에 해당되어 피장자의 허리 부근으로 추정된다. 장식도자는 분리되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 관련된 금구들이 확인된다. 각 장식도자의 편들은 반경 15cm 내외에서 확인되어, 원래부장된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칼집[鞘部] 혹은 칼자루[柄部] 장식으로 추정된 금제 장식은 근처 흙에 대한 물체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유물의 상세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2. 유물 성격

접합한 장식도자는 [도면 1-③]과 같고, 확인된 각 금구의 위치와 부위별 명칭은 [도면 1-②]와 같다. 분석결과 칼은 철로 만들고, 금구와 장식은 은과 금으로 제작되었다. 부위별 특징은 실물과 CT영상으로 확인하였고,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부위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도면 2). 칼의 앞쪽에는 수축된 상태로 8각 단면의 칼집이 남아 있다. 그 끝에는 여러 방향에서 잘라내어 형태를 만든 흔적이 확인된다. 칼집과 병연금구 바깥쪽 면, 초구금구 안쪽에서 칼집 바깥쪽 면을 칠했던 옻칠 편이 남아 있다.

① 주요 유물 출토위치



② 장식도자 부위별 명칭(보존처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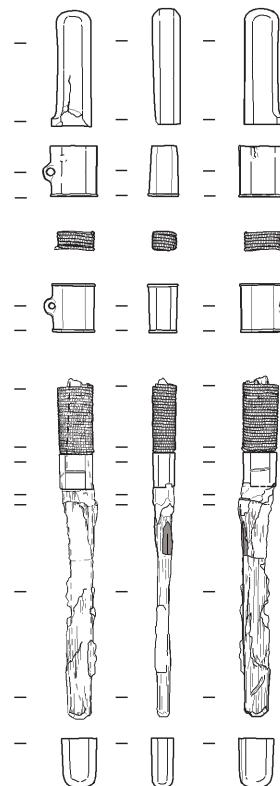


③ 장식도자 사진, 도면, CT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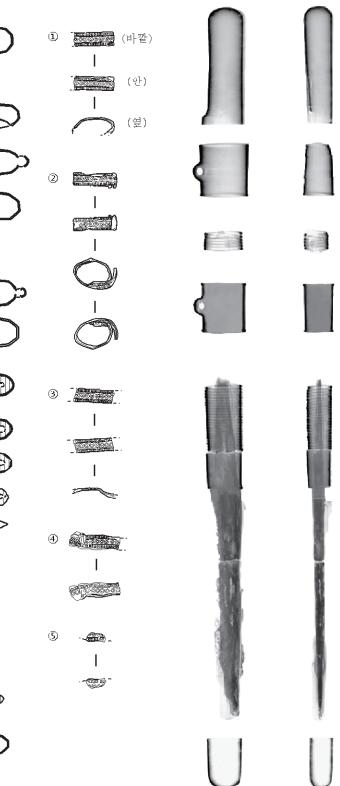
사진



실측도면



CT사진



오른쪽(A) 면 뒷쪽 면 권쪽(B) 면

[도면 1] 장식도자 출토위치, 부위별 명칭, 장식도자 사진 · 도면 · CT



[도면 2] 장식도자 칼, 병두금구, 병부금구, 병연금구



[도면 3] 장식도자 초구금구, 초부장식(은선), 병부 · 초부장식(금고리)

병두금구, 추정 병부금구, 병연금구, 초구금구, 초미금구는 단면이 팔각형인 통형이다. 이 금구는 두께 0.5mm 내외의 은판으로 만들었다. 병두금구의 바깥쪽에는 은땀 등으로 메워진 ‘十’형의 틈이 확인되고, 초미금구 안쪽에는 끝부분을 접어서 마감했다.

[표 1] 장식도자의 특징

| 부위 | 검토 사항 | 특징 | 비고 | 부위 | 검토 사항 | 특징 | 비고 | |
|------------------|----------|--------------------------|----------|----------------------|----------|------------------------|----|--|
| 칼 크기 | 형태 | 편관형, 칼날단면: 이등변삼각형 | | 초구 금구 제작 기법 | 형태 | 통형, 8각 단면 | | |
| | 잔존길이 | 14.2cm | | | 소재 | 은 | | |
| | 부위별 길이 | 칼날: 10.1cm 슴베: 4.1cm | | | 크기(평면기준) | 2×1.8cm | | |
| | 형태 | 8각 단면 | | | 몸체 | 각접기(정, 흄 흔적), 단접용접, 땜질 | | |
| | 소재 | 나무 | | | 고리 | 있음(타출과 투공) | | |
| | 옻칠 유무 | 유(추정) | | | 은띠 | 있음 | | |
| 병두 금구 | 형태 | 통형, 상부 원두형, 8각 단면, 하단 돌출 | | | 광쇠 방향 | 가로 방향 | | |
| | 소재 | 은 | | | 형태 | 통형, 8각 단면 | | |
| | 크기(평면기준) | 4.9×1.7cm | | | 소재 | 은 | | |
| | 제작 기법 | 몸체 | | | 크기(평면기준) | 1.4×2.1cm | | |
| | 광쇠 방향 | 가로 방향 | | | 제작기법 | 각접기(추정) | | |
| | 형태 | 통형, 8각 단면 | | | 광쇠방향 | 가로 방향 | | |
| 병부 금구 (추정) | 소재 | 은 | | 초부 · 병부 장식 | 형태 | 고리형 | | |
| | 크기 | 2×2.18cm | | | 소재 | 금, 은(추정) | | |
| | 제작 기법 | 몸체 | | | 문양 종류 | 새김눈, ○, 긴 선형 | | |
| | | 고리 | | | 속심유무 | 유, 가능성 높음 | | |
| | | 은띠 | | | 크기(평면기준) | 1.2×~3.2~3.6cm | | |
| | | 광쇠 방향 | | | 제작기법 | 스탬핑, 은지금장(추정) | | |
| 병연 금구 | 형태 | 통형, 8각 단면 | | | 형태 | 선형 | | |
| | 크기 | 1.4×1.4cm | | | 소재 | 은 | | |
| | 제작 기법 | 몸체 | | | 제작 기법 | 문양 새김 | | |
| | 광쇠 방향 | 가로 방향 | | | | 스탬핑 | | |
| | 기타 | ‘ ’자형 선각, 칼자루 끝 마감 | 제작 기법 | 김는 방법 | 1줄, 나선형 | | | |

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병부·병연·초구금구의 안쪽에는 각이 있는 부위를 따라서 점열이 확인되어, 점을 부위에 1열로 점을 찍어 홈을 내고 바깥쪽에서 점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병부·초구금구 하단의 고리에는 직경 0.3cm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다. 이 고리는 금구 안쪽에서 타출하여 제작하였다. 두 금구의 입구 쪽에는 0.1cm 정도의 은띠를 두르고 있다. 이 은띠는 점었거나, 붙였던 것으로 보이며 병부금구는 한쪽, 초구금구는 양쪽 입구에서 확인된다. 이 통형의 금구 바깥쪽 면에서 관찰된 연마 또는 광쇠 흔적은 [도면 1-③]을 기준으로 가로방향으로 확인된다.

초부장식으로는 폭 0.12cm, 두께 0.05cm 정도의 은선 1줄을 나선형을 감아 제작하였고, 바깥쪽 면에는 연달아 새김눈[刻目] 장식을 하였다. 새김눈 장식의 단면은 마치 톱니와 같이 일정하다. 은선의 시작점 또는 끝점으로 추정되는 ‘ㄱ’자형으로 꺾여 있는 고정 부위가 확인된다.

초부·병부장식으로 추정되는 고리형태의 금구가 5개 편으로 확인되었다. 금고리 위치는 초미금구 근처에서 확인된 ①번 편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 각 금고리는 동일한 형태의 문양이 찍혀 있으며, ②번 편으로 원래 형태를 알 수 있다. 금고리의 안쪽에는 양끝을 점었던 부위, 잘 접기 위한 칼집흔적이 남아있다. 안쪽면의 점은 부위와 [도면 3-③]과 같은 부식물로 보아 원래는 지판으로 볼 수 있는 금속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 각 부품은 비교적 형태가 잘 남아 있지만 복원하기 위한 목제 칼집·칼자루 형태와 크기, 각 금구들의 위치와 기능에 관한 단서를 확인하기 어렵다.

III. 비교자료

1. 삼국시대 장식도자 비교자료

[도면 4]는 마한·백제, 가야, 신라권 장식도자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확인하고자, 출토된 유구의 각 연구자별 편년을 참고하여 시기별로 분류한 도면이다. 비교자료는 각 금구의 형태와 구성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였다. 금구 구성으로 병두·병연·초구·초미금구를 갖추거나, 기타 초부금구, 병부·초부장식이 확인된 장식도

* 점선은 실선과 같이 연대적 선후관계를 표현하되,
유구간 분기별 편년이 모호한 유구의 경우에 사용하였다.

| 연대 | 문화권 마한·백제 | 가야 | 신라 | 비고 |
|--------------------------|--------------|----|--|----|
| 6C 1/4 | | | | |
| 6C 2/4 | | | | |
| 6C 3/4 | | | | |
| 6C 4/4 | | | | |
| 7C 1/4 ~ 7C 2/4 | | | <p>연구자별 유구 편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한·백제: 나주 신촌리 9호분 乙관(오동선 2022 : 176) 광주 무령왕릉(무령왕릉 출토 지석) 나주 대안리 4호분(우진영 2023 : 33) 나주 복암리 3-7호 석실(오동선 2022 : 248) 익산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암구(김상현 2014 : 59) ■ 신라: 각 고분(김용성 1998, 김두철 2011, 홍보식 2014, 최병현 2017) - 금관총의 상한 연대를 5세기 3/4분기까지 올려보기도 한다. ■ 가야: 합천 옥진 M11호(박진수 2010; 김두철 2011, 홍보식 2014; 오동선 2022) 고성 승학동 1C호분(김준식 2020) | |

[도면 4] 마한·백제, 가야, 신라권 장식도자 비교자료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문화권별 장식도자의 주요 특징은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칼자루와 칼집을 대상으로 칼과 병부의 길이 비율, 칼집 길이에 따른 유형, 또 모자도와 같이 자도 부착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각 문화권별 삼국시대 장식도자들을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삼국시대 장식도자 특징 비교

| | 마한·백제 | 신라 | 가야 | 비고 | | | | | | | | |
|--------|--|---|---|-----------------------------|-------|--------------------------------------|--------|-------------------|--------|-------------------|--|--|
| 6세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 대안리 4호분(소재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 무령왕릉, 나주 송제리 1호분 출토품과 유사 ■ 나주 신촌리 9호분 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도자 초기형 ■ 공주 무령왕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모자도 양식 - 칼자루 B유형 - 칼집 A·B유형 - 병부 금구(有) - 일본 간논야마고분 출토품과의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남대총 북분 허리띠 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도자(초기형) - 모자도 양식, 대도의 영향 - 패용구 ■ 금관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금금구=패용구, 연결고리 잔존 - 칼집 B유형 <p>[6세기 2~3/4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령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대도의 축소형 ■ 서봉총, 양산 부부총, 경주 황오동 52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도 양식 - 초부 금구(有): 패용구 혹은 끈목 등 장식 연결 - 칼집 A, 칼자루 B유형 ■ 경주 보문동 합장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도 양식 - 초부금구: 칼집금속판 고정용 못 구멍 <p>※ 백제 장식도자와 비교 (칼집 A유형, 칼자루 B유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 월산리 M4호, 합천 옥전 M6호, 함양 백천리 6호분, 남원 청계리 1~2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도 양식의 도자(참고자료) ■ 합천 옥전 M4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도 양식 - 초부금구(有) - 칼자루 A유형? - 부조 장식 <p>[6세기 2~3/4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 송학동 I C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모자도 양식 - 칼자루 B유형 - 칼집 A·B 유형 - 초부금구(有) ■ 합천 옥전 M11호분 병두 금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 무령왕릉(왕)과 유사 <p>※ 6세기 2/4분기 이후 백제 장식도자와 유사성이 높아짐</p> | | | | | | | | | |
| 7세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집 B유형 ■ 나주 복암리 3호분 7호 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집 B유형(주정) - 장식도자 2점 이상으로(추정) <p>※ 고려시대 도자(장도)와 유사</p> | <p>※ 참고 칼집과 칼자루 유형별 특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칼집 A형</td> <td>칼집 길이가 짧은 경우(초미금구에서 병연금구까지)</td> </tr> <tr> <td>칼집 B형</td> <td>칼집 길이가 긴 경우 (초미금구에서 병부 혹은 병두금구까지)</td> </tr> <tr> <td>칼자루 A형</td> <td>칼자루가 칼의 길이가 짧을 경우</td> </tr> <tr> <td>칼자루 B형</td> <td>칼자루가 칼보다 길이가 긴 경우</td> </tr> </table> | 칼집 A형 | 칼집 길이가 짧은 경우(초미금구에서 병연금구까지) | 칼집 B형 | 칼집 길이가 긴 경우 (초미금구에서 병부 혹은 병두금구까지) | 칼자루 A형 | 칼자루가 칼의 길이가 짧을 경우 | 칼자루 B형 | 칼자루가 칼보다 길이가 긴 경우 | | |
| 칼집 A형 | 칼집 길이가 짧은 경우(초미금구에서 병연금구까지) | | | | | | | | | | | |
| 칼집 B형 | 칼집 길이가 긴 경우 (초미금구에서 병부 혹은 병두금구까지) | | | | | | | | | | | |
| 칼자루 A형 | 칼자루가 칼의 길이가 짧을 경우 | | | | | | | | | | | |
| 칼자루 B형 | 칼자루가 칼보다 길이가 긴 경우 | | | | | | | | | | | |

1) 마한·백제권

초기 장식도자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나주 신촌리 9호분 乙관 도자로 나무로 만든 칼자루를 조각하여 만든 병연·병부금구, 병부장식(선형)¹⁾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 출토된 삼엽환두도는 신라 모자도의 자도 형태와 유사하다.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 4점 가운데 3점은 병부금구를 포함한 금구 구성과 형태에 있어 나주 송제리 1호분 출토품과 매우 흡사하다. 금구의 세세한 장식과 초구금구의 하단에 고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칼과 칼자루의 비율, 칼집의 길이를 참고할 자료로 판단된다. 참고로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는 일본 간논야마고분에서 장식도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권오영 2005).

이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에서는 환두 안으로 금선을 꼬아서 만든 운문(雲文)을 장식한 장식도자 1점과 무두(無頭) 형식의 장식도자 5점이 확인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67). 현재 국립익산박물관에서 보존처리 중으로 정확한 형태와 수량은 알 수 없지만, 병두를 제외한 병부를 초부 외장(유기질 판)²⁾이 감싼 유형이다. 이 초부 외장의 안쪽에서 확인된 금박은 병부를 장식했던 도금의 일부로 추정된다.

나주 복암리 3호분 7호 석실 장식도자도 흑색 외피 안쪽에서 금박이 관찰된다. 이 금박으로 보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과 같이 흑색 외피는 초부의 외장으로, 내부 금박은 병부 장식의 도금으로 추정된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출토 장식도자를 참고하여 구조와 소재에 대해 과학적 분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반한 병부장식(은선)과 패용구는 다른 장식도자의 부품으로 추정되어 2점 이상의 장식도자가 부장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마한·백제권 자료를 확인한 결과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는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 왕비 A·B)와 같이 칼집 길이가 짧은 장식소도로 판단된다.

한편 공주 무령왕릉(왕비 C)·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장식도자와 같은 칼집이 긴 유형은 고려시대 장식도자와도 연관되어 있다(도면 6). 이런 유형의 장식도자는 중

1) 현재 나주 신촌리 9호분 乙관 장식도자는 망실된 상태이나, 동반한 포크[二支]형태의 도구로 병부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2) 도자 탈락편(추정 칼집)의 소재도 케라틴이 주요 성분인 유기물로 제작된 것이 확인되었다. 종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소재는 나무나 금속판이 아닌 동물의 뼈, 뿐, 껍데기 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강소영 외 2014: 59).



[도면 5] 모자도 비교자료와 나주 신촌리 9호분 乙관 도자



[도면 6] 고려 장식도자와 조선 환도



[도면 7]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나주 복암리 3호분 7호석실 장식도자 칼집 내부 금박

국 송 · 요나라에서 확인되지 않아, 자체 제작 또는 다른 외부 영향이 고려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41). 고려시대 장식도자의 이 유형은 외부의 영향도 있겠지만 삼국시대 장식도자로부터 전승되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신라·가야권

신라권의 장식도자는 자도가 부착된 모자도 양식이며 마한 · 백제권 장식도자의 금구 형태와 장식적 요소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기 장식도자는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 장식에 매달린 모형 장식도자로 추정할 수 있다. 금관총 출토 장식도자는 황남대총 북분의 모형 장식도자와 같이 칼집이 긴 유형으로, 초구금구에 장식도자를 매달 수 있는 패용을 위한 구멍이 있다. 이 구멍에는 연결고리 편 일부가 확인

되어, 동반한 장식도와 같이 초부금구에 패용을 위한 연결고리를 걸었던 구멍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관총 장식도자는 병부에 은선 1줄을 촘촘하게 감았다(도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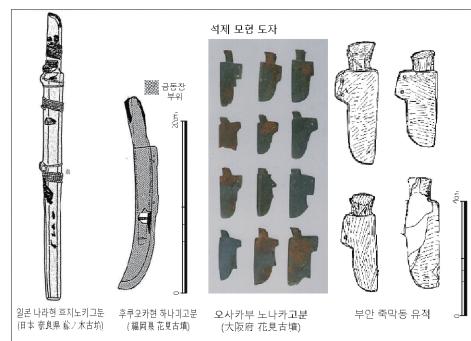
이후 단계의 양산 부부총, 경주 황오동 52호분 서봉총 장식도자에서는 횡방향의 구멍이 뚫린 병부금구가 확인된다. 이 금구는 패용 또는 끈목[다회] 등의 장식을 달았던 구멍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장식도자는 칼집의 길이가 짧은 유형이기 한다. 이전 단계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장식도자는 경주 보문동 합장분 출토품이 있지만 초구금구에 달린 구멍 부위에는 외판을 고정하기 위한 못이 관찰되어 금관총 출토품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신라 장식도자의 칼집 형태와 길이는 후쿠오카현 하나미 고분 장식도자와 같이 당시 가죽제 칼집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도면 9).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가죽제 칼집의 형태는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일본 고훈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석제 모형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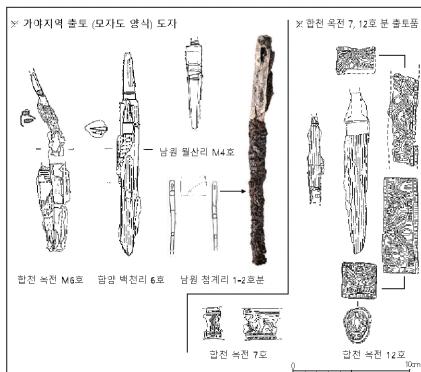
가야권 초기 도자에서는 신라 모자도의 양식을 따른 개체들이 확인된다. 합천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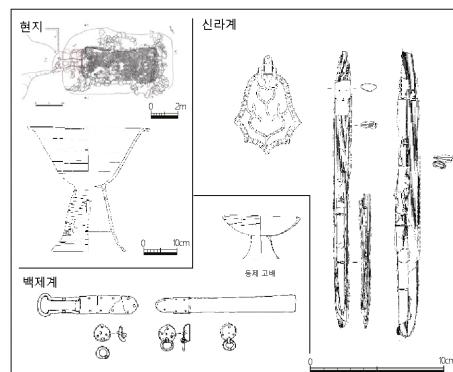
[도면 8] 흉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의 장식도자 장식



[도면 9] 일본 장식도자와 석제 도자 도형



[도면 10] 가야지역 출토 주요 도자



[도면 11] 고성 송학동 고분군 1C호분 출토유물의 계통

전 M4호분 장식도자(A)는 자도 1점 · 미상 봉형구 2점, 장식도자(B)는 자도 1점이 부속되어 있어 신라권 장식도자의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칼자루에는 부조 장식이 된 병부금구가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합천 옥전 M11호분에서는 나주 송제리 1호분 · 공주 무령왕릉(왕) 장식도자와 같은 형태의 은제 병두금구가 확인되었다.

고성 송학동 IC호분 장식도자는 계통을 추정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칼자루 비율이 짧고, 병부금구가 있으며 병두 · 병부 · 초미금구에는 입구 한쪽에 띠장식이 확인되어 복원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병부금구에는 둑근 고리 1개가 부착되어 있다. 가야권의 빠른 시기의 도자는 모자도 계열이 확인되어 신라권과 동질성이 확인된다. 이후 도자의 전체적인 구상은 백제 장식도자의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개 금구의 형태는 백제와 신라와 구분되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 신라, 가야 장식도자로 보아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는 백제계 장식도자로 생각되고, 신라 · 가야권 장식도자와 형태와 구조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2. 선별자료

금구와 각 금구 구성과 형태의 유사한 장식도자는 [표 3, 도면 12]와 같다. 금구 구성과 형태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개체는 공주 무령왕릉(왕, 왕비 A · B), 고성 송학동 IC호분 출토품을 들 수 있다. 이들 장식도자는 칼자루가 칼보다 길고, 칼집이 짧은 유형이다. 그밖에도 일본 군마현 간논야마고분 장식도자는 병부금구와 초구금구

[표 3]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장식소도와 비교자료 간 유사성 (○: 유사, △: 부분 유사, ×: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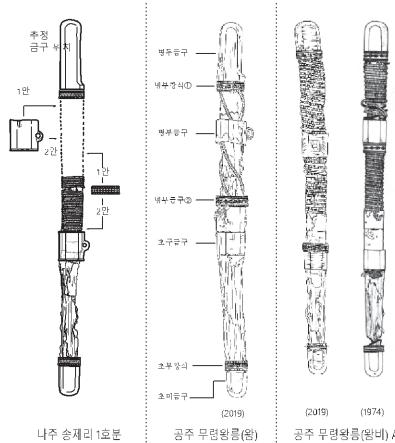
| 비교자료 | 금구 구성 | 금구 형태 | | | | | | 비고 |
|-------------------|----------|-------|-------------|--------------|------|------------------|--------------------|----|
| | | 병두금구 | 병부금구 | 초구금구 | 초미금구 | 초부장식 (은선) | 초부 · 병부 장식(금고리) | |
| 공주 무령왕릉 (왕) | ○ | ○ | △ (고리 유) | △ (고리 무?) | ○ | × | × | |
| 공주 무령왕릉 (왕비A) | ○ | △ | × | △ (고리 무) | ○ | △ (금 · 은선 사용) | △ | |
| 공주 무령왕릉 (왕비B) | ○ | △ | × | △ (고리 무) | ○ | ○ | ○ | 유사 |
| 고성 송학동 IC호 | ○ | × | × | ? | ? | ○ | × | |
| 합천 옥전 M11호 | - | ○ | - | - | - | - | - | |
| (일본) 群馬縣 觀音山古墳 | △ | △ | ○ | ○ | × | × | × | |



① 장식소도 비교자료

* 추정 금구 위치

※ 비교자료



② 금고리 참고자료



[도면 12] 장식도자와 금구리 비교 · 참고 자료

에 구멍이 뚫린 고리가 1개씩, 즉 고리 1쌍이 확인된다. 이 1쌍의 고리는 ‘勾狀環’으로 불리며, 끈을 각 고리에 연결하여 패용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고리는 칼날 방향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리에 끈을 달아 칼날이 위로 향하게 매다는 개체로 보고 있다(渡辺康弘 1986: 115; 藤村翔 2013: 323)

초부·병부장식으로 추정되는 금고리의 참고자료는 [도면 12-②]와 같다. 기존연구에서 병연 3류(禹炳喆 2015: 114)에 해당하는 금구로 무령왕릉(왕비 B),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 함평 마산리 표산 1호분 장식도자 등과 합천 옥전 M11호의 장식 대도에서 확인된다. 일본에서는 미야자키현[宮崎県] 모찌다[持田] 26호분, 나라현[奈良県] 후지노키고분[藤ノ木古墳] 장식대도 등에서도 확인되어 분포범위가 넓은 편이다(도면 12-②). 이 가운데 안쪽 면에서 지판이 확인된 사례는 함평 마산리 표산 1호분, 일본 미야자키현 모찌다 26호분 출토품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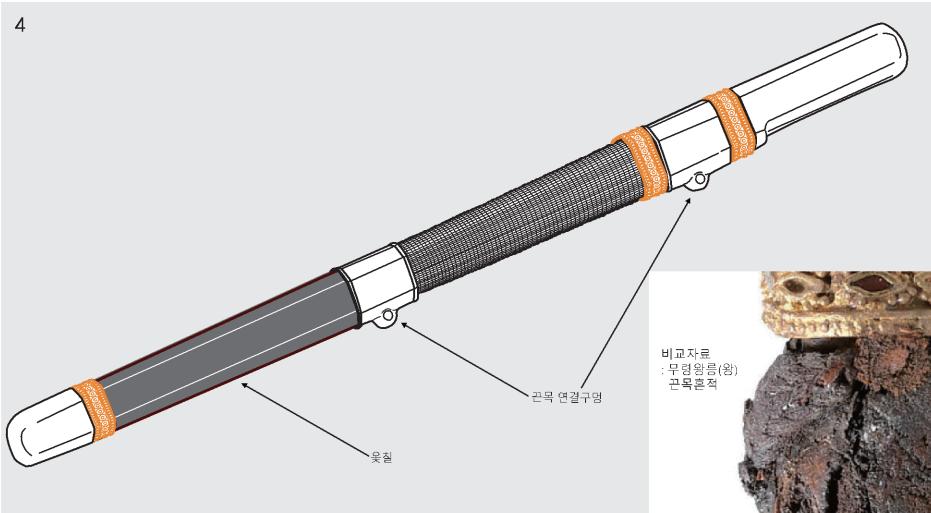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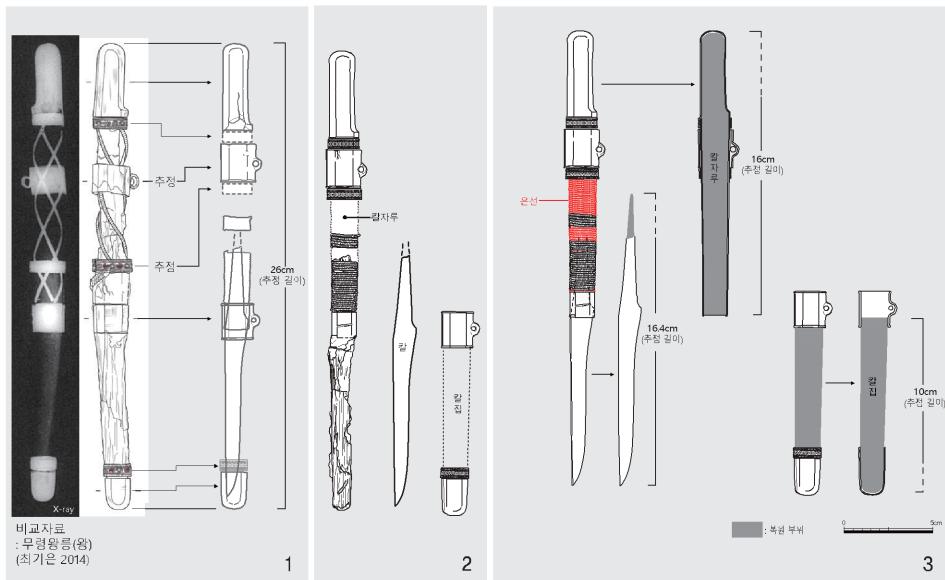
칼자루에 1줄의 은선을 촘촘하게 감은 사례는 공주 무령왕릉, 고성 송학동 IC호분 출토품이 있다. 이 장식소도들은 은선 상면에 병부금구·장식이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 은선의 새김눈[刻目] 문양 형태와 유사한 사례는 무령왕릉 장식소도(왕비 A·B)에서 확인된다. 이 문양의 형태는 ‘정’을 이용하여 찍은 흔적과 구분되어 다른 방법으로 찍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복원과 재현품 제작

1. 복원도 작성

앞의 검토를 바탕으로 재현품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한 먼저 복원 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복원 안은 금구 배치와 간격 확인 → 금구 배치와 결실부위 확인 → 결실부위 복원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하였다(도면 13). 각 금구의 임시 배치도는 무령왕릉 장식소도(왕)의 크기를 참고하여, 전체 길이를 26cm로 추정하였고 칼의 길이는 CT사진을 참고하여 남아 있는 14.2cm 이상으로 판단하였다.

복원이 필요한 칼자루의 금구 배치는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1974, 2019년에 출판한 무령왕릉 보고서마다 병부금구의 위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위치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간논야마고분에서 출토된 5점의 장식



[도면 13] 복원도 작성과정

소도는 병부금구 위치가 동일하게 확인되며, 이 금구는 작은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 (도면 12-①).

간논야마 고분 장식소도의 칼자루 금구 위치, 무령왕릉 병부장식의 위치를 참고하면 칼자루의 금구는 병두금구-병부장식(금고리)-병부금구-병부장식(금고리)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판단된다.³⁾ 병부금구가 칼자루 중단에 위치하면 손으로 쥐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각 칼자루와 칼집의 복원한 규격과 금구 배치 등의 특징은 [도면 13]과 같다. 그리고 칼집 바깥쪽 면은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에서 확인된 옻칠 편과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 사례(최기은 2014: 43)를 참고하여 옻칠하기로 결정했다.

2. 재현품 제작과 주요 제작기법

[도면 13-④]와 같은 복원 안을 바탕으로 설계도를 작성한 다음, 장식소도를 제작하였다. 이번 재현품은 실제 유물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하였다. 제작순서는 칼 → 금구 → 칼집 · 칼자루 → 조립 과정으로 진행하였다(표 4, 도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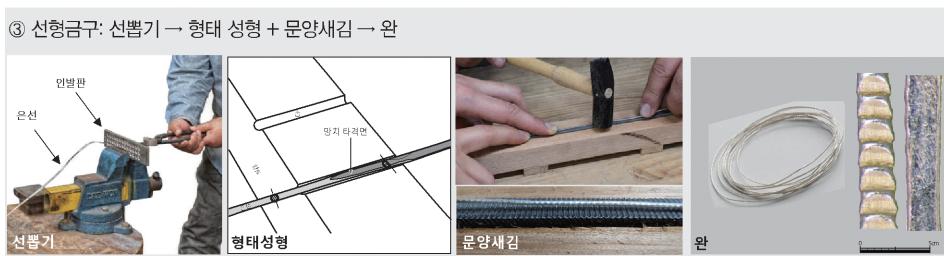
은제금구 제작은 다이포밍, 각접기, 선뽑기[인발], 프레스[형틀 찍기], 스템핑(문양)과 같은 금속 공예기법을 사용하였다.⁴⁾ 칼자루끝 · 칼집끝 고정금구는 다이포밍

[표 4] 재현품 제작 과정과 사용 기법

| 순서 | 제작 과정 | 제작 부위 | 주요 기법 | 비고 |
|----|---------|-------------------|----------------------------|-------|
| 1 | 설계도 작성 | - | - | |
| 2 | 칼 | | (접쇠)단조, 담금질, 연마, 광쇠 | |
| 3 | 금구 | 칼자루 끝 · 칼집 끝 고정금구 | 다이포밍, 은땜, 연마 광쇠 | |
| | | 칼집 고정금구, 칼자루 금구 | 각접기, 타출, 천공, 은땜, 광쇠 | |
| | | 칼자루 고정금구 | 각접기, 은땜, 광쇠 | |
| | | 선형 은선 | 인발작업, 스템핑(형틀작업), 문양(스탬핑) | |
| 4 | 칼집과 칼자루 | 고리형 | 조금, 광쇠 | |
| | | - | 형태성형, 조각, 옻칠 | |
| 5 | 조립 | | 칼 → 칼집과 칼자루 → 금구 → 끈목 순 조립 | 끈목 의뢰 |

3) 한편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와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 · 왕비 A · B)의 병부금구가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비 C)와 같이 초구금구일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의 병부금구 내부와 주변에서 칼집과 관련된 자료(외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4) 금속공예기법에 대한 용어와 이해는 전용일(2015)의 글을 참고했다.



[도면 14] 주요 부품 제작과정과 광경

은 틀(다이die)를 이용해서 금속판을 입체적으로 성형하는 기법으로 양쪽 면의 형태가 동일한 2개의 반쪽을 만들어서 붙여 하나의 입체 형태로 만들었다. 형틀의 소재는 단단한 철이나 나무를 이용할 수 있지만, 두꺼운 철을 파내어 가공하기에는 당시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단단한 나무를 파내어 형틀을 만들고, 형틀에 놓은 은판을 정과 망치로 두드려서 반쪽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2개의 반쪽을 땜질하여 붙여 원통의 금구 형태로 만들었다. 마무리로 뚜렷한 윤곽을 잡기 위해 별도로 만든 모루에 금구를 끼우고, 망치 작업하여 복원품의 형태에 맞는 윤곽을 완성하였다(도면 14-①).

각접기는 판 1개의 접는 부위에 직선의 홈을 파고, 그 부위를 일정한 각도로 접어 각이 지는 형태로 제작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칼집 고정금구와 칼자루 금구의 제작에 적용하였다. 원래 유물의 은판에서도 접는 부위를 따라 안쪽에 일렬의 점을 찍거나 점선 상으로 홈이 남아 있어, 안쪽에 미리 점을 찍고 바깥쪽에서 접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판을 접어서 말은 다음, 판의 양끝을 은땀하여 접합했다(도면 14-②).

은선은 선뽑기[인발]와 프레스 작업으로 만들었다. 인발판으로 적정 굵기로 선을 뽑은 다음, 은선의 형태 성형과 문양찍기를 진행하였다. 실제 유물의 은선은 정으로 찍어서 문양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따라서 정을 이용한 수법이 아닌,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 방향으로 홈이 있는 줄(File, 공작도구)과 같은 일종의 형틀 위에 은선을 놓고 망치질하여 문양을 새겼다. 그 결과 유물과 같이 균일한 일자형 문양이 찍을 수 있었고(도면 14-③),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문양이 찍힌 면의 그 반대 면이 판판하게 되었다. 따라서 은선에 문양을 찍는 것과 동시에, 한쪽 면을 판판하게 만드는 작업(형태 성형)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또 정을 찍을 때의 은선이 뒤틀리는 상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금제 고리는 심재로 추정되는 부식물을 휴대용 금속 성분 분석기(Handheld XRF)로 확인하여 은으로 심재를 제작하였다. 금판에 문양을 새기고 접힐 부위를 남겨둔 채 잘라내고, 금판을 준비한 은으로 만든 고리(지판)에 씌워서 제작하였다(도면 14-④).

모든 금구는 바깥쪽 면을 연마하여 광을 내는 광쇠 작업하였다. 원래 유물에 남아 있는 연마 · 광쇠 방향과 같이 가로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타출된 고리는 그 주변을 연마하여 마무리하였다(도면 14-⑤).

칼집과 칼자루의 제작은 칼과 금구의 규격에 맞춰 자르고, 칼이 들어가는 내부를 파고, 바깥쪽 면을 깎아내었다. 그리고 칼집은 옻칠 8회, 칼자루는 방습 목적으로 2회만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칼과 칼집 · 칼자루, 각종 금구와 끈목을 조립하여 완성하

①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장식소도 재현품



③ 공주 무령왕릉(왕) 초구금구 추정
고리 위치



② 장식소도 비교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도면 15]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장식도자 재현품과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 재현품 비교

였다. 끈목은 무령왕릉 출토품을 참고하여 10사 2, 3을 뼘으로 직조한 끈목을 사용하였다(도면 14-⑥).

완성된 금구와 끈목을 조립하여 [도면 15-①]과 같이 완성하였다.

V. 고찰

1. 제작기법 비교와 제작 의의

완성된 재현품의 제작기법은 기존 연구(최기은 2014: 40~41)를 참고하여 [도면 15, 표 5]와 같이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와 재차 비교 검토하였다. 두 장식소도의 병두·초미금구에서는 끝을 말아서 접은 흔적이나 ‘十’자형 틈 병부·초미금구의 안쪽 점열은 통형의 금구는 각접기로 제작했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형태의 병두금구는 동일한 제작기법을 공유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하여 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의 초구금구를 다시 관찰하였다. 그 결과 초구금구 하단에는 오목하게 눌려있었고, 그 부위에는 추정 땜질 흔적이

[표 5]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과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 비교검토

| 부품 부위 | | 비교 대상 | 검토 대상 | 비교 |
|-------|-------------------|---|---|----|
| 형태 | 명칭 |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 |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 | |
| 통형 | 병두·초미금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쪽 면 접힌 부위 ■ 각접기 제작흔적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접기 제작 가능성 | |
| | 병부금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부금구 고리 - 장식을 매달기 위한 용도로 추정 (국립공주박물관 2019: 72, 19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도 병부금구 뿐만 아니라 초구금구에 고리가 있었을 가능성 제기 가능 | |
| | 초구금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집 고정금구 고리? - 오목하게 눌려 있거나, 땜질 흔적 확인: 고리가 떨어진 흔적으로 추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구 입구 쪽의 은띠 장식(유) | |
| | 참고: 금구 연마·광쇠방향 | (도면 15 기준) 세로 방향 | (도면 15 기준) 가로 방향 | |
| 선형 | 병부장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금 ■ 2줄을 느슨하게 나선으로 감음 ■ 문양은 일자형 정으로 찍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은 ■ 1줄을 촘촘하게 감음 ■ 문양은 틈에 찍어서 제작(추정) | |
| 고리형 | 초부·병부장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금 ■ 누금기법: 금알갱이 granule, 금선 filigree ■ 주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금(外), 은(内) ■ 찍기 stamping, 조금 engraving ■ 심재 有(은지 금장 추정) | |
| 칼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집: 옻칠 ■ 단면형태: 팔각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집: 옻칠 ■ 단면형태: 팔각형 | |

남아 있어 은맵으로 불인 고리가 떨어졌던 흔적으로 판단되었다(도면 15-③). 따라서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의 초구금구에도 원래 고리가 부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령왕릉 1쌍의 고리도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와 같이 패용 또는 칼집과 칼자루를 끈으로 연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두 장식소도의 통형 금구에서는 은띠 유무와 연마·광쇠 방향과 금고리, 칼자루 은선의 제작방법도 공주 무령왕릉(왕) 장식소도와 차이를 보인다. 나주 송제리 1호분 칼자루 은선의 제작방법은 무령왕릉 장식소도(왕비 A)와 같다.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 재현품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과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장식소도는 같은 공방, 장인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유물의 세부형태와 소재 차이는 소유자의 지위, 제작자, 공방 혹은 제작시점 등의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비교자료로 했던 장식소도들의 금구 위치·제작 기법을 재검토하여 원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 왕비 A·B) 병부금구와 장식의 원래 위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의 초구금구 고리 복원으로 나주 송제리 1호분, 일본 군마현 간논야마고분 출토품과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칼집과 칼자루에 위치한 1쌍의 고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착용 및 사용이 어려워 패용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칼집과 칼자루를 연결하는 용도로 추정된다.

2.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의 제작시점과 특징

공주 무령왕릉 출토된 장식소도 4점 가운데 3점은 같은 양식을 반영하여 제작하였다. 이 장식소도는 병두·병연·초구·초미금구를 갖추고, 초부금구, 병부·초부 장식이 부가되어 있다. 또 칼에 비해 칼자루가 길고, 칼집이 짧은 편으로 당시 사용했음직한 가죽제 칼집의 전형을 따르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각 장식소도는 세부 장식과 각 금구 형태, 칼자루 선형금구의 소재 감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밖에도 장식소도(왕비 B)의 칼집은 어린문이 타출된 은판으로 장식하고 있다. 몇몇 차이는 있지만 왕, 왕비 A·B 장식소도는 동일한 개념과 양식이 반영되어 있다.

무령왕릉의 왕과 왕비의 매장 순서를 고려하면 장식소도는 왕 → 왕비 A·B순으

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장식소도(왕비 A)는 금구 형태와 위치, 장식의 제작기법을 계승하되, 병두·병부·칼자루 은선 등을 보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장식소도(왕비 B)도 끈목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기존의 장식소도를 바탕으로 제작하되, 장식을 변형하거나 제작상의 편의 또는 불필요한 요소의 배제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과정 속에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과 가장 흡사한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는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비 A·B)보다 먼저 제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무령왕릉의 왕과 왕비의 매장 시점 차이를 고려하면, 두 유구의 장식소도는 짧은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제작된 사례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주 무령왕릉,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는 6세기 1~3/4분기 백제, 신라, 가야에서 유행하였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칼자루가 칼보다 길이가 길거나, 병부금구, 병부장식(금고리) 등 삼국 간 장식소도에 관한 정보가 교류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도면 4, 표 2). 한편으로 삼국시대에는 칼집의 길이를 기준으로 짧은 칼집, 긴 칼집으로 2가지 양식이 병존한다. 칼집이 긴 유형은 가죽 재질 등의 칼집에서 영향을 받아 제작된 개체로 판단된다. 이 유형은 칼집을 목제로 만들고 그 외판을 금속판으로 두르거나, 패용구를 부기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유형은 7세기 백제 장식도자와 고려시대 장식도자에서도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본 재현품 제작과 관련 연구를 통해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의 특징에 관한 3가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병부금구와 초구금구 고리 1쌍은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비 A·B·C)를 비롯한 다른 삼국시대 장식도자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짧은 기간 동안 유행했던 속성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두금구 형태와 제작기법이다. 공주 무령왕릉(왕)과 합천 옥전 M11호분 출토품만 확인되어, 이 유형의 병두 금구 유행은 매우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금구는 입구 쪽의 돌출부를 비롯하여 전체 형태에 있어 빼어난 조형감을 보인다. 제작방법은 본 재현품 제작과 같이 다이포밍 제작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형틀과 모루를 사용하여 여러 점을 제작한 양상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장인의 솜씨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각접기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작과정이 어려워 짧은 기간 동안 소수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6세기 1~3/4분기 동안 국가 혹은 정치집단에 의해 제작된 장식소도는 전통의 고유성을 계승하거나 발전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라 문화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작되는 모자도 양식의 장식도자가 있다. 이와 함께 백제의 무령왕릉 장식소도(왕) →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 → 무령왕릉 장식소도(왕비 A · B)의 제작순서는 각 고유한 제작기법과 전통을 유지하면서, 개선했던 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된다. 장식도자를 제작할 때 있음직한 사용자의 요청 혹은 제작한 장인의 재량 등 장인과 연관된 정치 · 경제적 후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 고대 국가 정치권력과 장인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고려할 수 있다.

그밖에도 장식소도의 상호 유사성은 다른 지역 · 문화권 장식도자에 관한 정보의 파급과 그 정보를 입수한 배경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야의 고성 송학동 I C호분 장식소도와 백제의 공주 무령왕릉 · 나주 송제리 장식소도 간 유사성, 같은 모티브의 문양을 가진 금고리 형태의 초부 · 병부장식(도 12-②)은 장식도자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장식소도의 정보 교류는 실물 또는 장인의 이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장인의 이동은 일본 아스카사[飛鳥寺](588년) 창건을 위해 파견 된 백제 노반박사[露盤博士]와 와박사[瓦博士]의 역사적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장인이 직접 타지에 활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고대 국가 관계에 있어 정치적 필요에 의해 파견된 장인(전문가)들이 그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각종 공예기술 분야의 장인도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지역의 새로운 공예품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VII. 맷음말

삼국시대 장식도자는 출토사례가 적고, 출토된 고분의 중요성에 비해 거의 연구되지 않은 유물이다.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를 재현하는 과정에서도 참고할 연구 사례가 적어,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재현품 제작을 계기로 추상적일 수 있는 복원 안과 제작기법에 대해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완성된 재현품을 토대로 무령왕릉 장식도자를 포함한 다른 삼국시대 자료와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는 전형적인 백제 장식도자로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의 전형을 따라 제작하되, 무령왕릉 장식도자(왕비)와 같이 몇 가지 변화했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제작순서는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비) 순으로 판단하였고, 공주 무령

왕릉 장식도자(왕)는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의 금구에서 관찰되는 1쌍의 고리 제작에 직접 영향을 준 장식도자로 상정하였다. 그밖에도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의 끈목 흔적으로 보아, 두 장식도자에서 확인되는 칼자루와 칼집 고정금구에 달린 1쌍의 고리는 끈목으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1쌍의 고리는 현재까지 출토된 삼국시대 장식도자와 비교했을 때 꼭 필요로 했던 요소로 보기 어렵고 일찍 불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7세기 전·후에 축조된 일본 군마현 간논야마고분에서 출토된 장식도자는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무령왕릉 장식도자를 비롯한 백제 장식도자와의 연관성을 더욱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 이 장식도자는 일본 나라현 후지노키 고분과 후쿠오카현 하나미 고분 출토 장식도자(도면 16)와 같은 유형으로 인식하고, 일본에서 유행했던 장식도자로 보는 연구가 있다(藤村翔 2013: 323). 하지만 비교하고 있는 일본 장식도자에 남아 있는 패용과 관련된 구멍은 칼집에만 있다. 이 사례는 초부금구에 구멍 역할을 고리가 있는 간논야마고분 장식도자와는 구분된다. 오히려 간논야마고분 장식도자는 국내 공주 무령왕릉·나주 송제리 1호분 출토품과 형태·구조가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 간논야마고분 장식도자는 백제·신라적인 장식과 제작기법과 함께 독자적인 요소도 함께 확인된다. 이 장식도자는 당시 일본에서 장식도자를 제작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백제·신라 장식도자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여 독자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 속에서 공주 무령왕릉(왕)·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의 사례처럼 1쌍의 고리와 같은 기능이 부가되나, 이후 장식도자의 제작에서는 비실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의 재현품 제작을 계기로 삼국시대 장식도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삼국시대 장식도자는 각 문화권별 특징적인 요소를 담고 있지만, 각 제품의 예술적, 심미적, 기능적 차이는 장인의 기질 혹은 제작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 본고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2022년에 실시한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의 장식도자 제작기술 복원 학술연구」 재현품 제작연구의 후속연구이다. 재현품 제작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이현상 선생님과 강민정 선생님이 맡아 주셨다. 본 원고의 작성과 수정에는 강민정 선생님, 일본 자료의 습득에서는 김우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에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강소영 · 권혁남 · 김소진, 2014, 「도자 탈락 편의 화학적 분석」,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공주박물관, 2019, 『武寧王陵』Ⅴ.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22, 『羅州 松堤里 占墳群』.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 _____. 2021, 『고려 금속공예의 이해』2.
- 권오영, 2005,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도서출판 동베개.
- 金洛中, 2006, 『6世紀 榮山江流域의 裝飾大刀와 倭』, 『나주 복암리 3호분과 영산강유역 고대문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김두철, 2011a, 『皇南大塚 南墳과 新羅古墳의 編年』, 『韓國考古學報』80, 韓國考古學會.
- _____. 2011b, 『加耶·新羅 古墳의 年代觀』, 『考古廣場』9, 釜山考古學研究會.
- 김상현, 2014, 『금제사리봉영기』,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 金龍星, 1998,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大邱·慶山의 例』, 춘추각.
- 김우대, 2012, 『韓半島 出土 圓頭·圭頭大刀의 系譜』, 『義城 大里里 2號墳』, 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 _____. 2020, 『일본열도 출토 모자대도의 계보와 의미』, 『나주 정촌고분 출토 모자도 제작기술 복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김준식, 2020, 『횡혈식석실로 본 소가야 지배층 묘제의 성립과 의미』, 『韓國考古學報』116, 韓國考古學會.
- 노대호, 2014, 『원삼국백제 한성기중서부지역 철도자 연구』, 『韓國考古學報』93, 韓國考古學會.
- 박윤미, 2015, 『고대 끈목의 특성과 제작 기법에 관한 연구』, 『아시아민족조형학보』15, 아시아민족조형학회.
- _____. 2023,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장식소도의 다회 복원에 관한 고찰』,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장식소도 제작기술 복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박천수, 2010, 『新羅 加耶古墳의 歷年代』, 『韓國上古史學報』69,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12, 『新羅·加耶古墳歷年代再論』, 『原三國·三國時代 歷年代論』, 학연문화사.
- 申大坤, 1998, 『裝飾刀子考』, 『古代研究』6, 古代研究會.
- 오동선, 2022, 『영산강유역의 백제 편입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禹炳喆, 2015, 『三國時代 裝飾大刀의 製作技術과 地域性』, 『韓國考古學報』96, 韓國考古學會.
- 우진영, 2023, 『백제 사비기 장경병(長劍瓶)의 등장 배경과 용도』, 『백제문화』6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이한상, 2021, 『고성지역 소가야묘 출토 금공품 검토』, 『고성 松鶴洞古墳群에 대한 比較考古學』, 삼강문화재연구원.
- 이현상 · 이혜연 · 오동선 · 강민정, 2018,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기술과 복원』, 『문화재』51-2, 국립문화재연구소.
- 전용일, 2015, 『금속공예 방법』, 예술문화.
- 조대연, 2020, 『기술(technology)을 통해 살펴본 한국고고학의 다양성』, 『한국고고학에서 다양성의 이해』제4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조영제, 2009, 『考察. 3. 編年과 性格』, 『山淸 生草 M12 · M13號墳』, 慶尙大學校博物館.
- 최기은, 2014, 『제작기술로 통해 본 무령왕릉 출토 장식도의 제작지 검토』, 『百濟學報』12, 百濟學會.
- 최병현, 2017, 『신라 천기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계층성과 복식군』, 『韓國考古學報』104, 韓國考古學會.
- 홍보식, 2014, 『신라·가야 고분 교차편년』, 『嶺南考古學』70, 嶺南考古學會.
- 渡辺康弘, 1986, 『古代刀子の持について』, 『史觀』115, 早稻田大学史学会.

藤村翔, 2013, 「金の刀子と銀の刀子 -古墳時代後期における装飾刀子の展開と特質-」, 『立命館大学考古学論集』Ⅶ, 立命館大学考古学論集刊行会.

塚本敏夫, 2021, 「일본 갑주 복원제작의 보고와 활용」, 『고흥 야막고분 출토 갑옷 제작기술 복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Restoration Production and Review of Knives with Decorated excavated in Songje-Ri, Tomb No1, Naju.

Yi, Gun-Ryoung(Researcher, Na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ang, Min-Jung(Researcher,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roduction and review of Songje-Ri Tomb No.1, Naju(NSR), Knives with Decorated Restoration excavated from NAJU. The research process first summarizes the status of Knives excavation and observations using scientific analysis. Second, by comparing Knives produced in Three Kingdoms Periods, selection materials that were referenced in the production are presented. Third, the process and production of the restoration and design drawings. Fourth, the review of the completed Restoration and archaeological consideration were carried out in order.

NSRT No.1 knives are similar to those found in King Muryeong Tomb, Gongju(GKM) and Songhak-Dong Tomb No. IC, Goseong(GSD), Kannon-Yama Tomb, Gunma, Japan(J-KA). In particular, referring to the form of GKM(King) knives, the defective parts of the manufactured relics could be restored. Restoration production was completed by first making and assembling parts. The main production techniques used include Die Forming, Scoring, Drawing, and Stamping. The completed restoration was re-compared with GKM(King) knives.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GKM(King) knives also raised the possibility that there was a ring in the sheath fixing part as well as the sheath handle part. A pair of rings of NSR · GKM(King) and J-KA Knives are thought to be the basis for judging these knives in the same style.

Styles such as NSR and GKM(King) artifacts were judged to be objects that were popular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Knives excavated from the two historic sites were produced in succession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evaluated as data that could consider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 for craftsmen at the time.

Key words : Three kingdoms, Knives with Decorated, Manufacturinng, Songje-Ri Tomb No. 1, Naju(NSR), King Muryeong Tomb, Gongju(GKM)

신라 고분 부장 금속용기의 등장과 전개

The Appearance and Development of
Metal Container in Silla Ancient Tombs

방민희
계림문화재연구원 연구원

I. 머리말

II. 금속용기 부장 고분

III. 금속용기 기종조합

IV. 금속용기의 전개와 의미

V. 맺음말

국문 요약

삼국시대 고분 부장품에서 금속용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금속용기의 부장이 두드러진 것은 경주의 적석목곽분이며, 신라양식 토기가 부장된 대구, 경산, 창녕, 양산, 포항의 고분에서도 금속용기가 부장되었다. 따라서 금속용기의 부장은 신라 고분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금속용기의 부장 고분에 대한 개별 유구를 집성한 후, 부장된 금속용기의 기종과 수량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금속용기는 재질별, 기종별 조합에 대하여 살펴본 후 금속용기 조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신라 고분 부장 금속용기의 기종조합을 통해 고분의 위계에 대하여 파악하고, 지역별 전개 양상의 차별성에 주목하여 금속용기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해 금속용기 부장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경주를 비롯한 경주 외 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용기를 취합하여 금속용기의 전개과정과 금속용기 부장의 단계를 구분하고 신라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의 시공간적 양상을 통해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설명했다.

주제어: 신라 고분, 경주, 금속용기, 위계, 등장, 전개

I . 머리말

신라 고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적석목곽분으로 구조적인 측면과 함께 다종, 다양한 많은 부장품으로 고분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적석목곽분의 계통이나 구조, 축조방식 등 여러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부장된 토기는 적석목곽분 편년의 기준이 되는 한편 신라양식 토기를 통해 신라의 권역을 추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석목곽분에 부장된 여러 유물 가운데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유물이 바로 금속용기이다.

적석목곽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는 금, 은, 청동, 금동, 철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졌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앞선 시기의 목곽묘에서 보이지 않던 금이나 은, 금동을 이용한 다양한 금속용기 기종의 부장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재질의 다종의 금속용기 부장은 새로운 문물의 확산을 포함한 신라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금속용기는 경주분지의 대형분에 주로 부장되었고, 경주 이외 지역의 고총고분에서 출토되어서 당시 사회의 신분과 위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시사한다.

경주 사라리 130호분 등 사로국 단계의 목관묘에는 금속용기로서 철솥이 부장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금, 은, 금동, 청동, 철 등 다양한 재질의 여러 기종의 금속용기 부장은 적석목곽분의 등장과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 적석목곽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적석목곽분의 초기형태로 보고 있는 사방적석식목곽묘(이희준 2017) 또는 석재충전식 목곽묘(최병현 2021)로 불리는 경주 월성로 가-13호분에서 금속용기가 보이기 시작하여 주로 대형분에 해당하는 적석목곽분에서 확인된다.

신라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 중에는 신라양식 토기와 같은 기종인 고배, 장경호가 있으며, 호우총의 청동호우, 서봉총의 은합, 금관총의 청동유개사이장경호와 같이, 고구려에서 온 기종도 있다. 또한, 청동제 정, 초두, 초호, 울두 등 중국 중원 왕조의 의기뿐만 아니라, 서역과의 관련성으로 보여주는 각배나 은잔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처럼 신라 고분의 금속용기 중에서는 의례를 상정할 수 있는 기종도 있지만, 철제 솥이나 시루 등을 신라 실생활에서 사용된 기종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신라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는 개인 식음기, 조리용, 의례용, 저장용 등 용도와 그 출자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속용기는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분 외에도 경산, 대구, 창녕, 양산 등 경주

이외 지역의 고총고분에서도 출토되며, 금속용기가 부장된 고분에서는 신라양식 토기와 신라식 착장용 장신구가 확인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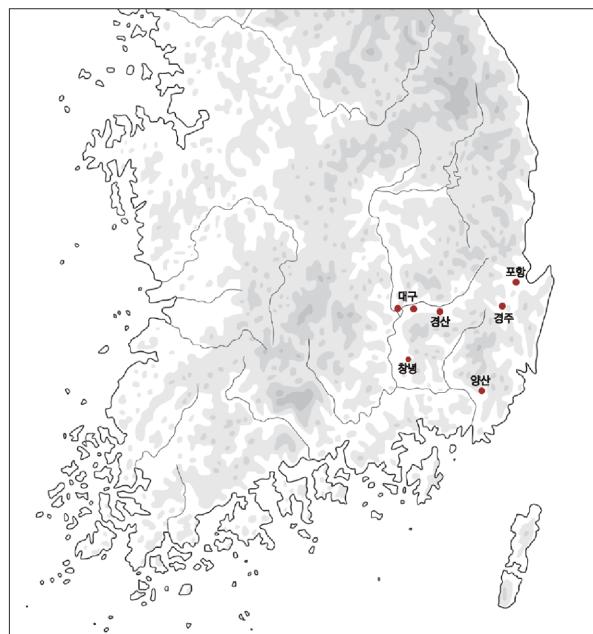
또한 금속용기는 경주분지의 대형분에 주로 부장되었고, 경주 이외 지역의 고총고분에서 출토되어서 당시 사회의 신분과 위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주를 비롯하여 신라의 영역에 해당하는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의 신라 고분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물론, 금속용기 예 자료가 경주에 편중되었고, 금속용기의 출토상황이나 부장 양상을 발굴 보고서에서 반영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아서 연구의 한계가 되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금속용기 자료를 취합하여 금속용기 부장에 투영된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금속용기가 부장된 고분이 신라 왕도인 경주 분지에 집중되어 있고, 경주 이외 지역의 경우 고총고분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신라의 중앙,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방 간의 위계 파악에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금속용기 부장 고분

금속용기가 부장된 고분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적석목곽분이 주를 이루지만, 경주 이외의 지역인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지역에서도 금속용기 부장이 확인된다. 특히 경주 외 지역은 신라양식 토기와 신라식의 착장용 장신구가 함께 부장됨에 따라 신라 고분으로 알려진 바 있다. 금속용기가 출토된 경주의 적석목곽분과 경주 외 지역의 신라 고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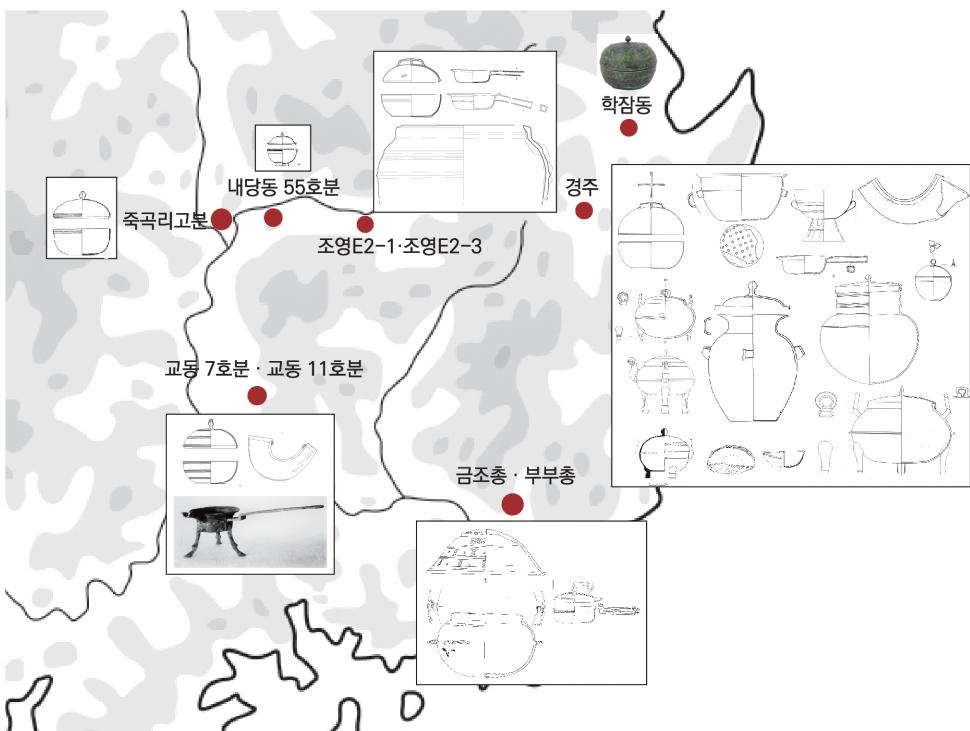
[도면 1] 금속용기 부장 고분의 위치(●)

대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적석목곽분에서 금속용기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시기인 4세기 후엽경 신라양식 토기의 출현기부터 통일기 양식 토기가 나타나기 전까지인 6세기 초반으로 한다.

신라양식 토기는 높은 대각이 있는 고배와 대부분 경호를 주 기종으로 하는 토기

[표 1] 금속용기 부장 고분

| 지역 | 유적명 |
|----|---|
| 경주 | 월성로 가-13호분, 황오리 14호분 1곽, 황오리 1호분, 황오리 16호분, 황오리 33호분, 황오리남곽(98-3), 황오리 5호분, 황오리 34호분, 황오리 37호분 남곽, 황오리 54호분, 황오리 4호분,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계림로 32호분, 인왕동 149호분, 인왕동 19호분 3곽, 금관총, 서봉총, 쪽샘지구 B1호분, 쪽샘지구 B3호분, 천마총, 금령총, 식리총 노서리 138호분, 노동리 4호분, 미추왕릉 7지구 7호묘, 황남동 120호분, 은령총, 호우총, 계림로 14호분, 보문리 고분 |
| 경산 | 조영동 E II-1호, 조영동 E II-3호 |
| 대구 | 죽곡리 고분, 내당동 55호분 |
| 양산 | 금조총, 부부총 |
| 창녕 | 교동 7호분, 11호분 |
| 포항 | 포항 학점동 석실분 |



[도면 2] 금속용기 부장 고분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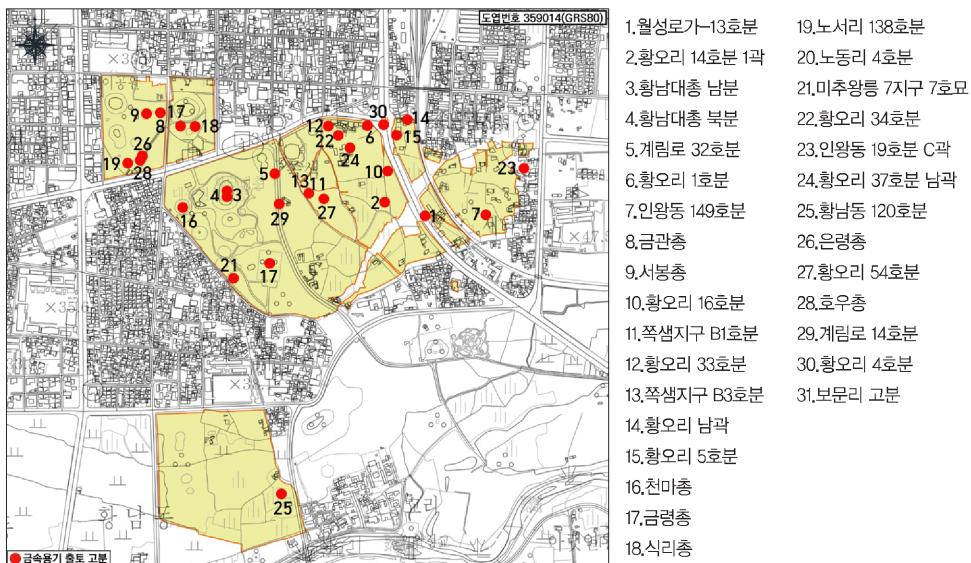
양식으로, 적석목곽분이 조영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토기를 말하며, 고배와 대부장경호가 대표적이다. 이후 6세기 중엽이 되면 대각이 낮아진 고배들이 제작되는데, 특히 대각이 마치 굽과 같은 형태로 낮아진 단각고배가 출현한다.

공간적 범위는 금속용기가 출토되는 신라의 중심지인 경주와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 등 경주 이외 지역의 고분 부장 금속용기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경주 이외 지역의 경우 신라양식 토기가 부장되고 신라식의 착장용 장신구가 부장된 고총고분이다. 경주에서 금속용기가 확인되는 적석목곽분의 수는 대략 31건이다. 그 외 적석 목곽분에 부장되진 않았지만,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의 신라 고분에서 확인된 수는 총 9건이다.

1. 경주

금속용기가 확인되는 신라고분은 경주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주지역에서는 모두 적석목곽분에서 금속용기 부장이 확인된다.

경주지역에서는 많은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지만, 이 중에 노동동, 노서동, 황남동, 황오동, 교동, 인왕동에 분포하고 있는 대릉원지구를 신라 마립간기의 중심고분군으로 볼 수 있으며, 대릉원지구는 경주지역의 중심고분군으로서 신라의 정치체 발생과



[도면 3] 경주 금속용기 출토 신라 고분의 위치(●)(S=25,000)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보문리 고분에부장된 청동합 1점을 제외하면 경주지역의 금속용기는 모두 경주 분지 대릉원 일원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릉원 중심의 대형분에서 금속용기의 기종과 수량이 다양하게 부장된 경향이 있다.

2. 경주 외 지역

경주 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신라고분은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신라권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각 지역은 고총을 축조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가진 묘제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신라의 고총군과 그와 동등한 매장규모와 위계를 가진 대형 고분군은 30여 곳으로 확인되는데, 각 지역에서는 자신들만의 묘제를 채택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은 각 지역별 독립된 집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묘제가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고총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금공품은 전형적인 신라식 위세품이 부장되었다(김용성 2015).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 금속용기가 부장되는 지역은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적석목곽분이 아닌 수혈식석곽, 횡구식석곽 등의 다양한 묘제에서 금속용기의 부장이 확인된다.

[표 2] 경주 외 지역 금속용기 부장 고분

| 경주 외 지역 금속용기 부장 고분 | | |
|--------------------|----------------|-------|
| 경산 | 경산 조영동 E Ⅱ-1호분 | 횡혈식석곽 |
| | 경산 조영동 E Ⅱ-3호분 | 암광목곽묘 |
| 대구 | 대구 내당동 55호분 | 횡구식석곽 |
| | 대구 죽곡리 고분 | 수혈식석곽 |
| 창녕 | 창녕 교동 7호분 | 횡구식석곽 |
| | 창녕 교동 11호분 | |
| 양산 | 양산 금조총 | 횡구식석곽 |
| | 양산 부부총 | |
| 포항 | 포항 학잠동 | 횡혈식석실 |

Ⅲ. 금속용기 기종조합

금속용기는 경주분지 중심의 적석목곽분과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 등지의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곽묘 등에서 출토되었다. 금속용기의 출토맥락에 대하여 살펴보면, 금속용기는 피장자의 두부 위쪽 부장칸에 부장되는 양상이 일반적으로 관찰되지만 피장자의 발치나 부곽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속용기는 피장자의 두부 위쪽 부장칸에서 확인되고 있어 부장에서 일정한 정형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금속용기는 재질별로 여러 기종과 동일 기종의 복수부장 등이 확인되어서 금속용기의 조합 양상에서의 질적, 양적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재질과 기종별 부장 조합 유형에는 피장자의 위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금속용기 재질별 기종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금기는 고배와 완, 은기는 고배, 완, 파수부용기, 합, 금동은 고배, 완, 파수부용기, 합, 각배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식음기에 해당하는 기종이다. 청동용기는 정, 합, 초두, 초호, 울두, 호, 시루, 반, 호자, 각배가 있으며, 주로 중국 중원 왕조와 관련된 의례용기이다. 철제용기는 정, 솔, 복이 있다.

이에 금, 은, 금동으로 제작된 식음기와 청동정, 청동초두, 청동초호, 울두, 호, 각배, 반, 합, 그리고 철솔 등의 조합양상을 다음과 같이 7개의 조합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유형은 금, 은, 금동, 청동, 철로 제작된 모든 금속용기가 확인되는 유형으로,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이 이에 해당되며, 청동정의 부장 여부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①유형은 청동정이 부장되지만 ②유형에서는 청동정이 부장되지 않는다. 가유형은 신라 고분에서 확인되는 금속용기 기종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 질적, 양적으로 우위를 보인다. 황남대총에서는 금·은·금동으로 제작된 금속용기의 기종이 다양하게 부장되는 한편, 청동정과 철솔이 부장된다. 가유형의 고분에서는 금, 은, 금동용기 외에도 중국식 의례용기로 파악되는 청동반, 청동초호, 청동초두가 함께 부장되었다.

나유형은 금, 은, 청동, 철제 기종의 조합이며, 금동기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동정도 부장되지 않았다. 현재는 서봉총 한 기이며, 가유형에 비해서 금속용기 기종의 종류가 대별된다.

다유형은 금기 없이 은, 금동, 청동, 철제용기가 부장되며, 천마총이 해당한다. 의례기인 청동정, 청동초호, 청동울두가 함께 부장되며, 금동용기 가운데 합, 고배, 완의 수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라유형은 금동, 청동, 철제용기의 조합으로 금령총이 이에 해당한다. 금동합과 청동합, 철솥이 부장되었다. 금기나 은기가 없고, 청동기의 기종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 나, 다유형과의 차이이다.

마유형은 청동제와 철제용기의 조합으로 청동합과 철솥이 부장된다. 청동용기의 일부 기종이 선택적으로 부장되기도 하는데, 주로 황오리 일대의 고분과 경주 이외 지역의 고총고분에서 확인된다. 경주 이외 지역에서는 창녕 교동 7호분과 11호분, 경산 조영 EⅡ-1호분, EⅡ-3호분이 이에 해당된다. 창녕과 경산지역이 다른 지방보다 조합양상에서 우위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바유형은 청동용기가 단수부장되며, 주된 기종은 청동합과 울두이다. 청동합만 부장되는 경우는 황오리 34호분, 계림로 14호분, 대구 내당동 55호분, 대구 달성 죽곡리 고분으로 모두 각 한 점이 부장되었다. 청동울두는 인왕동 19호분 C곽, 양산 금조총에서 1점씩 부장되었다.

사유형은 철제용기만 부장되는 경우로 철솥, 철정, 철호 등이 부장되며, 현재는 경주와 양산에서만 확인된다. 경주에서는 쪽샘지구 고분을 비롯하여 황오동, 노서동, 계림로 고분, 그리고 양산 부부총이 해당한다. 기종조합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위계를 보여주는 유형이다.

[표 3] 금속용기 재질 조합

| 유형 | 재질별 조합 | 부장고분 |
|----|-------------|---|
| 가 | 금+은+금동+청동+철 |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
| 나 | 금+은+청동+철 | 서봉총 |
| 다 | 은+금동+청동+철 | 천마총 |
| 라 | 금동+청동+철 | 금령총 |
| 마 | 청동+철 | 황오리 4호분, 황오리 16호분, 황오리 남곽, 황오리 37호분 남곽, 식리총, 노서리 138호분, 흥남동 120-2호분, 은령총, 호우총, 보문리 고분, 경산 조영 EⅡ-3호분, 창녕 교동 7호분 |
| 바 | 청동 | 황오동 34호분, 인왕동 19호분 C곽, 계림로 14호분, 대구 내당동 55호분, 경산 조영 EⅡ-1호분, 창녕 교동 11호분, 대구 달성 죽곡리 고분, 양산 금조총 |
| 사 | 철 | 계림로 32호분, 황오동 1호분, 황오리 33호분, 황오리 5호분, 인왕동 149호분, 황오리 54호분, 쪽샘지구 B1호분, 쪽샘지구 B3호분, 노동리 4호분, 미추왕릉 7지구 7호묘, 황남동 120-1호분, 양산 부부총 |

[표 4] 경주 적석목각분 부장 금속용기의 공반 양상

| 유적 | 철제 | | | | 청동 | | | | | | | 금 | | | 금동 | | | | | 은 | | | | | | | |
|-------------|----|---|---|---|----|----|---|----|----|---|---|---|----|----|----|----|---|----|---|----|---|-----------|----|---|-----------|----|---|
| | 솔 | 정 | 호 | 완 | 복 | 시루 | 정 | 초두 | 위두 | 합 | 호 | 반 | 초호 | 호자 | 각배 | 완 | 합 | 고배 | 합 | 고배 | 완 | 파수부 용기 | 각배 | 합 | 파수부 용기 | 고배 | 완 |
| 월성로 가-13호분 | | | | | | | | | | | | | | | 2 | | | | | | | | | | | 2 | |
| 황오리 14호분 1곽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황남대총 남분 | 4 | 3 | | | 1 | 3 | 1 | 2 | 11 | 2 | 1 | | | | 5 | | 1 | | | | | 11 | 3 | | | 5 | |
| 황남대총 북분 | 3 | | | | 3 | | 3 | | 1 | | 1 | | | | 4 | 8 | 7 | 5 | | | | 9 | | 8 | 5 | | |
| 계림로 32호분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황오동 1호분(남)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왕동 149호분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관총 | 4 | | 1 | | | | | | | 1 | 1 | | | 6 | | 15 | 1 | 7 | 1 | 1 | 6 | | | | 5 | | |
| 황오리 16호분 8곽 | 1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황오리 16호분 2곽 | 1 | | |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황오리 16호분 4곽 | 1 | | | | | | | | 1 | 1 | | | | | | | | | | | | | | | | | |
| 쪽샘지구 B1호분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황오동 33호분(동) | 2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쪽샘지구 B3호분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황오리 남곽 | 1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황오리 5호분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천마총 | 4 | | | 1 | 1 | | | | | 1 | | | | | | 24 | 5 | 6 | | | 5 | | | | | | |
| 금령총 | 2 | | | | | | 6 | | | | | | | | | 6 | | | | | | | | | | | |
| 서봉총 | 2 | | | | | | | | | 1 | | 2 | | | | | | | | | 1 | | | | | | |
| 식리총 | 1 | 1 | | | | 2 | | 2 | | | | | | | | | | | | | | | | | | | |
| 노서리 138호분 | 1 | 1 | | | | 1 | | 1 | | | | | | | | | | | | | | | | | | | |
| 황오동 33호분(서)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추왕릉 7지구 7호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황오리 37호분 남곽 | 1 | | 1 | | | | | 1 | | | | | | | | | | | | | | | | | | | |
| 황오리 16호분 1곽 | 2 | | | | | | 1 | 1 | 1 | | | | | | | | | | | | | | | | | | |
| 노동리 4호분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황오동 34호분 1곽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황오동 34호분 2곽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황오동 34호분 3곽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인왕동 19호 C곽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황남동 120-1호분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황남동 120-2호분 | 1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은령총 | 1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황오리 54호분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우총 | 2 | | | | | | | | 1 | | | 1 | | | | | | | | | | | | | | | |
| 계림로 14호분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황오리 4호분 | 2 | | | | | | 1 | | 1 | 1 | | | | | | | | | | | | | | | | | |
| 보문리고분 | 2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표 5] 경주 외 지역 고분 부장 금속용기의 공반 양상

| 유적 | 철제 | | | | 청동 |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솔 | 정 | 호 | 완 | 복 | 시루 | 정 | 초두 | 위두 | 합 | 호 | 반 | 초호 | 호자 | 각배 | 완 | 합 | 고배 | 합 | 고배 | 완 | 파수부 용기 | 각배 | 합 | 파수부 용기 | 고배 | 완 | |
| 대구 내당동 55호분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경산 조영 E II-1호 | | | | | | | | | | | | | | | | | 1 | 1 | | | | | | | | | | |
| 청녕 교동 11호분 | | | | | | | | | | | | | | | 1 | | | 1 | | | | | | | | | | |
| 대구 달성 죽곡리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경산 조영 E II-3호 | 1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청녕 교동 7호분 | 1 | | | | | | | | | | | | | | | | 1 | 1 | | | | | | | | | 1 | |
| 양산 금조총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양산 부부총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항 학잠동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표 6] 재질별 금속용기 기종 조합

| 유형 | 세부 유형 | 금 속 용 기 | | | | | | | 부장고분 |
|----|-------|---------|--------|-------------|-----|--------------|-------------|----------------|---|
| | | 금 기 | 은 기 | 금 동 기 | 청동정 | 청동초두 · 초호 | 청 동 합 | 청동 기타 용기 | |
| 가 | ① | ● | ● | ● | ● | ● | ● | ● |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
| | ② | ● | ● | ● | | ● | ● | ● | 금관총 |
| 나 | · | ● | ● | | | ● | | ● | 서봉총 |
| 다 | · | | ● | ● | ● | ● | ● | ● | 천마총 |
| 라 | · | | | ● | | | ● | ● | 금령총 |
| 마 | ① | | | | ● | | ● | ● | 황오리 4호분 |
| | ② | | | | ● | | ● | ● | 노서리 138호분 |
| | ③ | | | | ● | ● | ● | ● | 황오리 16호분 1곽 |
| | ④ | | | | ● | ● | | ● | 식리총 |
| | ⑤ | | | | ● | ● | | | 창녕 교동 11호분 |
| | ⑥ | | | | | ● | ● | ● | 호우총, 황오리 16호분 4곽, 창녕 교동 7호분 |
| | ⑦ | | | | | ● | ● | | 경산 조영 E Ⅱ-1호분 |
| | ⑧ | | | | | | ● | ● | 황오리 남곽, 은령총, 보문리 고분, 황오리 남곽, 보문리 고분 |
| | ⑨ | | | | | | | ● | 황오리 16호분 8곽, 황오리 16호분 2곽, 황오리 37호분 남곽, 황남동 120-2호분, 경산 조영 E Ⅱ-3호분 |
| 바 | ① | | | | | ● | | | 황오리 34호분, 계림로 14호분, 대구 내당동 55호분, 대구 달성 죽곡리 고분, |
| | ② | | | | | | ● | | 인왕동 19호분 C곽, 양신금조총 |
| 사 | · | | | | | | | ● | 황오리 14호분 1곽, 계림로 32호분, 황오리 1호분, 인왕동 149호분, 쪽샘지구 B1호분, 쪽샘지구 B3호분, 황오리 5호분, 황오리 33호분, 미주왕릉 7지구 7호묘, 노동리 4호분, 황남동 120- 1호분, 황오리 54호분, 양산 부부총 |

[표 6]을 통해 금속용기의 재질과 기종에 따른 금속용기의 조합 양상은 결국 금속 용기 부장의 위계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가령, 가장 이른 고총고 분이 황남대총의 남분과 북분에서는 모든 기종이 확인되는 반면, 늦은 시기로 비정 되는 식리총이나 호우총에서는 금, 은, 금동용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속 용기 기종조합 유형에는 시간의 흐름도 반영되어 있지만, 무덤의 위계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경주 적석목곽분 피장자에 대한 성격은 마립간기에 해당하는 왕과 왕족, 귀족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바 있어서 이를 금속용기의 기종조합을 통해 볼 때 [표 7]과 같이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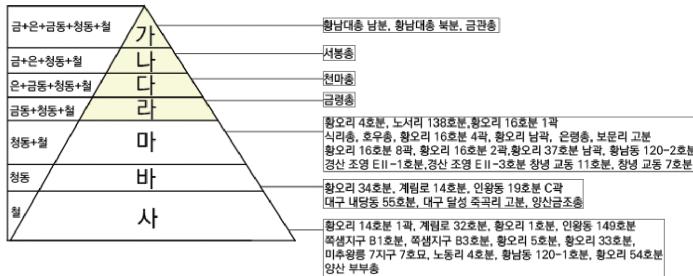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금속용기의 기종과 재질의 조합을 통해 7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각 위계를 시사한다. 경주 적석목곽분에서 보이는 금속용기 조합에 따른 위계를 경주 이외 지역과 비교해 보면, 경주 이외 지역은 마, 바, 사유형에서만 관찰된다. 가유형~라유형은 모두 경주 적석목곽분에 부장되며 최상위 혹은 상위의 대형분에 해당된다. 경주 이외 지역은 경산과 창녕의 경우 마유형에, 대구는 바유형,

양산은 사유형에 해

당되어, 경주 이외
지역 간에서 위계
차이가 관찰된다.

경주지역의 경우
가~사유형 모두 확
인되며, 경주 외 지

[표 7] 기종조합에 따른 고분의 위계



역의 경우에서 마~사의 유형에서 확인된다. 가~라유형의 경우 왕릉급 무덤으로 상위의 고분으로 볼 수 있는 황남대총과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 금령총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로는 경주 대릉원에 분포하는 황남동, 황오동, 교동, 인왕동, 노서동, 노동동 고분군에서 마립간기 왕릉을 비정하고 있어(김대환 2017), 마립간기의 왕릉으로 비정되고 있는 가~라유형의 고분을 주목할 수 있다.

IV. 금속용기의 전개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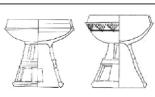
1. 금속용기의 전개

1) 시간판단기준

앞서 살펴온 금속용기의 조합양상을 통해 고분의 위계와 시간에 따른 변화상이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경주 이외 지역으로 금속용기 부장이 확산되어지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어, 금속용기 부장의 정치·사회적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에 따른 정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자 한다. 그렇지만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는 시간에 따른 형태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고 특히 의례기의 경우 전통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형태 변화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 변화를 추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가 형태적 분석을 하기에는 양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아서 금속용기의 기종별 형식 편년을 설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금속용기의 시간의 흐름은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신라 토기의 편년 연

| 최병현 안(2021) | | 분기 | 토기 | 고분 |
|-------------|-----------|-----|---|--|
| 1Aa | 4C 중엽 | | | |
| 1Ab | | | | |
| 1Ba | | | | |
| 1Bb | 4C 후엽 | | I |  |
| 1Bc | | | | 월성로 가-13호분 황오리 14호분 1곽 |
| 2a | 4C 말~5C 초 | II |  | |
| 2b | 5C 전엽 | |  |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
| 3a | 5C 중엽 | III |  | 계림로 32호분, 황오리 1호분 |
| 3b | 5C 후엽 | |  | 금관총, 황오리 16호분 4곽 황오리 남곽, 황오리 16호분 2곽 쪽생지구 B3호분, B1호분 |
| 4a | 5C 말~6C 초 | IV | | 천마총, 금관총, 서봉총, 식리총, 노서리 138호분, 미추왕릉 7지구 7호묘 황오리 37호분, 황오리 16호분 1곽 황오리 34호분, 은령총, 대구내당동 55호분 경산 조영 E II-1호분, 창녕 교동 11호분 대구 달성 죽곡리 고분 |
| 4b | 6C 전엽 | |  | 경산 조영 E II-3호분, 창녕 교동 7호분 호우총, 계림로 14호분, 황오리 4호분 보문리 고분, 양산 금조총, 양산 부부총 |

[도면 4] 금속용기의 분기 구분표

구를 참고하고자 한다. 신라 토기의 편년안에 대해서는 연구 간에 근 1세기에 가까운 입장 차이가 있지만, 고분의 상대서열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어 고분의 상대서열과 최병현(2021)의 신라전기양식토기 편년안을 참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대서열안에 따라 금속용기가 부장된 고분의 선후관계를 정리하여 각 분기별로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의 특징과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금속용기의 전개

I기는 4세기 후엽으로 금속용기가 적석목곽분에 처음으로 부장된 시기이다. 이 시기 고배의 특징은 4단 나팔각 고배가 3단각 고배로 축소되고 대각의 투창은 상하 교차투창이 출현되며, 2단각 고배가 발생하여 3단각 고배와 공존한다. 이 단계에 해당되는 고분이 경주 월성로가-13호분과 황오리 14-1호분이다. 월성로 가-13호분에서 금제완, 은제완이 확인되었고, 황오리 14-1호분 1곽에서는 철솥과 철호가 출토되었다. 신라 적석목곽분에서 확인되는 금속용기가 조합을 이루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속용기의 본격적으로 부장되는 된 시기로 보기는 어렵다.

Ⅱ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엽에 해당되는 시기로 금속용기가 적석목곽분에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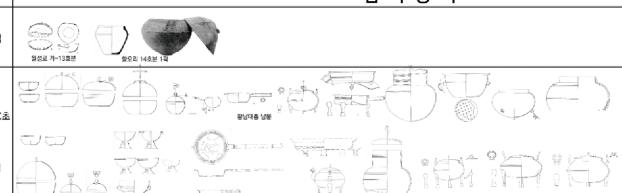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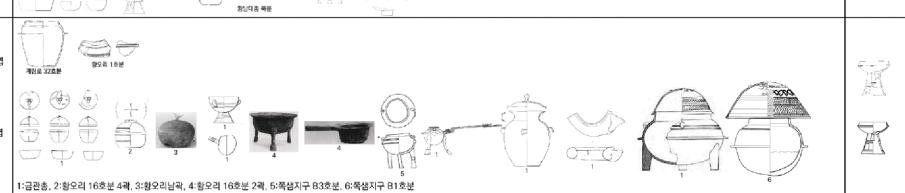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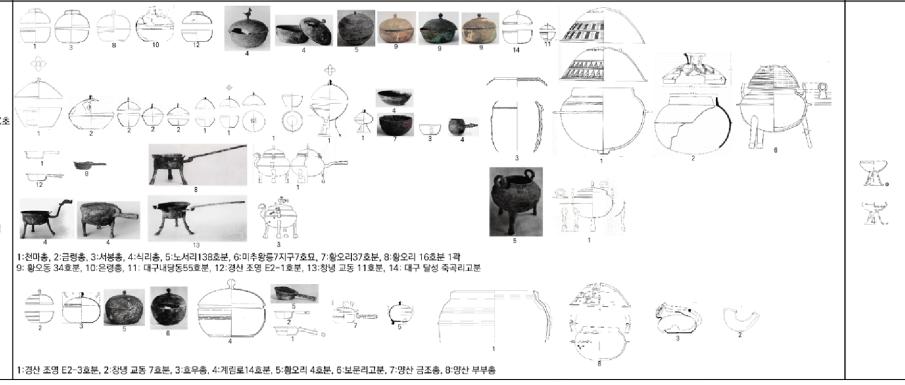
격적으로 부장되는 시기로 최상위 무덤인 황남대총에서 두드러진다. 이 시기는 고배는 대각에 상하 교차투창이 뚫린 고배가 2단각 고배로 정형화되어 신라양식이 완성된 시기이며, 금속용기 기종 조합에서 신라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 각 기종이 모두 부장되었다. 또한 신라식 금속용기가 출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금속용기는 금, 은, 금동, 청동, 철 등 모든 재질이 확인되며, 종류로 개인 식음기에서부터 조리용, 저장용, 의례용 등 모든 기종이 망라되며 그중에는 복수부장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특히 황남대총 남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는 총 110점으로 전 시기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금속용기가 부장되었다.

이 시기에 부장된 금속용기 가운데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의 청동정은 고구려 칠성산 96호분, 우산하 68호분 청동정과 기형적으로 유사하여, 고구려에서 이입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에서 청동정이 각각 3점씩 복수부장되어서 매장의례에 신분 질서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합도 칠성산 96호분의 십자형뉴동합과 형태가 같은 은합이 황남대총 남분에서 확인되어 금속용기 부장에서의 고구려 영향이 관찰된다. 이외에도 황남대총 북분의 귀갑문이 타출된 은잔은 서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라식 특징을 가진 고리형삼엽좌판의 합도 부장되며, 신라 기종인 청동유개장경호, 금, 금동제 고배, 금동제 대부완 등도 부장된다. 동시에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되는 일체형 병부를 가진 울두 등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Ⅲ기는 2단각 고배를 비롯한 고배들이 소형화되는 시기로 대각의 곡선화가 현저하게 관찰되며, 부가구연장경호가 출현하는 5세기 중엽에서 5세기 후엽에 해당된다.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무덤에 부장된 것과 같은 기종의 금속용기가 부장되지만 재질과 기종 조합에서 차이를 보인다. 식음기에 해당하는 금, 금동, 은 재질의 금속용기는 금관총에서만 관찰되며, 나머지 고분에서는 철제용기와 청동용기만 부장되는 모습을 보여서 신라 왕도에서는 금속용기 부장에서의 위계질서가 관찰된다. 금관총에서는 금, 금동, 은 재질의 여러 기종의 금속용기가 부장되며, 수량도 51점에 달한다. 청동유개장경사이호로 미루어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에서 이입된 금속용기 부장이 확인되며, 서역계 기물인 각배와 초호 등의 중국 중원왕조 기물이 부장된다. 다만, 금관총에서는 청동정이 부장되지 않고, 철솥이 4점 복수부장되어서 다른 고분과 구별된다.

IV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고배는 전체적으로 소형화되어서 전

체적으로 왜소해지고, 대각 하단에 돌대가 확인되며, 부가구연장경호의 구연부가 완전 반구화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토기가부장된 고분으로는 천마총, 금령총, 서봉총이 있으며, 이 무덤들은 모두 최상위 무덤으로 비정되는데, 대형분에서는 II기의 고분에 부장되었던 청동정, 청동울두, 청동초호가 부장된다. 그렇지만 이보다 하위의 고분에서는 다양한 기종이 확인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부장되는 기종은 철솥이다. 철솥은 1점 혹은 2점이 부장되는 것으로 보아 철솥 부장은 전 시기에 이어 지속된다. 한편 청동울두와 청동합은 선택적으로 부장되며, 금, 금동, 은 재질의 금속용기의 부장은 드물기도 하지만 부장된 양도 적다. 특히 IV기의 커다란 특징은 청동합이 IV기를 기점으로 수량과 재질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점이다. 합의 종류로는 보주형뉴합, 십자뉴합, 조형뉴합이 확인되며, 이 중에는 신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청동합이 현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철솥의 부장도 계속되지만 2점 이상의 복수부장보다는 1점씩 단수부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 시기 청동으로 제작되었던 정, 호 등도 철제로 제작되면서 철정, 철호이 새롭게 제작되며, 청동울두와 청동초두 등의 조합은 보이지 않는다.

| 분기 | 시기 | 금 속 용 기 | 도기(1/12) |
|-----|--------------------|---|---|
| I | 4C 후엽 |  |  |
| II | 4C 말~5C 초 5C 전엽 |  |  |
| III | 5C 중엽 5C 후엽 |  1:금관총, 2:황오리 16호분 4기, 3:황오리남작, 4:황오리 16호분 2기, 5:목선지구 B38호분, 6:목선지구 B1호분 |  |
| IV | 5C 말~6C 초 6C 전엽 |  1:금관총, 2:금령총, 3:서봉총, 4:식령총, 5:노서리 138호분, 6:미우옹총 7호분, 7:황오리 37호분, 8:황오리 16호분 1기, 9:황오리 34호분, 10:은평총, 11:대구나평동 55호분, 12:경산 조양 E2-1호분, 13:청성 고동 11호분, 14:대구 달성 죽곡리고분 1:경산 조양 E2-3호분, 2:청성 고동 7호분, 3:효우총, 4:개간토 14호분, 5:황오리 4호분, 6:보문리고분, 7:양산 금조총, 8:양산 부부총 |  |

[도면 5] 금속용기의 전개양상(축척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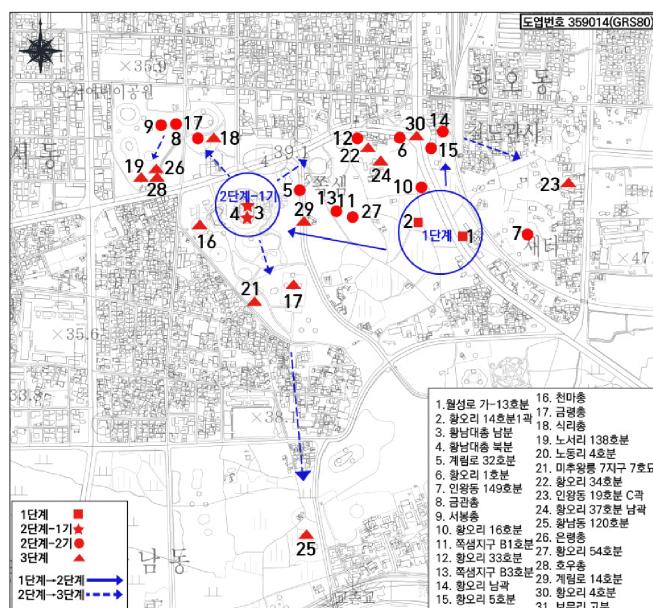
경주 이외 지역에서는 청동합과 청동울두, 철솥 등이 확인되며, 청동합의 경우에는 보주형뉴, 십자형뉴의 형태가 부장되며, 십자형뉴의 합은 Ⅱ기와 Ⅲ기에는 은, 금동, 청동으로 다양하게 제작된 것에 반해 Ⅳ기에서는 청동으로 제작되어 은령총과 경산 조영 E Ⅱ-1호분에 부장되었다.

이처럼 Ⅳ기에서의 키다란 특징의 하나는 외래기종의 신라화이다. 청동정에서 변형된 현상이 두드러지며, 미추왕릉 7지구 7호묘의 정은 철로 제작되었으며, 동체에 돌출된 전이 있고 뚜껑을 기대의 대각을 의도적으로 파손하여 사용하는 등의 형태는 철솥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인 기형을 통해 청동정을 모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오리 4호분의 청동정은 청동합에 다리와 귀를 부착하여 청동정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형태는 고구려나 중국에서 확인되지 않는 모습으로 청동정을 모티브로 하여 청동합과 청동정이 결합된 모습이다.

2. 금속용기의 시공적 양상

금속용기의 부장은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다. 하지만 출현기의 자료가 한정적이고 기종도 개인 식음기인 완과 취사용기인 철솥이 확인되어 의례와 관련 있는 기종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례와 관련이 있는 기종이 등장하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속용기의 부장이 경주 외 지역으로 확산된다.

금속용기가 가지는 시공적 양상에 대하여는 새로운 용기의 등장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금속용기가 가지는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도면 6] 경주 적석목곽분의 금속용기 부장의 확산과정(S=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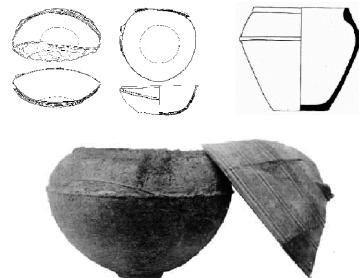
금속용기의 시간적인 전개에 따라 4분기로 나눌 수 있지만, 시공적인 양상을 결부 시켜 금속용기 부장의 확기는 3단계로 변화과정을 보인다.

1단계는 금속용기의 출현기로 신라

고분에 금속용기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이다. 처음으로 월성로 가-13호분에서 금제완 부장이 확인되는데 특히, 월성로 가-13호분은 적석목곽분의 출현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성로 가-13호분에서는 금속용기와 함께 유리기, 그리고 금동제 세환이식, 금동제 재갈멈치가 있는 재갈이 확인되기도 하여서 고구려와의 관련을 보여주며 동시에 적석목곽분의 출현을 시사하는 고분이다. 이에 비해 황오리 14호분에서는 철솥과 철호의 부장이 확인된다. 철솥의 부장은 경주 사라리 130호분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어, 적석목곽분 조성 시기 이전부터 신라 사회에서 철솥 부장은 재지적 의례와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월성로 고분군 내 위치한 월성로 가-13호분과 월성로 고분군과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는 황오리 14호분에서 금속용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월성로 고분군 일대에서 금속용기 부장이 시작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단계는 금속용기의 완성기로 금속용기 전개의 II, III기에 해당된다. 금속용기 재질별, 기종별 조합이 완성된 시기로 기종과 재질에서 다양성을 보여주며, 경주의 적석목곽분에서만 금속용기가 확인된다. 2단계의 1기는 대형 적석목곽분에서 금속용기 부장이 확인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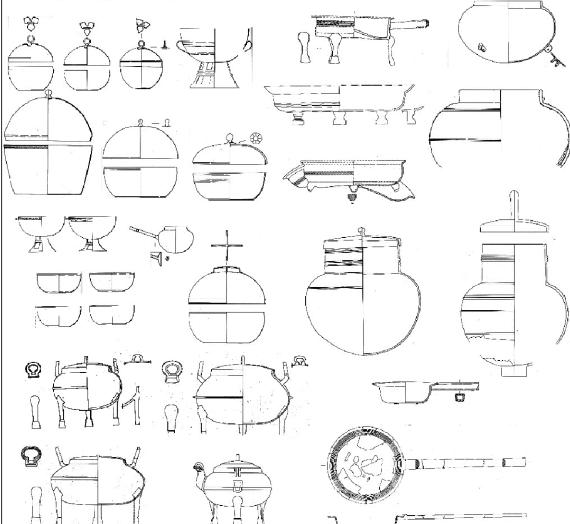
1단계 : 출현기



[도면 7] 1단계 출현기의 금속용기와 부장고분(축척부동)

(월성로 가-13호분, 황오리 14호분 1기)

2단계 : 완성기 (1기)



[도면 8] 2단계 완성기-1기의 금속용기와 부장고분(축척부동)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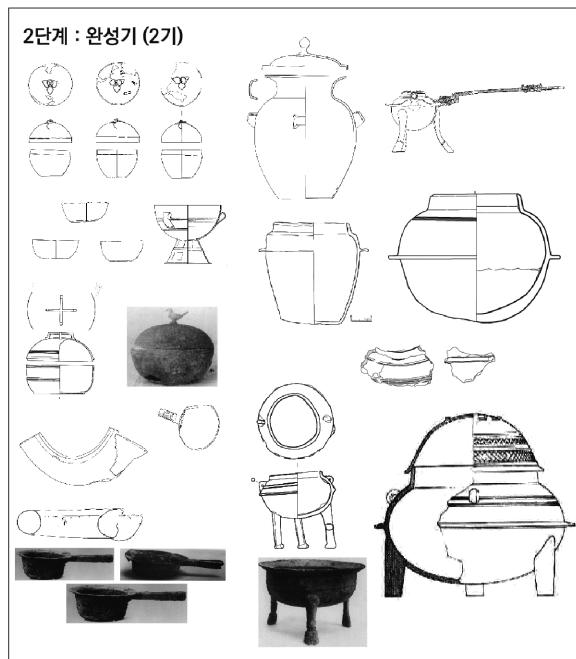
황남대총이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와 중국계, 서역계 금속용기가 모두 망라되었으나 고구려 기종의 출현이 처음 이루어졌다. 특히,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정 9점 중 6점이 확인되며, 황남대총 북분에서는 고구려에서 출토된 형식인 청동정과 청동정의 형태에서 변형된 청동정이 함께 부장된다.

월성로 고분군에서 시작되었던 금속용기 부장이 대릉원 일대에 등장하는 시기로,
대형 적석목곽분인 황남대총에서 전 시기에 확인되는 금속용기의 기종이 조합을 이
루어 부장되며 최상위의 고분에서 제한적, 독점적으로 금속용기 부장이 이루어진다.

2단계의 2기는 왕릉급의 무덤뿐만 아니라 상위 계층의 중대형급의 무덤에서 금속용기 부장이 시작된다. 모든 기종의 금속용기의 부장은 금관총에서 확인되며, 금관총에서는 신라 기종을 비롯하여 고구려 토기와 형태가 같은 청동유개사 이장경호과 금동각배, 중국 남조의 청동초두 등 이전 시기에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금속용기가 부장되었다. 이에 비해 중대형분은 부장된 금속용기의 기종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황오리 일대와 쪽샘지구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는 청동합, 청동울두, 철솥 등으로 금속용기

의 기종과 수량에서 최상위 대형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2단계가 되면 대릉원 일대에 금속용기 부장이 시작된 후 노서리 고분군 일대와 황오리 고분군, 쪽샘지구까지 금속용기 부장의 공간적 범위가 확산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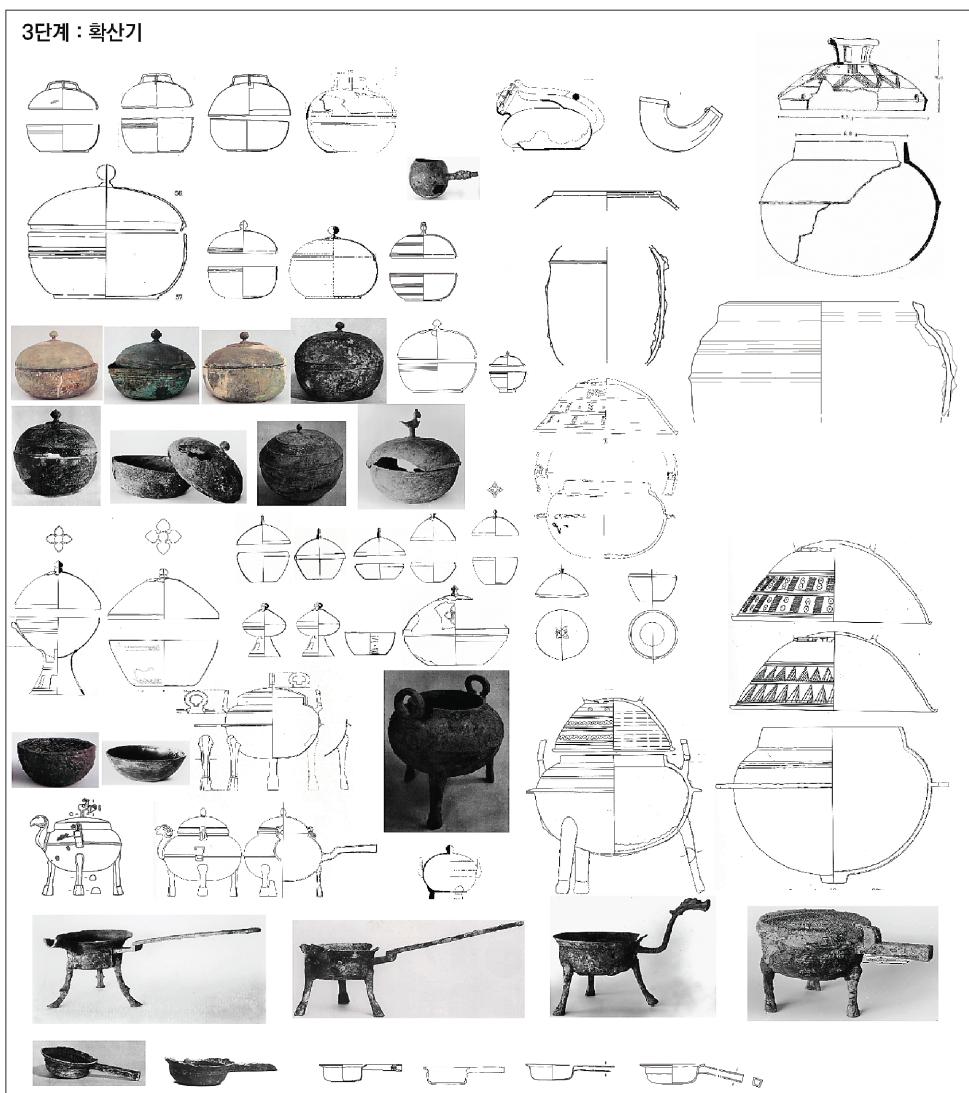
3단계는 금속용기 부장이 경주분지 내 뿐만 아니라 경주 이외 지역으로 확산된다. 경주 적석목곽분의 경우에도 천마총을 제외하고는 금, 은, 금동 식음기의 부장이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기종의 금속용기는 출현하지 않는다. 또한 둘째 단계에 부장되었던



[도면 9] 2단계 완성기-2기의 금속용기와 부장고분(축척부동)

(계림로 32호분, 황오리 1호분, 금관총, 황오리 16호분 4과,
황오리 16호분 8곽, 황오리 남곽, 황오리 16호분 2곽, 쪽샘지구 B3호분,
쪽샘지구 B1호분, 황오동 33호분(등), 황오리 5호분)

금속용기가 재질을 달리하면서 경주 분지 내에서 노동리와 노서리 고분군, 황오리 고분군, 인왕동 고분군과 시내지역을 벗어난 보문리 고분에서도 청동합의 부장이 확인된다. 특히 금속용기 부장 고분의 확산과 함께 외래기종 금속용기가 신라화되었는데, 청동정의 경우 칠성산 96호분에서 확인된 청동정의 형식과 가장 변형이 많이 이루어진 황오리 4호분의 청동정이 확인된다. 경주의 적석목곽분에서는 청동합, 청동울두, 철솥 등이 지속적으로 부장되지만, 청동정이나 청동울두 등이 선택적으로 부장되기



[도면 10] 3단계 확산기의 금속용기와 부장고분(축척부동)

(천미총, 금령총, 서봉총, 식리총, 노서리 138호분, 황오동 33호분(서), 미추왕릉 7지구 7호묘, 황오리 37호분, 황오리 16호분 1관, 황오동 34호분, 인왕동 19호분 C관, 황남동 120-1호분, 은령총, 황오리 54호분, 호우총, 계림로 14호분, 황오리 4호분, 보문리 고분)

| 단계 | | 금 속 용 기 | | | | | | | 부장고분 |
|------------|---|---------|-------|----|---|------|----|--|------|
| 금은기 | 합 | 정 | 초두·조효 | 위두 | 호 | 기타용기 | 철술 | | |
| 1 출현기 | | | | | | | | 월성로 가-13호분 횡오리 14호분 1곽 | |
| 2 완성기 (1기) | | | | | | | |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 |
| 2 완성기 (2기) | | | | | | | | 계림동 32호분 횡오리 1호분 리원총 횡오리 16호분 4곽 횡오리 16호분 5곽 횡오리 17호분 횡오리 2호분 횡오리 16호분 2곽 복성지구 1호분 횡오리 3호분(등) 횡오리 5호분 | |
| 3 확산기 | | | | | | | | 천마총 금령총 서봉총 식리총 노사리 38호분 횡오동 33호분(서) 미죽왕급7자구7호묘 횡오리 37호분 횡오리 16호분 1곽 횡오동 34호분 인왕동 19호분 C곽 횡남동 12호-1호분 은령총 횡오리 54호분 호우총 계림동 14호분 횡오리 4호분 보문리고분 대구내금동 55호분 경산 조영 E2-1호분 청녕 고동 11호분 대구 달성 죽곡리고분 경산 조영 E2-3호분 청녕 고동 7호분 임산 금속총 임산 부부총 | |

[도면 11] 금속용기 부장의 획기(축척부동)

도 한다. 동시에 경주 이외 지역에서는 경산, 대구, 청녕, 양산의 고총고분에서만 금속 용기가 부장되어서 신라 고분문화를 공유하는 낙동강 이동지역 가운데 이들 지역이 다른 고분보다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았던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3. 금속용기의 고고학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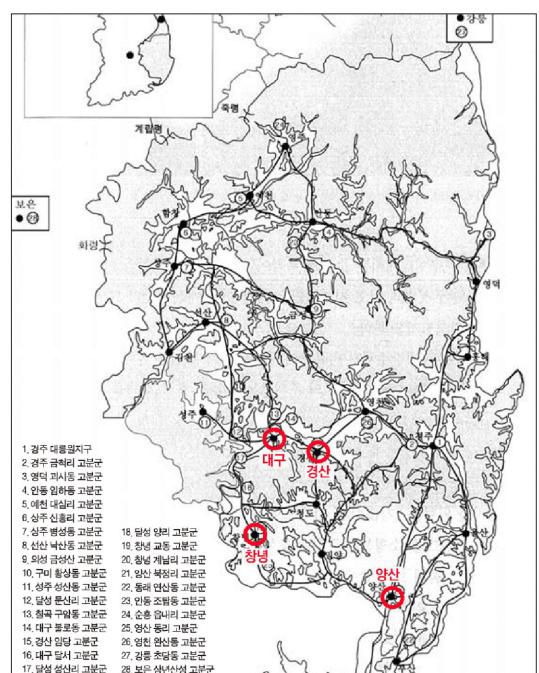
신라의 고대 왕권국가의 성립은 고총으로서 적석목곽분의 등장과 함께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세기 무렵 경주 중심에서 고총고분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신라양식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라양식의 토기나 신라식의 착장용 장신구, 삼환장식대도, 장식마구 등 신라양식이 완성된 것은 황남대총 남분에서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황남대총에서 관찰되는 신라양식의 토기나 착장용 장신구, 장식대도와 장식마구의 조합을 통하여 신라의 영역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 5세기 이후 낙동강 이동 각지에 조성된 고총고분에서 경주의 대형분과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어서 이

를 신라의 지방으로 보기로 한다. 그렇지만 신라의 지방 지배가 강력한 왕을 정점으로 한 일원화된 직접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 지배는 통일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금속용기의 고분 부장도 신라의 중앙과 지방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주는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속용기는 경주 중심지구의 최상위 적석목곽분에서 완성되기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츰 경주 분지의 중·대형 고분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대형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는 재질과 기종조합에서 최상위 무덤보다 낮은 위계를 보여준다. 때문에 금속용기의 부장에는 정치,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고분문화를 공유하는 경산, 대구, 창녕,¹⁾ 양산, 포항지역의 고분은 횡구식 석곽분과 수혈식석곽분, 횡혈식석실분 등 적석목곽분이 아니지만, 경주 최상위 무덤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기종의 금속용기가 부장되었다. 다만, 경주에서 보이는 금속 용기에 비해 재질이나 기종 조합에서 5세기 중엽 이후의 중·대형 적석목곽분과 같거나 낮은 위계를 보이며, 부장된 수량 또한 매우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신라의 세력권에 포함되는 낙동강 이동지역의 고총고분에서는 금속용기가 부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금속용기가 부장된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은 비교적 우위를 점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금속용기가 부장된 대구, 경산, 창녕, 양산 등지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 중앙에서 각지로 가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다. 창녕은 낙동강 이 서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하며, 양산은 경주에서 김해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또한 대구와 경산은 교통의



[도면 12] 신라 고종의 분포와 금속용기 부장 고분 :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수정 후 인용)

1) 창녕양식토기가 신라토기의 한 지역양식이며 창녕지역의 고총에서 출토되는 금공품 또한 신라에서 생산되어 분여 되었고 고총이 축조되는 단계에는 신라의 지방이었다는 견해(이희준 2017)에 따라 신라 고분으로 인식하였다.

결절지로의 지리적으로 특징을 가진다. 이처럼 금속용기는 신라 중앙과 교통의 요충지인 이 지역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금속용기는 이들 지역 고총고분 피장자를 낙동강 이동의 다른 지역 고총과 차별시키는 위계의 물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금동관을 통해서도 검증이 가능하다.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것은 금동 출자형관이다. 금동제 출자형관은 5세기 중반경부터 신라 세력권의 여러 지역의 고총에서 부장되며, 5세기 후반 무렵 출자형 금동관은 대구, 창녕, 양산에 금동관이 집중되는데, 금속용기 또한 이 지역의 고총고분에 부장된다. 이는 고구려와의 관계 악화 속에서 가야 세력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과의 관계를 도모하려는 신라의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라 사회에서 금속용기의 부장은 고구려와의 관련 속에서 정형화되는 등 고구려와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금속용기는 신라의 성장과 발전 과정 속에서 경주 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신라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가 가지는 정치·사회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표 8] 경주 외 지역 금동관, 금속용기 부장 고분

| 지역 | 금동관 출토 | 금속용기 출토 |
|---------------|--------|---------|
| 의성 탑리 1곽 | ● | |
| 부산 복천동 10·11호 | ● | |
| 경산 임당 7A호 | ● | |
| 부산 복천동 1호 | ● | |
| 경산 임당 7C | ● | |
| 울산 조일리 | ● | |
| 창녕 교동 7호 | ● | ● |
| 경산 임2호 | ● | |
| 대구 달서 37호 1실 | ● | |
| 양산 부부총 | ● | ● |
| 경산 임당 5B1 | ● | |
| 경산 임당 6A | ● | |
| 양산 금조총 | ● | ● |
| 강릉 초당동 B16호 | ● | |

V. 맷음말

본 논문에서는 삼국 중 신라 고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용기의 부장에 초점을 두고 경주와 경주 이외 지역의 고총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를 취합하여 신라 사회에서 금속용기 부장이 갖는 의미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신라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는 금, 은, 금동, 청동, 철제에 이르기까지 그 재질이 다양할 뿐 아니라 고배, 완, 소합 등 개인 식음기에서부터 솔과 시루 등의 조리용기, 장경호 등 저장용기와 정과 초두, 초호 등의 의례용기에 이르기까지 기종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금속용기의 부장은 현실의 생활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계세관념의 물적 표현인 동시에 매장의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매장 의례와 사후관념의 물적 표현으로서 금속용기는 신라 중심의 경주에 집중되는 한편 경주 이외의 일부 지역의 고총고분에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두 가지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하나는 고분에 부장된 금속용기의 검토를 통하여 금속용기의 기종 조합을 살폈고, 이를 종합하여 금속용기 부장된 고분의 시간적 전개 양상과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주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금속용기의 부장이 신라 중심의 대형분과 특정 지역의 고총고분에 부장된다는 점에서 논문에서는 금속용기의 부장에 반영된 신라의 정치, 사회적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금속용기는 고분의 피장자의 위계를 파악할 수 있는 유물로 파악되었다.

한편, 금속용기의 부장은 사회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 신라의 중앙에서는 최상위 무덤에서 다양한 재질과 기종의 금속용기가 복수부장되기 시작하면서 차츰 그보다 낮은 위계의 무덤으로 금속용기 부장이 확대되어 5세기 중~후엽이 되면 금속용기의 부장이 신라 중앙의 상위 신분에서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경주 이외 지역에서 금속용기의 부장은 5세기 말 이후가 되면서 확인되기 시작하며, 신라의 고분문화를 공유하는 여러 지역 중에 경산, 대구, 창녕, 양산, 포항에서만 금속용기가 부장되어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로부터 금속용기의 부장이 다른 위세품들과 마찬가지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금속용기가 부장된 고총이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위상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투고일 2023. 12. 30 | 심사완료일 2024. 1. 16 | 게재확정일 2024. 2. 1

참고문헌

-國文-

- 강현숙. 2012. 「고구려고분과 신라적석목곽분 교차편년에서의 몇가지논의」. 『한국상고사학보』, 78.
- 경북대학교박물관. 2000. 『경북대학교박물관 유적발굴 40년』.
- 慶熙大學校博物館. 1974. 『慶州 仁旺洞 19·20號 古墳發掘 調查報告』. 慶熙大學校博物館叢刊 第一冊.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慶州 金冠塚 發掘調査報告書 : 國譯』.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13. 『B1호 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16. 『B지구 연접분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경주박물관. 1990. 『慶州市 月城路 古墳群 : 下水道工事에 따른 收拾發掘調査報告』.
- _____. 2010. 『慶州 鷄林路 14號墓』.
- _____. 2012. 『慶州 鷄林路 新羅墓1』.
- _____. 2020. 『경주 서봉총 2호 발굴보고』.
- 국립대구박물관. 2018. 『대구달성유적』IV.
- 國立博物館. 1948. 『壺穴塚과 鐘鈴塚』. 乙酉文化史.
- _____. 1964. 『皇吾里4·5虎墳 皇吾里破壞古墳 發掘調査報告』.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五冊.
- 국립중앙박물관. 2016a. 『慶州 金冠塚 : 遺構篇』.
- _____. 2016b. 『慶州 金冠塚 : 遺物篇』.
- _____. 2000a. 『경주 노동리 4호분』.
- _____. 2000b. 『법천리 1호분』.
- 김대환. 2017. 「신라 마립간기 왕릉의 새로운 성과와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제88집.
- 김용성. 2015. 『신라고분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 대구대학교박물관. 2002. 『달성죽곡리고분 발굴조사보고서』.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금조총·부부총』.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天馬塚』.
-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1975. 『慶州 仁旺洞 第149號 發掘調査報告』.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5.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 _____. 1994. 『皇南大塚南墳發掘調査報告書』.
- 서울대학교박물관. 2017. 『황오리 1호분 출토 유물 재발굴보고』.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0.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추정 120호분 주변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 이희준. 201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영남대학교박물관. 1975. 『皇南洞古墳發掘調査概報』.
- _____. 2015. 『경산임당지역고분군』XII.
- _____. 2017. 『경산임당지역고분군』X IV.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신라고고학개론』下. 진인진.
- 秦弘燮. 1969. 『皇吾里第三三號墳』. 『慶州皇吾里第一·三三號墳·皇吾里第一五一號古墳發掘調査報告』.
- 최명현. 2021. 『신라 6부의 고분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日文-

- 有光教一・藤井和夫, 2000,『朝鮮古蹟研究會遺稿』-慶州皇吾里第16號墳·慶州路西里215番地古墳發掘調査
報告1932-1933』, 유네스코동아시아문화연구센터 財團法人東洋文庫.
- 朝鮮總督府, 1922,『大正七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 _____, 1932,『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 _____, 1937,『慶州皇南里第百九號墳皇吾里第十四號墳調査報告』,『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1.

The Appearance and Development of Metal Container in Silla Ancient Tombs

Bang, Min-Hee(Researcher, Gyeongju Research Institute Cultural Heri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burial of metal containers, which is a feature of ancient tombs from the Silla Dynasty of the Three Kingdoms, to gather metal containers buried in ancient tombs and graves in and outside of Gyeongju to trace the meaning of burying metal containers with the dead in the Silla society.

Metal containers buried in the ancient tombs of Silla range in materials from gold to silver, gilt bronze, bronze, and steel, and also have diverse types such as personal plates for food called gobae, wan, sohap, etc., cooking containers such as sotga and siru, storage containers such as janggyeongho, and even containers used for rituals like jeong, chodu, and choho. Burial of such metal containers are materialistic expressions of burial customs and belief of the afterlife are concentrated in Gyeongju, which was the center of Silla, while being buried in ancient tombs in some other areas outside of Gyeongju.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focusing on two aspects. metal containers buried in ancient tomb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types of metal containers, while on the other hand, Results of this showed that in addition to the temporal development mode of ancient tombs in which metal containers were buried, this practice spread to areas outside of Gyeongju as time pas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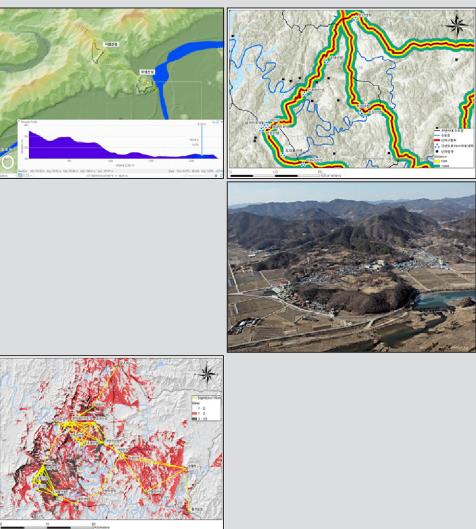
Based on this, the meaning of burying metal containers in tombs of the Silla

society was evaluated.

Meanwhile, the burial of metal containers also had social meaning. In the center of Silla, multiple metal containers with various materials and types were buried in the greatest tombs, and this custom of burying metal containers spread to the tombs of people of lower status. It is evident that in the fifth century and latter Silla Dynasty, the burial of metal containers was widely practiced among the upper echelons in central Silla.

Burial of metal containers outside of Gyeongju were found after the late 5th century, and among the various regions that shared the ancient tomb culture of Silla, metal containers were found only in the ancient tombs of Gyeongsan, Daegu, Changnyeong, and Yangsan, and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is could be interpret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Just like other artifacts that show hierarchy, the burial of metal containers can also hint to the relationship of the central and local regions, and it can be presumed that areas with ancient tombs that buried metal containers had higher status compared to other regions.

Key words : Silla Ancient Tombs, Gyeongju, Metal container, Hierarchy, Appearance, Development



GIS를 이용한 옥천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 재구성

Reconstructing the Function and Role
of Okcheon Yiseong Fortress Using GIS

강동석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이성산성의 역사 · 고고학적 배경

III. GIS를 이용한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 재구성

IV. 맺음말

국문 요약

옥천 이성산성은 삼년산성과 함께 개축된 굴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굴산성은 삼국 격전기에 소백산맥 이서에서 신라의 정치·경제·군사 거점이며, 행정 치소인 동시에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 한 기능과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굴산성의 개축 기사는 신라의 대외 진출 전략과 지방지배체계, 변방지역의 관방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성산성의 위상에 대해 GIS의 공간분석법을 이용하여 검토해 보았다. 먼저 행정 치소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성산성은 지형·지리적으로 접근성과 통제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 성산성은 저평한 구릉에 위치하여 고지의 산성에 비해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하였다. 이는 주변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촌 간의 시인관계를 통해 지역민과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도 가능하였다.

한편 이성산성은 옥천·보은에서 유일하게 육로와 수로가 교차하는 결절지에 위치하여 경제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신라가 대외 진출로로 삼았던 추풍령로 주변의 성곽에 대한 근접분석 결과, 이성산성이 최근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신라가 간선도로망을 개척하면서 거점산성을 중심으로 지방조직체계를 완성하고 관방체계를 정비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 이와 더불어, 이성산성은 금강 상류에서 운영되었던 수로망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지니고 있었다. 이성산성은 수륙교통망의 중심지로서 보은 또는 청간에서 확보한 물자를 수로를 통해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성산성의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옥천지역 관방체계의 재구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성산성은 백제와 대치하며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옥천지역 성곽군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지역단위 관방체계로 상정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성산성의 공간적 위상을 검토해 보았다. 분석결과, 이성산성은 성곽들로 구성된 관계망에서 권력과 영향력 확보에 유리하고, 인적·물적 교류와 정보 교환을 위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주제어 :옥천, 이성산성, 신라, 관방체계, GIS

I . 머리말

옥천 이성산성은 신라의 굴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굴산성은 소지마립간 8년(486)에 삼년산성과 함께 개축되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가야의 지원을 받아 고구려군의 남진을 막아 내며 지속적으로 영토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소백산맥 이서에 위치한 굴산성과 삼년산성은 신라의 대외 진출 교두보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서영일 1999b; 백영종 2008; 윤성호 2017). 특히, 굴산성 개축 기사는 삼년산성의 470년 초축과 486년 개축, 554년 관산성 전투와 함께, 신라의 영토 확장과 지방통치체제의 확립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옥천 이성산성의 역사적 · 학술적 가치를 구명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학술지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최근까지 연차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술지표조사에서는 그간 산계리토성으로 명명되었던 이성산성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황조사를 통해 이성산성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굴산성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서는 최초 토성에서 석축성으로 개축된 성벽 구조를 확인하였다. 또한, 성곽 내부에서는 원형수혈군과 석축집수시설, 목곽고 등이 발견되었는데, 출토유물을 통해 5세기 후반~7세기 전반에 조영된 성곽으로 판명되었다. 이를 근거로 이성산성은 옥천 일대에서 백제와 대치하고 있었던 신라군의 병참기지였으며(최관호 2022: 27), 고대 성곽의 발달과 국가 발전 과정을 보여 주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백종오 2022: 73).

이처럼 이성산성은 한국고대사 전개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신라의 영역 확장과 군사 전략, 지방지배체제의 확립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공간고고학적 입장에서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이성산성의 역사적 · 고고학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 GIS의 다중스케일 접근법을 통해 삼국 격전기에 이성산성이 정치 · 경제 · 군사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지리적 특징을 분석하고, 옥천 · 보은지역에 구축된 신라의 관방체계 내에서 이성산성이 점하고 있었던 위상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이성산성의 역사 · 고고학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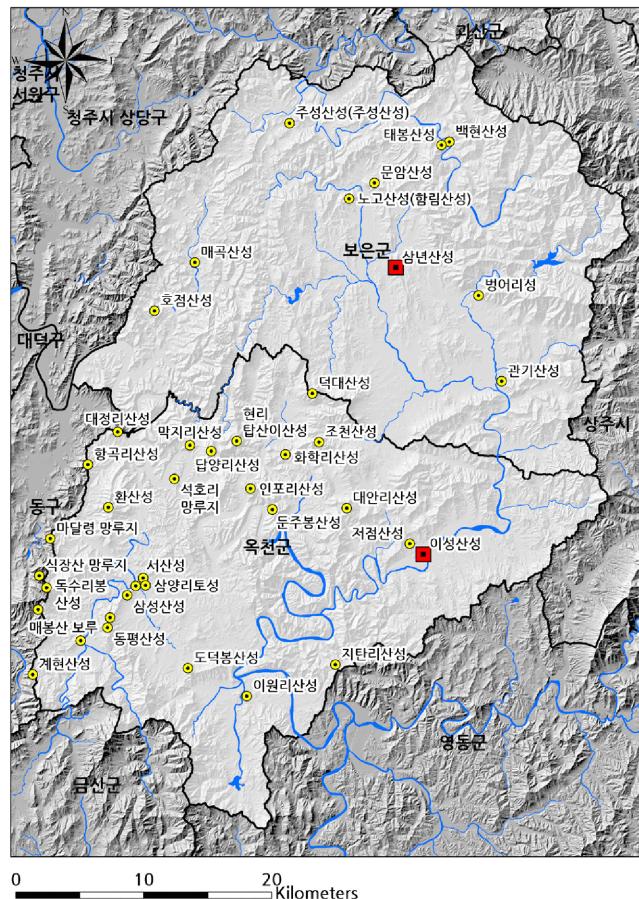
1. 역사적 배경

신라 굴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옥천 이성산성과 관련한 기사는 아래의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

(소지마립간) 8년(486) 봄 정월에 伊濱實竹을 將軍으로 삼았다. 一善의 경계[界] 장정[丁夫] 3천 명을 징발해서 三年과 屈山 두 성을 고쳐 쌓았다.(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炙智麻立干 8年)

이 기록은 신라가 소백산맥 이북의 고구려와 백제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라의 지방지배와 통치체제 확립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신라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정 이후 왕경에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마립간의 즉위 과정에 개입하는 등 고구려의 강한 간섭을 받았다. 하지만, 놀지 마립간 시기에 고구려군을 강원 영동 지역으로 축출하고, 백제와 동맹을 맺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



[그림 1] 옥천 · 보은 일원 고대 성곽 분포도

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 결과, 소지마립간 3년(481)에는 고구려 영토인 안변까지 진출하였으나, 그 해에 청송 또는 영덕으로 비정되는 狐明城 등 7성을 잃고, 포항 흥해의 미질부성이 공격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라는 결국 소지마립간 초반에 동해안 지역에서 고구려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막아 냈다. 그리고 고구려의 추후 공세에 대비하여 483년~490년 사이에 소지마립간은 一善(선산)을 순행하고, 仇伐城(의성), 刀那城(상주)의 축성과 三年·屈山·鄙羅城을 개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선산은 당시 왕경에서 소백산맥을 넘는 주요 교통로였으며, 삼년산성과 굴산성은 소백산맥 이서에서 각각 보은-청주, 옥천-대전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의 결절지였다. 이처럼 고구려와 백제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요충지인 선산에 신라 왕이 두 차례나 순행하였다는 것은 소백산맥 너머에 설치된 주요 전진기지, 즉 삼년산성, 굴산성을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윤성호 2017: 29~30). 그 만큼 굴산성은 삼년산성과 함께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삼국시대에 옥천이 대전으로 진출하는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이자 백제와 신라의 경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양시은 2023: 117), 이와 연계되는 이성산성의 지정학적 위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한편 자비마립간 13년(470)의 삼년산성 축성 기사를 통해 볼 때, 소지마립간 이전에 이미 신라가 소백산맥 이서에 진출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삼년산성과 함께 개축된 굴산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신라는 고구려군을 동해안으로 축출하고 대외 확장을 시도하였던 자비마립간기에 보은과 옥천에 전진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고구려의 공세에 대비하고, 소백산맥 이남 지역을 안정화하기 위해 삼년산성과 굴산성을 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소지마립간기에 격화되었던 고구려군과의 대치 상황은 이들 성곽의 개축으로 이어졌고, 이는 변방 지역의 관방체계를 보다 공고화하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신라의 한강 진출 이후, 소백산맥 일대에서 고구려군과의 충돌이 종식되면서 옥천 지역은 신라와 백제가 국경을 접하며 대치하는 국면에 접어든다. 백제는 한강 유역 상실 이후에 신라와 공조하며 고구려와 대결하고 있었다.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553년의 百合 전투에서 고구려 군사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한 백제는 이듬해에 가야와 함께 신라와 대치하고 있었던 관산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한다. 그 배경으로는 백제와 신라의 관계 결렬, 신라의 한강 유역 확보에 대한 보복, 신라의 진성(금산 진산성) 공취와 백제의 대응 등이 거론되고 있다(전영우 2022). 백제는 관

산성 전투를 통해 이미 금강 상류, 남한강, 북한강으로 진출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우선 옥천 지역을 확보하여 추풍령로과 신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윤성호 2017: 125). 하지만, 554년에 발발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죽임을 당한 백제는 이후 대내외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관산성은 옥천의 삼양리토성, 서산성, 삼성산성의 조합(정재윤 2019; 차용걸·조순흠 2008), 또는 환산 보루와 삼성산성을 포함한 보루들의 총칭(김병남 2010)으로 이해하거나 삼성산성을 직접적으로 지명한 견해도 있다(문안식 2006; 윤성호 2017). 이처럼 관산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에는 관산성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서산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삼국시대에 운영된 성곽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서산성을 중심으로 삼양리토성과 삼거리토성 등이 군집을 이루는 체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성정용 2023: 21).

옥천 서북부지역에는 삼성산성을 비롯하여 다수의 성곽이 분포한다.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영 주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들 성곽 중에는 백제와 신라 유물이 공반되는 것도 다수 있어 양국이 각축전을 벌였던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관산성 전투를 전후하여 옥천 일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신라가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관방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들 성곽과 인접하여 금구리고분군이 분포한다. 이 고분군에서는 5세기 후반~6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각종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것은 신라가 5세기 후반에 옥천 일대에 진출하였다는 근거가 되며, 주변 성곽들의 조영 주체도 신라와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신라는 백제와 관산성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이후에는 옥천 일원을 지방체계에 편재하며 백제 멸망 시까지 안정적으로 관방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古尸山郡(옥천), 吉同郡(영동)이 신라의 군현으로 기재된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굴산성으로 비정되는 이성산성은 486년에 개축되었다. 이것은 금구리고분군의 조영 시기와 겹친다. 이를 근거로, 이성산성은 금구리고분군과 거의 동시기에 운영되었으며, 옥천에 진출한 신라 성곽들과 연계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성산성과 옥천 서북부 성곽군은 직선거리로 약 23km 떨어져 있으나,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수륙교통망을 통해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성산성은 5세기 후반 이래 소백산맥 이서에 진출한 신라의

주요 전진기지인 동시에, 최전선에 배치된 성곽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병참기지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신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비마립간 시기에 고구려군에 대한 반격을 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왕경으로 통하는 요충지에 산성을 축조하며 간선도로망을 개설하였다(서영일 1999a: 51~52). 신라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지배체계를 강화하였는데, 5세기 중반 이후 영남 일원의 관도(官道) 정비와 우역(郵驛)의 설치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구체적으로, 계림령로는 경주-영천-대구-선산-상주로 연결되며, 죽령로는 영천-안동-영주, 그리고 추풍령로는 선산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보은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이었다. 이밖에 상주의 함창에서 화령을 넘어 보은에 도달하는 교통로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산성은 추풍령-황간-청산-보은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망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성산성이 삼년산성과 함께 개축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거점산성으로서 당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보은, 옥천 일대는 삼년산성 개축 시 일선군 역부 3,000명을 징발한 사실을 근거로, 신라의 행정구역에 편재되지 못하고 새로운 영토개척지 또는 변경지역에 존재하는 군사지역으로 상정되고 있다(서영일 1999b: 82). 하지만, 옥천 지역은 관산성 전투 이후 신라의 군제(郡制)에 편재되었고, 5세기 이후 城의 편재와 지방관의 파견이 일반화되면서 변방의 군사(郡司)조직이 지방통치 조직화되는 경향을 볼 때(이부호 1999; 주보돈 1997), 삼년산성과 이성산성은 교통의 결절지에서 인적·물적 수취를 담당하고 이것을 접경지역에 공급하였던 지방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이성산성은 신라가 5세기 중반 이후에 고구려군과의 격전을 벌이며 한강 일대에 진출하기 이전까지 소백산맥 이서에서 신라 영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한성 함락 이후에는 웅진, 사비로 천도한 백제와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옥천 지역의 성곽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병참기지로서의 기능도 지니고 있었다고 본다. 6세기 중반에 신라군이 백제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승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성산성에서 수륙교통망을 이용한 군수품의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이성산성은 군사기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산성들로 연계된 신라의 지방지배체계에 편재되어 군사적·행정적·경제적 거점산성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고고학적 배경

굴산성 개축은 삼년산성과 함께 한국고대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굴산성은 현재 옥천 이성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 성곽은 당초 1971년 조사에서 산계리토성으로 명명되었고, 이 과정에서 굴산성으로 비정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이후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2014년에 이성산성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지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 실시된 긴급발굴조사에서는 5세기대에 축성된 충북지역 유일의 신라 토성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2020년 ~2021년의 학술발굴조사에서는 5세기 후반~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목곽고와 집수시설, 원형수혈군이 발견되면서 이성산성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발굴조사 성과를 정리해 보고, 이를 기초로 논의되고 있는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진행된 학술지표조사는 '산계리토성'에 대한 조사였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15). 이 성곽은 1971년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고(정영호 1972), 이후 몇 차례의 간략한 지표조사가 있었지만, 성곽의 규모와 축조 방식,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초 보고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14년에 본격적으로 학술지표조사가 재개되면서 토성의 연혁에 대한 문헌조사와 고고학적 현황조사가 상세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성 내부에서 수습한 6세기 말~7세기대의 유물들을 근거로 토성이 신라가 설치한 굴현의 치소성, 즉 굴산성일 가능성은 제기되었다. 또한 산계리토성은 조선시대의 각종 지지에 의거 이성산성으로 명명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산계리토성으로 명명된 성곽은 신라가 486년에 개축한 굴산성이고, 이는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이성산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당시 조사기관은 『대동지지』에서는 이성산성과 근접한 저점산성이 굴산성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5년에는 성곽 정비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성벽 조사 결과, 이성산성은 최초 토성으로 축조되었으며, 최소 두 차례에 걸쳐 내외벽에 석축을 쌓아 성벽을 개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심토루 내부에서 출토된 토기편과 개축 과정에서 폐기된 수혈유구 내부에서 수습한 단각



[그림 2] 옥천 이성산성 유구배치도(①), 집수시설과 출토유물(②), 목곽고와 출토유물(③), 원형수혈과 출토유물(④)

고배편, 인화문 토기 등을 통해 5세기~7세기대에 초축과 개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근거로, 이성산성은 신라가 5세기 후반에 개축한 굴산성일 가능성이 보다 분명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된 2차 발굴조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23). 당해 조사에서는 목곽고 1기와 집수시설, 건물지, 원형수혈 58기 등이 확인되었다. 목곽고 내부에서는 6세기 초로 편년되는 고배, 기대, 호 등 각종 신라 토기가 출토되었다. 원형수혈에서도 단각고배와 완, 호 등이 출토되어 6세기 중반 이후부터 7세기에 걸쳐 운영되었던 시설로 판명되었다.

이처럼 고고학적 상대편년에 의해 이성산성의 조영시기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절대연대측정 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보다 분명해졌다. 목곽고 2번 부재를 대상으로 위글매치한 결과, 연률은 CE 470~570년으로 확인되어 목곽고가 5세기 말~6세기 말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총 12점의 목탄과 목재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성산성 내 인간활동은 540 ± 70 AD(1σ SD)에 이루어졌으며,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기원후 550년 전후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절대연대측정 결과에 의하면, 이성산성은 470년 무렵부터 7세기경까지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삼년산성의 초축이 470년이고, 삼년산성과 굴산성이 486년에 개축되었

다고 전한다. 이를 종합하면, 굴산성으로 비정되는 이성산성은 삼년산성과 동시기에 축조·운영된 성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신라토기의 중심연대는 6세기 전반~7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며, 축성기법도 5세기 말경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대연대와 역연대, 고고학적 상대편년에 의거 이성산성은 굴산성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상의 학술지표조사와 발굴조사 성과에 의거, 이성산성은 시기적으로 5세기 후반에 토성으로 축조되었고 이후 개축 과정을 거쳐 7세기대까지 신라에 의해 조영되었던 성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곽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술지표조사에서 입지적 여건을 근거로 굴현의 치소성일 가능성성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학술적 검토 과정에서 이성산성이 주변 일대를 관리하는 중심지였음이 재차 강조되었다(최관호 2022). 한편 성 내부에서 발견된 대규모 원형수혈군과 목곽고는 이성산성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추론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원형수혈은 단면 플라스크형의 저장시설이며, 이를 통해 이성산성이 백제와 접경을 이루는 최전선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군수병참기지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최관호 2022). 그리고 목곽고는 원형수혈군과 함께 물류기지 또는 당시의 수취체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백종오 2022).

요약하면, 이성산성은 신라의 간선도로망을 따라 축조된 거점산성으로, 소백산맥 이서에서 신라의 영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금강 상류지역에서 백제와 대치하고 있었던 최전방을 지원하는 병참기지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5세기 중반 이후에 이루어진 신라의 대외 확장과정에서 변방 지역의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행정거점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고 본다. 이성산성은 굴현의 치소로서 행정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 역할과 경제체제의 운영이라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삼국항쟁기에 변방지역에서 행정적·군사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축성되었던 산성들의 성격과 부합된다. 이들 산성은 배후에 평야를 두고, 사방이 조망되어 방어와 역습에 유리한 지역,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이 발달한 곳에서 군사기지 또는 행정지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서영일 1999b: 45).

Ⅲ. GIS를 이용한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 재구성

앞서 이성산성의 입지와 성격에 대해 언급한 기존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성 일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주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중심지, 즉 행정치소로서 기능하기에 적절하였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15: 88~89; 최관호 2022: 14). 둘째, 신라의 대외진출이 이루어졌던 간선도로상에 위치하여 변방의 지방조직과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고(서영일 1999b: 70~72), 셋째, 금강 상류의 천연을 따라 발달한 수륙교통망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운송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최관호 2022: 14). 넷째, 소백산맥 이서지역에서 군사 전진기지 또는 최전선을 지원하는 배후 병참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최관호 2022; 홍보식 2022; 백종오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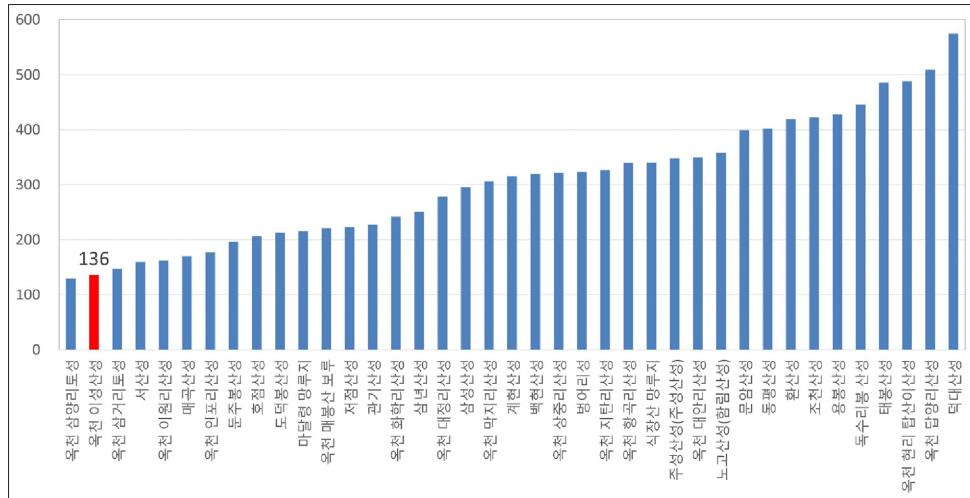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성산성의 지리적 특성과 공간적 맥락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GIS을 이용한 다중스케일 접근을 시도하고, 공간분석을 통해 이성산성이 지닌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행정 치소로서의 이성산성

신라는 5세기 이후 주요 교통로상에 축성 사업을 전개하며 고구려의 공세에 대비하고 지방통치제도를 확립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평지성보다는 군사적 목적을 강조한 산성 축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은 당시 추풍령로를 연계하였던 상주 지역의 성곽이 상대비고 200m 내외의 낮은 구릉성 산지나 말단의 봉우리에 축조되는 경우가 많았다(백영종 2008: 153)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옥천·보은 지역에는 통일신라시대까지 포함하여 40여 개소의 신라 성곽이 분포한다.¹⁾ 이 성곽들의 해발고도를 살펴보면(그림 3), 이성산성은 중심부 기준으로 해발 136m에 위치하는데, 전체 성곽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고도로 옥천 삼양리토성, 삼거리토성과 같이 낮은 산지성 구릉에 축조되어 있다. 한편 이성산성의 기복량을 분석해 보면 43.7m에 해당한다(그림 4). 사실상 산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지점에 축성되어 있다. 삼년산성의 기복량이 약 100m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성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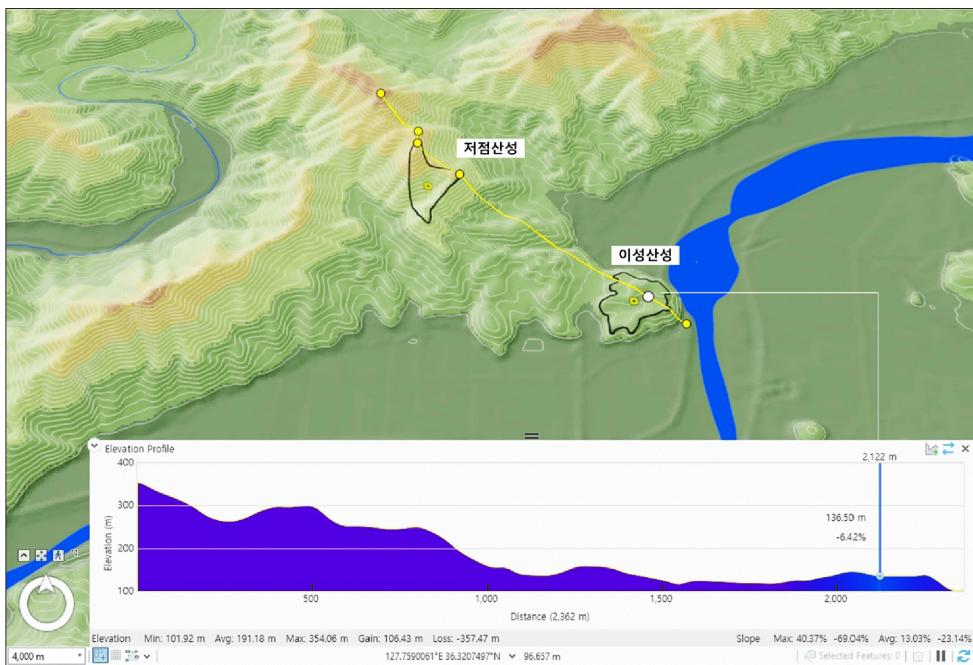
1) 문화재청 문화재 GIS인트라넷시스템의 문화유적분포지도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지표·발굴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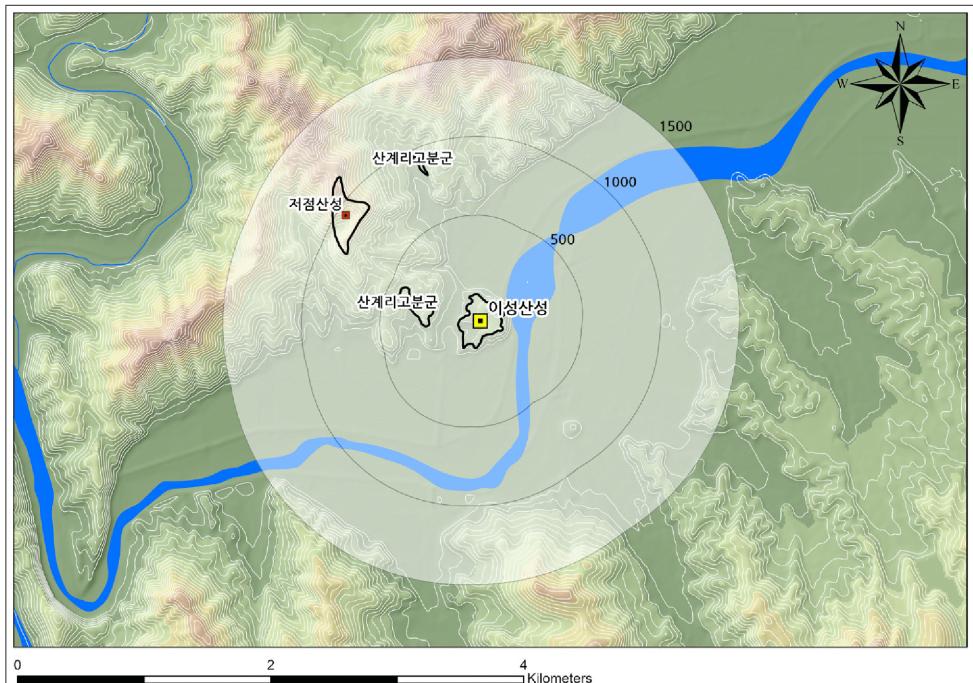
[그림 3] 옥천·보은 지역 신라 성곽의 해발고도

성의 지형입지적 조건은 군사적·행정적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신라 성곽의 특성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성산성의 경우는 높은 지점에 위치한 산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근접한 저점산성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삼년산성 주변에는 동시기에 운영되었던 성곽이 없는 반면, 이성산성은 직선거리 1km 이내에 상대비고 약 200m의 저점산성이 위치해 있다(그림 5). 이 산성은 『대동지지』에서 굴산성으로 비정하고 있고, 이성산성과 동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성곽의 규모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 저점산성은 이성산성의 지형적 취약점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축성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보적 관계는 신라 왕경의 치소성인 월성과 배후에 조영된 남산토성, 명활산성 등의 배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성산성의 또 다른 입지 특성은 저평한 구릉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지의 산성에 비해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주변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사시에는 저점산성에서 농성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군사적 목적의 치소로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형입지적 이점을 이용하여 지방통치세력은 이 일대를 장기간 점유하며 지역민과 경제적 기반을 통제하는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이는 이성산성 주변의 고분군의 존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성산성에서 약 1km 이



[그림 4] 옥천 이성산성의 3D지형 모델링과 기복량



[그림 5] 옥천 이성산성과 저점산성, 산계리고분군 위치도

내에는 산계리고분군 2개소가 분포한다. 이 유적은 5세기~7세기로 편년되며, 이 일대에서는 유일한 신라고분군에 해당한다. 고분군 출토유물을 볼 때, 인접한 산성의 운영 시기에 일치한다는 점에서 괴장자는 이성산성과 저점산성을 운영하였던 지배층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산성과 고분군의 밀접 경향은 이 일대가 당시 정치·군사적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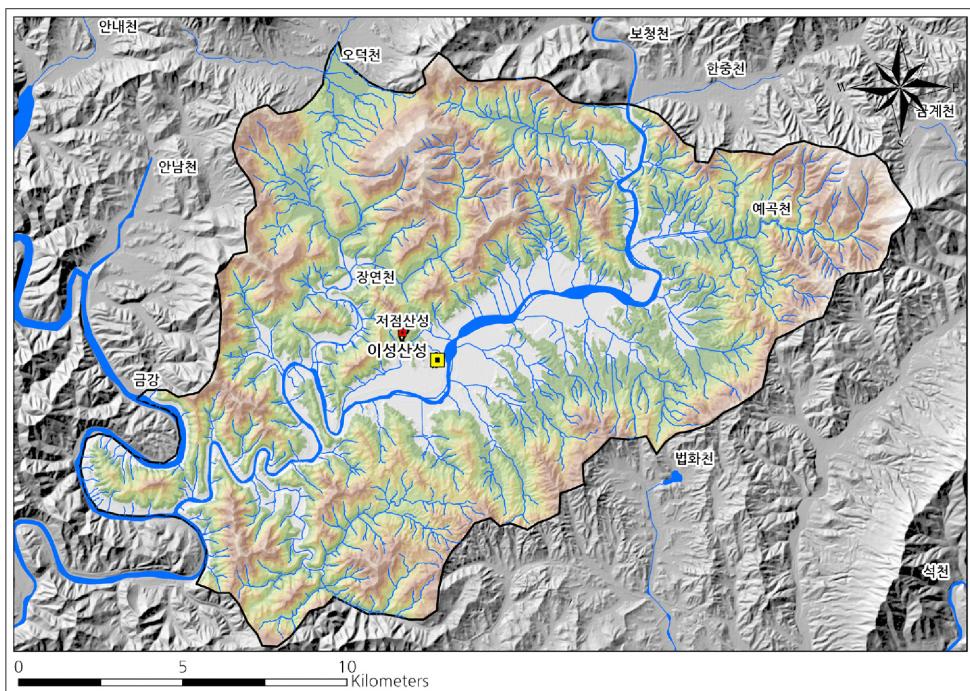
행정 치소로서 이성산성이 통제하였던 지역의 범위는 현재 청성면과 창산면 일원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은 행정적으로 삼국시대에는 군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청산현으로 편제되어 있었다(그림 6). 조선시대 청산현의 범위는 지방군현지도와 대동여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의 청성면, 창산면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한다. 조선시대 군현은 당시 지방호족과의 관계, 군사적 목적, 호구와 토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최봉수 1993: 12). 이와 더불어, 산천 지세나 역사적 전통과 같은 보다 합리적 기준도 중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려와 조선의 청산현은 삼국시대의 군현을 그대로 계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조선 후기 고지도에 표현된 청산현의 경계는 신라가 이성산성을 거점으로 통제하였던 지역적 범위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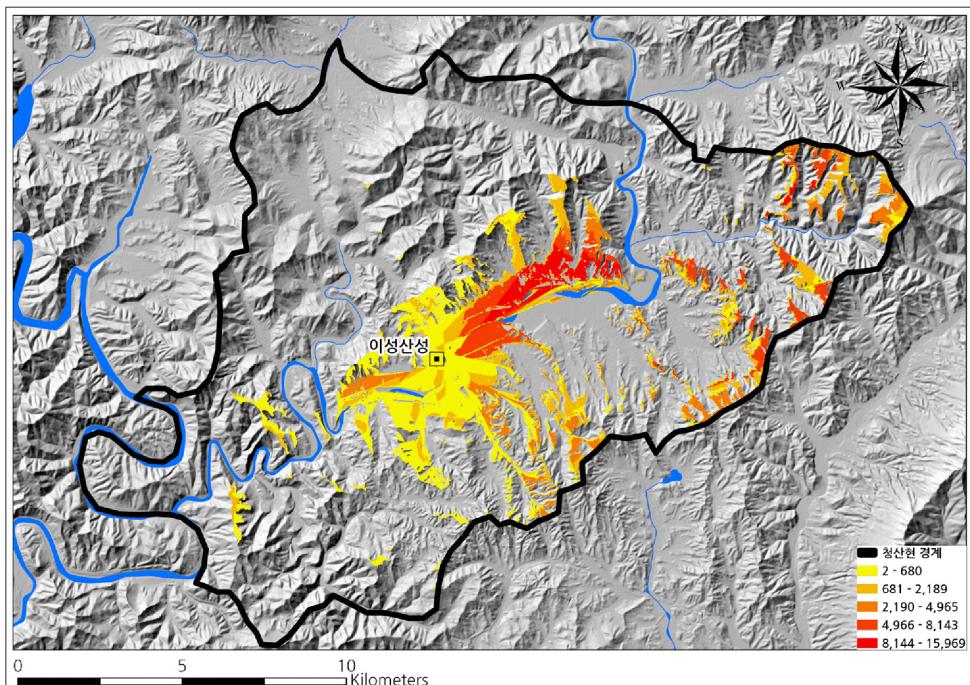
[그림 6] 광여도(좌)와 대동여지도(우)의 청산현

좀더 구체적인 경계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조선시대 치소와 영역, 수륙교통로를 복원한 연구 결과²⁾를 참조하여 가시화해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청산현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이성산성 남쪽으로는 보청천이 흘러가는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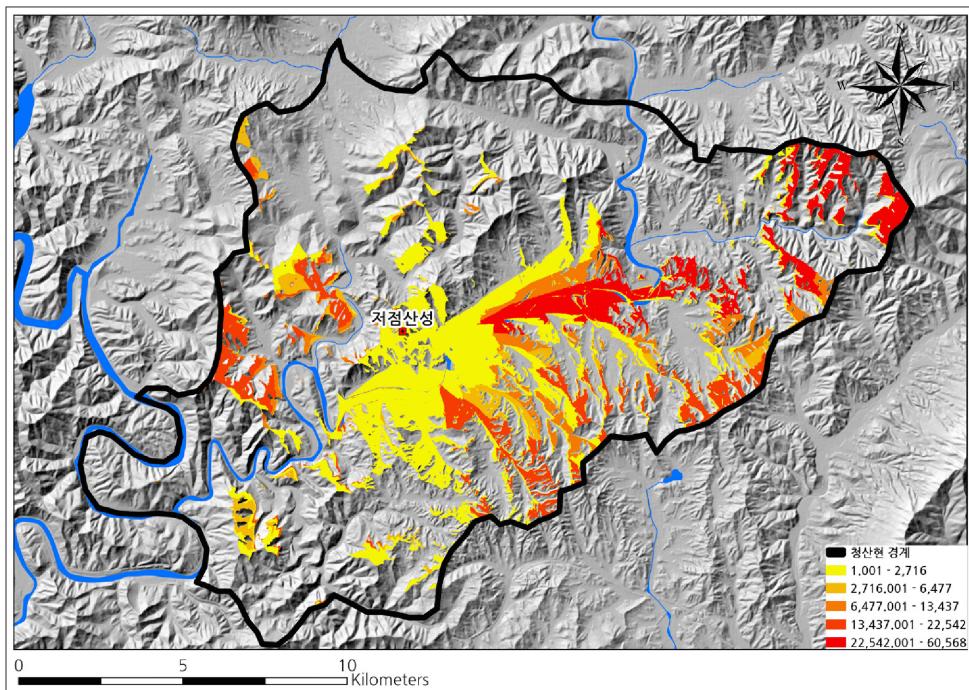
2)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4-KFR-123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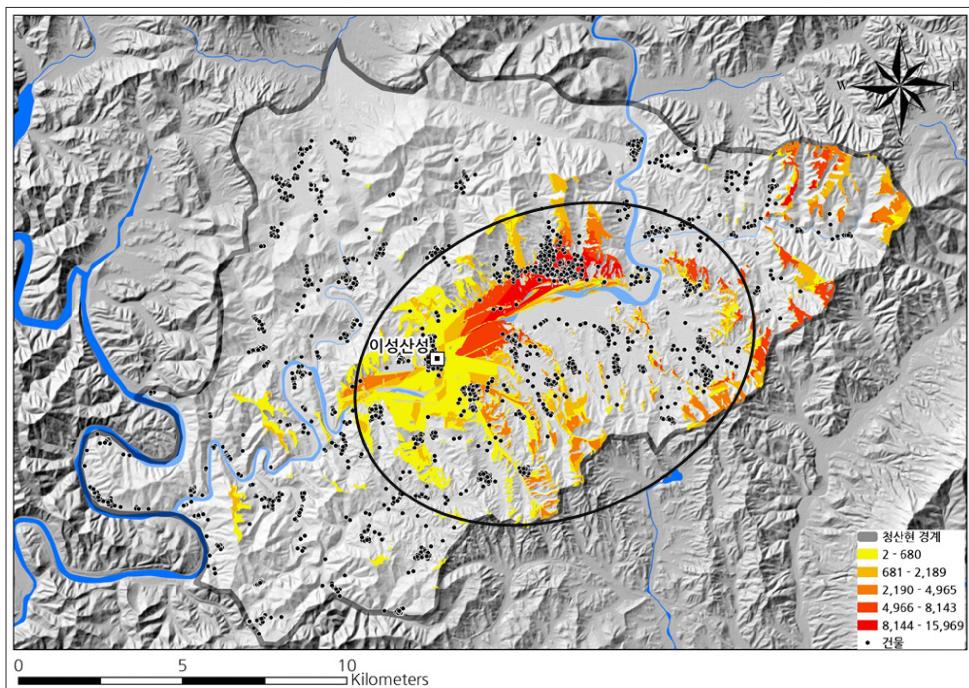
[그림 7] 삼국시대 굴현의 추정 범위



[그림 8] 옥천 이성산성의 가시권



[그림 9] 옥천 저점산성의 가시권



[그림 10] 이성산성의 가시권과 일제강점기 건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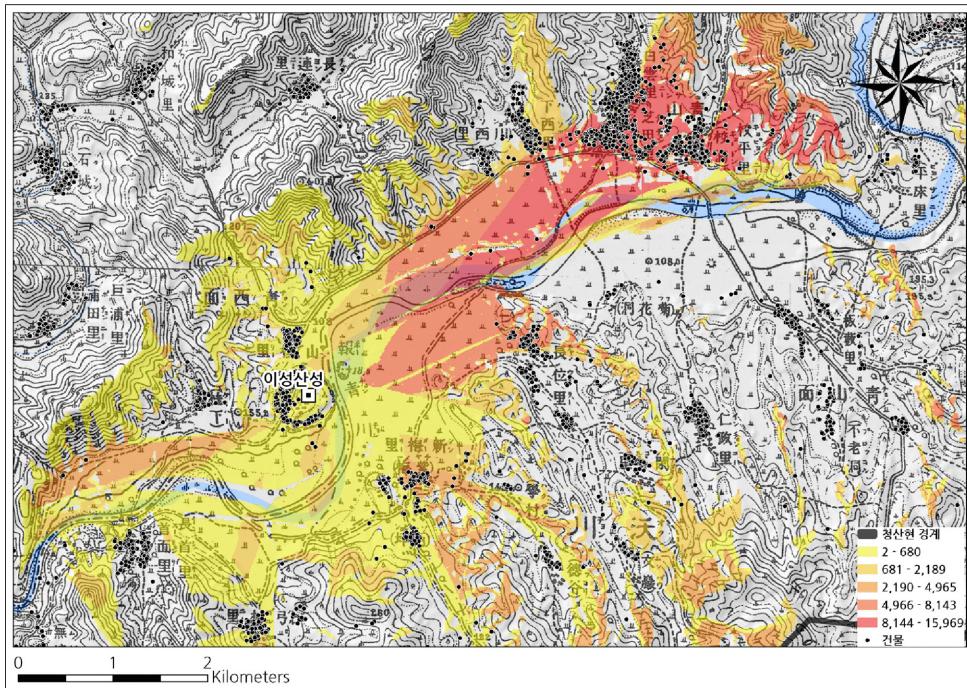
체적으로 이 하천의 분수령과 청산현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쪽은 금강과 보청천, 동쪽은 보청천과 한중천의 합수 지점을 경계로 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보청천 양안으로 너른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높은 산악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실제 지역민이 거주하는 ‘촌(村)’은 보청천을 따라 형성된 충적지나 산기슭에 입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성산성은 이 ‘촌’을 통제하는 정치 공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곽과 촌 사이의 상호 시인관계를 고려하여 성곽의 입지를 선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8·9]와 같이 이성산성과 저점산성의 가시권을 분석해 보았다.³⁾

가시권 분석은 두 성곽의 성벽을 따라 임의로 30여 개의 조망지점을 설정하고, 각 지점에서 조망되는 권역을 중첩하는 누적가시권분석법을 이용하였다. 그림에서 적색에서 가까울수록 조망권이 중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성산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지점에 위치하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북쪽 산지를 조망할 수 없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이 조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저점산성의 경우는 산정부를 따라 축성되었기 때문에 굴산현의 영역으로 비정되는 지역의 전역을 조망권에 두고 있다.

이처럼 이성산성과 저점산성은 당시 굴산현의 거의 대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촌’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지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성(城)-촌(村) 간의 관계는 일제강점기 지형도에 수록된 전통마을의 분포와 이성산성의 조망권 중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제 삼국시대 주거지의 배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 당시도 농경을 기반으로 생업경제를 영위하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성산성 조영 시기 ‘촌’의 분포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전제로 보면(그림 10), 이성산성에서 집중적으로 조망되는 권역 내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성산성의 ‘촌’에 대한 가시권은 실제 정치·행정적 영향력으로 작용하여 지역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성산성은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는 보청천 양안을 조망권으로 두고 있다. 이 조망권역과 일제강점기 지형도를 중첩해 보면(그림 11), 현 창산면 소재지 남쪽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강안 충적대지상의 농경지 대부

3) 분석에 사용한 지표면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픽셀 10×10m 크기의 수치표고모델(DEM)이며, ArcGIS Pro의 Visibility Analysis를 이용하여 가시권을 분석하였다.



[그림 11] 이성산성의 가시권과 일제강점기 지형 중첩도

분이 조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성산성이 행정 치소로서 지역민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력의 기반이 되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도 가능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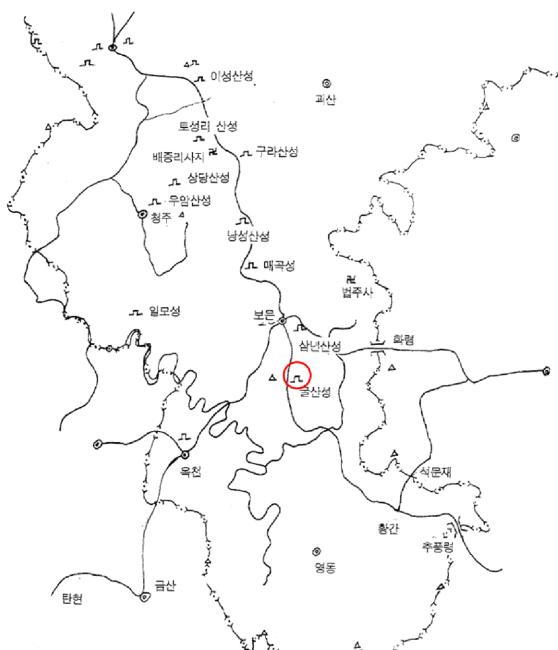
이상의 가시권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성산성은 주변의 생활공간과 생산공간 모두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성산성은 ‘촌’과 지역민, 농경지 간의 시인관계 형성을 통해 정치경제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 경관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신라가 군현의 치소로서 이성산성의 입지를 정하였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2. 수륙교통망과 이성산성

이성산성의 축성 배경과 관련한 또 다른 논의는 신라가 간선도로망을 이용하여 대외 진출을 시도하고 지방지배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성곽의 축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수륙교통망을 통한 군사적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백제와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의 성곽들을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배후 병참기지의 기능 수

행을 위해 축성하였다고 보고 있다.

신라는 5세기 이후부터 활발한 축성 사업을 전개하며 왕경 외곽의 지방통치체제를 확립해 나갔는데, 이는 소지마립 간기의 관도 정비와 같이 왕경에서 지방의 주요 거점과 변방을 연계하는 교통로 확보와 관련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개설된 간선도로는 『삼국사기』 권 37에 등장하는 5통(五通)과 관련이 있으며, 신라 하대까지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영일(1999a · 1999b)은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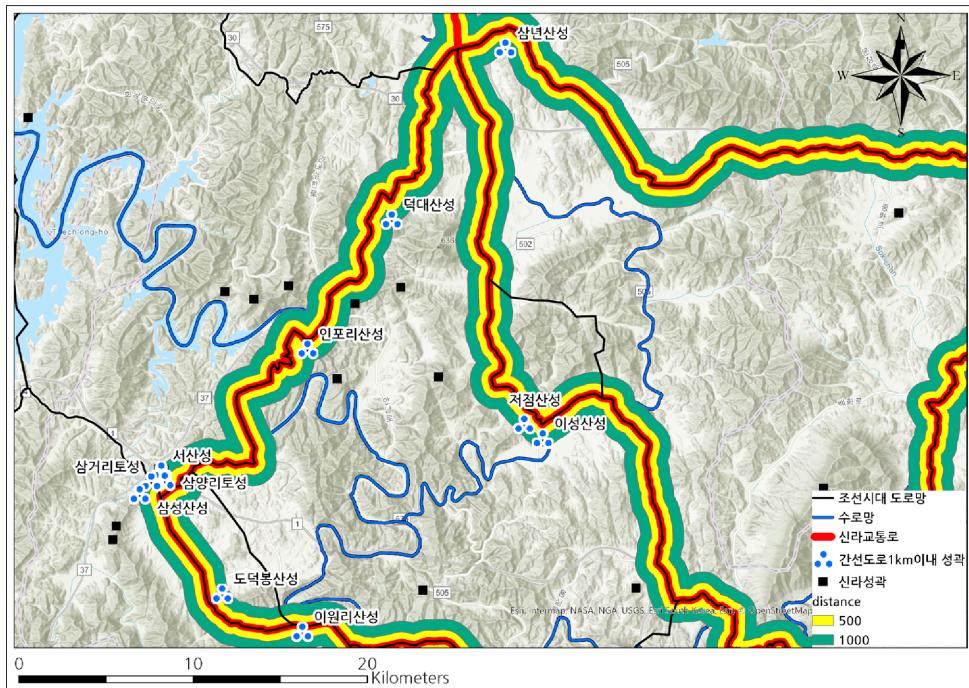


[그림 12] 삼국시대 추풍령로와 굴산성(서영일 1999b)

12]와 같이, 신라 왕경을 출발하여 영천-대구-선산을 지나 황간-보은-청주-진천으로 연계되는 추풍령로를 5통 가운데 ‘염지통(鹽池通)’으로 상정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의 공세를 막고 대외 확장을 시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군사작전로였으며, 대중국교통로였다. 이성산성은 이처럼 군사·정치·경제적으로 신라의 중요한 간선 도로였던 추풍령로 상에 위치해 있다. 이 도로는 굴산성과 삼년산성의 개축 기사를 통해 볼 때, 이미 5세기 중반에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성산성은 이를 기반으로 지방통치체제를 확립하는 행정의 거점, 그리고 군사적 배후기지로서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하는 결절지로서 기능하였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도로망은 간선도로와 지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옥천·보은 일원의 관방체계를 이루는 성곽들의 분포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망의 구체적인 실체는 조선시대 도로체계를 근거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조선시대 10대 본선과 지선, 1910년대 지형도에 표현된 1·2등 도로와 달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⁴⁾ 이를 참고하여 도로망을

4) 주 2)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그림 13] 6세기 중엽 신라 간선도로망과 성곽 분포(서영일 1999b의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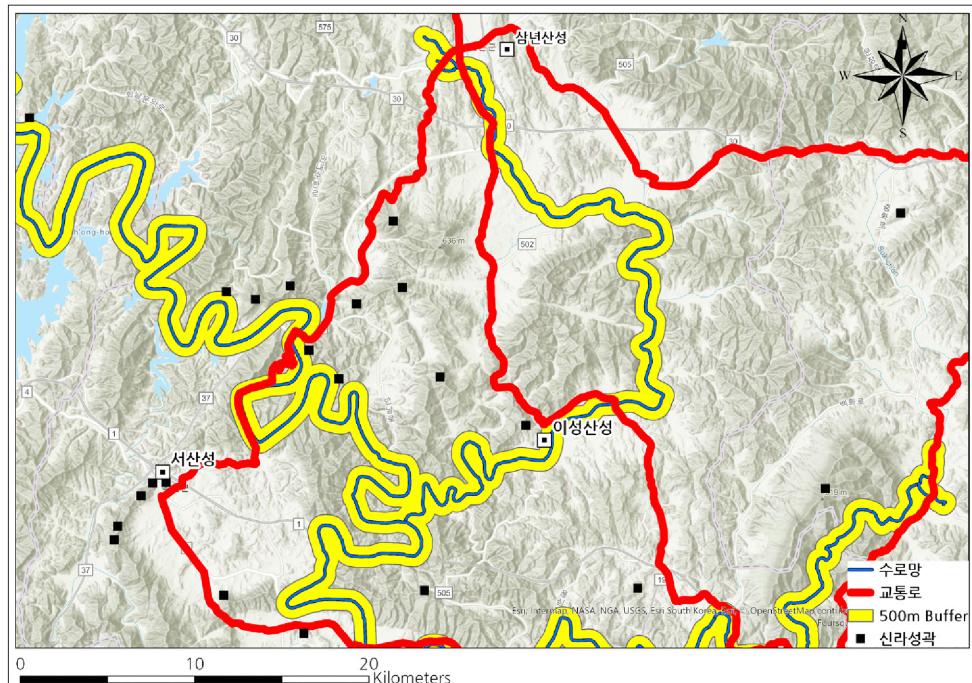
재구성해 보면 [그림 13]과 같다. 옥천과 보은, 영동 지역은 소백산맥에 접하고 있어 도로망 신설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고려시대 이전에 처음 개설된 교통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신라 교통로와 조선시대 도로망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보은까지 연결된 추풍령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선은 김천을 경유하여 신라가 백제 정벌시 활용하였다고 전하는 금돌성(백화산성) 남쪽 편의 황간을 거쳐 이성산성, 보은에 도달한다. 보은의 삼년산성에 이르는 또 다른 교통로는 상주에서 화령을 넘는 경로이다. 이 두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주변 성곽들과의 근접 관계를 버퍼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도로선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분포하는 성곽은 영동 황간읍성과 옥천 이성산성, 삼년산성이 해당한다.

황간은 신라가 소백산맥 이서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자비마립간 17년(474)에 쌓았던 6개의 성 가운데 좌라성(坐羅城)이 위치한 곳으로 추정되며(장창은 2016: 99~100),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신라 소라현(召羅縣)의 치소가 있었던 지역이다. 황간읍성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처음 등장하지만, 고려시대에 황간현에 읍성

을 축조한 사실이 남아 있고,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토축 성벽이 발견되었기 때문에(중원문화재연구원 2019) 이성산성, 삼년산성과 같은 시기에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황간읍성은 신라가 추풍령로를 따라 소백산맥 너머 처음으로 경유하는 지방현의 치소가 될 것이다. 이를 따라 북상하면서 이성산성에 도달하게 되고 이는 보은의 삼년산성으로 연계된다. 이성산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황간읍성과 마찬가지로 굽산현의 치소로 상정되고 있으며, 간선도로망과 가장 근접한 성곽 중에 하나이다. 이렇듯 신라의 교통로 상에 치소성으로 추정되는 성곽이 배치되어 있는 현상은 신라가 간선도로망을 개척하면서 거점산성을 중심으로 지방조직체계를 완성시켰다는 것과 부합한다.

다음으로, 이성산성과 수로망과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자. 조선 후기 금강 수운의 상황을 보면(고동환 2006), 금강 최상류에서 하구까지 연결된 하천망을 따라 연안에 포구와 나루가 발달하였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10년대 자료를 기준으로, 옥천과 영동의 금강 본류역에는 적등진, 심천진, 고창포가 있었고, 이와 접한 지류로서 초강, 영동천, 보청천 등이 수로망을 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보청천은 이성산성과 접하고 있어 금강 본류역으로



[그림 14] 옥천 일원 조선시대 수로망과 신라 성곽의 분포

진출하는 교통로로서 이용가능하였다. 이러한 수로망을 재구성해 보면, [그림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보청천 수로는 보은 삼년산성과 인접한 지점에서 이성산성을 경유하여 금강 본류와 합류하는 하천으로, 갈수기를 제외한 시기에 작은 선박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었다.

이 수로망은 삼국시대에도 수상교통로 또는 물류망으로 활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를 전제로, 보은, 옥천 일대의 수로망과 신라 성곽들 간의 근접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500m 벼퍼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일하게 이성산성이 수로망과 최근접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이성산성이 수로망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지 선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보은 또는 청산에서 확보한 물적 자원을 금강 수로를 통해 공급·유통할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이성산성은 주요 수륙교통로와 근접하여 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신라가 거점산성을 중심으로 지방통치권력을 확대하고 군사적 기반을 확보하였던 전략이 반영된 결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이성산성은 옥천과 보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간선도로망과 수로망이 교차하는 수륙교통망의 결절지에 위치한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이성산성이 사회관계망의 확대와 정치권력의 행사, 경제기반의 확보에 유리한 공간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군사 자원의 이동과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최적의 중심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성산성은 이러한 물리적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중개자로서 기능하며 소백산맥 이서 지역의 정치군사조직 체계를 구성하는 거점성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3. 군사기지로서의 이성산성

이성산성의 군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소백산맥 이서지역의 전진기지 또는 최전선을 지원하는 후방의 병참기지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신라가 변방의 성곽을 행정 치소와 군사 기지로 병행 운용하였다는 점에서 이성산성은 기본적으로 전진기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기반의 확보가 최우선이었을 것이다. 이는 지방민에 대한 인적 수취와 물적 자원에 대한 공납을 통해 가능하였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산성에서 확인된 목곽고와 원형수혈군이 주목된다. 목곽고는 정교하게 짜여진 $4.4m \times 4.3m \times 3.0m$ 정도 크기였는데, 내부에서 각종 신라토기편과 목기류, 다량의 동물유체와 식물유체 등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목곽고가 식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저장 시설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물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목곽고와 인접하여 원형수혈군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물류망을 이용한 이성 산성의 물자 통제와 공급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혈군에는 모두 59기의 원형수혈이 발견되었으며, 단면 플라스크형의 저장시설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대규모 수혈군은 세종시 일원의 금강 연안에서도 다수 확인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284기의 수혈로 구성된 군집이 발견되었는데, 5세기대에 백제의 지방 세력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혈군은 인근에서 수취한 농산품과 수공품을 저장하는 시설로, 금강 수로를 이용하여 공납품을 수취하고, 수로망을 따라 수요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물류기지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강동석 2023: 71).

이성산성에서 확인된 원형수혈군도 세종시 일원의 금강변에서 확인된 시설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영 시기가 6세기 전반~7세기 전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이성산성 조영 세력은 육상과 수상교통로가 결절을 이루고 있는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지역민으로부터 공납품을 수취하고, 이를 행정력과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수취품들은 군수물자로 전환되어 백제와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옥천 서부의 최전방에 공급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성산성과 접하여 금강 수로로 연계되는 보청천은 군수품의 주요 공급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본다.

옥천·대전 일원에서 고대 성곽에 대한 광역지표조사를 통해 성벽 축조 방식과 유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3). 이를 근거로, 조순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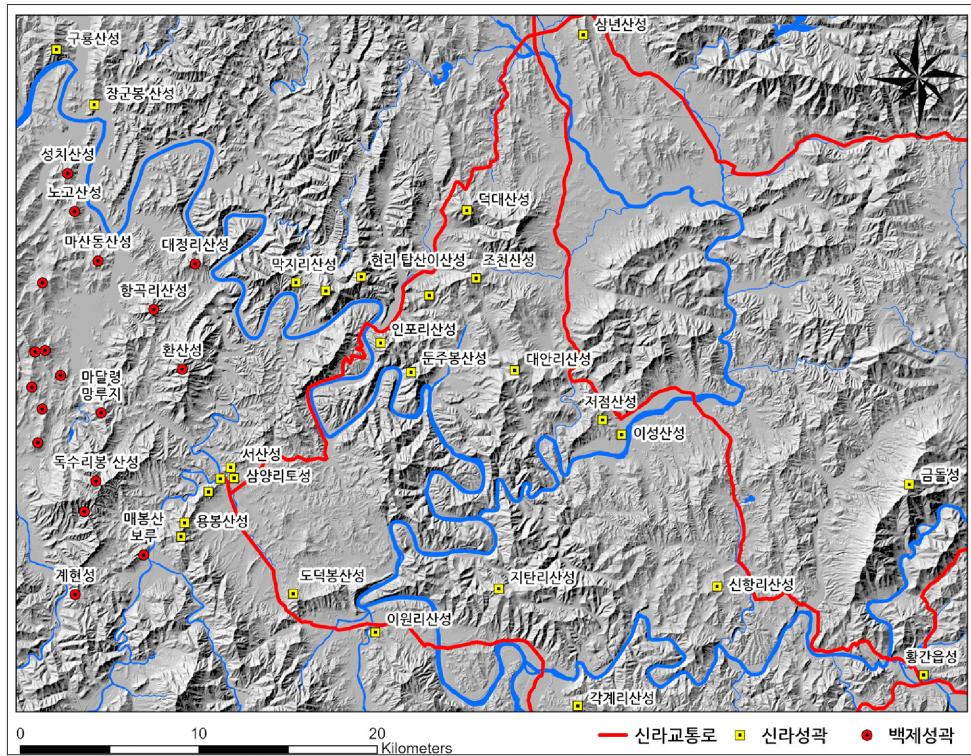
[그림 15] 이성산성과 보청천(중원문화재연구원 2015)

(2021)은 554년 관산성 전투 이전에 신라와 백제는 서화천을 경계로 성보를 구축하고 대치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대전 계족산 이서지역과 금산 이북에서 접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장창은(2017)도 나·제동맹기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 변천을 고찰하면서 6세기 중반의 국경선이 청원-옥천-금산을 경계로 형성되었다고 하여 조순흠과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관산성 전투 무렵의 신라와 백제 성곽 배치를 재구성해 보면, [그림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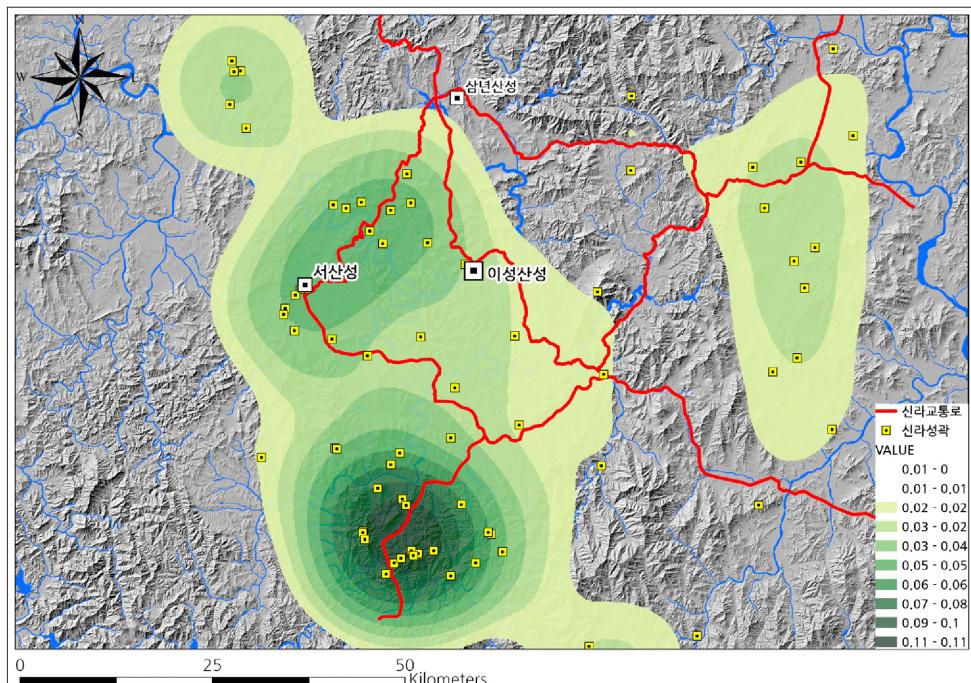
관산성 전투 이전에는 옥천 서쪽편의 마성산 능선을 따라 서산성, 삼성산성, 용봉산성, 동평산성 등이 집중 배치된 지역과 금강 이동지역이 신라의 최전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관산성 패전 이후에 군사적으로 크게 위축한 백제는 계족산 이서로 후퇴하였고, 신라는 백제가 점유하고 있었던 식장산, 백골산, 환산, 계족산을 차지하며 국경선을 이동 배치하게 된다. 이처럼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승전하고 군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군사적으로 배후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성산성의 지원이 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신라 성곽에 대한 밀도 분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7).⁵⁾ 분석 결과를 보면, 고밀도 분포권의 성곽은 크게 상주-함창 일원, 옥천 그리고 영동 지역 등 세 개의 단위 성곽군을 구성하고 있다. 이성산성은 옥천 일원의 성곽군에 포함되어 있다. 간선도로망에 의해 백제와 국경을 이루고 있었던 최전선의 성곽들과 이성산성이 직접 연계되지 않지만, 여러 갈래의 달로(達路)가 발달해 있었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육로를 통해 관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이성산성은 보청천을 이용하여 금강 본류를 경유하여 옥천 중심지로 접근할 수 있는 수로망이 발달해 있어 단위 관방체계를 구성하는 성곽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이성산성의 지리적 이점을 감안하면, 이성산성은 옥천 지역 성곽들이 구성하고 있는 관방체계 내에서 수륙교통망을 이용하여 인적·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정보 등을 통제하거나 중개하는 군사기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옥천 지역의 단위 관방 네트워크 내에서 이성산성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에 대해서는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분석법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노드와 엣지들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추론하여 구조와 연결망, 관계성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성곽은 노드가 되고, 성곽들의 연계망은 엣지로 표현

5) 검색 반경(radius)은 실버먼(Silverman 1986)이 제시한 가우시안 커널함수에 의해 자동 계산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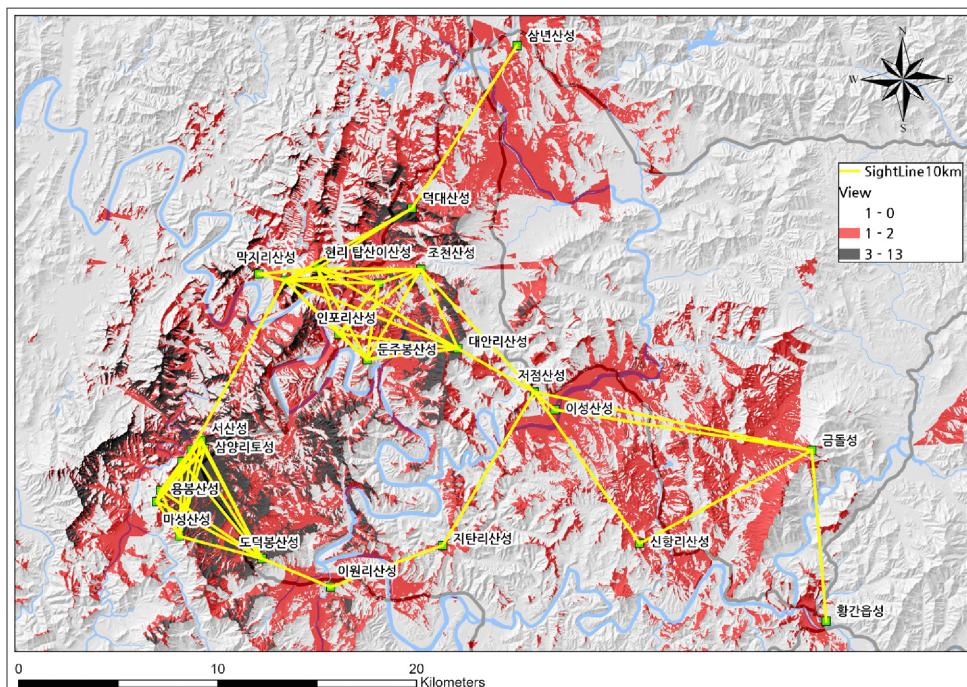
[그림 16] 옥천 일원 6세기 중엽 신라와 백제 성곽 분포



[그림 17] 옥천 일원 6세기 중엽 신라 성곽 분포와 밀도

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성은 중심성으로 평가되며,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에 의해 계량적으로 측정된다(강동석 2019). 연결중심성은 노드 간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근거로 국지적 중심성을 평가한다. 근접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 가장 중심을 의미하는데, 이 중심성이 높을수록 정보, 권력, 영향력, 사회적 지위의 확보가 유리하다. 매개중심성은 중개자 역할의 정도를 나타낸다. 위세중심성은 영향력이 높은 노드와의 연결정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높은 노드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면 그 파급 효과가 크다.

옥천 지역의 성곽 연계망은 김천과 상주에서 보은으로 연결되는 추풍령로, 금강수로로 이어지는 하천망, 그리고 성곽 간의 시인관계를 참고하여 재구성해 볼 수 있다. 먼저 성곽들의 시인관계는 가시권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관석(2015)은 문헌기록과 관방시설을 검토하면서 산성이나 봉수와 같은 대상물의 근거리 피아식별 거리는 3.5~4.7km, 원거리 식별거리는 10~13km, 시계가 양호한 경우는 20km 정도에 이르기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옥천, 보은 소재 신라 성곽 간의 거리가 최대 10km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360° 가시권과 가시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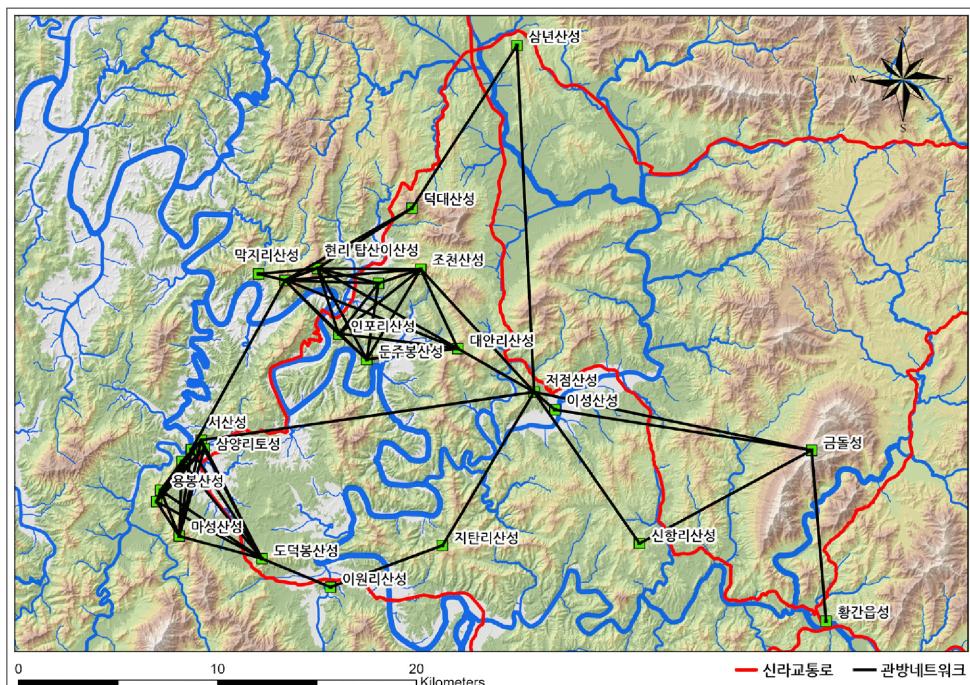


[그림 18] 옥천 일대 6세기 중엽 신라 성곽의 10km 가시권과 가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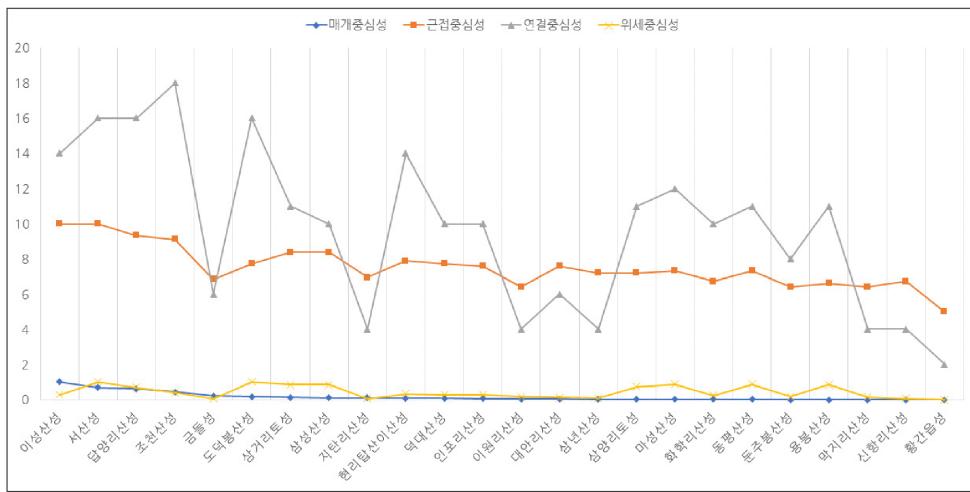
분석 결과(그림 18), 이성(저점)산성은 인접한 조천산성, 대안리산성, 지탄리산성, 신향리산성, 금돌성과 10km 이내 권역에서 시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옥천·보은 지역의 관방시설들과 연계망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 이성산성은 군사적 요충지였던 삼년산성과 육상로를 통해 연계되고, 관산성으로 추정되는 서산성과는 수륙로망으로 통하는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성곽 간 시인관계와 수륙교통망을 참고하여 옥천 지역에서 신라에 의해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곽들의 연계망은 [그림 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영동의 성곽은 추풍령로를 통해 이성산성과 연결되고, 금돌성도 이성산성과의 시인 관계에 의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추풍령을 넘어 연계된 성곽들은 이성산성을 기점으로 보은의 삼년산성, 금강 북부 성곽군, 금강 남부의 성곽군과 연결 망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옥천 지역의 신라 관방체계는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김천, 상주, 보은, 옥천 서부, 금강 수로망이 방사성으로 연계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곽 연계망을 기준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0]과 같다. 이성산성은 옥천 일원 성곽들 가운데 비교적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것을 볼



[그림 19] 옥천 일원 6세기 중엽 신라 성곽과 관방네트워크



[그림 20] 옥천 일원 6세기 중엽 신라 성곽의 네트워크 중심성

수 있다. 주변 성곽과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보여 주는 연결중심성은 다른 성곽들에 비해 압도적이지 않지만, 전체의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국지적 차원에서 관방시설을 운영하기 적합한 성곽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의 권력, 영향력,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근접중심성은 서산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옥천 일원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두 성곽의 위상을 보여준다. 서산성은 관산성으로 비정되기도 하는데, 마성산 정상부를 따라 축조된 성곽들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어 그 영향력도 컸을 것이다. 한편 이성산성은 방사성으로 뻗어 있는 성곽연결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성곽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 있었다. 이것은 근접중심성이 높게 측정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이처럼 근접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이성산성이 전체 관방체계 내에서 인적·물적 자원이나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방네트워크 조직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성산성은 백제와 대치하고 있었던 최전방 성곽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군사력을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성산성은 매개중심성이 높아 수륙교통망을 기반으로 군사 물자와 정보를 중개하는 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본다. 반면 위세중심성은 성곽들의 밀집군과 다소 이격되어 있고 연결중심성이 높지 않은 관계로 타 성곽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IV. 맷음말

이성산성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학술적 논의 과정을 거쳐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굴산성으로 비정되고 있으며, 삼국 격전기에 소백산맥 이서에서 신라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굴산성의 개축 기사는 신라의 대외 진출 전략과 지방지배체계, 변방지역의 관방체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성산성은 신라의 정치·경제·군사 거점으로 행정 치소인 동시에 군사 기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였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GIS의 공간분석법을 이용하여 실제 이성산성이 신라의 거점산성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행정 치소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성산성은 지형·지리적으로 접근성과 통제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성산성은 저평한 구릉상에 위치해 있어 고지의 산성에 비해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하였는데, 이는 주변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과 촌 간의 시인관계 분석을 통해 지역민과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도 가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성산성은 옥천·보은에서 유일하게 육로와 수로가 교차하는 결절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신라가 대외 진출로로 삼았던 추풍령로 주변의 성곽에 대한 근접분석 결과, 이성산성이 최근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신라가 간선도로망을 개척하면서 거점산성을 중심으로 지방조직체계를 완성하고 관방체계를 정비하였다 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 이와 더불어, 이성산성은 금강 상류에서 운영되었던 수로망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지니고 있었다. 즉, 이성산성은 수륙교통망의 중심지로서 보은 또는 청산에서 확보한 물자를 수로를 통해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성산성은 백제와 대치하며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옥천 지역 성곽군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지역단위 관방체계로 상정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통해 이성산성이 이러한 관방체계 내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성산성은 성곽들로 구성된 관계망에서 권력과 영향력 확보에 유리하고,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GIS를 이용하여 옥천 이성산성의 공간적 맥락을 재구성하고 분석해 본 결과,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신라 거점성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리한 공간상의 조건과 위상은 소지마립간기에 행하여진 굴산성 개축과 관산성 전투의 승전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굴산성으로 비정되는 이성산성은 고대 삼국항쟁사와 신라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학술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성산성의 실체와 더불어, 고고·역사적 가치가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되길 기대한다.

※ 이 논문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옥천 이성산성과 삼국사기의 굴산성”의 발표문을 수정·가필한 것이다.

투고일 2023. 12. 31 | 심사완료일 2024. 1. 16 | 게재확정일 2024. 02. 05

참고문헌

- 강동석. 2019. 「지석묘사회의 네트워크 구조와 성격 검토」, 『한국상고사학보』105,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23, 「금강 중류 선사~고대 지역사회의 문화경관 변화 -세종 일원의 유적 분포패턴을 중심으로-」, 『호서고고학』56, 호서고고학회.
- 고동환, 2006, 「조선후기 錦江水運과 浦口市場圈」, 『호서사학』43, 호서사학회.
-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옥천 이성산성(1차) 긴급발굴조사보고서 옥천 이성산성』, 국강유적조사보고 제19책.
- 김병남, 2010, 「백제 성왕대 관산성 전투의 의미」, 『전북사학』36, 전북사학회.
- 문안식, 2006, 「백제의 홍망과 전쟁」, 혜안.
- 백영종, 2008, 「소백산맥 북부 일원의 신라 산성 관방체계 연구」, 『백산학보』80, 백산학회.
- 백종오, 2022, 「옥천 이성산성의 성내 시설물 검토와 축성사적 의미」, 『옥천 이성산성의 발굴성과와 학술적 가치』, 한국선사문화연구원.
- 서영일, 1999a, 「新羅 五通考」, 『백산학보』52, 백산학회.
- _____. 1999b,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성정용, 2023, 「산성의 나라 옥천의 역할과 위상, 역사문화 활용방향」, 『관산성 전투와 옥천 서산성의 조사연구 및 향후과제』, 2023년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지원사업 학술대회자료집.
- 양시은, 2023, 「옥천 서산성의 향후과제」, 『관산성 전투와 옥천 서산성의 조사연구 및 향후과제』, 2023년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지원사업 학술대회자료집.
- 윤성호, 2017,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부호, 1999, 「3~5세기 신라의 지방통치체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편석, 2015, 「백제 교통로의 고고학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창은, 2016, 「나체동맹기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 변천」, 『한국학논총』4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_____. 2017, 「6세기 중·후반 신라·백제의 각축과 국경선 변천 – 금산·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67, 고려사학회.
- 전영우, 2022, 「554년 관산성 전투의 배경과 전개」, 『한국고대사연구』107, 한국고대사학회.
- 정영호, 1972, 「김유신의 백제공세로 연구」, 『사학지』6, 단국대사학회.
- 정재윤, 2019, 「삼국통일의 전초전 관산성 전투」,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시작, 한강유역과 관산성』,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조순흠, 2021, 「옥천지역 산성의 현황과 나체 국경선의 변천」, 『2021 옥천산성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옥천향토사연구회.
- 주보돈, 1997, 「6세기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 『한국고대사연구』11, 한국고대사학회.
- 차용걸·조순흠, 2008, 「관산성 관련유적의 현황과 보존방향」, 『충원문화논총』12,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최관호, 2022, 「옥천 이성산성의 고고학적 조사성과」, 『옥천 이성산성의 발굴성과와 학술적 가치』, 한국선사문화연구원.
- 최봉수, 1993,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의 경비에 관한 연구 : 州·府·郡·縣을 중심으로」, 『정책과학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3, 『신라·백제계전지(관산성) 지표조사보고서』.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23, 『옥천 이성산성』, 학술보고 제135책.
- 홍보식, 2022, 「옥천 이성산성 출토 신라 토기의 구성과 특징」, 『옥천 이성산성의 발굴성과와 학술적 가치』,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중원문화재연구원. 2015.『옥천 산계리 군산성(이성산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_____. 2019.『영동 황간 남산근린공원조성부지 내 영동 남성리 유적』, 조사보고총서 제192책.

Silverman, B. W., 1986, Density Estimation for Statistics and Data Analysis, New York, Chapman and Hall.

조선시대 수륙교통로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4-KFR-1230005>

Reconstructing the Function and Role of Okcheon Yiseong Fortress Using GIS

Kang, Dong-Seok(Professor,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Dongguk University)

It is estimated that Yiseong Fortress was renovated along with Samnyeon Fortress. Gulsan Fortress has been discussed as an important strategic point for Silla in the west region of the Sobaeksan Mountain during the battle of the Three Kingdoms. In particular, the article on the renovation of Gulsan Fortress in the Samguksagi is mentioned as an important historical event that can examine Silla's strategy for external expansion, provinces governance, and defense system in the surrounding area. Specifically, it is believed that Yiseong Fortress served as an administrative and military base for Silla as well as a military 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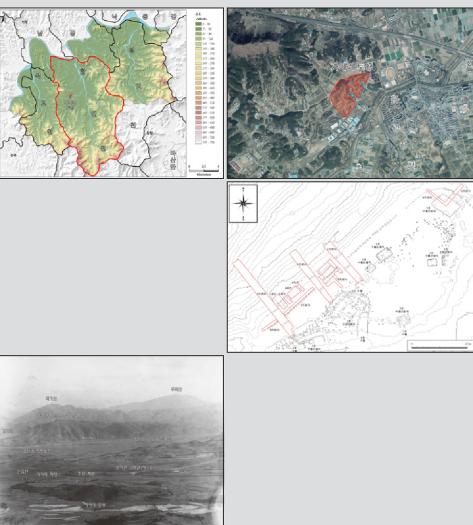
In this paper, the status of Yiseong Fortress was examined using the spatial analysis method of GIS. First,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ruling place, Yiseong Fortress had accessibility and control in terms of topography and geography. Yiseong Fortress was located in a low hill, so it was relatively easy to access compared to the mountain fortresses of the highlands. This means that it is equipped with conditions to more efficiently control the surrounding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ffective control of the local people and the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was also possibl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nces and settlements.

Yiseong Fortress was the only one located in Okcheon and Boeun in a nodule where land and waterways intersect. As a result of a proximity analysis of the

fortresses around Chupungryeong-ro, which Silla used as an diplomatic expansion route, it was confirmed that Yiseong Fortress was recently in close proximity. This is consistent with the historical fact that Silla pioneered the arterial road network, completing the local organizational system around the Hub Fortress, and reorganizing the government ruling system. In addition, Yiseong Fortress also had the advantage of using the waterway network that was operated upstream of the Geumgang River. In other words, Yiseong Fortress would have played a role in securing or supplying goods secured in Boeun or Cheongsan through waterways as the center of the amphibious transportation network.

Yiseong Fortress was included in the fortress group in the Okcheon area, which was at the forefront of confrontation with Baekje. This can be assumed as a regional government-level system, and the spatial status of Yiseong Fortress was examined through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Yiseong Fortress advantageous in securing power and influence in the network composed of fortresses, and occupied a position to exert a strong ripple effect using his power as well as his role as an intermediary. This spatial status of the Okcheon Yiseong Fortress is considered to have served as the background for the renovation of Gulsan Fortress during the period between Soji-maripgan.

Key words : Okcheon, Yiseong Fortress, Silla, defense system, GIS



함안 가야리 토성 소고

- 축조기법과 구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arthen Fortress of Gayari,
Haman - Focused on the Construction Techniques
and Structures -

김 현 봉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특별연구원

I. 머리말

II. 함안 가야리 토성의 입지와 환경

III. 함안 가야리 토성의 축조기법과 구조

IV. 함안 가야리 토성의 성격과 의미

V. 맺음말

국문 요약

함안 가야리 토성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말이산 고분군과 함께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토성 유적이다. 토성은 가야리 구릉에 입지하고 있어, 함안천 유역권 대부분이 탁월하게 조망된다. 조선시대부터 유적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나, 본격적인 고고학 조사는 2018년부터 진행되어 2022년까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가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판축기법으로 축조한 성벽이 확인되었고, 토성 내부에서는 고상건물지 1동과 수혈건물지 7동, 수혈 4기, 주혈군 등이 발견되어 아라가야 지배층의 생활공간이었음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토성은 전체둘레가 약 2.4km로 가야 문화권 토성 가운데 최대규모여서, 부여 부소산성과 경주 월성 등 삼국의 왕성과도 대등한 양상을 보인다. 성벽의 축조기법은 초축성벽과 수축·중축성벽이 차이를 보인다. 초축성벽은 판축기법과 성토기법을 사용해 축조하였는데, 한성백제의 판축 단위와는 차이를 보인다. 수축·중축성벽은 성토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목책을 설치함으로써 방어력을 보강하였다.

토성의 구조는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외성의 동북쪽에서 가야리 제방과 연접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내성의 남쪽에도 추정 제방유적이 존재하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사진과 지적원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유적은 시기에 따라 성벽의 구조가 변모하는데 토성에서 목책성으로 변화한다. 목책성은 다시 사면부 목책과 정상부 목책 단계로 구분되는데, 후자의 경우 성벽을 한 번 더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토성의 축조기법과 구조는 단순히 아라가야의 토목기술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이자 아라가야의 국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리고 가야리 유적 주변에는 봉산산성, 말이산 고분군 서구릉, 선왕 고분군, 덕천 고분군, 필동 고분군, 가야리 제방유적 등 아라가야의 주요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가야리 토성은 아라가야의 왕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제어 :아라가야, 함안, 가야리 유적, 가야 왕도, 왕성, 축조기법

I . 머리말

아라가야는 경상남도 중앙부에 위치한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였던 고대 정치체로 금관가야 및 대가야와 더불어 강성한 세력을 가졌으며, 고대국가 단계까지 발전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조수현 2017). 아라가야는 멸망에 이를 때까지 함안지역 일원에 다수의 유적을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핵심 유적은 함안천 유역권 일원에 분포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말이산 고분군(가야고분군)과 함안 양식 토기를 생산한 천제산 일원의 토기가마군 등이 있다.

아라가야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함안 가야리 토성은 성산산성과 함께 조선시대에도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가야리 토성은 ‘고국유기(古國遺基)¹⁾’, 고국유지(古國遺址)²⁾, ‘고국허(古國墟)³⁾’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함주지(咸州誌)』에는 유적의 둘레가 1,606척이고 토축(土築)으로 지금도 그 흔적이 완연하다고 하였다. 성산산성 역시 ‘가야국구허(伽倻國舊墟)⁴⁾’, ‘가야고성(加耶古城)⁵⁾’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가야리 토성과 함께 가야의 중심지로 인식되었음이 확인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아라가야의 왕궁 추정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가야리 토성에 대한 발굴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마니시 류(今西龍)에 의해 새롭게 제시된 왕궁 추정지는 고분이 군집을 이루는 장소와 관계된 지점으로, ①함안읍내(咸安邑內), ②말이산 동쪽의 들판(末伊山東方ノ廣野), ③신음리 판동마을(伽倻面新音里字冠洞), ④삼봉산 남쪽의 내동과 외동(三峯山下內洞外洞ノ地), ⑤동지산성 남쪽의 대산리(冬只山城南大山里ノ臺地), ⑥가야면사무소 북쪽의 구릉(伽倻面事務所北ノ丘陵上) 등 6개소이다(朝鮮總督府 1920: 300).

가야리 토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가야리 구릉 동쪽, 지금의 작은 가야동 서남쪽으

1) 『咸州誌』卷1, 古蹟 古國遺基 “白沙里 扶寧亭之北 有古國遺墟 周回一千六百六尺 土築遺址 至今宛然 世傳伽倻國舊基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함주지』 가운데 필사본(奎10985,奎12249)은 ‘고국유기’로 인쇄본(TK 3495.8/4883)은 ‘고국유지’로 기록하고 있다. 그 중 인쇄본은 이본(異本)으로 전해진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함주지).

2) 『大東地志』卷5, 咸安郡 城池 加耶古城 “北五里有遺址 ○郡北白沙里 有古國有址 又牛谷東西境上有古墓 高五丈者四十餘所 世傳伽倻時國君之葬.”

3) 『東國輿地志』卷4, 古蹟 古國墟 “郡北白沙里 有古國墟 牛谷東西壠上有古塚 高各數丈者四十餘所 皆其國君之葬 古老相傳.”

4) 『咸州誌』卷1, 古蹟 伽倻國舊墟 “在郡北五里許城山之上 周回四千三百八十三尺 至今城基宛然 隆慶己巳張侯範建書院于此今移琴川.”

5) 각주 2) 참고.

로 초석 추정 석재가 발견된 일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지점에서는 소량의 기와 편과 경질·연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기와류는 지표에서부터 2~3척⁶⁾ 아래에서 발견되어 왕궁지 등 특수한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朝鮮總督府 1920: 303~304).

함안 성산산성은 1910년 고적조사단, 1917년 이마니시 류, 1918년 야스이 세이치(谷井濟一) 등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마니시 류는 성산산성 내부에 자리하였다가 이전한 금천서원(琴川書院)의 기록⁷⁾을 근거로 지대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불며, 샘물이 맑지 않은 성산산성에 아라가야의 왕궁이 있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朝鮮總督府 1920: 284).

해방 이후에 이루어진 성산산성의 발굴조사에서는 성벽의 축조방식과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가야가 아닌 신라가 축조한 것임이 밝혀졌다(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8). 반면 가야리 토성은 2018년도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표조사를 통해 가야리 구릉 일대가 아라가야의 왕궁지로 추정되었을 뿐이다.

왕궁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간 가야리 구릉에서 가장 큰 곡간지인 큰 가야동 일대로 보는 견해와 이마니시 류가 조사하였던 작은 가야동 일대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었다. 전자는 큰 가야동을 둘러싼 구릉의 규모가 약 530m에 달해 『함주지』에 기록된 규모와 유사하다는 점과 두 마을의 규모, 방어적 이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昌原文化財研究所·昌原大學校博物館 1995: 39~41). 후자는 가야리 일대에 남문내(南門內), 남문외(南門外), 선왕동(先旺洞), 대문천(大門川) 등 왕궁과 관련된 지명이 다수 확인되는 점과 작은 가야동에서 초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전해오는 점, 작은 가야동 동쪽에 약 30m 정도의 토루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가 되었다(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1996: 35~39).

그렇지만 작은 가야동 왕궁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토성으로 추정되었던 토루는 발굴조사에서 5~6세기대에 축조된 제방으로 밝혀졌다(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2013년에 이루어진 지표조사에서는 큰 가야동의 북쪽 능선에 약 100m 정도 토성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작은 가야동의 북쪽 능선에서 토성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던 점, 큰 가야동이 작은 가야동에 비해 하천의 영향을 덜 받으며,

6) 광무 6년(1902)의 도량형 개혁부터 일본의 곡척(曲尺)이 사용되어 1척은 30.303cm에 해당한다.

7) 『咸州誌』卷1. 校學校書院琴川書院 “隆慶己巳春郡守張侯範勅建于城山扁曰城山書院 …舊墟也地高而多風泉濁而不可食歲癸未春請于郡守柳侯夢翼移排于琴川之東去…”

내부 공간이 비교적 넓다는 점 등(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13: 61~67)이 그 것이다. 이를 근거로 큰 가야동 일대가 작은 가야동보다 왕궁이 존재할 가능성의 큰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李智璣 2011; 정지왕 2020).

그리고 2018년부터는 큰 가야동의 북쪽 지역에서 발굴조사가 시작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발굴조사는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토 행위로 목탄·소토층과 함께 인위적인 성토층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18년부터 훼손이 발생한 사면부와 그 남쪽에 존재하는 능선의 평坦면을 대상으로 유적의 존부와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유적에서는 토성과 목주열, 고상건물지 1동, 수혈건물지 7동, 수혈 4기, 주혈군 등이 확인되었으며, 유구에서는 6세기 1/4분기부터 3/4분기에 해당하는 아라가야와 대가야, 소가야 양식의 토기가 출토되었다(서미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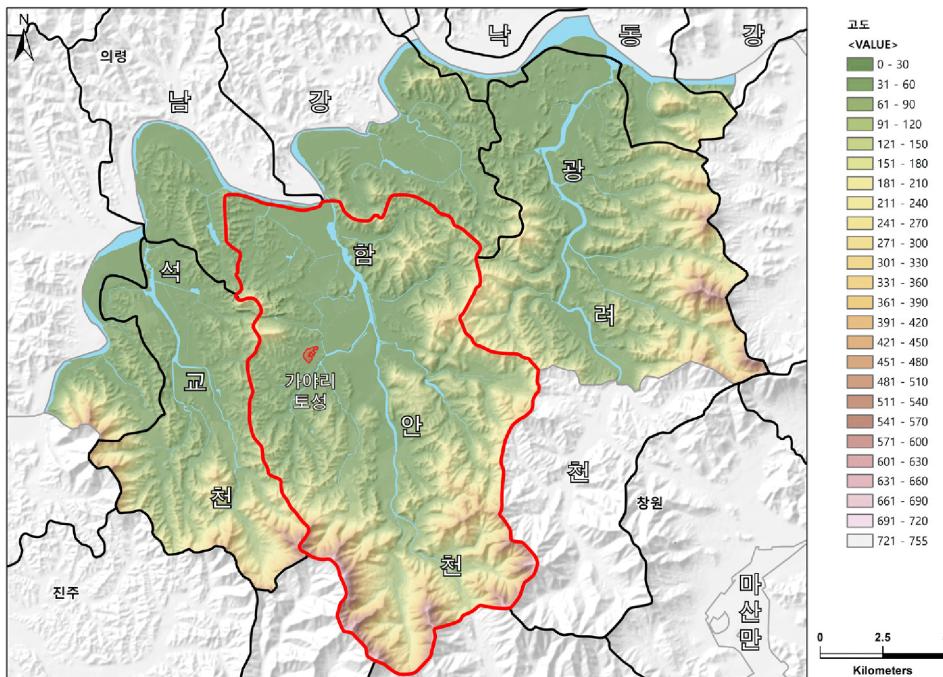
이로 인해 아라가야 왕성의 실체 규명과 가야고도 경관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함안 가야리 토성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되었다.⁸⁾ 그리고 2022년에는 시굴조사에서 토성의 전체둘레가 약 2.4km임이 밝혀지면서 가야 토성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확인되었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23).

고고학에서는 고대국가 형성의 근거로 고분의 조성, 위세품의 존재, 토기 양식의 성립 등과 더불어 성곽의 축조를 들고 있어(한국고고학회 편 2008), 가야리 토성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라가야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가야리 토성의 성벽을 주목해보았다. 이를 위해 유적의 입지와 환경을 살펴본 다음, 성벽의 축조기법과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가야리 토성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 함안 가야리 토성의 입지와 환경

함안지역은 경상남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남고북저의 지형으로 인해 주요 하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남강과 낙동강으로 합류하기 때문에, 함안천과 석교천, 광려천 유역권으로 구분된다. 유적은 함안천 유역권의 중앙부에서 약간 서쪽으로

8) 가야리 유적은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에 지정 면적이 확대되었다. 본 글에서는 유적이라는 용어가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유적의 성격이 성곽이라는 점에서 토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치우친 지점에 있다(도면 1).

유적은 해발 56m를 정점으로 하는 가야리 구릉에 있는데, 북서쪽에는 삼봉산(해발 272.2m)을 위시한 산지가 존재하고 남쪽과 동쪽으로는 비교적 저평한 지대가 이루어진다. 유적 주변에는 함안천의 지류인 신음천과 광정천이 있으며, 그보다 작은 소하천이 가야리 구릉의 북쪽과 남쪽에 흐르고 있다.

유적 주변의 지형은 1920년대 함안수리조합의 하천개량사업(朝鮮土地改良株式會社 1929)으로 인해 크게 변화하였는데, 유로의 직강화 과정에서 제방을 조성하

면서 가야리 구릉 일대는 약 2m 이상의 삑토가 이루어졌다(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1996: 38). 신음천의 유로는 1916년에 측도된 「조선지형도(朝鮮地形圖)」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는 함안 스포츠타운 조성부지내 유적(東西文物研究院 2009)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일대는 범람이 잦은 저습한 곳으로, 조선시대 중기에 발간된 『함주지』에서도 백사리(白沙里)는 지대가 낮아 수해가 자주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⁹⁾ 그리고 대산리와 백사리의 경계에는 높지대가 존재하였는데, 이곳에서 유구국(流球國)이 현납한 물소를 길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수우방목(水牛放牧)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¹⁰⁾ 그리고 백사리를 포함해 남산(南山), 마륜(馬輪), 대산(大山), 대산(代山) 등 개펄에 홍수가 나면 백성들을 시켜 봉어와 잉어를 잡게 하였다는 토산조의 내용¹¹⁾ 등을 통해서도 범람이 잦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을축년 대홍수의 피해를 기록한 『大正十四年 朝鮮の洪水』(朝鮮總督府 1926)에서도 홍수 시에 함안천 중·하류부의 저지대 대부분이 침수되었음을 확인된다.

한편 고환경 분석에서는 아라가야 시기에 해발 7m 지점까지 수위가 상승하여 남강과 함안천이 합류하는 저지대 일대에 고함안만으로 불리는 호소환경이 존재하였다고 한다(류춘길 외 2020: 220). 이로 인해 함안지역 가야 시기의 유적 또한 하천의 범람으로부터 안전한 해발 10~12m 이상에 자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昌原文化財研究所 · 昌原大學校博物館 1995: 7;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21; 李智璣 2011: 43;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9: 28 등).

그렇지만 최근에는 고대 함안지역의 환경에 대한 기존 분석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김현봉 · 김보상 2023: 104~105, 김현봉 2023: 45~46). 우선 함안지역의 고고자료에서 해발 10m 아래에서 삼국시대 유적이 확인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함안 스포츠타운 조성부지내 유적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신음천의 유로가 해발 4.5~5.3m 선상에서 확인되었다는 점과 가야리 제방유적의 기저부 조성면이 해발 5m 선상이라는 점은 함안천 중류부가 해발 7m 선상까지 상시 침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이자 고대인들이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던 사례로

9) 『咸州誌』各里 白沙里 “(本名桃沙萬曆丙戌多改今名) 在郡城北一十里 東南抵牛谷 西接南山 北連馬輪 南北一十里東西九里屬坊七(望慈庵洞 大所洞 伽倻峴 西南洞 本法洞 多邑峴 長命谷)此里地勢最下全被水災 自古無土族之居 風俗則民頑俗蠹闇訟不絕.”

10) 『咸州誌』古蹟 水牛放牧 “代山白沙之界 有汚地 名曰水牛放牧 諺傳流求國獻水牛生命牧牛 此牛飽則入水臥眠云.”

11) 『咸州誌』土山 鯽魚 · 鯉魚 “俱產南山白沙馬輪大山代山有浦等處漲則使民防兼.”

[표 1]『삼국사기』에 기록된 삼국의 도성 범람 사례(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고)

| 국가 | 내용 | 출처 |
|-----|---|----------------------------------|
| 신라 | 여름 6월에 큰물이 났다. 夏六月 大水 | 『三國史記』1 「新羅本紀」1 유리이사금 11(34) |
| | 여름 4월에 폭우로 알천의 물이 넘쳐 집들이 떠내려갔다. 금성의 북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夏四月 暴雨 闕川水溢 漂流人家 金城北門自毀 | 『三國史記』2 「新羅本紀」2 아달라이사금 7(160) |
| | 여름 5월에 큰물이 나서 월성이 무너졌다. 夏五月 大水 月城頽毀 | 『三國史記』2 「新羅本紀」2 유레이이사금 7(290) |
| | 여름 4월에 큰비가 열흘 동안이나 내렸다. 평지에 물이 3~4척(尺)이었고 관청과 민가가 물에 잠기고 떠내려갔으며 산 13곳이 무너졌다. 夏四月 大雨浹旬 平地水三四尺 漂沒官·私屋舍 山崩十三所 | 『三國史記』2 「新羅本紀」2 흘헤이사금 41(350) |
| 고구려 | 여름 5월에 큰 비가 내렸다. 알천의 물이 넘쳐 집 200여 채가 떠내려가거나 물에 잠겼다. 夏五月 大雨 闕川水漲 漂沒二百餘家 | 『三國史記』3 「新羅本紀」3 소지마립간 18(496) |
| | 가을 7월 경도에 큰물이 나서 백성들의 집이 떠내려가고 물에 잠겼다. 秋七月 京都大水 漂沒民屋 | 『三國史記』15 「高句麗本紀」3 태조대왕 7(59) |
| 백제 | 6월에 큰 비가 열흘이나 내렸다. 한강의 물이 넘쳐 민가가 떠내려가고 허물어졌다. 六月 大雨浹旬 漢江水漲 漂毀民屋 | 『三國史記』23 「百濟本紀」1 기루왕 40(116) |
| | (도림이 [개로왕에게] 말하길) 선왕의 해골이 맨땅에 임시로 묻혀있고 백성의 집들은 강물에 자주 허물어지니 … 道琳曰…先王之骸骨 權攢於露地 百姓之屋廬屢壞於河流… | 『三國史記』25 「百濟本紀」3 개로왕 21(475) |
| | 여름 6월에 웅천의 물이 넘쳐서 왕도의 200여 집이 떠내려 가거나 물에 잠겼다. 夏六月 熊川水漲 漂沒王都二百餘家 | 『三國史記』26 「百濟本紀」4 동성왕 13(491) |

큰 의미가 있다.

게다가 문헌에서 삼국의 도성에서도 수해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고(표 1), 범람으로 인해 비옥해진 토지를 활용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그리고 하천 및 해안과 인접한 저지대에서는 김해 관동리 유적(三江文化財研究院 2009)의 사례처럼 선착장이 조성되었거나 김해 가야인 생활체험촌 유적(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5, 2013)과 같이 수변에 인접한 생활유적도 발견되었다.

사실 하천의 범람이라는 자연재해는 계절성을 가지며, 상시적인 침수가 아닌 일시적인 상황이다. 을축년 대홍수는 한강의 본류를 바꿀 정도로 역사적인 홍수로 한반도에 기록적인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범람의 최대침수 범위가 상시적인 침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고환경 분석 역시 고고자료의 현상과 함께 검토한다면, 고대 함안지역에서는 해발 7m 지점까지 수위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최대 침수 범위를 보여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함안지역의 하천 수위는

고김해만의 해수면 상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에 향후 남해안 일대 및 낙동강 하류부에 대한 고환경 분석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 가야리 일대는 해발 7m까지 상시적인 침수 환경이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자연재해의 성격을 지닌 하천 범람이 때때로 저지대에 수해를 가져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야리 동쪽을 남-북으로 흘렀던 신음천은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간헐적 범람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북쪽으로 함안천, 남강과 연결되어 수로 교통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신음천 일대에서 선착장 등 수로 교통과 관련된 유적의 발견을 기대해 본다.

III. 함안 가야리 토성의 축조기법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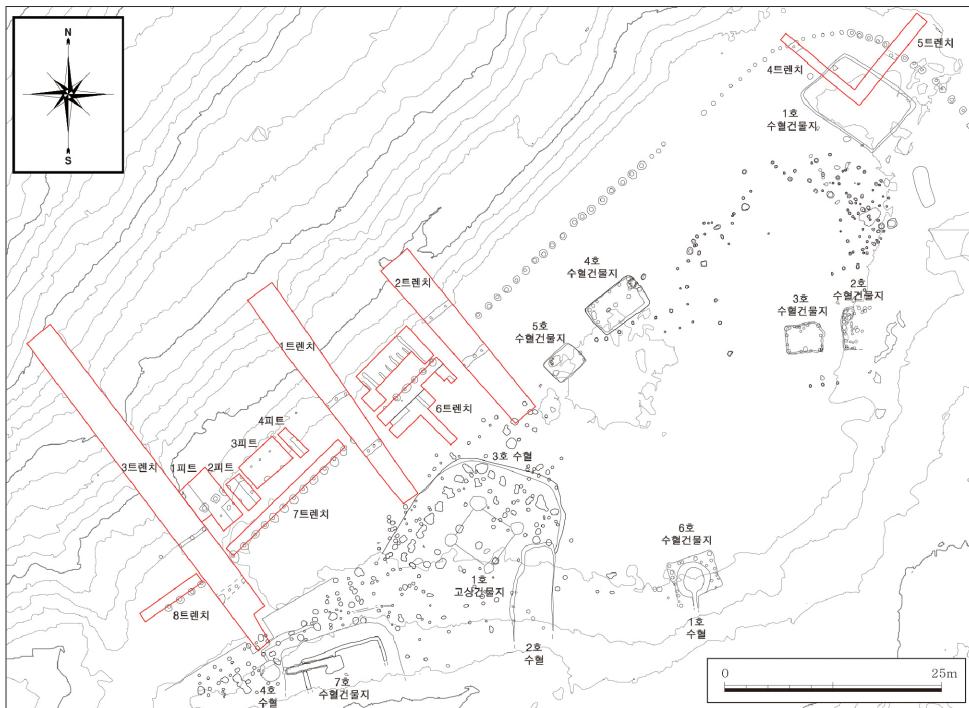
1. 가야리 토성의 축조기법

함안 가야리 토성은 해발 56m를 정점으로 하는 구릉을 둘러싸고 조성되었다. 성벽은 구릉의 바깥쪽 선단부를 따라 축조되었는데, 큰 가야동과 작은 가야동 사이의 능선에서도 성벽으로 추정되는 성토층이 확인되어 구간별로 성벽이 축조된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에서는 성벽 축조기법을 확인하기 위해 성벽의 진행 방향과 이에 직교하는 트렌치를 각각 3개 설치하고 4개의 보완 피트를 설치하였다(도면 3).

토성의 축조기법은 크게 삭토기법과 성토기법, 판축기법으로 구분된다. 삭토법은 지형을 삭토하여 방어면을 형성하는 기법을, 성토기법은 흙을 다짐하는 공정을 반복하여 성벽을 조성하는 기법을 지칭한다. 판축기법은 성토기법의 하나로 목주와 횡장목, 종장목, 판재 등을 사용해 판축구조물을 조성한 다음 그 내부에 흙을 다짐하는 기법이다.

1) 선행연구 검토

가야리 토성의 축조기법 연구는 발굴조사 초기에 이루어졌는데, 체성벽의 축조기법을 두고 성토방식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견해와 판축기법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견해로 구분된다.



[도면 3] 가야리 토성 트렌치 배치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23: 도면 15 일부 수정)

먼저 조사단(이춘선 2018a, 2018b)에서는 2018년도의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성벽의 축조공정을 4단계로 설정하였다. ①구지표의 일부 삭토, ②풍화암반토와 점질토를 이용한 정지면 형성, ③체성부 조성, ④평탄지 조성 순이다. 1단계는 구지표의 삭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성벽의 내부에 해당하는 일부 구간만 삭토하였다. 2단계는 정지면을 형성하는 단계로 성벽의 바깥쪽 목주를 기준으로 성벽 내부 구간과 외부 구간으로 구분된다. 성벽 내부 구간은 풍화암반토와 점질토를 사용해 판축상의 성토다짐이 이루어졌으며 목주를 이용하여 성토재의 이탈을 방지하였다. 성벽 외부 구간은 사질토와 점질토로 성토하였으며, 상면 일부를 불다짐하여 성벽을 견고히 하였다. 3단계는 정지면 상부로 판축상의 성토다짐을 하였으며, 외벽은 점질토로 마감하였다. 4단계는 판축상의 성토다짐 내측으로 성토해 성벽 내부를 평탄지로 만들었다. 한편 성벽의 상부에는 2~3m 간격을 두고 2열의 목주열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성벽을 보완하였던 목책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이희준(2019)은 기존 안을 바탕으로 체성부 조성 단계를 두 단계로 세분함으로써 5단계의 공정을 설정하였다. 체성부의 축조를 중심토루의 1차 조성 및 성벽



[도면 4] 가야리 토성 축조 모식도(①조사단 축조 4단계(이준선 2018a: 삽도 14), ② 목주공법(심광주 2020: 그림 6))

외부 성토와 중심토루 2차 조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중심토루는 조성범위를 표시하기 위해 정지면 형성 단계에 중심토루의 경계면에 구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중심토루의 목주 사이에는 판재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목주가 중심토루의 성토구간을 구획하고 토사의 밀림을 방지하는 지정말목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성벽 상면의 목주열이 조사구간의 동쪽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근거로 문지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외측과 내측 목주열은 구조 및 내부토, 간격의 정형성에서 차이를 보여 각 주열이 기능을 달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이은석(2018)은 이춘선이 제시한 4단계를 인용하며 가야리 토성의 축조기법이 월성의 성벽 축조기법과 유사하고, 특히 경주지역 성곽에서도 불다짐이 관찰된다는 점 등을 통해 신라의 토목기술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심광주(2019, 2020, 2023)는 유적에서 확인된 다수의 목주에 주목하였는데, 목주를 촘촘하게 배치한 다음 횡장목과 종장목으로 고정해 성토다짐하는 목주공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당시 유적에서 판축기법으로 볼 수 있는 토층 구분선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성벽 외부 구간에서 토제(土堤)가 확인된다는 점, 김해 봉황토성, 합천 성산토성 등의 가야 토성과 양산 순지리 토성, 경산 임당토성, 강릉 강문동 토성 등의 신라 토성에서도 목주를 사용한 성토기법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그리고 성벽 사면부에 존재하는 불다짐은 성벽을 강화하는 중요한 공정이며, 구릉의

자연 단애를 1차 방어선으로 삼고 단애 상부를 성토해 방어력을 높이려는 지형보강 공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성벽의 방어력을 보강하고 내부평坦지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밖에도 이혁희(2019)는 백제 토성과의 비교를 통해 판축기법을 적용하여 가야 리 토성의 성벽을 축조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그 축조공정을 3단계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기저부 조성 단계로 기저부 정지와 기초성토가 이루어지는데 조사단에서 제시한 정지면 형성 단계와 관련된다. 이 단계에서 확인되는 불다짐층은 백제와 신라, 가야 토성의 기초성토층에서도 확인되어 삼국시대의 보편적 기술로 판단하였으나 기초성토층의 상면에서 확인되어 수축 또는 보수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체성 축조 단계로 조사단의 정지면 형성 단계 일부와 체성부 축조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세부 공정마다 확인되는 목주에 주목해 처음으로 가야리 토성의 성벽 조성에 판축기법¹²⁾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판축기법 가운데 판축구조물의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공정의 마무리와 중축, 수축 단계이다. 공정의 마무리는 성벽 상면에 2열의 목책이 설치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성벽 외측 구간에서 확인되는 사선 또는 수직의 토층을 근거로 중축 또는 수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축 또는 수축에 대해서는 초축성벽 다음 불다짐층이 포함된 중축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목책이 설치되는 변화 과정을 상정함으로써 시간 차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성현(2020)은 조사단이 제시한 축성 4단계를 검토해 판축기법과 성토기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았으며 적어도 3차례 정도 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1차 개축성벽은 초축성벽의 외벽을 'L'자상으로 굴착한 후 초축성벽과 다른 성토재를 사용해 마무리하였으며, 2차 개축성벽은 1차 개축성벽의 외측을 'L'자상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에 불다짐하고 내부를 성토재로 마감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3차 개축은 성벽 상부에 추가로 성토를 한 다음 목책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가야리 토성이 장기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상현(2021, 2023)은 초축성벽이 성토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목주를 사용해 골조(骨組)를 설치한 다음 성토기법으로 축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심광

12) 연구자별 판축기법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李奕熙 2013: 표 10).

주가 제시한 목주공법과 유사하나 성벽 전체를 하나의 공정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초축 성벽과 수축 성벽을 구분하여 개별 공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초축성벽의 붕괴 이후에는 초축성벽 일부를 계단상으로 삭토한 다음 불다짐하여 보강해 기저부를 조성하고 그 위로 외벽을 성토해 수축성벽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수축성벽에서 달구질흔과 단절된 토층선이 관찰되므로 판축기법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2) 축조기법 검토

선행연구에서는 가야리 토성에서 발견된 목주열은 목주공법의 골조, 판축상 성토다짐의 지정목, 판축기법의 판축목주, 성벽 상부의 목책 등으로, 불다짐은 구조적 강화를 위한 보강기법, 수축 및 개축을 위한 보강기법 등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루어진 최근의 조사에서는 이와는 다른 가능성이 발견되면서 토성의 축조기법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조사 대상지의 북쪽 구역에서 발견된 성벽은 해발 35~43m 선상에 약 105m 구간으로, 그 규모는 최대 높이 9.3m, 잔존 너비 27.4m이다. 성벽의 축조기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기저부 조성 단계로, 삭토법과 성토기법이 적용되었다. 성벽이 들어설 범위를 대상으로 구지표와 기반암의 삭토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¹³⁾ 그리고는 목탄이 혼입된 사질점토를 사용해 10~20cm 내외의 두께로 성토하였다. 이어 중심토루의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과 3트렌치의 외피토루 말단부를 완만하게 'L'자상으로 삭토하였다. 다만, 외피토루 말단부의 삭토는 기저부 성토층이 이어지지 않기에 기저부 삭토시 혹은 외피토루 조성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2단계는 체성부 축조 단계로, 판축기법을 사용한 중심토루, 성토기법을 사용한 외피토루와 내피토루가 차례로 조성되며 초축성벽이 완성되는 단계이다. 체성부 축조는 중심토루를 조성하기 위한 범위를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범위의 표시는 중심토루가 조성될 내측과 외측의 경계면에 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약 6m 내외의 간격을 이룬다. 구를 조성하며 발생한 암반편은 구의 좌우로 성토하였는데 성벽의 외측 방향을 더 두껍게 조성하였다. 이러한 암반편의 사용은 체성부 축조시 성토재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염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3) 함안 안곡산성에서는 성 외측 말단부의 구지표를 미삭토하는 양상이 확인된다(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21: 58).

구의 내부에는 판축목주¹⁴⁾를 설치하였는데 3트렌치에서는 판축목주를 고정하는 듯한 비교적 큰 석재들도 확인되었다. 판축목주는 직경 30cm, 최대 잔존높이 180cm 규모로 성벽의 진행방향을 따라 약 70~80c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옥천 이성산성에서는 판축목주의 간격이 80~90cm이고, 진안 와정토성에서는 0.6~1m 간격을 이루고 있어 가야리 토성 역시 삼국시대 판축목주의 간격과 대체로 유사하다.¹⁵⁾

횡장목은 6트렌치에서 60~120cm 간격으로 9기가 확인되었는데, 2트렌치와 7트렌치에서도 횡장목으로 추정되는 목질흔이 발견되었다. 참고로 부여 부소산성에서는 단면 원형 또는 장방형의 횡장목이, 서울 홍련봉 2보루에서는 단면 원형의 횡장목이 확인되었다. 가야리 토성의 횡장목은 직경 10cm, 최대 잔존길이 480cm 규모이다. 그러나 종장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수축·개축 과정에서 파괴되었거나 후대 경작지로 쓰이며 삭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종방향의 결구는 종장목 외에도 끈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조인규 2019).

그리고 성벽에서 판재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내측과 외측 목주의 경계면을 따라 평면에서 ‘一’자로 토충선이 구분되는 점, 단면에서 수직에 가까운 토충선이 관찰되는 점, 중심토루와 외피토루, 내피토루의 성토재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목주와 횡장목이 동공의 구조로 확인된 점 등을 통해 판재를 설치하였다가 해체하는 공정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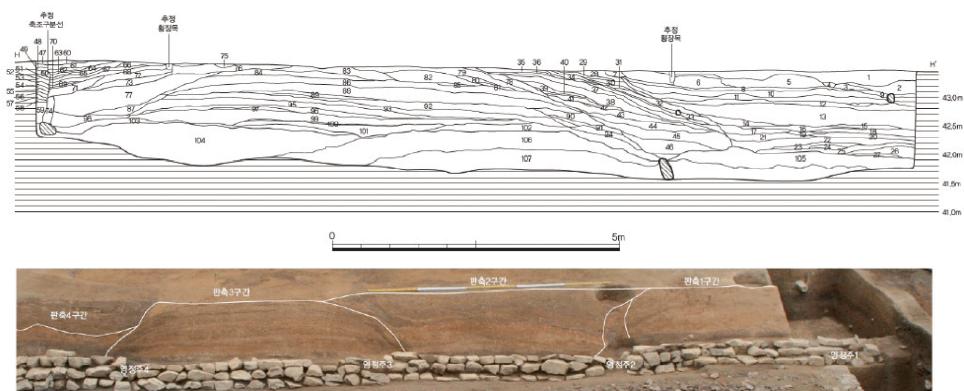
한편, 중심토루 경계면의 단면에는 수직에 가까운 토충선 외에도 단을 지어 올라가는 토충선이나 중심토루에서 내피토루 또는 외피토루로 이어지는 사방향의 토충선도 일부 관찰된다. 중심토루에서 단을 지는 양상은 판재를 안쪽으로 들여쌓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되는데 풍납토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중심토루에서 이어지는 사방향의 토충선은 공정의 마감 내지는 작업로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전자는 중심토루가 설계된 높이에 이르자 이를 피복하여 마감하기 위해 외피토루와 내피토루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조성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따르면 성벽은 현재의 삭평된 높이보다 크게 높아지기는 어렵다.

14) 본 글에서는 판축구조물의 '목주(木柱)'를 목책의 목주와 혼동을 막기 위해 고정하여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판축목주'로 표기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營造法式』을 근거로 '영정주(永定柱)'라는 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 고대 사료를 통해 '정(楨)'과 '간(榦)'이라는 용어가 소개되어 추후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尹武炳 1992; 崔鍾圭 2005: 130~131; 박순발 2021: 13; 김봉근 2022: 246~248).

15) 진안 와정토성은 목책토성으로 보고되었으나 재분석을 통해 판축토성으로 파악되었다(李奕熙 2014).

후자는 축성 시에 인력 및 물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작업로가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유적에서는 판축 구간의 단위가 약 20.1m로 확인되었는데¹⁶⁾ 내부의 다짐층 양상이 판축토성의 기준으로 인식되던 수평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토체를 조성하듯 ‘U’상으로 먼저 조성한 다음 그 좌우로 성토재를 수평에 가깝게 채워나가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확인되었다(도면 5).¹⁷⁾ 중심토루가 ‘U’자상의 다짐층 → 수평 다짐층 순서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긴 판축구조물이 만들 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물의 설치로 공간의 분할이 발생하면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축구조물 내부 및 외피토루, 내피토루로 이동하기 위한 진입로를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도면 5] (상) 7트렌치 북벽 단면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23: 도면 28),

(하) 김해 고읍성 판축토층(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사진 11)

가야리 토성의 판축구조물 조성과정을 복원해보면, 우선 기저부 조성 시 내측과 외측에 약 6m 간격으로 굴광한 구에 직경 30cm, 높이 180cm 이상에 달하는 판축목주를 약 70~80cm 간격으로 설치한 다음 굴광 시에 발생한 암반편과 사질점토를 사용하여 이를 고정한다. 다음으로는 직경 10~15cm, 길이 6m의 횡장목을 내·외측 판축목주와 횡방향으로 결구하고 종방향으로는 종장목 또는 결구끈을 사용해 좌우의 판축목주와 고정한다. 판축구조물의 골조를 설치한 다음에는 판목을 외측과 내측 판축목

16) 6트렌치와 7트렌치에서는 수직의 단설선이 관찰되어 추정 축조구분선으로 보고된 바 있다. 현재는 하나의 판축 구간 단위만 확인되어 향후 수정될 여지가 존재한다.

17) 이와 유사한 판축기법은 김해 고읍성(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 축조 시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에 설치하였을 것인데, 작업로를 위해 일부 구간에는 판재가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성된 판축구조물 내부는 성토재를 부은 다음 직경 10cm 내외의 달구로 달구질함으로써 단단하게 다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외피토루와 내피토루는 성토기법을 사용해 축조하였는데, 불다짐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외피토루에는 경사면에 너비 약 60cm, 두께 약 5cm 내외의 불다짐이 확인되었으며 그 위로 외피토루가 조성되었다. 내피토루에는 너비 약 1m, 두께 약 5cm 내외의 불다짐이 확인되었으며 그 위로 토제가 조성되어 내피토루의 조성범위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피토루와 내피토루는 중심토루의 조성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불다짐 이후 외피토루는 크게 2공정으로 구분되고 내피토루는 트렌치 별로 차이가 있다.

외피토루 1공정은 중심토루 외측에 붙여 삼각형에 가깝게 성토하였는데, 판재를 해체한 이후 수직에 가까운 중심토루를 보강하기 위한 보축 또는 토제의 개념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성이 크다. 다음 2공정은 외피토루의 암반편이 혼입된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전체 부피를 늘린 다음, 회색 점토로 외피토루를 마감하였다.

내피토루는 구간별로 축조기법이 다르지만, 중심토루와 성 내부의 높은 지점을 성토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그중 4·5트렌치에서는 중심토루의 공정에 맞추어 내피토루가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그중에 토기편이 다수 관찰되는 재층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재층의 성격은 합천 성산토성과 같이 축성과 관련된 의례¹⁸⁾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는 단순히 성토재¹⁹⁾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한편 3트렌치에서는 내피토루가 중심토루와 토제 사이에 조성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내피토루의 상부에서는 'U'자상의 토충선과 그 내부에 암갈색 계열의 사질점토, 목탄 등이 확인되어 시기를 달리하는 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수축 과정에서 매립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3단계는 수축 및 증축 단계로, 초축성벽의 외측과 내측에서 변화가 확인된다.²⁰⁾

18) 합천 성산토성의 북벽 내측에서 축성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정형의 수혈유구가 조사되었으며, 내부에서 재층과 함께 인물형 토우, 토기편, 할석 등이 출토되었다(東西文物研究院 2018: 122~143).

19) 경주 월성과 서울 몽촌토성의 고구려 도로 노체에서 유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바 있다(장기명 외 2022; 이혁희 2019: 87).

20) 수축과 보수는 성벽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증축은 성벽의 폭과 높이가 확장되며, 개축은 토축에서 석축으로 또는 석축에서 토축으로의 변화와 같이 성벽 방어면의 재료의 변화가 확인된다(李奕熙 2013: 86~87).

수축의 원인은 초축 성벽의 붕괴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초축 성벽의 붕괴는 중심토루의 수평상의 다짐층이 성벽 외측으로 단을 지며 떨어지는 양상과 5트렌치 평면에서 떠처럼 이어지는 사질점토층 등을 근거로 한다. 특히 단상으로 떨어지는 다짐층은 초축성벽의 외측 상층부에서만 관찰되어 외피토루 방향으로 붕괴가 발생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수축 성벽은 'L'자상의 삭토와 사면부 목주의 설치를 특징으로 한다. 먼저 'L'자상의 삭토는 외피토루와 중심토루 외측 상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삭토 이후에는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중심토루와 외피토루의 성토재를 섞어서 성토하였다.

한편, 사면부 목주는 'L'자상 수축부의 바깥쪽에 1열만 조성된다. 조성 순서는 구와 주혈의 조성, 목주 설치 및 고정으로 이루어진다. 구는 폭 1m, 깊이 40cm로 조성되고 구의 중간마다 110cm 간격으로 주혈을 조성하였다. 주혈에는 직경 30cm 내외의 목주를 설치한 다음 주혈 조성시에 발생한 성토재를 사용해 목주를 고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면부 목주는 주혈에 깊게 설치된 중심주와 구에 설치된 보조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¹⁾



[도면 6] (좌) 사면부 목주 모식도, (우) 사면부 목주 세부(김현봉 2022a: 도 18 일부 수정)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목주에 점토를 발랐다는 점과 화재로 인해 성 외측으로 쓰러진 흔적이 관찰되었다는 점이다(도면 6). 목주에 점토를 바른 사례는 조선시대 목책도니성의 기록이 확인되며, 안성 도기동 산성과 남성골 산성이 목책도니성으로 보

21) 목책의 구조는 주주(主柱)와 보조주(補助柱) 형태를 갖춘 형식과 주(主), 보조주 구분없이 목주(木柱) 위주로 방책을 만든 경우가 있다(孫永植 1988: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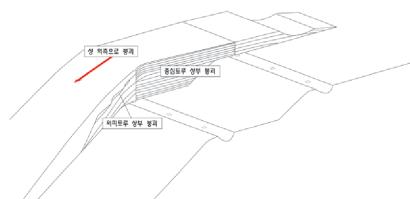
초축성벽

수축·증축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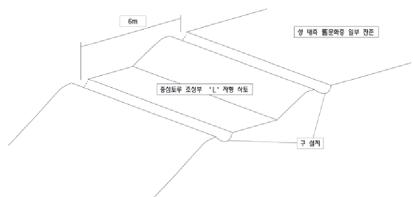
1. 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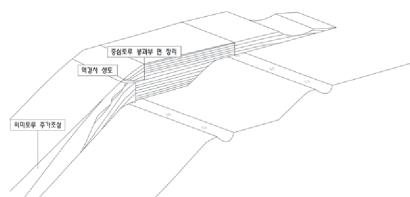
6. 초축성벽 봉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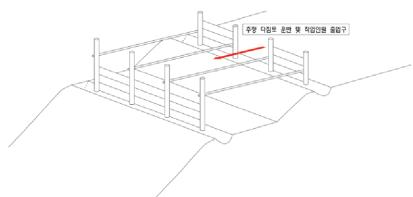
2. 기저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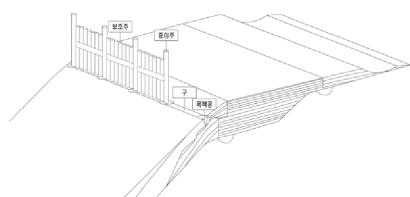
7. 수축부 조성(역경사 성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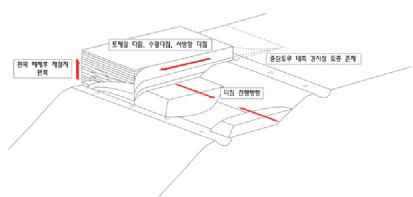
3. 체성부 조성(판축구조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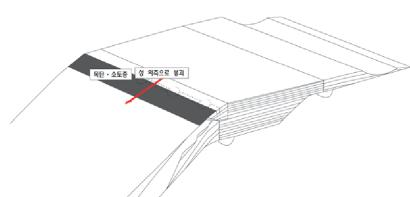
8. 수축부 조성(사면부 목책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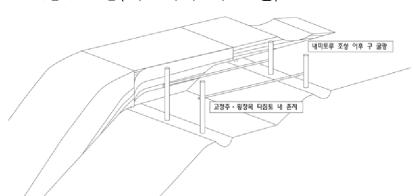
4. 체성부 조성(중심토루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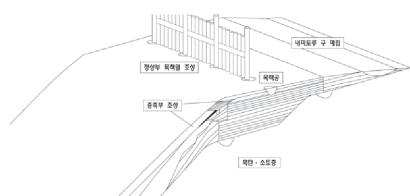
9. 증축부 조성(사면부 목책열 폐기)



5. 체성부 조성(내·외피토루 조성)



10. 증축부 조성



[도면 7] 가야리 토성 성벽 축조 모식도(김현봉 2022a: 도 19)

고된 바 있다.²²⁾ 점토는 탄화된 목주의 위아래로 약 1~5cm 정도 두께로 확인되었으며, 목주에 점토를 발라 내구성과 방화성을 가지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점토에서는 소결흔이 관찰되었는데 성 외측으로 쓰러진 사면부 목주를 따라 소토와 목탄, 황갈색 점질토가 확인되고 있어 이것이 축성을 위한 불다짐이 아니라 화재로 인해 폐기되는 양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목주의 성격은 화재로 인해 폐기되는 양상과 목주의 안쪽으로 존재하는 충위가 목주와 이어지지 않는 양상과 소토·목탄층의 경사도, 사면부 목주의 잔존 범위 등을 토대로 수축을 위한 목주보다 수축 시점에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한 목책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사면부 목책의 폐기 이후에는 한 차례 이상 중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축부는 2트렌치에서 명확하게 보이는데, 성벽의 외측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내피토루의 구를 매립해 성벽의 규모를 확장하는 양상이다. 성벽 외측에는 사면부 목주의 폐기면 위로 암갈색과 회색 계열의 사질점토를 교대로 수평 다짐하였다. 내피토루는 'U'자상의 토총 위로 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사질점토를 사용해 매립하였다.

정상부 목주는 1열 구조로,²³⁾ 직경 약 30~40cm 규모의 목주를 70c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정상부 목주의 조성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주혈 내부의 채움토가 중축부의 내피토루 매립토와 유사하여 성벽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목주의 성격은 사면부 목주와 같이 목책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 4트렌치에서 목주를 기준으로 성벽 안쪽으로 이어지는 층이 존재하여 중축 시에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6트렌치 북벽에서는 이단 굴광된 양상의 주혈이 관찰되어 중심주와 보조주 기능을 하는 목주가 존재하였거나 4트렌치의 경우와 같이 중축 시에 목주를 기준으로 성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상부 목주와 사면부 목주는 목책의 흔적으로 보고 동시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두 목주열은 평면에서 약 5m 정도 떨어져 있고 단면에서 약 2.5m 이상 높이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정상부와 사면부 목주는 주혈

22) 이와 같이 목책에 점토를 발라 사용하는 목책성을 목책도니성(木柵塗泥城)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목책도니성이라는 용어가 조선시대에 쓰이고 있으며 형태도 달라 이를 대체할 용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孫永植 1988).

23) 기존 보고에서는 상부에 2열의 목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벽의 외측에 존재하던 주열이 정형성을 보이지 않고 목주열 단면 조사에서 내부가 부식토로 채워졌던 점 등을 통해 후대 교란 또는 성벽을 보수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의 채움토에서도 차이가 있어 동시기로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가야리 토성의 축성과정을 정리하면 크게 기저부 조성, 초축성벽의 조성, 수축 및 중축성벽의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도면 7). 기저부 조성에는 삽토법과 성토기법이 적용되었고 성토 이후에 한 차례 삽토가 더 이루어졌다. 초축성벽 조성은 판축기법이 적용된 중심토루와 불다짐, 성토기법이 적용된 외피토루와 내피토루로 구분된다. 유적에서는 판축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구를 조성해 중심토루의 범위와 판축목주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횡장목과 종장목 또는 결구끈을 사용하여 판축구조물을 만들었다. 판재는 중심토루의 외측과 내측, 축조구분점에 사용되었으며 해체와 설치를 반복해 판축목주와 횡장목처럼 성벽 내에 존치되지 않았다. 수축 및 중축성벽은 성토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시기를 달리하는 1열의 목주열이 사면부와 정상부에서 확인되어 목책성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벽의 축조시기는 4·5트렌치의 내피토루 성토층에서 출토된 유물과 중축 성벽을 파괴하고 조성된 1호 수혈건물지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서미례(2022)의 견해에 따르면, 성벽 내 출토유물은 6세기 1/4분기로 편년되고 1호 수혈건물지 출토유물은 6세기 2/4분기에 해당되므로 가야리 토성의 성벽 변화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²⁴⁾

2. 가야리 토성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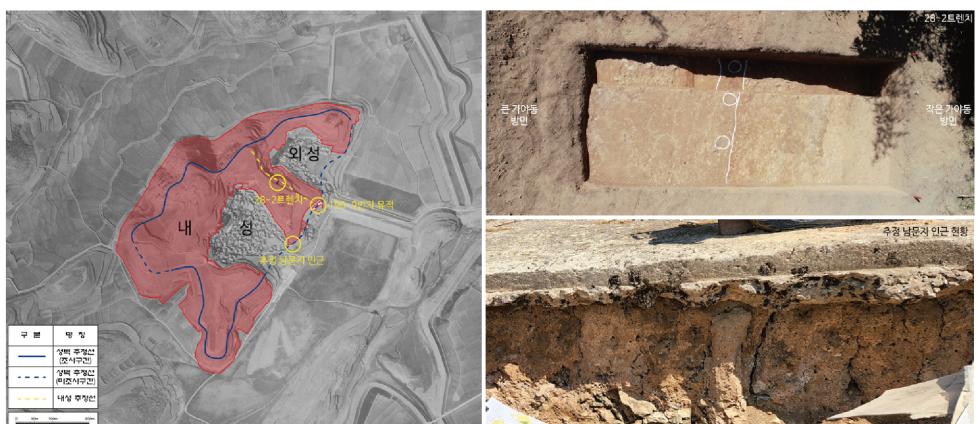
가야리 토성은 큰 가야동 일대를 두르는 둘레 약 1.8km 규모로 추정되었으나(심광주 2019: 64), 2022년의 시굴조사를 통해 성벽의 전체둘레가 2.4km로 확인되며 가야문화권에서 확인된 토성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토성의 전체 구조는 외성과 내성으로 구분되며, 성벽은 토성과 목책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야리 토성의 이중구조는 2022년에 이루어진 시굴조사를 근거로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김현봉 2022b: 92). 내성은 큰 가야동과 작은 가야동 사이의 능선에 설치한 28-2트렌치에서 인위적인 성토층이 관찰된 점에 근거한다. 특히, 성토층의 평면에서는 경계면이 관찰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성토재의 차이가 관찰된다. 그리고 경

24) 기존 보고에서는 상부에 2열의 목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벽의 외측에 존재하던 주열이 정형성을 보이지 않고 목주열 단면 조사에서 내부가 부식토로 채워졌던 점 등을 통해 후대 교란 또는 성벽을 보수한 혼적으로 추정된다.

계면의 인근에는 목주가 3기 확인되었는데 부분적으로 하강 조사한 결과, 발굴조사 구역과 마찬가지로 구의 내부에 목주가 설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외성은 발굴조사구역에서 북동쪽으로 진행되는데, 조사구역과 약 10m 정도로 급격한 단차를 보인다. 외성에 설치한 트렌치에서도 발굴조사구역의 성벽구조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내성과 외성은 성벽의 진행방향에서 차이를 보여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성은 발굴조사구역에서부터 회절하여 동남쪽으로 뻗은 능선을 대상으로 조성되었는데, 외성에 비하여 비교적 완만하게 능선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발굴조사구역의 4트렌치와 5트렌치에서 확인된 구와 판축목주가 내성 방향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 내성과 발굴조사구역이 동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성이 크다. 또한 내성의 진행 방향과 유사한 축선에 제방유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주목된다.



[도면 8] (좌) 1954년도 항공사진에 표시한 가야리 토성의 구조,
(우) 가야리 토성 추정 내성 및 남성벽(상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23, 하 : 필자 촬영)

가야리 제방유적은 곡간지를 막아 물을 가두는 저수(貯水)보다는 범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遮水)에 목적을 두고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방유적은 외성의 동북쪽 인근에서 연결되는 구조로, 말이산 고분군 서구릉-가야리 토성-가야리 북쪽 구릉을 이어주는 형태이다. 그런데 작은 가야동의 남쪽에서도 제방유적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1914년에 측도된 지적원도와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촬영한 유리건판이 그 근거이다(도면 9).

지적원도에는 가야리 234전으로 표시된 제방유적1과 함께 유적의 남쪽에서 동북쪽으로 흘러 신음천으로 합류하는 구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런데 제방유적 1의 남쪽에서는 중앙에 위치한 구를 사이에 두고 가야리 196전과 229전에서 길이 200m 정도

의 돌출된 구조가 관찰된다. 이는 유리건판에서도 확인된다. 건판은 말이산 고분군 서구릉 인근에서 봉산산성 방향으로 촬영되었는데, 사람의 크기 및 구의 존재로 보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인공적인 구조물이 관찰된다. 이를 통해 적어도 1910년대 이전에는 내성의 동남쪽에 하천을 가로지르는 제방유적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⁵⁾



[도면 9] (좌) 함안 가야리 토성 추정범위(1910년대 지적원도).
(우) 함안 가야리 토성 일대 사진(국립중앙박물관 건판001983, 일부 편집)

추정 제방유적은 남동쪽으로 진행하는 내성과 관련성을 보이고 기존에 조사된 제방유적1과 2는 동북쪽으로 진행하는 외성과 관련성을 보인다. 한편, 추정 제방유적과 제방유적1은 토성의 남쪽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곡간지에 조성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언급하였듯 가야리 제방유적은 차수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동일한 곡간지에 2개의 제방을 조성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바깥쪽의 제방유적1이 범람으로 인해 파손되어 수리가 어려워지자 비교적 지대가 높은 안쪽에 제방을 쌓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안쪽에 제방을 먼저 축조하여 사용하다가 공간확보의 필요성, 수위의 감소 등의 이유로 바깥쪽에 제방유적1을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가야리 제방유적1과 외성이 먼저 조성된 다음, 어느 시점에 공간의 구분을 위해 내성을 축조하고 대규모 범람 또는 제방의 붕괴로 인해 내측에 새로

25) 추정 제방유적은 『함주지』에서 확인되는 '백사제언(白沙堤堰)'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일제강점기에 추정 제방의 상부로 더 큰 규모의 제방을 조성하였으며 지금까지 제방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咸州誌』堤堰 白沙堤堰 “在白沙里 周僅二百餘尺 天旱則渴.”

운 제방을 축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추정 제방유적과 내성이 먼저 조성된 다음 시차를 두고 작은 가야동 일대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내·외성, 추정 제방과 제방유적1, 2의 선후 관계는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삼국시대 목책성 조사현황표²⁶⁾

| 연번 | 유적 | 축성시기 | 입지 | 목책열 | 토루 |
|----|------------|----------------|-----|------|----|
| 1 | 연천 호로고루 | 5세기 중반 | 평지성 | 2열 | X |
| 2 | 연천 전곡리 목책성 | 5세기 중반 | 산성 | 2~3열 | X |
| 3 | 화성 길성리 토성 | 4세기 초반~중반 | 평지성 | 1열 | O |
| 4 | 안성 도기동 산성 | 5세기 후반 | 산성 | 1~3열 | O |
| 5 | 충주 장마산성 | 5세기 초반~6세기 | 산성 | 1열 | X |
| 6 | 천안 백석동 토성 | 6세기 초반 | 산성 | 1열 | O |
| 7 | 청주 석화리 목책성 | 6세기 초반~중반 | 산성 | 1열 | O |
| 8 | 청주 봉명동 목책 | 3세기 말~4세기 중반 | 산성 | 1~3열 | X |
| 9 | 세종 남성골 산성 | 5세기 후반 | 산성 | 2~3열 | O |
| 10 | 대전 월평동 유적 | 4세기 후반, 5세기 후반 | 산성 | 1~2열 | X |
| 11 | 완주 배매산성 | 5세기 후반~6세기 후반 | 산성 | 1열 | X |
| 12 | 상주 이부곡 토성 | 5세기 후반~6세기 초반 | 산성 | 1열 | O |
| 13 | 양산 순지리 토성 | 5세기 중반 | 산성 | 2열 | X |
| 14 | 기장 대라리 유적 | 5세기 후반 | 산성 | 6열 | X |
| 15 | 기장 동백리 유적 | 5세기 후반~6세기 후반 | 산성 | 9열 | X |
| 16 | 김해 신기산성 | 5세기 후반 | 산성 | 1열 | O |
| 17 | 합천 성산토성 | 5세기 후반~6세기 | 평지성 | 2열 | O |
| 18 | 함안 가야리 토성 | 5세기 후반~6세기 | 평지성 | 1열 | O |

다음으로 가야리 토성은 토성에서 목책성으로의 구조적 변화가 확인된다. 목책성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는데, 『삼국사기』에 목책성과 관련된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에도 토성, 석성과 함께 축조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孫永植 1988; 閔德植 1995, 2000). 현재까지 삼국시대 목책성은 18개소가 발견되었다.

26) 이외에도 서울 몽촌토성과 경주 도당산 토성, 충주 탄금대 토성 등에서 목책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몽촌토성은 목책 설치 구간 재조사를 통해 목책이 아닌 축성과 관련된 목주임이 밝혀졌으며(한성백제박물관 2016), 도당산 토성의 목책열 역시 축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장기명 2023: 281~283). 탄금대 토성은 트렌치에서 목책으로 추정되는 수혈이 확인되었으나(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45) 조사구역이 한정적이므로 본 글에서는 보류하였다.

는데 대부분이 산성이며 경기, 충청지역에 다수 분포한다(표 2).

목책은 성벽의 사면부와 상부, 능선의 경사면 등에 1~3열을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장 대라리 유적과 동백리 유적의 경우처럼 다수의 열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2열 이상의 목책은 내측과 외측 목책 사이에 목주를 연결해 사용하는 구조로 이해되기도 한다(심광주 2014: 426). 그리고 목책은 축조 주체를 구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중부지역 1열 구조의 목책성은 백제, 2열 구조의 목책성은 고구려의 특징으로 본 견해(심광주 2018)도 있다.²⁷⁾

다만, 영남지역에서는 목책성의 구조를 축성 주체와 연결하는 연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다중의 목책구조를 지니는 기장지역을 제외하면 지역 또는 정치체별로 뚜렷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토유물로만 보면 상주 이부곡 토성과 경주 도당산 토성, 양산 순지리 토성, 기장 대라리 유적, 기장 동백리 유적은 신라, 김해 신기산성과 합천 성산토성, 함안 가야리 토성은 가야에 해당한다. 이들 목책성은 중부지역과 마찬가지로 토루의 존재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신라에서는 순수 목책성과 목책토성이 모두 확인되지만, 가야에서는 토루에 목책을 설치하는 사례만 확인되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순지리 토성의 사례를 통해 순수 목책성에서 토성으로 개축되는 사례가 있으나 가야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목책은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도성)에서도 확인된다. 『三國史記』에는 백제가 한산으로의 천도를 앞두고 한산 아래 책을 설치해 위례성의 백성을 옮겼다는 기록이 전한다.²⁸⁾ 천도를 앞두고 임시로 목책을 설치하였을 수도 있으나 초기 도성으로 비정되는 위례성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하면 일반 백성과는 구별되는 신분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왕이 별거하였다는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 임시 왕성으로 목책성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웅진기 백제는 정지산 일대에 제사유적을 조성하였는데(국립공주박물관 1999), 공간의 구분을 위해 목책을 설치하였다. 목책은 정지산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고 내부 공간을 분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공간 분할을 위한 목책은 사비기 백제 왕성인 부소산성에서도 확인되었다(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이를 통해 백제는 한성기부터 사비기에 이르기까지 왕성 및 왕과 관련된 유적에 목책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중심지에서 목책이 사용된 사례가 확인된다. 『남제서(南齊書)』에

27) 백제에서도 2열 구조의 목책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빈론(안성현 2019: 188~194)도 존재한다.

28) 『三國史記』 23 「百濟本紀」 1 溫祚王 13年(B.C. 6) “秋七月, 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

따르면 부남에서는 나무를 베어 집을 지었는데, 국왕은 이중성벽으로 된 궁궐에서 기거하였는데, 목책으로 성을 지었다고 전한다.²⁹⁾ 이외에도 왜(倭)³⁰⁾와 가라사분(哥羅舍分), 수라분(修羅分), 감필(甘畢)³¹⁾에서 왕과 군장이 목책성에 기거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유구국(流球國)에서도 거주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구와 목책을 삼중으로 두르고 물이 흐르게 한 다음 가시가 달린 나무를 심어 울타리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어³²⁾ 일반적인 생활공간이 아닌 지배층의 거주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목책성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사례를 참조하면 가야리 토성에서 발견된 목책은 왕성으로서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가야리 토성의 목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치 목적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사면부 목책은 초축 성벽의 붕괴로 인해 수축 및 보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성벽의 방어적 기능을 보완하고자 설치하였던 것으로, 정상부 목책은 성벽의 증축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가야리 토성의 목책은 실용적인 기능 외에 대형의 목재를 벌채하고 운반해야 하며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유지보수에도 공을 들여야 하기에 권위를 높여주는 구조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IV. 함안 가야리 토성의 성격과 의미

주지하다시피 함안지역은 아라가야의 형성과 발전, 멸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아라가야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 가야와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후기 가야 시기에 걸쳐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에는 대가야(朴天秀 1996; 이희준 2017; 김세기 2017)와 함께 고대국가 단계까지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조수현 2017)도 제기되었다.

고대국가 형성의 고고학적 근거로는 토기 양식의 성립, 고총 고분의 조성, 성곽의 축조, 위세품의 분배 등을 들기도 한다(한국고고학회 편 2008). 아라가야는 불꽃무늬

29) 『南齊書』 58 「列傳」 39 扶南國 “伐木起屋，國王居重閣，以木柵爲城。”

30) 『三國志』 魏志 30 東夷傳 倭 “…居處宮室樓觀，城柵嚴設，常有人持兵守衛。”

31) 『新唐書』 222 上 · 中 · 下 「列傳」 147 上 · 中 · 下 南蠻 哥羅舍分, 修羅分, 甘畢 “其風俗大略相類，有君長，皆柵郛。”

32) 『宋史』 491 「列傳」 250 外國 7 流球國 “其國壘柵三重，環以流水，植棘爲藩，…”

토기로 대표되는 아라가야 양식 토기를 제작하였으며, 말이산 일대에 고총 고분을 축조해 최상위 위계의 묘역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아라가야는 가야리 토성으로 대표되는 평지성과 그 배후와 외곽에 산성을 축조해 운영하였다.

평지성은 권력과 비권력의 공간을 구분하는 상징물(권순홍 2019)로 축조기술과 고도의 사회적 체계가 갖추어져야 조영이 가능하다. 가야리 토성에서 확인되는 사회적 체계의 증거는 축성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축성 과정은 성을 축조할 지역을 확보하고 축성 범위를 선정하는 것부터 성벽의 토목공학적 설계, 많은 인력의 동원, 막대한 물자의 조달, 성의 운영과 성벽의 보수 등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

먼저 토지의 수용 단계는 대규모 토목사업의 진행에 앞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사회 체계의 개입에 앞서 대략적인 청사진을 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지의 수용은 고구려의 평양지역 활용 사례(김현봉 · 양시은 2021: 77)나 백제의 부여지역 활용 사례(朴淳發 2002: 64), 신라의 저습지 매립을 통한 생활공간 확장 사례(장기명 2020: 140)를 참고하면 미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야의 평지성이 왕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평지성의 인근으로 생활공간의 조성 등도 의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토지의 수용은 기존에 개발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보다 미개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공간의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선대로부터 이어지는 경관적 구조와 방어적 효과 역시 상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야리 일대는 북서쪽의 삼봉산으로 이루어진 산지와 남쪽과 동쪽으로 신음천과 광정천 등의 하천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방어에 유리한 구조를 가진다. 이를 함안지역 광역지형도(도면 1)에서 살펴보면 함안천 유역권을 형성하는 산지가 1차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지나 유역권 내부에 도달하면 함안천, 검암천 등의 하천을 통과해야 하는 등 침입하기 어려운 지형 구조가 이어진다.

한편, 가야리 일대는 서북쪽의 삼봉산에서부터 남쪽의 여항산으로 이어지는 경관이 조망되는데 크게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연경관은 산지와 하천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야리에서 조망되는 함안천 유역권 일대를 칭할 수 있다. 아라가야인들은 함안천 유역권이라는 자연공간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

와 정체성을 형성시켰으며³³⁾ 그 과정에서 여항산으로 대표되는 남쪽의 혐준한 산지와 함안천, 신음천, 남강으로 대표되는 주요 하천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경관으로는 함안천 유역권에 분포한 다수의 아라가야 유적이 존재한다. 말이산 일대는 아라가야 최상위 위계의 묘역으로 선대부터 이어져 온 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가야리 토성의 운용 시기에는 최상위 위계의 묘역이 말이산 동구릉에서 가야리 인근의 서구릉으로 이동해 실재로는 신음천, 광정천에 의해 분리되었으나 가야리 토성에서 조망하였을 때 경관적으로 연속되는 양상이 확인된다(도면 10). 또한, 유적의 북동쪽에는 봉산산성이 위치해 군사적·시각적으로 가야리 토성을 배후에서 막아주는 경관이 조망된다. 이렇듯 유적의 입지 선정 당시에는 방어적으로 유리한 지형과 권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관 구조를 의도하고 위치를 선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0] 봉산산성에서 바라본 가야리 토성 일대 경관(국립중앙박물관 건판031465 일부 편집)

33) 예호규(2014: 520)는 고구려인들이 자연 공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를 활용하며 ‘장소 정체성’을 형성 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다음 단계는 토목기술자를 동원하여 축성 범위를 선정하고 성벽의 설계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아라가야가 토성 축조를 위한 토목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야리 토성의 축조기법은 아라가야의 고유한 기술일 가능성도 있으나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수용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축조기법 가운데 판축기법은 고대 중국에서 발전하였던 기술로 목판과 목주, 횡목, 끈, 흄, 다짐층 등의 흔적을 통해 5개의 유형으로 세분되기도 한다(김봉근 2022). 한반도에서는 백제가 판축기법을 사용해 풍납토성과 부소산성, 나성 등을 축조하였으며(이혁희 2013; 신희권 2014; 성정용 2020), 고구려에서도 아차산·임진강 일대의 보루, 무순 고이산성 등에서 판축기법을 사용한 성곽이 확인되었다(양시은 2016; 이정범 2021). 신라에서는 강릉 강문동 토성과 옥천 이성산성 등 지방 거점성에서 판축기법이 확인되었으나(조인규 2019; 金相憲 2021) 가야에서는 판축기법이 적용된 성곽이 확인되지 않다가 가야리 토성에서 처음 판축기법이 확인되었다.³⁴⁾

이렇듯 판축기법은 고대국가의 성곽에 적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 판축기법을 사용한 성곽이 각 국가의 중앙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백제와 가야는 국가의 중심에 해당하는 왕성의 축조에 판축기법을 사용하였으나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지방 성곽에 판축기법을 사용해 차이를 보인다.

아라가야의 판축기법은 왕성에 판축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백제와 교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나, 아직 백제 판축토성에서 가야리 토성과 같이 긴 단위의 판축구조가 확인되지 않은 점, 판축구조물 내부의 다짐 양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중국 남조 또는 백제에서 판축기법의 개념을 수용한 다음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 교류를 통해 아라가야는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상당한 외교능력을 갖추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축성 단계에서는 인력 동원과 물자의 조달 등이 가능한 조직화된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 가야리 토성의 축성에는 연인원 약 18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김현봉 2023: 61),³⁵⁾ 축성에 사용될 성토재의 채취와 운반, 목재의 벌목, 가공, 이동 등 관련된 인원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이 동

34) 김해 봉황토성에서는 판축기법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慶南考古學研究所 2005). 그러나 봉황토성에서는 가야리 토성과 같이 판축구조물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토제를 조성한 다음 성토하는 기법으로 축조하였으며 성토 중간에 지정 말목을 설치해 성토재의 유실을 방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김현봉 2022b).

35) 축성에 동원된 연인원을 계산하는 식은 이관희(2019: 90)의 안을 따랐다. 계산식은 성벽의 체적(성벽의 단면적(40m^2) × 전체둘레(2.4km)을 「通典」에 기록된 1인당 작업량($19.95\text{尺}^3 = 0.51\text{m}^3$)으로 나눈 값이다.

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대규모의 인력과 물자 동원은 국가 단위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성곽의 축조를 국가 형성의 근거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체계는 축성 이후에도 성곽의 운영과 보수를 위해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는 아래가야의 지배층이 토성 내부에 거주하며 운영하는 단계이다. 성 내부에는 큰 가야동, 작은 가야동, 추정 북문지 등의 곡간지와 구릉의 평탄면이 발달해 있어 다양한 건축물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을 것이다. 건축물은 성격과 기능에 따라 성 내부 공간에 의도적으로 배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나,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부분적이지만, 조사구역에서는 권위 또는 제의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건물지는 1호 고상건물지와 7호 수혈건물지, 1호 수혈으로 조사구역 내 다른 수혈건물지 및 수혈과 규모와 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도면 3). 1호 고상 건물지는 평면 정방형의 1×1칸 구조를 이루는데, 인근의 2호 수혈과 주혈군이 건물지와 같은 축선에서 'ㄱ'자 형태로 건물지를 감싸듯이 확인되어 단독구조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7호 수혈건물지는 1호 고상건물지의 서남쪽에 위치한 길이 11m, 너비 5m의 대형 건물지이다. 건물지의 성격은 양방향이 개방된 구조의 아궁이가 확인되어 취사를 위한 용도로 알려졌으나(한성백제박물관 2021: 147), 지배층의 거주를 위해 난방시설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권오영 2022: 179~180).

1호 수혈은 6호 수혈건물지를 파괴하고 조성하였는데, 이중굴광 형태로 바닥면에 작은 규모의 수혈이 존재하고 남쪽으로 배수로가 조성되어 독특한 구조를 보인다. 이와 같은 구조는 빙고(氷庫) 또는 토기 수비시설(水飛施設)과 유사한데(유병록 · 진성섭 2022), 인근에 생산시설에 관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빙고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정지왕 2020;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23).

유구 내부에는 다양한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그중 상形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도면 11). 상形토기는 연질토기에 투공을 내어 눈을 표현하고 그 상부에 토기를 부분적으로 자른 다음 정돈하여 귀를 형상화하였다. 토기의 하부는 결실되어 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나 동물의 얼굴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形토기는 생활유적에서도 일부 출토되고 있으나 대부분 고분에서 출토되어 수혈이 특별한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건물지는 가야리 토성의 정상부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평탄면에 입지하는 데, 그중에서도 남쪽에 자리하고 있어 함안분지 내부가 탁월하게 조망된다. 1호 고상 건물지는 조사구역에서 확인된 유일한 고상건물지로 성벽과 관련된 망루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고상건물지는 성벽 및 수혈건물지, 수혈과 축선에서 차이를 보이며, 북서쪽의 봉산산성과 남동쪽의 말이산 고분군이 조망되는 축선을 보인다. 고상건물지에서 보이는 경관의 축선은 5세기대 최상위 위계의 묘역인 말이산 동구릉과 6세기대 최상위 위계의 묘역인 말이산 서구릉, 배후산성인 봉산산성으로 이어지는 아라가야 권력을 시각적으로 연결해준다(김현봉 · 김보상 2023). 이를 통해 고상건물지가 경관 구조를 의도하고 조영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유구의 축선 차이를 통해 다른 건축물과 성격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고상건물지의 성격은 단순한 망루가 아니며 보다 상징적이고 권력과 관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헌자료에 등장하는 고당(高堂)의 존재가 주목된다. 고당의 존재는 529년 안라에서 열린 국제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문헌에 따르면, 고당은 국제회의를 위해 새롭게 세워졌으며 그 아래에 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³⁶⁾ 고당의 위치는 충의공원 유적의 대형건물지로 이해되고 있으나(白承玉 2006), 건물지의 사용 시기가 4세기 중엽~5세기 중엽 사이로 편년되어 고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최경규 2019: 139). 반면, 가야리 토성의 고상건물지는 고당회의가 개최된 6세기 전반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편년되고 아라가야의 경관을 잘 보여주며, 대형건물지와 제의 또는 의례용 수혈의 인근에 분포한다. 이를 통해 아라가야 지배층은 국가통치의 공간이자 국력을 과시하는 외교 공간으로 가야리 토성을



[도면 11] 가야리 토성 내부 7호 수혈건물지 및 1호 수혈 전경 및 출토유물(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23)

36) 『日本書紀』卷17 繼體天皇 23年(529) 3月 “是月 遣近江毛野臣 使于安羅 勅勸新羅 更建南加羅 噥已吞百濟遣將軍君尹貴·麻那甲背·麻齒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新羅 恐破蕃國官家 不遣大人 而遣夫智奈麻禮·奚奈麻禮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於是 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國主隨後昇階 國內大人 五昇堂者一二百濟使將軍君等 在於堂下 凡數月再三 謨謀乎堂上 將軍君等 恨在庭焉”.

활용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가야리 토성은 제방유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적의 선후 관계에 따라 그 성격이 확연히 달라진다. 유적 간의 선후 관계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은 제시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제방이 먼저 축조되었을 경우로 대규모 범람으로부터 가야리 일대를 안정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는 삼국의 도성에서도 배수체계를 형성하거나 저습지를 매립하여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사례를 통해 관찰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야리 토성을 먼저 축조하였을 경우로 유적이 운영되던 중에 수해를 경험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는 개로왕 시기에 도침의 조언으로 축조된 제방의 사례(표 1)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제방유적의 성격은 선후관계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으나 가야리 일대가 아라가야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다. 가야리 일대에는 왕성으로 추정되는 가야리 토성과 배후 산성인 봉산산성, 최상위 위계의 묘역인 말이산 고분군 서구릉, 차상위 위계의 묘역인 선왕 고분군, 필동 고분군, 덕전 고분군, 제방유적, 생활유적 등 5세기 말부터 6세기에 해당하는 아라가야 유적이 분포한다. 그리고 고대 교통로는 대체로 산지와 하천 등 주변의 지형을 따라 구축되고 누대에 걸쳐 큰 변화없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이판섭 2018: 53) 이를 참고한다면 제방유적의 상면 또는 신음천 인근에 가야리 일대로 향하는 교통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듯 가야리 일대는 아라가야의 핵심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도성(都城)’(李智璣 2011; 김현봉 · 김보상 2023), ‘왕도(王都)’(김현봉 2023), ‘왕성(王城)’(이동희 2018; 최경규 2019)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V . 맷음말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함안 가야리 토성의 토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토성은 크게 축조기법과 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가야리 토성과 가야리 일대가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우선 가야리 토성의 축조기법은 삭토기법과 성토기법, 판축기법이 사용된다. 특히, 판축기법은 가야문화권에서는 처음 확인되어 주목받았는데, 중국 남조 또는 백제와 기술적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축구조물 내부의 다짐층 양상

이 남조 및 백제와 차이를 보여 아라가야가 주체적으로 기술을 수용하고 변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축성벽에서는 시기를 달리하는 목주열 2열이 확인되었는데, 목책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목책열은 화재로 인해 폐기되어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유적 인근에는 제방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사진과 지적도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방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추정 제방유적은 내성의 진행방향과 정합성을 보여 가야리 일대의 유적 형성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야리 토성의 기획에서부터 운영에 이르는 단계는 고도로 잘 조직된 사회체계를 필요로 하기에 아라가야 역시 고대국가 단계 또는 그 직전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야리 일대에는 최상위 위계의 고분군과 차상위 위계의 고분군, 배후 산성 등이 분포하고 있어 이 일대가 아라가야의 왕도로 운영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함안 가야리 토성의 조사는 사적 전체범위의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상태로 본 글에서 분석한 자료와 상이하거나 시기를 달리하는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성이 크다. 그만큼 본 글에서는 다소 과감하고 비약된 부분이 존재한다. 향후 유적의 지점별로 체계적인 조사를 계획하여 진행한다면 유적의 축조기법과 구조, 축성 시기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유적의 전모와 아라가야 고도에 대한 선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23. 12. 31 | 심사완료일 2024. 1. 16 | 게재확정일 2024. 1. 26

참고문헌

-문·현사료-

『咸州誌』, 『大東地志』, 『東國輿地志』, 『三國史記』, 『南齊書』, 『新唐書』, 『宋史』, 『日本書紀』.

-단행본·논문-

高正龍, 1986a, 「伽倻末期 山城改築에 대한 考察(上)」, 『伽倻通信』 15 · 16, 伽倻通信編輯部.

_____. 1986b, 「伽倻末期 山城改築에 대한 考察(下)」, 『伽倻通信』 17, 伽倻通信編輯部.

권순홍, 2019, 「고구려 도성 내 평지 성곽의 출현과 그 기능」, 『歷史學報』 24, 歷史學會.

권오영, 2022, 「가야의 왕성을 찾아서」, 「가야사의 문제제」 -가야사 새로 보기-,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김봉근, 2022, 「중국 고대 판축기술의 변천양상」, 『2022 백제왕도핵심유적 학술대회』, 문화재청 백제왕도 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金相憲, 2021, 「三國時代 新羅土城 築造技法에 관한 고고학적 研究」, 江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김세기, 2017, 「대가야 고대국기론」, 『韓國古代史研究』 87, 韓國古代史學會.

김현봉, 2022a, 「함안 가야리 토성의 축조기법 검토」, 『함안 가야리 유적 발굴조사와 과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_____. 2022b, 「금관가야, 아라가야 토성의 축성 기술」, 『신라와 가야의 토목기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_____. 2023, 「가야 왕도의 형성 과정 연구」, 『가야 토성의 성격과 의미』, 국립김해박물관.

김현봉 · 김보상, 2023,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 가야리 유적을 통해 본 아라가야 도성의 경관」, 『가야고분군 VIII』, 경남연구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김현봉 · 양시은, 2021, 「고구려 평양도성의 경관 변화와 그 의미」, 『高句麗渤海研究』 70, 高句麗渤海學會.

나상현, 2021, 「가야 토성 축성법에 대한 연구」, 『2019 · 2020년 공모 논문집 – 가야 역사 · 문화 연구논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_____. 2023, 「加耶土城의 築造手法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춘길 외, 2020, 「3. 입지환경 분석 및 고찰」, 『함안지역 가야토기 생산유적 기초학술연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閔德植, 1995, 「三國史記》木柵關係記事의 考察」, 『韓國上古史學報』 19, 韓國上古史學會.

_____. 2000, 「朝鮮時代의 木柵」, 『忠北史學』 11 · 12, 忠北史學會.

朴淳發, 2002, 「熊津遷都 背景과 酒此都城 造成 過程」,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_____. 2021, 「풍납토성 축성의 의의」, 『풍납토성 축성기술의 비밀을 풀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朴天秀, 1996, 「大伽耶의 古代國家 形成」, 『顧晤尹容鎮 教授停年退任 記念論叢』, 記念論叢刊行委員會.

白承玉, 2006, 「6세기 전반 安羅國의 주변정세와 '安羅高堂會議' -咸安 堂山遺蹟 이해의前提-」, 『함안 충의공원 소성부지내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서미례, 2022, 「함안 가야리 유적 물 편년 검토」, 『함안 가야리 유적 발굴조사와 과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성정용, 2020, 「백제의 토목기술과 성곽」, 『2022 백제왕도핵심유적 학술대회』, 문화재청 백제왕도 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孫永植, 1988, 「목책시설의 소고(木柵施設 小考)」, 『文化財』 21, 국립문화재연구소.

신희권, 2014, 「판축토성(版築土城) 축조기법(築造技法)의 이해(理解) -풍납토성(風納土城) 축조기술(築造技術)을 중심(中心)으로-」, 『문화재』 47-1, 국립문화재연구소.

심광주, 2014, 「1. 遺構와 遺物에 대한 考察」, 『漣川 狐蘆占城IV(第3 · 4차 發掘調査報告書)』, 한국토지주택공

사 토지주택박물관.

- 심평주, 2018, 「임진강 유역 삼국의 성곽과 관방체계」,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연구원 · 중부고고학회.
- _____. 2019, 「가야리토성의 축성법과 의의」, 『가야리 유적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 _____. 2020, 「加耶 城郭으로 본 土木 技術」, 『가야인의 技術』,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_____. 2023, 「가야 왕성과 산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가야고분군Ⅷ』, 경남연구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 안성현, 2019, 「한성백제기 하남지역 관방체계」, 『하남 역사 총서 1』, 하남역사박물관.
- _____. 2020, 「慶南地域 古代 城郭의 考古學的研究」, 昌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_____. 2023, 「왕성과 관방」, 『가야 역사 · 문화 연구 총서Ⅲ-분류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양시온, 2016, 『高句麗 城 研究』, 진인진.
- 여호구, 2014, 「한국 고대 공간사 연구의 가능성 모색」, 『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 1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 사계절.
- 유병록 · 전성섭, 2022, 「수혈식 氷庫의 고고학적 연구」, 『아외고고학』 43, 한국문화유산협회.
- 尹武炳, 1992, 「木川土城의 版築工法」, 『百濟考古學研究』, 學研文化社.
- 이관희, 2019, 「가야리유적 토성의 토목학적 의의」, 『가야리 유적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 李道學, 2000, 「加耶系 山城의 한 類型에 관한 檢討」, 『鶴山 金廷鶴博士 頌壽記念論叢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刊行委員會 編..
- 이동희, 2018, 「가야의 왕성과 취락」, 『가야사총론』, 경남연구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이은석, 2018, 「고대 왕성의 비교-아라가야와 신라를 중심으로」, 『아라가야의 역사와 공간』,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 이정범, 2021,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구조와 축조수법 연구」,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이재명, 2021, 「합천 성산토성의 구조와 특징 연구」, 『대가야의 제발견(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대가야박물관 · 대동문화재연구원.
- 李智聰, 2011, 「安羅國 都城의 景觀 研究」, 慶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이춘선, 2018a, 「함안 아라가야 추정 왕궁지 발굴조사 성과」, 『2018 가야문화유산 최신조사성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_____. 2018b, 「아라가야 추정 왕성지 발굴조사 성과」, 『아라가야의 역사와 공간』,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 이관섭, 2018, 「길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예찰 – 삼국~조선시대의 직선 일원과 안성천-」, 『길의 고고학』, 호서고고학회.
- 李奕熙, 2013, 「漢城百濟期 土城의 築造技法」, 한신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4, 「鎮安 臥亭土城의 構造와 性格 再檢討」, 『湖西考古學』 31, 湖西考古學會.
- _____. 2018, 「백제의 토성과 함안 가야리토성의 비교」, 『가야리 유적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 _____. 2019,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삼국시대 문화층의 최신 조사 성과」, 『고고학』 19-3, 중부고고학회.
- _____. 2021, 「백제 한성기 토성의 축조기술」, 『풍납토성 축성기술의 비밀을 풀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이희준, 2017, 『대가야 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 이희준, 2019, 「함안 아라가야 추정 왕궁지 발굴조사 성과」, 『가야리 유적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장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장기명, 2020, 「신라 왕경의 조성 원리와 운영체계」, 『嶺南考古學』 88, 嶺南考古學會.

_____, 2023, 「신라 왕경 토성의 축성 기술과 가야 토성」, 『가야고분군VIII』, 경남연구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장기명 · 최문정 · 박정재, 2022, 「신라 월성 서성벽의 축조 공정과 인신공회」, 『영남고고학』 92, 영남고고학회.

정지왕, 2020, 「아라가야 왕성과 그 주변 경관의 변화」, 『영남지역 고대 도성체계와 방어』, 영남고고학회.

曹秀鉉, 2017, 「古墳資料로 본 阿羅加耶」, 慶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조인규, 2019, 「南韓地域 版築土城의 築造技法에 관한 研究 – 版築틀의 構造를 中心으로–」, 한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2019, 『가야리 유적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최경규, 2019, 「가야 왕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고대도성과 월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한국상고사학회 ·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崔鍾圭, 2005, 「鳳凰土城의 特徵에 대한 探索」, 『鳳凰土城 -金海 會峴洞事務所～盆城路間 消防道路 開設區間發掘調查 報告書』, 慶南考古學研究所.

한국고고학회 편, 2008, 『국가 형성의 고고학』, 사회평론.

한성백제박물관, 2021, 『2021 선사고대기획전 삼국의 부엌』.

홍보석 · 십혈철, 2016, 「각종 고분별 봉분 형태와 축조방법」, 『제40회 한국고고학대회 발표자료집』.

-보고서-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5, 「4. 咸安 蓬山山城 踏查記」,『咸安地域 調査』.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5,『金海 加耶人 生活體驗村 造成敷地 内 遺蹟 I -金海 凤凰洞遺蹟-』.

_____, 2013,『김해 가야인 생활체험촌 조성부지 내 유적 II』.

_____, 2019,『함안 가야리 133~8번지 유적』.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22,『함안 말이산 고분군 75호분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21,『함안 아라가야 추정왕궁지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_____, 2023,『함안 가야리유적 I』.

국립공주박물관, 1999,『백제의 제사유적 艇止山』.

國立文化財研究所, 1996,『扶蘇山城 發掘調查報告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帝釋寺址』.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8,『咸安 城山山城』.

기남문화재연구원, 2018,『安城 道基洞山城』.

東西文物研究院, 2009,『함안 스포츠타운 조성부지내 유적』.

_____, 2018,『陝川 城山里 城址(2015년)』.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08,『金海 古邑城』.

_____, 2021,『함안 안곡산성』.

三江文化財研究院, 2009,『金海 官洞里 三國時代 津址 - 김해 율하택지사업구간 내 발굴조사보고-』.

_____, 2021,『咸安 南門外古墳群-6·7·15號墳 및 21·24역 시·발굴조사 보고서-』.

아라기야학도사연 1회, 1996,『安羅國古城』.

-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咸安 伽倻里 堤防遺蹟』.
- _____, 2013,『咸安 伽倻里 堤防遺蹟』2.
- 朝鮮總督府, 1920,『大正六年度 占蹟調査報告』.
- _____, 1926,『大正十四年 朝鮮の洪水』.
- 朝鮮土地改良株式會社, 1929,『慶尙南道咸安郡 咸安水利組合改善工事費明細書 附 工事仕様書』.
- 中原文化財研究院, 2009,『忠州 彈琴臺土城 I - 2007年度 發掘調査 報告』.
-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2017,『함안군 성곽문화재 기초현황조사 보고서』.
- 昌原文化財研究所·昌原大學校博物館, 1995,『阿羅伽倻文化圈 遺蹟 精密地表調査(咸安郡의 先史, 古代遺蹟)』.
- 한성백제박물관, 2016,『夢村土城 II - 2014년 몽촌토성 북서벽 구 목책 설치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A Study on the Earthen Fortress of Gayari, Haman -Focused on the Construction Techniques and Structures-

Kim, Hyun-Bong(Special Researcher,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Earthen Fortress of Haman Gayari are the remains of Earthen Fortress representative of Aragaya along with the Malisan Ancient Tombs, which were recently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s. The sites are located in the hills of Gayari, which offers an excellent view of most of the Hamancheon Stream basin. Although references to the sites have been confirmed since the Joseon Dynasty, the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began in 2018 and continues until 2022.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Earthen Fortress, which was built using formworked earth techniques, was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in the Gaya area, and the interior space of a Earthen Fortress, one building with an elevated floor, seven buildings with pit-dwelling, four pits, and the pillar hole groups, archaeologically proving it was a living space for the Aragaya ruling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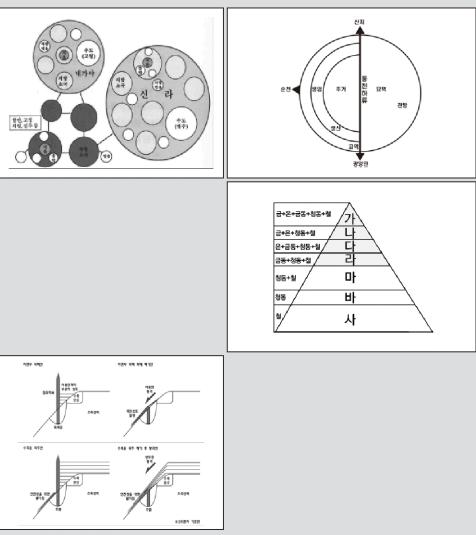
In particular, Earthen Fortress, which has a total circumference of about 2.4 kilometers, is the largest among the Earthen Fortress of Gaya culture, and is on par with the royal fortresses of the Three Kingdoms, such as Buso Fortress in Buyeo and Wolseong Fortress in Gyeongju. The construction technique of the Fortress shows a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wall and the repaired, and the expanded wall. The first wall was built using the formworked earth techniques and the construction metho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formworked earth techniques of Hanseong Baekje. The repaired and expanded wall, embankment technique was

used and the defense power was reinforced by installing a wooden fence.

The structure of the Earthen Fortress consists of inner fortress and outer fortress, and shows a unique pattern connecting the Gayari Embankment from the northeast of the outer fortress. Also in the south of inner fortressthere is a presumptive embankment sites, which is also observed in Japanese colonial era photographs and intellectual maps. And the structure of the wall changes with time, and it changes from earthen fortress to a wooden fortress. Wooden Fortress is again divided into the slope barrier stage and the top barrier stage, and in the latter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wall was raised once more.

The construction techniques and structures of this sites do not simply show Aragaya's civil engineering technology, but it is a clue to understanding exchang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an important evidence to gauge Aragaya's national power. And around the Gayari sites, there are many major sites of Aragaya, including Bongsan Fortress, West ridge of the Malisan Ancient Tombs, Seonwang Ancient Tombs, Deokjeon Ancient Tombs, Pildong Ancient Tombs, and Gayari Embankment sites, so it is highly likely that Gayari Earthen Fortress was the royal fortress of Aragaya.

Key words : Aragaya, Haman, Gayari sites, Royal capital of Gaya, Royal fortress, Construction technique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
원고 집필 요령
원고 투고 요령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중앙문화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中央考古研究』(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 및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 이 있다.

제2조(학술지 발간)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中央考古研究』(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라 한다.
2. 학술지는 매년 3차례(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1. 편집위원은 연구원 내·외의 고고학 연구자 가운데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덕망있는 연구 자를 연구원장이 위촉하며, 5~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역할)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3. 심사를 완료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4.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동향과 자료소개, 서평, 번역문 등의 기획과 심사

5. 기타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의무)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위해 편집위원회는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관련연구자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위원은 당해 학술지 논문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3.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서약서, 투고논문 심사평가서, 논문수정 제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과정)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집필요령에 적합한 지와 형식 등을 살피는 1차 심사를 한다.
2.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편집간사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논문에서 삭제한 후 발송한다.
3. 논문심사위원은 요약문의 적절성, 인용자료의 적절성, 형식요건 및 논문체제, 학술적 수준, 독창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4.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의 학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논문에 대해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된 결과에 대해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논문 게재여부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단계로 결정한다.
 - ① [AAA], [AAB] : 게재 가
 - ② [AAC], [ABB], [ABC], [BBB] : 수정 후 게재
 - ③ [AAD], [ABD], [ACC], [ACD], [BBC], [BBD], [BCC], [CCC] : 수정 후 재심사
 - ④ [ADD], [BCD], [BDD], [CCD], [CDD], [DDD] : 게재불가
6. 심사위원의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의 필자는 자신의 논문을 수정하고 필자회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7.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판정결과에 따른 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호에 한하여 재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 투고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②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투고 되어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적으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8조(게재논문의 조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등 문화재에 관한 논문과 번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집필요령에 따른 형식이어야 한다.

제9조(논문심사위원과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

- 1. 논문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심사위원과 심사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 2. 만일 논문심사자와 심사평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원고료 및 심사료 지급)

- 1. 학술지 게재 원고에 대해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2.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연구원의 허가없이 저작을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연구윤리)

- 1.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자와 논문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中央考古研究』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의 운영규칙 및 『中央考古研究』연구윤리를 위배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때부터 3년간 투고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1.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은『中央考古研究』원고 집필 요령을 따른다.
2. 원고는 중앙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jungang.medsoft.kr>)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3. 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반환한다.

부 칙

1.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0년 3월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6년 10월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

원고 집필 요령

1. (문자) 원고는 한글을 원칙으로 작성하며, 한자는 고유명사나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사용한다.
2. (분량) 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200매 내외의 본문과 도면과 사진, 표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학술지 인쇄 쪽수로 30쪽 내외로 하며, 도면과 사진은 논지 전개상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한다(도면과 사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구성) 논문은 제목, 저자명, 목차, 국문요약,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저자, 영문요약,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요약문) 국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목차, 주제어와 함께 학술지 인쇄 쪽수 1쪽을 넘지 않을 만한 분량(200자 원고지 5~6매)으로 한다. 영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요약문, 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하되, 학술지 인쇄 쪽수 1쪽을 넘지 않을 분량(200자 원고지 8매)으로 한다.
5. (항목) 본문의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章, 項, 目, 細目을 각각 I., 1., 1), (1)의 순으로 기재한다. 서론(머리말)과 결론(맺음말)도 章에 포함시킨다. 목차에는 章과 項까지 기재한다.
6. (주요 표기) 주요 표기는 논문명을 「 」으로, 책명과 정기간행물명을 『 』으로 통일한다.
7. (인용문헌)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하며 가급적 인용한 쪽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적명이 반복적으로 열거되는 경우 처음만 인용문헌을 표기한다.

1) 인용문헌 표기 예

- ① 단독 연구 논문 : (홍길동 2005), (홍길동 2005b), (홍길동 2008: 25), (홍길동 2008: 14~36) 등
- ② 2인 연구 논문 : (이봉룡 · 성춘향 2008), (이봉룡 · 성춘향 2008b), (이봉룡 · 성춘향

2008: 3), (이몽룡·성춘향 2008: 5~7) 등

- ③ 3인 이상 연구 논문 : (홍길동 외 2008), (홍길동 외 2008b), (홍길동 외 2008: 128),
(홍길동 외 2008: 146~151) 등

2) 인용문헌 구성방식의 예

① 홍길동(1998: 21)에 의하면……, 홍길동(1998: 21)은 ……, 홍길동(1998: 21~27)
은 …….

② ……로 보는 견해(홍길동 1998: 21)가 있다., ……로 보기도 한다(홍길동 1998: 215).

③ “홍길동에 의하면 ……라고 한다(홍길동 1998: 21).” 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
되는 표현은 피한다.

8. (각주) 각주는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내용을 간략하게 달 수 있
는데, 각주는 해당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인용문헌 표기법과 동일한 원칙으로 작성한다.

9.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인용한 문헌만 기재하되, 한국어·중국어·일본어·
서양어의 문헌의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과 저서 구별 없이 한국어 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
모순, 중국어와 일본어 문헌은 저자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 문헌은 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출판연도 순으로 작성하며, 한 저
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책수나 간행일이 빠른 것부터 출판연도 뒤에 ‘a, b, c, …’를 덧붙여
구별한다. 공동연구는 같은 저자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배열한다. 참고문헌의 표기 예는
아래와 같다.

1) 단행본의 경우 : 저자명, 출판연도, 『책명』판수,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1)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단행본

① 단행본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제3판, 一志社.

② 발굴조사보고서

國立中央博物館, 2002, 『法泉里Ⅱ』, 古蹟調查報告 第三十三冊 .

③ 번역서

트리거, 브루스(성춘택 역), 1997, 『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학연문화사.

(2) 서양어 단행본 : 서명은 이탈릭체로 작성

Renfrew, C., and P. Bahn, 2004, *Archaeology :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4th ed., Thames & Hudson.

2) 논문의 경우 :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정기간행물명』권 또는 호수,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1)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논문

① 학술지 수록 논문

金元龍, 1952, 「慶州九政里出土金屬併用期遺物에對하여」, 『歷史學報』1, 歷史學會.

② 학위논문

홍길동, 2005, 「韓國 OOOO의 考古學的 研究」, OO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 서양어 논문 : 정기간행물명은 이탈릭체로 작성

Binford, L. R., 1968, Post-Pleistocene adaptations, In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S. R. Binford and L. R. Binford, eds., Aldine.

10. (표, 도면, 사진 등) 표, 도면, 사진은 '[]'를 사용하여 '[표(도면, 사진) 1, 2…]'로 표시하고 그 뒤에 제목을 표기하며, 출전은 제목 뒤에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표, 도면, 사진은 문현화하였을 경우 설명문을 포함하여 가로 13.5cm, 세로 20.5cm를 넘지 않게 편집하여야 한다.

- 1) 표는 본문 중에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제목은 표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
- 2) 도면은 가급적 흑색으로 제작하며, 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한다. 도면과 사진은 본문이나 참고문헌 뒤에 편집할 수 있으며, 제목은 도면이나 사진하단 중앙부에 표기한다.

11. (세부편집요령) 논문의 세부편집요령은 한글의 경우 아래와 같다.

- 1) 편집용지 : 용지종류 B5(4×6배판), 용지여백은 위쪽 15mm, 머리말 10mm, 왼쪽 · 오른쪽 30mm, 아래쪽 13mm, 꼬리말 17.5mm로 한다.
- 2) 문단모양 : 정렬방식은 章만 양쪽 정렬하고 들여쓰기 하지 않으며, 項, 目, 細目은 양쪽 정렬과 함께 첫줄을 들여쓰기하며, 줄간격은 본문 180%, 각주 130%로 한다.

3) 글자모양

- (1) 項目 : 기준크기 15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2) 著者 : 기준크기 11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 (3) 국문요약 : 기준크기 9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줄간격 180%
- (4) 章 : 기준크기 14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5) 項 : 기준크기 12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6) 目 · 細目 : 기준크기 10.5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7) 본문 : 기준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6%, 속성 보통
- (8) 표 · 도면 · 사진 제목 : 기준크기 7.5pt, 글꼴 중고딕, 장평 100%, 자간 -20%, 속성 보통
- (9) 표 내용 : 기준크기 9.5pt, 글꼴 중고딕,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 (10) 각주 : 기준크기 9pt, 글꼴 신명조, 장평 95%, 자간 -9%, 속성 보통
- (11) 참고문헌(제목) : 기준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원고 투고 요령

1. 투고자격 : 국내 · 외 고고학 연구자

2. 투고분야 : 투고된 원고는 고고학에 관한 논문,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문, 서평 등으로서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만한 독창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3. 접수 및 마감 : 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각 호별 논문접수 마감은 당해 학술지 발행일의 두달전(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중앙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jungang.medsoft.kr>)에 회원가입 후 메뉴얼에 따라 논문투고

5. 논문의 제출 형태

- ① 논문은 게재신청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와 함께 원고를 제출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은 아래의 집필 요령에 따라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요약문과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투고자는 게재 확정 통고를 받은 후 1주일 내에 한글파일이 수록된 CD를 출력된 원고 1부와 함께 도면 원본(해상도 300dpi 이상)을 제출한다. 첨부 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

1.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 1)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성과나 주장, 아이디어를 참조할 경우 『中央考古研究』 원고 집필 요령의 인용문현, 각주, 참고문현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2)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비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 4)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를 전부 또는 일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할 경우 연구 표절이라 하며,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5) 일반적으로 타인의 논문 및 저서를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인정한다.
- 6) 연구자 본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하며, 이중게재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하고 학위논문은 예외로 한다.
- 7)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저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자와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의 관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사실과 논문의 내용 등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학술지가 간행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3.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사적인 친분관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원고집필요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관련연구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계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